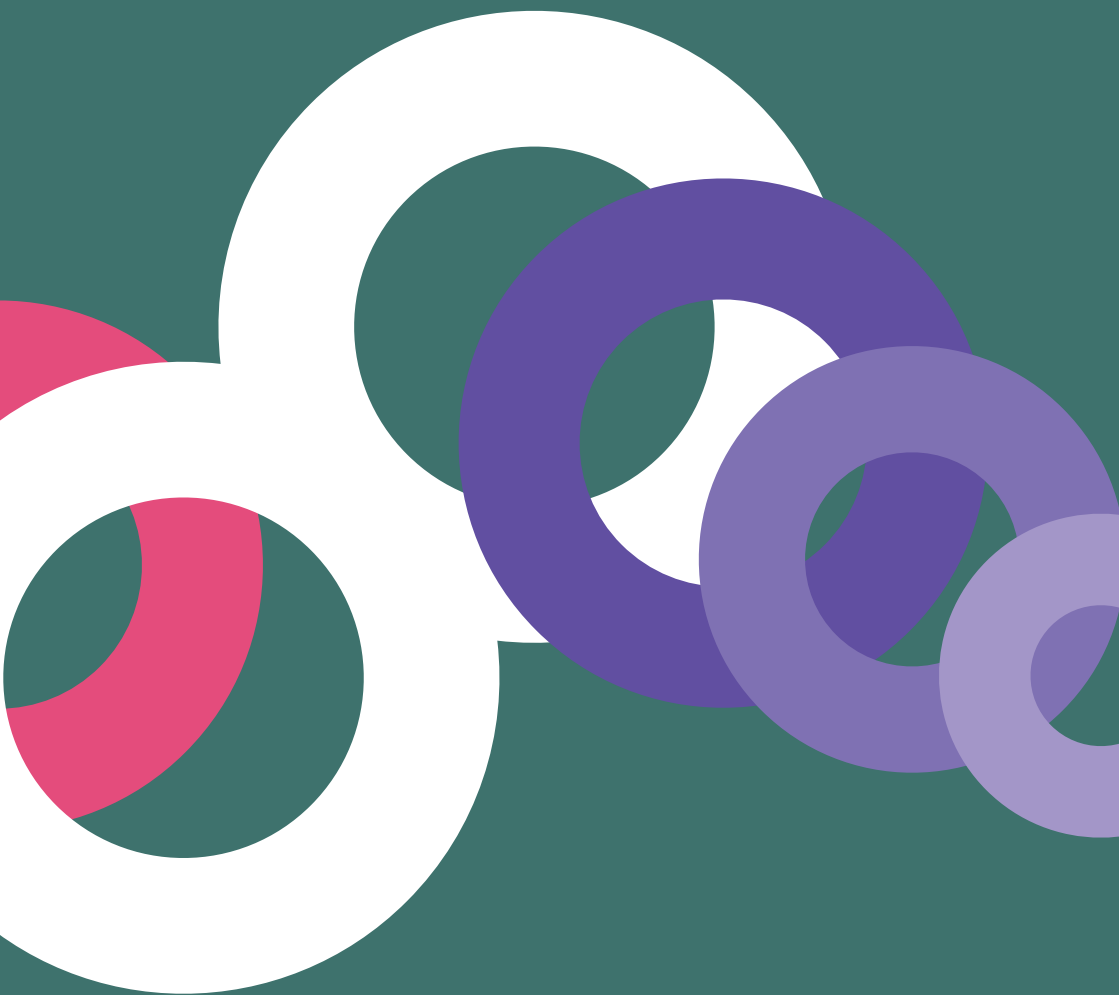


8th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Ulsan Uju Mountain
Film Festival
2023. 10. 20. – 10. 29.



안전한SMR개발로
원전을 미니하게
한수UP!



원전에서 생산한
수소를 클린에너지로
한수UP!

한국수력원자력은 한 수 앞선 에너지 기술로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클린하게 안전하게

 한국수력원자력주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로
한수UP!



BUSAN is READY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응원합니다

SIGG 
www.siggkorea.com





농업에서 꿈을 찾는 사람들
나도 청년CEO



365일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축산물
매일 밥상 미식회



현장·농로 양면 금융서비스
금융 힌스터



이시대의 트렌드 농업·농촌·농협에서 새롭게 즐기세요

농업으로 밝은 내일을 찾고
농촌에서 자연을 즐기고
농협의 새로운 서비스를 누리고
모든 국민들이 이 시대 트렌드를 만나
더 가치있는 삶을 마음껏 누리도록
농협이 트렌드의 중심이 되어
즐거움이 가득한 생활을 열어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 농촌 여행
뉴트로 감성여행

오늘의 생활미식
까도까도
매력양파

최 속의 진주 양파로
평생 건강하게!



도시거리의 힐링 휴터
주말 도시농부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NH 농협

내 발에 꼭 맞는 휴식 K O L P I N G 데일리템



콜핑 전속모델
홍지윤

2023 KOLPING F/W SHOES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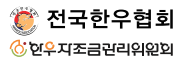
- | | | | |
|---|--|---|--|
| 
베스트 KFM1387MU
SIZE : [M] 255 ~ 265 / [U] 230 ~ 285
COLOR : [M] D-NAVY / [U] D-BROWN | 
젠들 KVM1381MWU
SIZE : [M] 255 ~ 290 / [W] 225 ~ 250 / [U] 225 ~ 290
COLOR : [M] GREEN / [W] D-BROWN / [U] BLACK | 
그랜드 KVM1382MWU
SIZE : [M] 255 ~ 280 / [W] 225 ~ 250 / [U] 230 ~ 285
COLOR : [M] BLACK / [W] BLACK/PINK / [U] D-GRAY | 
아택 하이 KVM1383MW
SIZE : [M] 255 ~ 290 / [W] 225 ~ 250
COLOR : [M] BLACK / [W] BROWN |
| 
아택 로우 KVM1384U
SIZE : 230 ~ 285
COLOR : GRAY | 
엘라스틱 KFM1385U
SIZE : 220 ~ 270
COLOR : BURGUNDY, BLACK, GRAY, BLUE | 
폴드 KVM1380U
SIZE : 230 ~ 285
COLOR : BEIGE, RED, BLACK | 
플러피 KFM1386U
SIZE : 220 ~ 290
COLOR : BLACK, D-GRAY, GRAY |



후원 Supportor



협찬 Sponsor



인사말 / 축하	Greetings / Congratulations	6
포스터 / 트레일러	Poster / Trailer	13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상	Ulsan Ulju Mountain Culture Award	15
경쟁부문 및 시상안내	Competition & Awards	18
상영 및 티켓안내	Screening & Ticket Information	28
행사일정표	Festival Schedule	34
개막작 & 폐막작	Opening Film & Closing Film	44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48
산	Mountain	70
자연	Nature	86
인간	Human	100
올해의 산 / 타트라 - 폴란드	Guest Country / Tatra - POLAND	114
올해의 산 / 프리퀼: 돌로미티 - 이탈리아	Guest Country / Prequel: Dolomite - ITALY	132
코리아안 웨이브	Korean Wave	140
투게더	Together	156
움프 프로젝트	UMFF Project	182
페스티벌 프로그램	Festival Program	218
조직 / 스태프	Organization / Staff	238
도움주신 분들 / 관객리뷰단	Acknowledgement / Audience Reviewer	240
상영본 제공처	Contacts	241
색인	Index	245



이순걸
Lee Soon-geol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이사장
UMFF Chairman

가을 역사의 아름다운 은빛 물결로 가득한 울주 영남알프스에서 열리는 제8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내 유일 산악영화제이자 세계 3대 산악영화제로 성장 중인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어느덧 올해 8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산악영화제에서는 ‘함께 오르자, 영화의 산’을 슬로건으로, 경쟁과 인간의 삶, 역사를 만들어가는 산악인,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다룬 36개국 총 151편의 다양한 영화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산악영화제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로 새롭게 확대된 만큼 상영공간을 기존 영남알프스뿐만 아니라 태화강국가정원으로 넓혀 접근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또한 울산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자전거 전원(電源) 영화관 운영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파쿠르와 MTB 등 스포츠 액티비티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관람객 여러분께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물품 보관 및 산악가이드(등반안내, 등반 용품 렌탈)를 위한 종합 안내시설을 설치해 관객 서비스를 강화했으며, 영남알프스 완등인의 날, 울주 트레일 나인 피크, 전국MTB챌린지, 하프마라톤 대회 등 산악문화 협력사업도 더욱 확대했습니다.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는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통해 자신의 극한을 시험하며 각 분야의 최고에 도전하는 사람들, 급변하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지친 여러분의 일상을 치유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8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울주의 다채로운 산악문화와 함께 올 가을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Warmest greetings to all attending the 8th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 in Ulju's beautiful Yeongnam Alps, filled with the silvery waves of autumn reed grass.

UMFF, the only mountain film festival in Korea and ranked as one of the top three globally, continues to grow and is now celebrating its 8th year. Under the slogan "Come up higher, Cinemountain," this year's festival will showcase a diverse selection of 151 films from 36 countries. These films will explore themes such as competition and human life, mountaineers making history, and coexistence between nature and humanity.

A significant highlight this year is the expansion from being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to the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which broadens our screening venues from the Yeongnam Alps to include the Taehwagang River National Park, greatly increasing accessibility. We have also partnered with UNIST to develop a bicycle powered cinema, and prepared various activity experience programs, including parkour and MTB. To enhance our visitor services, we have established a visitor center offering storage facilities and mountain guides (climbing information, rental services for climbing gear). In addition, we have expanded our mountain culture cooperation projects to include events such as the Yeongnam Alps Summertime Day, Ulju Trail Nine Peaks, National MTB Challenge, and the Half Marathon Competition.

As UMFF continues its steady growth, our mission is to bring you healing and comfort. We are exhausted from Covid-19 and extreme heat waves. Let's take a moment to unwind with people who push their limits and strive for excellence, as well as those who thrive amidst the rapidly changing nature.

Finally, I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to all those who have supported us in making the 8th UMFF a resounding success. I hope you can make precious memories this autumn alongside the diverse mountain culture of Ulju. Thank you.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 집행위원장으로 처음 인사드리는 엄홍길입니다.

매년 홍보대사로서 함께 해온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올해 처음 집행위원장으로 관객분들을 맞이할 생각을 하니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합니다.

저에게 8은 특히나 의미가 깊은 숫자입니다. 히말라야 8,000미터 고봉들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 8은 무한대의 힘을 가진 숫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8회를 맞이하여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이 되었으니 특별한 의미가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또한 제8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는 울산과 울주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해입니다. 사계절 내내 천상의 풍광을 자랑하는 영남알프스는 물론, 울산을 더욱 특별한 도시로 만들어주는 태화강국가정원에서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울산과학기술원과 함께 기획한 옴프페달극장은 자전거 동력을 이용,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 우리나라 최초의 상영관이 될 것입니다. 울산의 청년들이 직접 태화강 시네마를 운영하고, 울산의 청년 작가들이 참여하는 울산아티스트로드까지... 울산과 울주가 만나 더 풍성하고 흥미로운 영화제가 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저와 사무국의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한 8회 영화제를 선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속에서 감동과 치유, 그리고 멈추지 않는 도전정신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저, 엄홍길이 히말라야의 성스러운 기운을 담아 기를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everyone who loves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

This is Um Hong-gil, serving as the festival director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I am both nervous and excited as I take on the role of festival director in a festival for which I've been an ambassador in past years.

The number 8 holds a particularly deep meaning for me. This number reminds me of the 8-thousanders of Himalayas as a symbol of infinite strength. As I become UMFF's 8th festival director, the number gains another special meaning.

Also, the 8th UMFF marks a new partnership between Ulsan and Ulju. We welcome you to the Taehwagang River National Park where Ulsan is made all the more special, and of course, in the beautiful Yeongnam Alps where beauty surrounds us all four seasons. The Eco Bike Cinema, co-planned with UNIST, will become Korea's first screening venue powered by bicycle motion, utilizing eco-friendly energy. The youth of Ulsan will personally manage the Taehwa River Cinema, while the young writers of Ulsan will participate in the Ulsan Artist Road... Ulsan and Ulju come together to bring you a richer and more intriguing film festival.

On October 20th, 2023, all of us, working tirelessly behind the scenes, will proudly present the 8th edition of the film festival. We eagerly anticipate the moment when you come to enjoy what we have worked so hard to prepare – inspiration, healing, and the unyielding spirit of challenge amidst nature.

Lastly, I extend my wishes for your health and well-being. Please accept Um Hong-gil's sacred energy from the Himalayas. Thank you.



엄홍길
Um Hong-gil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집행위원장
UMFF Festival Director



김두겸
Kim Doo-gyeom

울산광역시장
Mayor of Ulsan Metrocity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장 김두겸입니다.

올해는 국내 최초의 산악영화제인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울산을 대표하는 영화제로서 새로운 이름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로 첫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애써주신 엄홍길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영화제 관계자와 출품 및 공모에 참여하신 영화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영화제는 울산 전역으로 스며드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태화강 시네마, 구·군 문화공연 등 축제의 공간을 확대하고, 영화제 정체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국가와 문화가 하나로 모인 공간에서, 자연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영화가 전하는 감동을 느껴보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산, 자연, 인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울산을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루어낸 이 영화제가 더 큰 꿈과 기대를 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화제 준비에 힘써주신 관계자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꿀잼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 am the mayor of Ulsan Metrocity, Kim Doo-gyeon.

Korea's first mountain film festival, the "Uiju Mountain Film Festival," has adopted a new name this year to represent Ulsan: "Ulsan Uiju Mountain Film Festival".

I extend my gratitude to all who have dedicated themselves for the festival's successful new beginning, including festival director Um Hong-gil, the festival staff, and the filmmakers.

This year, the festival aims to create a celebration that permeates throughout Ulsan, bringing a bounty of things to see and enjoy for everyone. To this end, we have extended the festival's venues to include the Taehwa River Cinema and City&County Cultural Performances, and introduced new programs strengthening UMFF identity.

In this place where various countries and cultures come together as one, we hope you are moved by the films bringing people and nature, people and people together. We wish you happiness here.

I am confident that this year's UMFF, with the theme "Mountain, Nature, Human" will establish itself as a film festival representing Ulsan, and continue to grow into a global film festival. In response to your passion and dedication, I pledge to provide generous support to ensure that this festival can pursue even bigger dreams and expectations.

Once again, I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to all those who have worked tirelessly in preparing for the festival. We will continue to work diligently to make our city a honeypot of entertainment for everyone.

Thank you.

반갑습니다.

영남알프스의 은빛 역사가 아름다운 10월의 가을입니다.

제8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내외에서 오신 모든 분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스티븐 베너블스를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께도 각별한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알찬 축제를 준비해주신 엄홍길 집행위원장과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주에서 울산으로 영화제의 지평을 넓혀주신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이순걸 이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영화, 음악 등 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산이 축복이라면, 영화제는 선물입니다.
축복과 선물을 한꺼번에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입니다.
오르고, 보고, 듣고, 함께 하는 공간에서 함께 하는 모든 것이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움프(UMFF)에선 여러분 모두가 움피니스트(UMFFinist)입니다.
움피니스트답게, 열흘간의 축제를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he silvery reeds of the Yeongnam Alps are beautiful here under the October breeze.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8th Ulsan Ui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
I warmly welcome and thank everyone visiting from all around the world.
My special congratulations to to Stephen Venables and all award recipients.

I also want to express my gratitude to Festival Director Um Hong-gil and all UMFF personnel who worked tirelessly to create such a rich festival.

My appreciation go to Ulsan Mayor Kim Doo-gyeom and UMFF Chairman Lee Soon-geol for their efforts in expanding our film festival from Uiju to Ulsan.

UMFF has brought together the best of mountains, from film to music.
If mountains are blessings, then this film festival is a present.
UMFF is where you can enjoy both blessings and presents from one location.
Whether you're climbing, watching, listening, or simply being together, sharing this time and space is the true value that UMFF aspires to achieve.

At UMFF, you are all UMFFinists.
In the spirit of a true UMFFinist, enjoy yourselves during the 10 days of our festival.
I wish everyone health and happiness in the days ahead.

Thank you.



김기환
Kim Ki-hwan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Chairman of Ulsan Council



김영철
Kim Young-cheol

울주군의회의장
Chairman of Ulju Council

영남알프스의 아름다운 경관을 스크린 삼아 제8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영화제를 찾아주신 국내외 산악·영화계 관계자 여러분들과 관객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먼저, 영화제 개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두겸 울산시장님, 그리고 영화제 준비에 힘써주신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이순걸 이사장님과 엄홍길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본 영화제는 개최 2년만에 국제산악영화협회(IAMF) 정식 회원 등록, 산악영화제로서는 최초로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 회원 가입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브랜드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산악 전문 국제영화제로서 산악문화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는 것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로 명칭을 바꾸고, 이곳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를 중심으로하던 영화 상영과 행사를 태화강국가정원 일대로 확대하는 등 그 규모를 키웠습니다.

울산시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이제 울주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대표 산악인 엄홍길 집행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새로이 정비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영화제에 거는 기대 또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10일간 '함께 오르자, 영화의 산'을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제8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주는 감동이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8th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 against the beautiful backdrop of Yeongnam Alps. I also warmly welcome all the mountaineers and filmmakers visiting from around the world.

First and foremost, I would like to appreciate Mayor Kim Doo-gyeom, whose unwavering support has been invaluable to UMFF. I also wish to appreciate everyone who have worked diligently in festival preparations, including UMFF Chairman Lee Soon-geol and Festival Director Um Hong-gil.

Within just two years of its inception, UMFF has achieved notable milestones that has enhanced its brand value, such as gaining official membership in IAMF and becoming the first mountain film festival to join the NETPAC. UMFF is undoubtedly Korea's first and only international mountain film festival, currently at the forefront of popularizing mountain culture.

This year, UMFF has grown. Not only has it changed its name from Ulju Mountain Film Festival to include Ulsan, but also expanded its screening venues from the Yeongnam Alps Welcome Center to the Taehwagang River National Park area.

Now with solid support from Ulsan City, UMFF has now broken past the local boundaries of Ulju. Expectation is high for the festival, which is now under new leadership of Korea's renowned mountaineer Um Hong-gil serving as the festival director.

I hope that the next 10 days of UMFF, held under the slogan "Come up higher, Cinemountain" will touch the hearts of people far beyond Ulsan and Korea, reaching out to the world.

Thank you.

제8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산악영화는 자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담아내고 그 속에서 동경과 모험, 도전과 실패, 그리고 성공을 보여주며 우리의 삶을 이야기 합니다.

올해 8주년을 맞은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이러한 자연과 인간의 삶을 세상에 소개하며 한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산악 영화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다시 시원한 가을로 돌아와 관객을 만납니다. 자연에서 이야기하고 채우며, 자연에서 펼치는 삶을 발견하고 자연 속 여행을 떠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관계자분들과 산악인 및 영화인들께도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수한 산악영화로 세상을 연결해 준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앞으로도 한국 영화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길 응원합니다. 아울러 영화진흥위원회 역시 창립 50주년을 계기로 K-무비가 세계 영화문화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미래 문화산업의 주축이 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commencement of the 8th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

Mountain films portray our lives intertwined with nature, narrating our aspirations, adventures, challenges, failures, and triumphs.

Now in its 8th year, UMFF continues to spotlight these narratives about nature and people, firmly establishing itself as a mountain film festival representing Korea and Asia.

This year, UMFF returns with the cool breeze of autumn. May it serve as an opportunity to be immersed in nature, sharing stories, discovering life within it, and taking a journey into nature. Additionally, I extend my support and encouragement to the UMFF organizers, mountaineers, and filmmakers.

I also hope that this festival, which has connected the world through outstanding mountain films, continues to elevate the future value of Korean films.

Furthermore, on the occas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Film Council, we commit to putting more effort into making K-movies the leader in global film culture and the cornerstone of Korea's future cultural industry.

Once again,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Thank you.



박기용
Park Ki-yong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Chairperson of
Korean Film Council



그래픽작가 Graphic Designer
장우석 Jang Woo-seok

울산과 울주가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 8회 영화제의 의미를 담아,

울산, 울주의 첫 초성인 '우'가 만나,

숫자 '8' 이자 무한의 기호가 만들어지는 형상을 표현했습니다.

울산과 울주가 만나 탄생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융합과 가능성, 그리고 축제의 움직임을 담았습니다.

To symbolize the significance of the 8th UMFF, where Ulsan and Ulju join forces,

I've taken the "U" from Ulsan and Ulju (symbolize by "0" in Korean),

to create both the number "8" and the infinity symbol.

This design encapsulates the convergence of Ulsan and Ulju in UMFF, as well as the potential and the dynamics of the film festival.



영상감독 Video Director
김양령 Kim Yang-ryung

제8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트레일러는 '산과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장면마다 쏟아지는 경이로운 대자연과 그 속에서 거친 걸음을, 경이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자연은 인간을 끊임없이 도전하도록 독려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도전하도록 만듭니다. Come up higher! 더 나아가고, 더 오르고, 더 높은 곳을 향하는 도전의 역동적이고 다양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The trailer for the 8th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tells the story of "mountains and challenges." Each scene leaves a profound impression on viewers with breathtaking views of nature, and with stories of men taking rugged steps as they embark on remarkable challenges.

Nature encourages men to continuously challenge themselves. Men also create endless challenges for themselves. Come up higher! The trailer captures the dynamic and diverse aspects of this ongoing journey as we ascend further and higher.

스티븐 베너블스 Stephen Venables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전 세계 자연과 환경, 등반, 영화, 문학 등 산악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 중 영화제 슬로건에 맞는 인물을 선정하여 울산울주세계산악문화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지구의 아들' 릭 리지웨이, 2018년 '최초의 프로 산악인' 크리스 보닝턴 경, 2019년 '8,000미터의 카메라맨' 쿠르트 디베르거, 2020년 '락 퀸' 카트린 데스티벨, 2022년 '얼음의 전사' 크시스토프 비엘리츠키 그리고 2023년 '산악 문화의 전도사' 스티븐 베너블스가 선정되었습니다.

The Ulsan Ulju Mountain Culture Award is awarded to those who have made exceptional contributions to the progress of mountain culture, such as nature, environment, climbing films and literature.

The Ulsan Ulju Mountain Culture Award was awarded to 'son of earth' Rick Ridgeway in 2017, 'a first professional mountaineer' Sir. Chris Bonington in 2018, 'filmmaker of the 8,000s' Kurt Diemberger, 'Rock Queen' Catherine Desitvella in 2020, 'Ice Warriors' Krzysztof Wielicki in 2022 and 'Ambassador for Alpinism' Stephen Venables in 2023.



스티븐 베너블스
Stephen Venables

UMCA 전시 UMCA Exhibition

일시 Date/Time 10. 20.(금) ~ 10. 29.(일) Oct. 20(Fri) - Oct. 29(Sun)

장소 Venue 베이스 캠프 Base Camp

UMCA 강연 UMCA Lecture

일시 Date/Time 10. 21.(토) 13:30 Oct. 21(Sat) 13:30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구성 Content UMCA 수상자 강연(60분) + 질의응답(30분) UMCA Lecture (60min) + Q&A (30min)

영화 <스티븐 베너블스의 퀘스트> 상영 FILM *A Southern Quest*

일시 Date/Time 10. 22.(일) 10:30 Oct. 22(Sun) 10:30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구성 Content 영화 상영(26분) + 게스트와의 만남(30분) Film Screening (26min) + Q&A (30min)

* 영화 <스티븐 베너블스의 퀘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북 73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To find out more about the film *A Southern Quest*, please check the 73 pages of this book.

2023 울산울주세계산악문화상 스티븐 베너블스

2023년 울산울주세계산악문화상 수상자는 **산악문화의 전도사 스티븐 베너블스**입니다.

스티븐 베너블스(Stephen Venables · 70)는 험난한 산들을 오르며 얻은 극한의 체험들을 끊임없이 유려한 필치로 써냄으로써 전 세계의 독자와 등산의 깊은 세계를 공유한, '산악문화의 전도사'입니다. 총 11권의 산악서적을 펴냈고, 그중 셋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보드맨 태스커 상, 밴프 산악도서 대상, 밴프 산악도서 최고상을 수상 했습니다.

베너블스는 등산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등반도 여럿 했습니다. 특히 1988년에는 가장 험난해 찾는 이가 드물던 에베레스트 동벽에서 새로운 루트를 개척했습니다. 가이드를 고용하고 대규모 인원이 도전을 분담하며 오르던 시절인데도, 베너블스는 단 4명으로 이뤄진 팀으로 고난도 등반을 성공했고, 인공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까지 올랐습니다.

등반 성공에 그치지 않고 베너블스는 소규모로 책임감 있게 산을 오르자는 등반윤리를 설파하는 등 산악스포츠훈리 정립에도 큰 공이 있습니다. 명망 있는 영국산악회, 남극 탐험에 앞장서는 사우스조지아협회의 회장을 각각 역임하면서 탐험의 지평을 평생에 걸쳐 넓혀 왔습니다.

베너블스는 수많은 사람이 다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산들에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끊임없이 모험을 추구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유명한 산이나 높은 산이 아니어도 마음먹기에 따라 산과 자연에서 충만한 체험을 찾을 수 있다는 베너블스의 조언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로 날로 피폐해지는 우리 주변의 산들을 다시 보고 다르게 오르도록 인도하는 귀중한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화에도 여러 편 출연한 바 있으며, 무엇보다 명성이 아닌 진정한 모험의 세계를 찾아가자고 한평생 독려해 온 그의 모습은 '함께 오르자, 영화의 산'이라는 2023년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슬로건과도 잘 맞습니다.

울산울주세계산악문화상 시상식은 2023년 10월 20일 제8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막식에서 진행됩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현장을 찾는 관객들은 강연과 전시,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산악문화의 전도사인 스티븐 베너블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울산울주세계산악문화상 선정위원회

선정위원

최중기 (위원장) (사)한국산서회 명예회장

안치운 호서대학교 교수

오영훈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정영목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정일근 (사)울주세계산악영화제 이사

실무위원

배경미 (사)대한산악연맹 부회장

이영준 알피니스트코리아 발행인

UMCA 2023 Stephen Venables

Recipient of the Ulsan Ulju Mountain Culture Award 2023 is **ambassador for alpinism Stephen Venables**.

Stephen Venables(70) is an ambassador for alpinism who has shared the deeper world of mountaineering with readers around the world through pithy remarks and beautiful prose that convey the surreal moments of moving beyond the limits of alpine world. He has written eleven books, three of which were acclaimed with prestigious awards – the Boardman Tasker Prize, the Grand Prize at the Banff Mountain Book Festival, and the Best Book-Mountain Literature at the Banff Mountain Book Festival.

As a mountaineer Venables has succeeded many challenging climbs, some of which are worthy of note in the history of mountaineering. In 1988, he attempted a new route on the Kangshung Face of Mt. Everest, the face which was and still remain the most difficult area to ascend the peak. While other groups on the mountain chose existing routes, benefited from local workforce, and shared the tasks of climbing with a number of partners, Venables, as part of a four-member team, reached the summit alone and without using supplemental oxygen.

In addition to his climbing achievements, Venables ha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establishing ethical standards in mountain sports, such as promoting the style of lightweight climbing with self responsibility. He has expanded the horizons of exploration throughout his lifetime, serving as a president of the Alpine Club and the South Georgia Association.

Venables asserts that even on the mountains that seem to be too familiar and likely not to offer any new discoveries, one may still find out opportunities for adventure. His advice that we can find rich experience in nature and on mountains regardless of their fame or height is a valuable piece of wisdom that can lead us to rediscover and climb the mountains around us, which are increasingly degraded by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crises. He has appeared in various films and, above all, has motivated people throughout his lifetime to seek the true world of adventure, rather than just fame. His spirit of climbing certainly fits well with the meaning of slogan of the 2023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Come up higher, Cinemountain".

The Ulsan Ulju Mountain Culture Award ceremony will be held on October 20, 2023, during the opening ceremony of the 8th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Visitors will have the chance to meet the ambassador for alpinism, Stephen Venables, during the festival period through various cultural events such as lecture, exhibition, and Film.

The Ulsan Ulju Mountain Culture Award Committee

UMCA Committee

Choi Joong-ki (chairman of UMCA Committee) Honorary Chairman of Korean Alpen Book Club

Ahn Chi-woon Professor, Hoseo University

Oh Young-hoon Researcher, Institute of Cross-Cultur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ung Young-mok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Chung Il-keun Board Member of UMFF

UMCA Administrative Committee

Christine Kyung-mi Pae Vice President of Korea Alpine Federation

Albert Lee Publisher of Alpinist Magazine in Korea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대상 Grand Prize	트로피, 상금 10,000,000원	Trophy, 10,000,000 KRW
작품상 Best Film	트로피, 상금 5,000,000원	Trophy, 5,000,000 KRW
감독상 Best Director	트로피, 상금 5,000,000원	Trophy, 5,000,000 KRW
촬영상 Best Cinematography	트로피, 상금 5,000,000원	Trophy, 5,000,000 KRW
심사위원 특별상 Special Jury Prize	트로피, 상금 3,000,000원	Trophy, 3,000,000 KRW

* 국제경쟁 본선 진출작은 국제경쟁 섹션 48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he finalist films are introduced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on pages, 48.

아시아경쟁 Asian Competition

넛팩상 NETPAC Award	넛팩 공인상장, 부상	NETPAC Certificate, A prize gift
청소년심사위원상 Youth Jury Award	UMFF 공인상장, 부상	UMFF Certificate, A prize gift

산 섹션 관객상 Audience Award of Mountain section

관객상 Audience Award	UMFF 공인상장, 부상	UMFF Certificate, A prize gift
--------------------	---------------	--------------------------------

국제경쟁 예선 심사위원 International Competition Preliminary Jury



산까치
H. Jay

영화학 박사과정 수료 후 한 대학의 영화연구소에서 영화의 창조적 의미화에 관심을 갖고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개념적 혼성 이론을 통해 그 원리를 규명하려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창작자의 꿈을 이루고자 모든 걸 정리하고 히말라야 발치에서 2년여를 보냈다. 현재까지도 창작자의 꿈을 이루고자 부단히 노력 중이다.

H. Jay worked at a university institute of film in Seoul after a doctoral course of film aesthetics. He had an interest in a unique way to create meaning of film, so that studied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its signification using conceptual blending theory from the cognitive linguistics while working at the institute. However, all of a sudden, he left to Himalayas so as to pursue his old dream as a film creator. After coming back to Korea, he is still trying for it.



오영훈
Oh Young-hoon

산악스포츠를 연구한 인류학 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이다. (사)대한산악연맹과 국제산악연맹(UIAA)에서 이사로 봉사하고 있다. 저서로는 『세르파, 히말라야 등반가』, 역서는 『클라이밍 트레이닝: 등반력 향상을 위한 훈련법 가이드』, 주요 논문으로는 『북한산 등산의 생명정치』, 『설악산의 이단자들』, 『일제 강점기 한국의 전문등반 정착과 전개 과정 연구』 등이 있다.

Oh Young-Hoon is an anthropologist, mountaineer, and administrator. He has climbed extensively, from rocks and ice in South Korea to Everest in Nepal, and now serves at both of the Management Committees for Korea Alpine Federation and for International Climbing and Mountaineering Federation. He is currently a researcher in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한송이
Han Song-yi

영화평론가. 영화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오랫동안 영상제작과 시나리오 강사로 활동했다. 현재도 서울에서 영화제작을 가르치는 중이다. 과거 산악동호회 일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심사에 임하고 있다.

A film critic, Han Song-yi has completed a PhD degree in film studies and has created films and instructed scenario writing for a while and is still teaching filmmaking in Seoul. She takes a part in preliminary jury based on her personal experience of climbing club years ago.

크라쿠프 산악 영화제의 공동 설립자로 초창기부터 페스티벌 프로그램과 경쟁 영화 선정을 담당해 왔다. 폴란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등산 및 등산 전문 매체 wspinanie.pl의 공동 설립자이자 발행인이며 아웃도어 애호가를 위한 잡지 『아웃도어 매거진』과 아웃도어 업계 최초의 B2B 잡지인 『아웃도어 비즈니스 매거진』의 공동 발행자이다. 폴란드 아웃도어 그룹 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피오트르 투르콧
Piotr Turkot

Co-founder of the Krakow Mountain Festival, responsible for the festival program and the selection of competition films from the very first beginning. Co-founder and publisher of wspinanie.pl, Poland's most popular medium dedicated to climbing and mountaineering. Co-publisher of the magazine for outdoor enthusiasts *Outdoor Magazyn* and the first b2b magazine of the outdoor industry *4outdoor Biznes Magazyn*. President of the Polish Outdoor Group association.

저널리스트이자 국제산악가이드협회연맹의 인증을 받은 산악 가이드이다. 스페인 산악 잡지 『캄포 베이스』의 편집장을 역임했고 스페인 신문 『엘 파이스』에 1998년부터 글을 기고하고 있다. 주로 피레네산맥과 알프스산맥에서 가이드로 활동했다.



오스카 고고르자
Oscar Gogorza de Carlos

Oscar Gogorza de Carlos is a journalist and an IFMGA certificate mountain guide. He had been the editor-in-chief of the Spanish mountain magazine *Campo Base* and wrote for the Spanish newspaper *El País* since 1998. He guided mainly in the Pyrenees and the Alps.

1985 KBS 공채11기 프로듀서 입사. 『세계의 명산』, 『영상 앨범 산』, 『인간극장』, 『세계는 지금』, 『일요 스페셜』, 『환경 스페셜』, 『오은선, 히말라야 8,000m 14좌 완등 프로젝트』, 『엄홍길, 안데스 8,000km 종주』 등을 제작하였으며 2015년부터 KBS 대구 총국 총국장을 역임한 후 현재 퇴직하였다.



김태민
Kim Tae-min

Joined KBS in 1985 as a producer in the 11th open recruitment. Produced programs including *World's Famous Mountains*, *Video Album: Mountains, Human Theater, The World Today, Sunday Special, Environmental Special, Oh Eun-sun, Project Himalayas 14 8-Thousanders*, and *Um Hong-gil, Climbing Andes 8,000km*. He was the director of Daegu KBS Headquarters from 2015 and is presently retired.



이미연
Lee Mi-yeon

동덕여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이후 프랑스 파리의 고등영화학교(ESEC)에서 연출 전공 후 <초록물고기>(1997) 스크립터로 영화계에 첫발을 디뎠다. <조용한 가족>(1998)과 <반칙왕>(2000)의 프로듀서 이후, 2002년 <버스, 정류장>으로 감독 데뷔하였으며, 2006년 <세번째 시선>(2006) 중 <당신과 나 사이>를 연출했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여성 영화인모임 이사,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한국영화감독조합 부대표를 역임했으며, 2016년부터 3년간 한국영화아카데미 연출전공 초빙교수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Lee Mi-yeon graduated from Dongduk Women's University with a major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fter studying directing for film & video at ESEC in Paris, LEE returned to Korea to work in film. She started her film career as a scripter for *Green Fish*(1997) and worked as a producer for *The Quiet Family*(1998) and *Foul King*(2000). She made her directorial debut with *L'abri*(2002). In 2006, she directed a segment *Between You and Me* in *If You Were Me 3*. From 2004 to 2018, she worked as a director of the Women in Korean Filmmaking, and served as a committee member to KOFIC committee and as a vice president of the Directors Guild of Korea. From 2016 to 2018, she was appointed as a visiting professor at the Korean Academy of Film Arts. She also was the former chairperson of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from 2018 to 2021.



마라 마타
Mara Matta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교의 남아시아학 부교수이며, 글로벌 인문학과와 새로운 학사 학위 과정의 학장이다. 소외된 공동체와 민족 및 종교적 소수자, 표상의 정치학과 디아스포라적 서사에 중점을 두고 티베트 및 남아시아 문학, 연극, 영화를 연구한다. 남아시아와 이탈리아의 난민, 이주자, 디아스포라 예술가 및 영화 제작자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여러 국제 영화제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Mara Matta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South Asi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Rome 'Sapienza', where she is also the President of the new BA Degree in Global Humanities. She works on Tibetan and South Asian literatures, theatre and cinemas, focusing on marginalized communities, ethnic and religious 'minorities', politics of representation, and diasporic narratives. She is a member of the AMM, Rome, GHL, and the NETPAC, actively working with refugees, migrant and diasporic artists and filmmakers both in South Asia and Italy. She has been part of many international film festival juries.

홍콩에서 배우, 작가, 감독, 토크쇼 진행자로 경력을 쌓은 영화 제작자로 하와이 대학교에서 공연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여성학 전문학위 과정을 수료했다. 장편 데뷔작 <정부>는 도빌아시아영화제의 관객상을, <블러링 더 컬러 라인>은 여러 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비롯한 많은 상을 받았다. 경계를 허물고 여성과 소외계층의 입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창의적이고 학술적인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Dr. Crystal holds a PhD in Performance Studies and Women's Studies Advanced Graduate Certificate at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She is an award-winning filmmaker who established her career in Hong Kong as an actress, writer, director, and provocative talk show host. Her debut feature film, *The Mistress*, won the Audience Choice Awards at the Deauville Asian FF and *Blurring the Color Line* has already won multiple awards including Best Documentary at the Georgia FF, DisOrient FF and the Harlem IFF. Through both creative and scholarly work, Crystal is committed to breaking boundaries and amplifying voices of women and marginal communities.



크리스탈 곽
Crystal Kwok

살라망카 대학교에서 법학을, 마드리드에서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고 베를린의 독일영화텔레비전아카데미를 졸업했다. 감독이자 카메라맨이며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의 대학에서 저명한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다수의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을 맡았고 그의 작품은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경쟁 부문에 선정되었으며 카날 플러스 등 많은 채널에서 방송된 바 있다. 2016년에는 엘 레푸히오 프로덕션을 설립했다.

Ricardo Íscar holds a degree in law from the University of Salamanca. He studied audiovisual communication in Madrid and graduated from the prestigious Berlin film school DFFB. Apart from being a director and cameraman, he is also a renowned lecturer at the universities in Spain and Latin American. He has been a jury at festivals such as Nyon, Malaga, Docs Barcelona, Inedit, the Alternative, and in Dresden. He has experience with filming in difficult areas such as coal mines, the sea, the desert or in the jungle. His films have been selected for competitions at international festivals such as Berlinale, Rotterdam Film Festival, BAFFICI or Viennale and have been broadcast by TVE, Canal Plus, TV3, WDR, SFB or ART. In 2016, he founded the production company EL REFUGIO PRODUCCIONES.



리카르도 이스카르
Ricardo Íscar

1958년 경상남도 진해 출생. 문화일보와 경향신문 기자 활동 후 현재 경남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1984년 실천문학과 198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시인으로 등단한 시인이다. 최근 『허꽃의 사랑법』 시집을 발표하였다. 사단법인울주세계산악영화제 이사 및 집행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울산울주세계산악문화상 선정위원이기도 하다.

Chung Il-keun was born in 1958 in Jinhae, Gyeongsannamdo. He was a journalist for Munhwa Ilbo and Kyunghwang Shinmun, and is now a tenured professor at KyungNam University. He debuted as a poet in 1984 with Silcheon Moonhak and Hankook Ilbo's Annual Spring Literary Contest in 1985. Recently, he published a poetry collection, *The Love of a Ray Flower*. He is an active board member, executive committee member of UMFF, and committee member of the Ulsan Ulju Mountain Culture Award.



정일근
Chung Il-keun



청소년심사위원 – 언양고등학교
Youth Jury – Eonyang High School

청소년심사위원장 Head of Youth Jury 이선영 Lee Seon-young

권리아, 김보령, 김수정, 김지민, 김진아, 윤가빈, 윤민희, 이승민, 이예진, 이종민, 이지윤, 임지윤, 정은주, 정제이, 주수민

Kwon Ri-a, Kim Bo-ryoung, Kim Su-jung, Kim Ji-min, Kim Jin-a, Yoon Ga-bin, Yoon Min-hee, Lee Seung-min, Lee Ye-jin, Lee Jong-min, Lee Ji-yun, Lim Ji-won, Jung Eun-ju, Jeong Jay, Ju Su-min

아시아경쟁 후보작 Asian Competiton Nominees

산 Mountain	아마노이 야스시: 등반과 삶 A Life of Climber	타케이시 히로아키 Takeishi Hiroaki	Japan 2022 109min Color Documentary
	그린 피라미드의 청춘들 The Green Green Pyramid	토니 청 Tony Cheung	Thailand 2023 23min Color Documentary
자연 Nature	조류를 거슬러 Against the Tide	사르브닉 카우르 Sarvnik Kaur	India, France 2023 97min Color Documentary
	폭설의 기억 The Avalanche	프나르 외렌지 Pinar Öğrenci	Germany, Türkiye 2022 60min Color, B&W Documentary
인간 Human	카쉬 카쉬 Kash Kash - Without Feathers We Can't Live	레아 나자르 Lea Najjar	Germany, Lebanon, Qatar 2022 90min Color Documentary
	클로브와 카네이션 Cloves & Carnations	베키르 뷔블 Bekir Bülbül	Türkiye 2022 103min Color Fiction
코리안 웨이브 Korean Wave	당신으로부터 From You	신동민 Shin Dong-min	Korea 2023 102min B&W Fiction
	가정동 Hometown	허지윤 Heo Ji-yun	Korea 2022 20min Color Fiction
투게더 Together	이제 그만 잊기로 해요 The Sound of Mountain	린징산 Ching-Shan Lin	Taiwan 2022 25min Color Fiction
	버스 바퀴 Wheels On The Bus	수리야 샤히 Surya Shashi	Nepal 2022 16min Color Fiction
	바디아르 Vadiyar	마르얀 코스라비 Marjan Khosravi	Iran 2021 15min Color Fiction
	샤오후이의 소 Xiaohui and His Cows	라오신잉 Xinying Lao	China, USA 2023 15min Color Fiction
움프 프로젝트 UMFF Project	나무의 집 The Tree's Home	김혜미 Kim Hye-mi	Korea 2023 12min Color Animation

2019년부터 울산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자 시작된 청소년 심사위원은, 아시아경쟁부문 후보작을 심사하여 그중 한 작품을 시상한다. 올해는 언양고등학교 동아리 Trend의 학생 16명이 참여 넷팩상과는 또 다른, 창의적이고 신선한 시각으로 작품을 선정한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지역 청소년에게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감성을 영화를 통해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더욱 풍성하고 참신한 영화제가 되고자 한다.

The Youth Jury of the Ulsan Uiju Mountain Film Festival(UMFF) was launched in 2019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the Ulsan region's younger generation. They will watch the films from Asian Competition and select 1 film for the award. The Youth Jury made up of 16 Students from Eonyang High School. Apart from NETPAC Award recipient selected by NETPAC Jury, the Youth Jury selects an award recipient based on their own inspiration and fresh eyes. This provides the Ulsan Youth with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various Asian cultures and tastes through films, while making UMFF all more bountiful and original.

울주서밋은 국내 산악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지속해 온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제작지원 프로그램이다. 매년 3편 내외의 작품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55편의 접수 작품 중 예심과 본심을 거쳐 5편을 선정했다. 지원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2024년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Uiju Summit is a program that Ulsan Uiju Mountain Film Festival(UMFF) has supported since 2015 to encourage domestic productions with the theme of Mountains. The festival selects around three titles every year and supports them. Last year, 5 films were chosen from among 55 submissions. The selected projects for Uiju Summit 2022 will be world-premiered at UMFF.

2022 울주서밋 지원작 Uiju Summit 2022 Projects

내가 만난 사람들 The People Who I Met	김민경 Kim Min-kyung	장편 극영화 Feature Fiction
아바 AVA	박창환 Park Chang-hwan	단편 극영화 Shorts Fiction
아빠는 차박커 Dad is a Camper	오멸 Oh Muel	장편 극영화 Feature Fiction
정상에서 일어서기 Mountain of Trash	허성완 Heo Sung-wan	단편 극영화 Shorts Fiction
타라 TARA	지우철 Ji Woo-chul	단편 다큐멘터리 Shorts Documentary



김광태
Kim Kwang-tae

2015년 영화 <손님> 각본, 연출.
Wrote and directed the 2015 film *The Piper*.



김영조
Kim Young-jo

프랑스 파리8대학교에서 영화연출을 전공했다. 독립영화제작사 월요일아침을 설립하여 여러 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 연출하였고 현재 동의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Kim Young-jo graduated at Paris 8 University in France majoring in film. He founded the independent film production company Monday morning and produced and directed several documentaries. Currently, he teaches students at the Digital Content Department of Dong-eui University.



이지연
Lee Ji-yeon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New School에서 Media & Film 전공 석사학위를 받았다. 장편영화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흔들리는 물결>, <기묘한 가족>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무브 투 헤븐 : 나는 유품정리사입니다」에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작품과 작품 사이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비롯한 다양한 영화제에 스태프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Lee Ji-yeon had Studied Film & Theater at Hanyang University and got Master's degree in Media & Film from New School. She was a producer of feature films *Two Weddings and a Funeral*, *Blossom*, *The Odd Family : Zombie On Sale*, and a Netflix Original Series *Move To Heaven*. She enjoys working for film festivals.



곽용수
Kwak Yong-soo

1992년 씨네마테크 문화학교 서울을 설립하여 98년까지 사무국장 역임, 1995년엔 영화 100주년 기념 영화서적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 공동 집필했으며, 1996년엔 단편영화 <새가 없는 도시>를 연출했다. 1995년부터 2001년 EBS 「시네마천국」 영화전문작가로 글을 썼다. 현재 독립영화전문제작배급사인 (주) 인디스토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Founded and served as the general director of Cinémathèque Cine Seoul lasted from 1992 to 1998. He co-authored *Chronicles of Burning Films* in 1995, directed *The City without a Bird*(1996) and wrote for EBS's program *Cinema Paradise* as a film writer from 1995 to 2001. Currently, he is the CEO of Indiestory Inc., an independent film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mpany.

미디어 액티비즘 단체 연분홍치마에서 사회적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2010년 <종로의 기적>으로 데뷔. 용산참사 다큐멘터리 <두 개의 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 이어 속편 <공동정범>을 공동연출했다. 2021년 전주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상 수상작 <너에게 가는 길>의 프로듀서와 편집감독을 맡았다. 현재 인천 디아스포라영화제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며 새 연출작 <블러드>를 제작 중이다.

Lee Hyuk-sang, a member of the media activism collective "pinks" since 2003, has debuted with *Miracle on Jongno Street* in 2011 and worked as a creative director on *Two Doors*(2011), before directing its sequel *The Remnants*(2018). In 2021, he produced and edited pinks's 10th documentary *Coming to You*. Currently working as a programmer of Diaspora Film Festival in Incheon and preparing his next feature project *Blood*.



이혁상
Lee Hyuk-sang

최윤은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교장,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다수의 영화에 프로듀서 및 제작자로 활동하였으며,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영화제와 기관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주)유비콘텐츠2 대표이자 (주)버튼손랩스 콘텐츠 총괄 이사로 재직 중이다.

Choi Yoon was a director of the Busan Film Commission, director of the Busan Asian Film School, and a professor at Dong-Eui University(Department of Film Studies). He has worked as a producer and executive producer in a number of films, and has been a juries at various film festivals and institutions, including the 24th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e is currently serving as the CEO of Ubicentent2 and the general director of contents at Barunson Labs.



최윤
Choi Yoon

울주멘터리(UJjumentary)는 울주(Ulju)와 다큐멘터리(Documentary)의 합성어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울산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주최하여 제작에 대한 교육 및 제작을 지원하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이다. 2023 울주멘터리에 선정된 팀은 4팀이며 울주 콘텐츠 발굴 및 제작을 멘토와 함께 진행한다. 팀당 150만원의 제작비를 지원하여 15분 내외의 단편 영화를 제작하고, 완성된 영화는 영화제 기간 중 공식 상영된다.

UJjumentary is a combination of two words: Ulju and documentary. It is a media education program hosted by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nd Ulsan Community Media Center providing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nd production of films. Four teams were selected for UJjumentary 2023 with a chance to work with mentors in discovering and producing documentaries about Ulju. Each team will be given 1.5 million won in production costs, and will produce a short film around 15 minutes. Completed films will be formally screened during the film festival.

2023 울주멘터리 프로젝트 UJjumentary 2023 Projects

제작기간 Production Period	2022. 7. ~ 2023. 1.
공동주최 Joint Hosting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시청자미디어재단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Community Media Foundation Ulsan Community Media Center

프랑스 파리8대학교에서 영화연출을 전공했다. 독립영화제작사 월요일아침을 설립하여 여러 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 연출하였고 현재 동의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Kim Young-jo graduated at Paris 8 University in France majoring in film. He founded the independent film production company Monday morning and produced and directed several documentaries. Currently, he teaches students at the Digital Content Department of Dong-eui University.



김영조
Kim Young-jo

2005년 이스크라21에서 영상을 시작, 2009년부터 재외동포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항로-제주, 조선, 오사카>(2015)에 조감독으로 참여하면서 재일동포들의 삶에 관한 기록 및 다큐멘터리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나는 우토로 마을을 기억합니다>(2020)를 연출했으며, <차별>(2023)을 김지운 감독과 공동연출하며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아시아발전재단상을 수상한 바 있다.

Began working with films with ISKRA21 in 2005. Since 2009, produced documentaries about Koreans living abroad. Participated as an assistant director in *Course – Jeju, Joseon, Osaka*, and continues to document the lives of overseas Koreans. Directed *I Remember the Village of Utoro*(2020), and co-directed *Discriminatio*(2023) with director Kim Ji-woon, receiving the Asia Development Foundation Award at the 13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김도희
Kim Do-hee

2011년 부산에서 다큐멘터리 창작공동체 오지필름을 만들었다. 영화활동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연출작으로 20대 후반, 흔들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 다큐 <나와 나의거리>, 영주댐으로 수몰되는 할머니 집을 기록한 장편 다큐 <기프실>이 있다. 현재 장편 다큐 <구미의 딸들>, <#with you>를 연출 중이며, 다큐멘터리 제작 외에도 영화상영기획, 미디어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Founded the documentary creative community Ozifilm in 2011 at Busan. Identifies herself as a Cine Activist. Notable films include *Between Me and I*, a short biographical documentary about his turbulent 20s, and *GIPUSIL*, a documentary about a grandmother's house that was submerged by the Youngju Dam. Currently, directing feature length documentaries, *Daughters of GUMI* and *#with you*, while also engaged in various activities such as film screening planning and media education.



문창현
Moon Chang-hyeon

옆집 할머니의 삶을 담은 <그들만의 크리스마스>(2006)로 다큐멘터리를 시작했다. <나비와 바다>(2011)와 <소성리>(2017)로 부산국제영화제 비프메세나상을 두 차례 수상했으며, <잔인한 계절>(2010), <밀양아리랑>(2014), <깨어난 침묵>(2016), <라스트 씬>(2018), <사상>(2020) 등이 국내 여러 영화제에 소개되어 다수의 상을 받았다. 현재 오지필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을 기반으로 장애인, 노동자, 여성, 문화 등 주제를 확장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Park started documentary with *Just Their Christmas*(2006) about the life of his next-door grandmother. His works *Sea of Butterfly*(2011) and *Soseongri*(2017) won the BIFF Mecenat Award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ruel Season*(2010), *Legend of Miryang 2 - Miryang Arirang*(2014), *After Breaking the Silence*(2016), *Last Scene*(2018), and *Sasang: The Town on Sand*(2020) were introduced to various domestic film festivals and received a number of awards. He is currently working in Ozifilm and continuing his work by expanding topics such as the disabled, workers, females, and culture based in Busan.



박배일
Park Bae-il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Yeongnam Alps Welcome Center

가설 Fit up Theater	옴프 시네마 UMFF Cinema	10. 20.(금) ~ 10. 29.(일) Oct. 20(Fri) – Oct. 29(Sun)	비지정좌석제 non-designated seats
실내 Indoor	알프스 시네마 1, 2 Alps Cinema 1, 2		지정좌석제 designated seats
야외 Outdoor	알프스 시네마 3, 4 Alps Cinema 3, 4		비지정좌석제 non-designated seats

* 개·폐막식 - 장애인석 한정 지정 좌석제 운영
* Opening and Closing Ceremonies will provide designated seating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태화강 국가정원 Taehwagang River National Park

야외 Outdoor	태화강 시네마 Taehwa River Cinema	10. 21.(토) ~ 10. 22.(일) Oct. 21(Sat) – Oct. 22(Sun)	비지정좌석제 non-designated seats
---------------	--------------------------------	--	--------------------------------

온라인 Online

공식 홈페이지 www.umff.kr	온라인 상영관 UMFF on Air	10. 20.(금) ~ 10. 29.(일) Oct. 20(Fri) – Oct. 29(Sun)
------------------------	------------------------	--

옴프패스 UMFF Pass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만 만날수 있는 프리패스 '옴프패스'를 이용하시면 영화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Enjoy various festival programs with the exclusive UMFF Pass.

영화 프로그램 + 페스티벌 프로그램 + 온라인 상영관을 예약할 수 있는 통합형 티켓
This integrated ticket allows booking of film programs + festival programs + online screenings (UMFF on Air)

* 비박 상영은 옴프패스로 예약할 수 없습니다.
* Bivouac Screenings cannot be reserved using the UMFF Pass.

* 1인 1매 구매 가능
* Limited to use by a single person

* 영화 + 페스티벌 프로그램 1일 최대 5회차까지 예약 가능
* Up to 5 sessions of film + festival programs can be reserved per day

* 10. 19.(목)까지 취소 및 환불 가능
* Cancellation and refunds are available only until Oct. 19(Thu)

[사용방법]

1. 옴프패스를 결제한다.
2. 본인 인증 후 자유롭게 보고싶은 영화와 체험을 고른다.
3. 예매하기 클릭 후 결제없이 바로 예약!
4. 모바일 티켓을 확인한다.

* 장애인석 예매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석 예매 안내' 참고

15,000원

[How to Use]

1. Purchase the UMFF Pass.
2. After completing ID verification, select films and programs to enjoy.
3. Click on "Reserve" to make instant bookings without additional payment.
4. Verify your mobile ticket.

* Accessible seating: refer to the "Accessible Seating Reservation Guide"

15,000 KRW

영화 / 페스티벌 프로그램 Film / Festival Programs

영화 / 페스티벌 티켓 Film / Festival Ticket	비박 상영 티켓 Bivouac Screening Ticket
영화 프로그램과 다양한 페스티벌 프로그램의 티켓 * 1회 2매 예매 (반복 예매 가능) Tickets for films and various festival programs * Book up to 2 tickets at a time (multiple bookings allowed)	옴프 시네마에서 *비박을 하며 영화를 관람하는 프로그램의 티켓 침낭, 돛자리 등은 개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열기구 불가) * 비박: 텐트를 치지 않고 지형과 지물을 활용해 야영하는 일 Tickets for watching films while *bivouacking at UMFF Cinema Please bring your own sleeping bags, mats, etc. for bivouacking. (No electric - heating equipment allowed) * Bivouac: a temporary camp without tents or cover
3,000원 3,000 KRW	10,000원 10,000 KRW

온라인 예매 Online Booking

예매 기간 Booking Period	9. 25.(월) 14:00 ~ 10. 29.(일) Sep. 25(Mon) 14:00 – Oct. 29(Sun)	9. 25.(월) 14:00 ~ 10. 17.(화) Sep. 25(Mon) 14:00 – Oct. 17(Tue)
결제 수단 Booking Method	신용/체크카드, 문화누리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 해외카드결제불가 Credit card, check card, Munnhwa Nuri Card, mobile payment * International card payments not accepted	가상계좌 Virtual Account
예매 방법 Payment Method	공식 홈페이지 > 상영/예매 Official Website > Screening/Booking	

현장 예매 On-site Booking

예매 기간 Booking Period	10. 20.(금) ~ 10. 29.(일), 해당 프로그램 시작 20분 전부터 Oct. 20(Fri) – Oct. 29(Sun), From 20 minutes before the start of the program	
예매 및 입장 Booking and Entry	각 상영관 입구에서 결제 > 입장 * 현장 예매는 취소 불가합니다. Purchase at the entrance before admission * In-person purchases cannot be cancelled	
결제 수단 Payment Method	신용/체크카드, 문화누리카드 * 해외카드결제불가 Credit card, check card, Munnhwa Nuri Card * International card payments not accepted	

장애인석 예매 안내 Accessible Seating Reservation Guide

	휠체어석 Wheelchair Accessible Seating	수어통역석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eating
대상 Eligibility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휠체어 이용 관객 Individuals using wheelchairs who possess a disability ID card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청각 장애가 있는 관객 Individuals with hearing disabilities who possess a disability ID card
좌석현황 Availability	움프 시네마: 개/폐막식 20석(수어 통역석 포함) 알프스 시네마 1: 2석 알프스 시네마 2: 5석 그 외 상영관: 구분없음 UMFF Cinema: 20 seats for the opening and closing ceremonies (including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eating) Alps Cinema 1: 2 seats Alps Cinema 2: 5 seats Other Theater: No separate seating	움프 시네마: 개/폐막식 20석(휠체어석 포함) UMFF Cinema: 20 seats for the opening and closing ceremonies (including wheelchair accessible seating)
예매기간 Booking Period	9. 25.(월) 14:00 ~ 10.29.(일) Sep. 25(Mon) 14:00 – Oct. 29(Sun)	
예매방법 Payment Method	일반석과 동일 Same as regular seats	
유의사항 Note	상영관 입장 시 해당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제시해 주세요. 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을 시 입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When entering the theater, please present a valid disability ID card. You may be denied entry if you do not have the card in your possession.	

온라인 상영관 관람권 UMFF on Air Ticket



- ① 온라인 상영관의 상영작을 영화제 기간 동안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입니다.
- ② 온라인 상영관 관람권 결제 한 번으로 온라인 상영관 내의 모든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③ 구매 이후에는 간단한 인증만 거치면 10월 29일(일)까지 언제든지 온라인 상영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 ① The ticket gives access to UMFF on Air screenings during the film festival.
- ② Purchase UMFF on Air Ticket once for unlimited access to all films in UMFF on Air.
- ③ After purchasing and simple authentication, enjoy UMFF on Air anytime through Oct. 29(Sun).

예매 기간 9. 25.(월) ~ 10. 29.(일)
 Booking Period Sep. 25(Mon) – Oct. 29(Sun)

결제 금액 1인 5,000원 / 신용 · 체크카드, 가상계좌, 문화누리카드
 Cost 5,000 KRW per person / Credit · Debit card, Virtual Account, Munhwa Nuri Card

취소 정책 10. 19.(목) 까지 취소 가능
 ※ 영화제 개막일 이후 취소 불가
 Cancellation Policy Cancellation available through. Oct. 19(Thu)
 ※ Cancellations no longer possible after UMFF opening day

관람 방법 10. 20.(금) ~ 10. 29.(일) 공식 홈페이지 - 온라인 상영관
 Oct. 20(Fri) – Oct. 29(Sun) Official Website – UMFF on Air
 How to View 온라인 상영관 관람권 구매 후 본인 인증 → 온라인 상영작 관람
 재입장 시에는 간단한 인증 후 바로 관람 가능
 Purchase the UMFF on Air Ticket, make authentication → view online screenings
 Upon re-entry, make simple authentication before viewing

* 무단 촬영 및 영상 캡처 시 저작권법 제104조의 6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Unauthorized filming and/or video capture may result in imprisonment of up to 1 year or a fine of up to 10 million KRW pursuant to Article 104, item 6.



히말라야 16차 등정 산증인
 엄 홍길 대장

- 세계 10대 푸드인 오직 귀리로만 발효한 건강식혜
- 설탕 22% 감소 아이들 성장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
- 단백질, 탄수화물, 칼슘, 현미, 아미노산이 풍부한 식혜

시글집귀리식혜

- 상영
Screening
- 상영 + 자연에서 이야기하다
Screening + Talking in Nature
- 상영 + 자연에서 노래하다
Screening + Singing in Nature
- 자연에서 채우다
Playing in Nature
- 자연에서 이야기하다
Talking in Nature

모든 외국어 상영작에는 한국어 자막이 지원됩니다.
 알프스 시네마 1, 2관의 모든 상영작에는 상영 전 해설이 제공됩니다.
 자연에서 이야기하다(게스트와의 만남, 옴프로크)는 사전 고지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이야기하다(게스트와의 만남, 옴프로크)는 상영 이후 30분 정도 진행됩니다.
 비박 상영은 상영작 간 인터미션이 있습니다.

All films in foreign language have Korean subtitles.
 Except for *The Gleaners and I*, *Faces Places* all films in non-English have English subtitles.
 Talking in Nature(Q&A, UMFF Talk)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evious notice.
 Talking in Nature(Q&A, UMFF Talk) will be for 30 minutes after the screening.
 There is an intermission between the Bivouac Screening films.

10.20 Fri

옴프 시네마 UMFF Cinema	18:30 개막식 아담 온드라: 한계를 넘어 Opening Ceremony Adam Ondra: Pushing the Limits 77min @ 46p	
알프스 시네마 1 Alps Cinema 1	13:00 코르크의 숲 Suro 116min @ 58p	16:00 국제경쟁 1 IC Films 1 89min @ 62-63p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13:30 카쉬 카쉬 Kash Kash - Without Feathers We Can't Live 90min @ 107p	16:30 클로브와 카네이션 Cloves & Carnations 103min @ 108p

등급 Ratings

- ㉔ 전체 관람가 General
- ㉓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 ㉒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 ㉑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극장 Theaters

- UC 옴프 시네마 UMFF Cinema
- AC1 알프스 시네마 1 Alps Cinema 1
- AC2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 AC3 알프스 시네마 3 Alps Cinema 3
- AC4 알프스 시네마 4 Alps Cinema 4
- TC 태화강 시네마 Taehwa River Cinema

코드 Codes

- Q&A 게스트와의 만남 Q&A session
- TALK 옴프로크 UMFF Talk
- PF 공연 Performance

10.21 Sat

옴프 시네마 UMFF Cinema	12:00 투게더 2 Together 2 63min @ 166-169p	13:30 샌드아트 - 모래로 그리는 영화 Sand Art - Sand-Drawn Movie 229p	17:00 모래바람 Sandstorm 78min @ 103p	23:00 비박 상영 1 Bivouac Screening 1 272min @ 76, 52, 135p
알프스 시네마 1 Alps Cinema 1	10:00 국제경쟁 2 IC Films 2 88min @ 64-65p	13:00 삼각형의 마음 At the Peak of Our Own Story 90min @ 104p	16:00 파미르 Pamir 95min @ 109p	19:00 국제경쟁 3 IC Films 3 83min @ 66-67p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10:30 매드 스키 프로젝트 The Silent Escape 30min @ 69p	13:30 UMCA 강연 UMCA Lecture 90min 15p	16:30 에어 Air 93min @ 75p	19:30 파상: 에베레스트의 그림자 PASANG: In the Shadow of Everest 71min @ 60p
알프스 시네마 3 Alps Cinema 3	10:30 파쿠르 놀이터 Parkour Playground 230p	13:30 파쿠르 놀이터 Parkour Playground 230p	17:30 코리안 웨이브 1 Korean Wave 1 92min @ 145-146p	19:30 늑대와 함께 Wolf One 88min @ 134p
알프스 시네마 4 Alps Cinema 4	13:00 산속 자전거 학교 Mountain Bike School 231p	15:00 옴프 산악 가이드 UMFF Mountain Guide 231p	16:00 산속 자전거 학교 Mountain Bike School 231p	19:00 화이트 트레일 White Trail 73min @ 118p
태화강 시네마 Taehwagang Cinema	11:00 투게더 1 Together 1 37min @ 162-165p	13:00 UIFF 1 65min @ 190-192p	15:30 날씨의 맛 The Taste of Weather 61min @ 89p	18:30 사오후이의 소 Xiaohui and His Cows 15min @ 179p
세미나실 Seminar Room	13:00 크리스 알스트린 강연 & 워크숍 Chris Alstrin Lecture & Workshop 120min 220p		16:00 비박소녀 김영미의 여정 The Journey of Kim Young- mi, a Bivouac girl 60min 221p	

10.22 Sun

옴프 시네마 UMFF Cinema	11:00 로이 Roi 84min @ 158p	13:00 샌드아트 - 모래로 그리는 영화 Sand Art - Sand-Drawn Movie 229p	17:00 엑시트 EXIT 103min @ 106p	
	10:00 타트라 - 폴란드 1 Tatra - POLAND 1 103min @ 119-120p	13:00 아담 온드라: 한계를 넘어 Adam Ondra: Pushing the Limits 77min @ 46p	16:00 국제경쟁 4 IC Films 4 75min @ 68-69p	19:00 마지막 하늘 아래 Holding Up the Sky 80min @ 53p
알프스 시네마 1 Alps Cinema 1	10:30 스티븐 베너블스의 퀘스트 A Southern Quest 26min @ 73p	13:30 야마노이 야스시: 등반과 삶 A Life of Climber 109min @ 74p	16:30 산 1 Mountain 1 74min @ 81-82p	19:30 자연 1 Nature 1 85min @ 95-96p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10:30 파쿠르 놀이터 Parkour Playground 230p	13:30 파쿠르 놀이터 Parkour Playground 230p	16:00 야마노이 야스시를 만나다 Talk with Yamanoi Yasushi 60min 221p	17:30 투게더 3 Together 3 44min @ 170-173p
알프스 시네마 3 Alps Cinema 3	09:00 옴프 산악 가이드 UMFF Mountain Guide 231p	16:00 산속 자전거 학교 Mountain Bike School 231p		
알프스 시네마 4 Alps Cinema 4	10:30 파라다이스 Paradise 89min @ 59p	12:30 플로리다 팬서 Path of the Panther 89min @ 94p	15:30 파우나 Fauna 74min @ 61p	19:00 가정동 Hometown 20min @ 153p

10.23 Mon

옴프 시네마 UMFF Cinema	10:00 투게더 4 Together 4 42min @ 174-177p	14:30 티티나 Titina 90min @ 161p	17:00 그녀의 키친, 쉬 셰프 She Chef 105min @ 88p	
	10:00 마지막 하늘 아래 Holding Up the Sky 80min @ 53p	13:00 이방인 The Visitors 83min @ 57p	16:00 매직 마운틴 Magic Mountain 74min @ 91p	19:00 에어 Air 93min @ 75p
알프스 시네마 1 Alps Cinema 1	10:30 하늘을 향한 여정, K2 K2 - Touching the Sky 72min @ 80p	13:30 코르크의 숲 Suro 116min @ 58p	16:30 인투 디 아이스 Into the Ice 86min @ 92p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14:00 옴프 다도명상 UMFF Tea Meditation 232p	17:30 산 2 Mountain 2 87min @ 83-85p	19:30 가을밤 별구경 Counting Stars 233p
알프스 시네마 3 Alps Cinema 3	09:00 옴프 산악 가이드 UMFF Mountain Guide 231p	14:00 클린 하이킹 Hike up, Pick up 232p		19:00 자연 2 Nature 2 75min @ 97-99p
알프스 시네마 4 Alps Cinema 4				

10.24 Tue

옴프 시네마 UMFF Cinema	10:00 투게더 1 Together 1 37min © 162-165p	14:30 투게더 5 Together 5 52min © 178-181p	17:00 미미야, 어딴니? She - Hero 83min © 159p
	10:00 클로브와 카네이션 Cloves & Carnations 103min © 108p	13:00 타트라 - 폴란드 2 Tatra - POLAND 2 80min © 121-122p	16:00 스탐스 Stams 95min © 56p
알프스 시네마 1 Alps Cinema 1	10:30 관목의 계절 Bitterbrush 91min © 51p	13:30 동굴 탐험가들 Subterranean 87min © 72p	16:30 풀 서클 Full Circle 105min © 79p
	14:00 옴프 다도명상 UMFF Tea Meditation 232p	17:30 페달 밟는 사람들 The Engine Inside 81min © 78p	19:00 가을밤 별구경 Counting Stars 233p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09:00 옴프 산악 가이드 UMFF Mountain Guide 231p	14:00 클린 하이킹 Hike up, Pick up 232p	19:00 프리퀸: 돌로미티 - 이탈리아 Prequel: Dolomite - ITALY 96min © 136-138p

10.25 Wed

옴프 시네마 UMFF Cinema	10:00 투게더 3 Together 3 44min © 170-173p	14:00 반짝반짝 빛나는 Sea Sparkle 98min © 160p	
	10:00 파우나 Fauna 74min © 61p	13:00 타트라 - 폴란드 4 Tatra - POLAND 4 98min © 126-127p	16:00 타트라 - 폴란드 5 Tatra - POLAND 5 128min © 128-129p
알프스 시네마 1 Alps Cinema 1	10:30 자연 2 Nature 2 75min © 97-99p	13:30 로이 Roi 84min © 158p	16:30 조류를 거슬러 Against the Tide 97min © 90p
	14:00 옴프 다도명상 UMFF Tea Meditation 232p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09:00 옴프 산악 가이드 UMFF Mountain Guide 231p	14:00 클린 하이킹 Hike up, Pick up 232p	

10.26 Thu

옴프 시네마 UMFF Cinema	10:00 투게더 3 Together 3 44min @ 170-173p	14:30 티티나 Titina 90min @ 161p		
알프스 시네마 1 Alps Cinema 1	10:00 이삭줍는 사람들과 나 The Gleaners and I 82min @ 111p	13:00 이삭줍는 사람들과 나 2년 후 The Gleaners and I: Two Years Later 64min @ 112p	16:00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Face Places 93min @ 113p	19:00 드림랜드 Dreamland 86min @ 117p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10:30 이방인 The Visitors 83min @ 57p	13:30 반짝반짝 빛나는 Sea Sparkle 98min @ 160p	16:30 경계선의 풍경 Landshaft 96min @ 50p	
알프스 시네마 3 Alps Cinema 3	14:00 옴프 다도명상 UMFF Tea Meditation 232p		17:30 투게더 2 Together 2 63min @ 166-169p	19:00 가을밤 별구경 Counting Stars 233p
알프스 시네마 4 Alps Cinema 4				19:00 코리안 웨이브 2 Korean Wave 2 86min @ 147-149p

10.27 Fri

옴프 시네마 UMFF Cinema	10:00 투게더 4 Together 4 42min @ 174-177p			23:00 비박 상영 2 Bivouac Screening 2 223min @ 178-181, 94, 55p
알프스 시네마 1 Alps Cinema 1	10:00 UIFF 2 100min @ 193-196p	13:30 UIFF 4 96min @ 201-204p	16:30 UIFF 6 82min @ 209-211p	19:30 파라다이스 Paradise 89min @ 59p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10:00 UIFF 3 92min @ 197-200p	13:30 UIFF 5 81min @ 205-208p	16:30 UIFF 7 88min @ 212-215p	19:30 산 위에서 Upon that Mountain 67min @ 54p
알프스 시네마 3 Alps Cinema 3	14:00 옴프 다도명상 UMFF Tea Meditation 232p		17:30 코리안 웨이브 3 Korean Wave 3 62min @ 150-152p	19:30 가을밤 별구경 Counting Stars 233p
알프스 시네마 4 Alps Cinema 4				19:00 릴락17 Reel Rock: Burning the Flame, DNA, Resistance Climbing 110min @ 52p

10.28 Sat

옴프 시네마 UMFF Cinema	11:00 투게더 1 Together 1 37min @ 162-165p		17:00 리바운드 Rebound 122min @ 102p		23:00 비박 상영 3 Bivouac Screening 3 254min @ 105, 103, 77p	
	10:00 가자, 폴란드! Godspeed, Los Polacos! 88min @ 116p		13:00 나를 위한 기도 Polish Prayers 84min @ 119p		16:00 국제경쟁 2 IC Films 2 88min @ 64-65p	
알프스 시네마 1 Alps Cinema 1	10:00 가자, 폴란드! Godspeed, Los Polacos! 88min @ 116p		13:00 나를 위한 기도 Polish Prayers 84min @ 119p		16:00 국제경쟁 2 IC Films 2 88min @ 64-65p	
	10:00 가자, 폴란드! Godspeed, Los Polacos! 88min @ 116p		13:00 나를 위한 기도 Polish Prayers 84min @ 119p		19:00 국제경쟁 1 IC Films 1 89min @ 62-63p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10:30 송어잡기 Shaping Trout 80min @ 184p		13:30 울주서밋 Ulju Summit 56min @ 185-187p		16:30 코리안 웨이브 1 Korean Wave 1 92min @ 145-146p	
	10:30 송어잡기 Shaping Trout 80min @ 184p		13:30 울주서밋 Ulju Summit 56min @ 185-187p		19:30 괴인 A Wild Roomer 136min @ 142p	
알프스 시네마 3 Alps Cinema 3	10:30 파크ัวร์ 놀이터 Parkour Playground 230p		13:30 파크ัวร์ 놀이터 Parkour Playground 230p		17:30 코리안 웨이브 4 Korean Wave 4 70min @ 153-155p	
	10:30 파크ัวร์ 놀이터 Parkour Playground 230p		13:30 파크ัวร์ 놀이터 Parkour Playground 230p		19:30 코리안 웨이브 2 Korean Wave 2 86min @ 147-149p	
알프스 시네마 4 Alps Cinema 4	13:00 산속 자전거 학교 Mountain Bike School 231p		16:00 산속 자전거 학교 Mountain Bike School 231p		20:30 황금광 시대 The Gold Rush 90min @ 110p	
	13:00 산속 자전거 학교 Mountain Bike School 231p		16:00 산속 자전거 학교 Mountain Bike School 231p		20:30 황금광 시대 The Gold Rush 90min @ 110p	

10.29 Sun

옴프 시네마 UMFF Cinema	10:00 2023 울주멘터리 Uljumentary 2023 79min @ 188-189p		17:30 폐막식 Closing Ceremony Nightwatchers 69min @ 47p	
	10:00 경쟁부문 수상작 1 The Winner of Competition 1		13:00 2023 울주멘터리 Uljumentary 2023 79min @ 188-189p	
알프스 시네마 1 Alps Cinema 1	10:00 경쟁부문 수상작 1 The Winner of Competition 1		13:00 2023 울주멘터리 Uljumentary 2023 79min @ 188-189p	
	10:00 경쟁부문 수상작 1 The Winner of Competition 1		16:00 경쟁부문 수상작 2 The Winner of Competition 2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10:30 빛가리 DEBT 74min @ 144p		13:30 당신으로부터 From You 102min @ 143p	
	10:30 빛가리 DEBT 74min @ 144p		16:30 플래닛 B Planet B 74min @ 93p	
알프스 시네마 3 Alps Cinema 3	10:30 파크ัวร์ 놀이터 Parkour Playground 230p		13:30 파크ัวร์ 놀이터 Parkour Playground 230p	
	10:30 파크ัวร์ 놀이터 Parkour Playground 230p		13:30 파크ัวร์ 놀이터 Parkour Playground 230p	
알프스 시네마 4 Alps Cinema 4	13:00 산속 자전거 학교 Mountain Bike School 231p		16:00 산속 자전거 학교 Mountain Bike School 231p	
	13:00 산속 자전거 학교 Mountain Bike School 231p		16:00 산속 자전거 학교 Mountain Bike School 231p	

개막작 & 폐막작

Opening Film & Closing Film





UC 10.20 18:30

AC1 10.22 13:00 Q&A

아담 온드라: 한계를 넘어

Adam Ondra: Pushing the Limits

Czech Republic, Italy | 2022 | 77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아담 온드라는 오늘날 최고의 암벽 등반가 중 한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암벽에 도전해온 진정한 거장이다. 하지만 미디어와 대중의 반응에 대한 부담이 커지며 등반에 대한 그의 열망은 승리에 대한 의무감으로 바뀌어 갔다. 이 영화는 열정으로 가득한 한 남자의 삶과 경력을 친밀한 시선으로 숨가쁘게 따라간다.

Adam Ondra is one of the best climbers today, a true virtuoso who has tackled the world's most difficult rocks and walls. But with the pressure of the media and the audience rising, his desire to climb has changed into the obligation to win. A breathtaking, intimate look into the life and career of a man who is one with his passion.

인상적인 첫 시퀀스를 지나면, 인간 아담 온드라의 도전과 노력이 영화 안에 펼쳐진다. 우리는 이 안에서 노력하는 천재의 도전, 유명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평범한 삶도 엿보게 된다. 이 작품은 영화와 등반에 능통한 감독들이 만들었기에 창조 가능한 결과물이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Following a captivating opening, the challenges and efforts of Adam Ondra as a normal human being with family, a life of celebrity, and his free climbing endeavors unfold. Crafted by directors well-versed in film and climbing, this is a testament to their expertise.

Jinna Lee, Programmer

밤의 인도자

Nightwatchers

France | 2023 | 69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스키 리조트인 몽쥬네브르는 아름다운 전원에 자리 잡고 있지만 경찰이 이민자를 사냥하듯 쫓으며 체포 작전을 벌이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대항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쫓기는 이민자들을 돌아가며 보호하고 있다. <밤의 인도자>는 하룻밤 동안 그 결을 지키며 그들이 겪는 일들을 직접 체험하듯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In Montgenèvre, an idyllic ski resort, policemen carry out a hunt for migrants. Volunteers take turns to protect them. *Nightwatchers* provides a direct cinematic experience over one night by their side.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몽쥬네브르의 실상-지역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합법적인 이민자 구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다. **프로듀서 엘레노어 부아씨노, 클레어 바바니**

She thought it was important to show with a documentary film, *Nightwatchers*, what was happening at night, that very few people were aware of this, all the more than the action of the volunteers was legal but very difficult for them to carry out.

Éléonore Boissinot & Claire Babany, Producers

UC 10.29 17:30



줄리엣 드 마르시악

파리 고등사범학교 출신으로 OCS가 선구 매하고 스톡홀름독립영화제에서 상영했던 <공허로의 도약>을 감독했다. 극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서로의 관점을 보완한다는 생각으로 작업하고 있다.

Juliette de Marcillac

Graduate from Ecole Normale Supérieure. She directed a short film, *Leap Into The Void*, prebought by OCS and selected at the Stockholm Independent FF. That's now with a perspective nourished by the fiction that she invests documentary filmmaking with *Nightwatchers*.



페트르 자루바, 얀 시마네크

페트르 자루바와 얀 시마네크는 FAMU 출신으로, 페트르는 자연과 자연을 다루는 예술가와 풍광을 다룬 영화들을 제작했다. 사진작가, 다큐멘터리 감독, 시각 예술가인 얀은 열정적인 등반가이기도 하다.

Petr Záruba, Jan Šimánek

Petr Záruba and Jan Šimánek graduated from FAMU. Petr made and focused on artists and topics related to nature and landscape films. Jan is a photographer, documentary director, visual artist, and also a passionate climber.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제8회 국제경쟁 섹션에서는 산을 중심으로 자연과 인간을 이야기하는 총 70개국에서 출품한 796편의 영화 중 20편을 소개합니다. 특히 거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올해 많이 소개됩니다. 그 중 <화산과 함께>나 <파라다이스>는 화산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를 자신의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통 산악 스포츠 영화들도 경쟁 섹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히말라야 등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네팔의 여성 셰르파 이야기 <파상: 에베레스트의 그림자>, 그리고 영화의 제목처럼, 지난 5월 <매드 스키 프로젝트> 원정을 떠나 8,000미터 2개 봉우리를 무산소로 등반하고 스키로 하강한 팀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신의 장애를 믿기 힘든 극한의 노력으로 극복해가며 등반하는 이야기 <초월>까지, 도전과 인류애, 인간 승리를 담은 이 영화들은 그 자체로 산악 스포츠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꼭 풀어야 하는 힘든 숙제입니다. 이 문제는 <코르크의 숲>에서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여름의 초원> gaucho 가족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또한 인간 자체를 주제로 한 수작들 역시 경쟁 섹션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계선의 풍경>에서는 동부 아르메니아의 풍광을 배경으로 아픈 역사와 고통이 감동 특유의 롱테이크로 소개됩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동물실험에 대한 건조한 초상 <파우나>에서 감독은 윤리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방인>의 차가운 노르웨이 스발바르의 밤을 배경으로 이어지는 문화인류학자의 인터뷰는, 우리에게 원주민과 영원한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거주민의 관계,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프로그램머 이정진**

The 8th International Competition Section features 20 films out of 796 submissions from 70 countries, all centered around the theme of mountains. A notable number of films delve into the lives of those living in tough conditions. Of these, *An Inhabited Volcano* and *Paradise* are about people who have come to accept natural disasters as a part of their lives. Traditional mountain sports films are also part of this section. A narrative of Nepalese women sherpas, now indelible figures in Himalayan climbing, unfolds in *PASANG: In the Shadow of Everest*. *The Silent Escape* chronicles the mad journey of a team scaling two 8,000-meter peaks without supplemental oxygen, then skiing them down. *Transcendence* portrays people overcoming disabilities through relentless effort. Their stories of challenge, humanity, and triumph is history in the making. As we are acutely aware, climate change has become an inescapable reality and a complex issue demanding attentions. It provides the backdrop in *Suro* and poses an immediate threat to the gaucho family in *Veranada*. We also present masterpieces that focus on humanity. In *Landshaft*, the director employs his mastery of long takes to present the dark history and suffering in picturesque Eastern Armenia. In *Fauna*, the director raises an ethical question by portraying grim animal experiments necessary for human survival. Lastly, *The Visitors* includes an interview with a cultural anthropologist amidst the frigid nights of Norway's Svalbard that prompts refle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genous and foreign residents, as well as the concept of coexistence. **Jinna Lee, Programmer**



AC2 10.26 16:30

경계선의 풍경

Landshaft

Germany, Armenia | 2023 | 96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경계선의 풍경>은 아르메니아 동부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감도는 풍경과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심리 지리학적 면모를 묘사하며 수탈주의와 전쟁, 강제 이주를 겪어내는 여정을 담아냈다.

Landshaft sketches the psychogeography of a geopolitically charged landscape and its inhabitants in eastern Armenia. A journey through extractivism, war, and displacement.

아르메니아 동부를 여행하는 형식으로 제작된 <경계선의 풍경>은 2020년 카라바흐 전쟁 이후 아제르바이잔이 점령한 세반호수에서 소트크 금광에 이르는 지역을 여행하며 인간과 동물이 그 풍광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낸다. **감독 다니엘 쾨터**

In the form of a journey in eastern Armenia, the film follows human and non-human actors as they make their way through the landscape, from Lake Sevan to the Sotk gold mine, occupied by Azerbaijan since the Karabakh War in 2020. **Daniel Kötter, Director**



다니엘 쾨터

다니엘 쾨터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영화인 이자 연극 연출가로 다양한 미디어와 제도적 상황, 맥락을 오가며 실험적인 영화 기법과 퍼포먼스 및 다큐멘터리 요소를 결합한 작업을 하고 있다.

Daniel Kötter

He is an international filmmaker and theater director. His works alternate between different media and institutional contexts and combine experimental film techniques with performative and documentary elements.

관목의 계절

Bitterbrush

USA | 2021 | 91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반려견만이 유일한 동반자인 홀린과 콜리는 외부와 단절된 채 악천후와 위험한 노동 환경에 맞서 살아가며 미래를 고민한다. 미국 서부의 아름답지만 외딴 풍경을 배경으로 이들이 겪는 우정과 인생의 전환점들, 숙련된 두 젊은 여성의 노동을 그린 이 작품은 영화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삶의 방식을 친밀하게 묘사한다.

Totally off the grid with only their dogs as companions, Hollyn and Colie brave inclement weather and perilous work conditions while pondering their futures as range riders. A portrait of friendship, life transitions, and the work of two skilled young women in the isolated and beautiful landscape of the American West, this is an intimate portrayal of a way of life rarely seen on film.

우리는 이 영화에서 동료 혹은 친구로서 이어지는 느슨한 관계에 주목할 수도 있고, 바하의 클래식 선율에 취할 수도 있다. 큰 사건은 없지만, 이들의 대화에 주목하다보면, 그 안에서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다. 그들의 일터인 미국 서부의 풍광은 또 다른 선물이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We can delve into the subtle relationships of coworkers-to-friends or dip ourselves in the beautiful sound of Bach. There are no big events, but touching moments are found in the conversations. And the American West's scenery is an additional layer of delight.

Jinna Lee, Programmer

AC2 10.24 10:30



에밀리 마흐다비안

에미, 피바디, 선댄스 등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2020년에는 뉴욕다큐영화제의 '40세 이하의 40인'에 선정됐다. 다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한 바 있는 <미드나잇 트래블러>를 제작, 각본, 편집했다.

Emelie Mahdavian

Emelie Mahdavian is an Emmy, Peabody, and Sundance Award-winning filmmaker who was selected for DOCNYC's 2020 '40 Under 40' list. She produced, wrote, and edited *Midnight Traveller* received awards from Sundance, Berlinale, Vision du Reel, and Yamagata, etc.



UC 10.21 23:00
AC4 10.27 19:00

릴락17

Reel Rock: Burning the Flame, DNA, Resistance Climbing

USA | 2023 | 110min | Color | Documentary

<이터널 플래임 등반> - 오스트리아의 등반가 밥시 쟁겔과 야코포 라처가 파키스탄의 한 봉우리에서 자유 등반을 시도한다. <DNA> - 프랑스 베르동 협곡에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스포츠 클라이밍에 도전하는 셉 부안의 이야기. <팔레스타인 클라이밍> - 분쟁으로 폐허가 된 팔레스타인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등반가들이 모여 공동체와 위안, 구원을 찾는다.

Burning the Flame - Austrian climbers Babsi Zangerl and Jacopo Larcher attempt a coveted free ascent of The Nameless Tower in Pakistan. *DNA* - Seb Bouin tackles what may be the world's hardest sport climb in the Verdon Gorge of France. *Resistance Climbing* - In conflict-torn Palestine, a diverse group of climbers finds community, solace and redemption.

릴락 시리즈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파키스탄, 프랑스,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등반가들의 초동 도전이나 스포츠 클라이밍,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의 지속과 탈출구 마련을 위한 이야기까지, 각각의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진심과 감동의 순간을 지니고 있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The Reel Rock series never disappoints us. Set in Pakistan, France, and Palestine, each story has its heartfelt and moving moments, from the new climbers' challenges, sports climbings, and the communities' struggles to sustain themselves and find a way out.

Jinna Lee, Programmer



피터 모티머, 조쉬 로웰, 닉 로젠, 재커리 바

샌더 필름즈의 피터와 빅 업 프로덕션의 조쉬가 설립한 릴락 필름 투어에 제작자인 닉이 파트너로 함께 했다. 재커리는 릴락에서 <하이텐션>으로 경력을 시작해 이 작품으로 상을 받았다.

Peter Mortimer, Josh Lowell, Nick Rosen, Zachary Barr

Peter is the founder of Sender Films and Josh founded Big UP Productions. Sender Films and Big UP found the Reel Rock Film Tour. Nick is a partner, writer, and producer at Reel Rock. Zachary began his career at Reel Rock with the award-winning film *High Tension*.

마지막 하늘 아래

Holding Up the Sky

Belgium, Netherlands, Brazil | 2023 | 80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다비 코페나와는 1970년대부터 부족 소유의 토지에 대한 착취에 맞서 싸워왔다. 1990년대 이후로는 다비가 속한 부족의 토지가 보호받는 듯 보였지만, 현재 아마존 부족의 서식지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위협 아래에 있다. <마지막 하늘 아래>는 이 위협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대사 다비와 함께 아마존 부족을 보호하는 하늘과 숲,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장소들로 우리를 안내한다.

Davi Kopenawa has been fighting the exploitation of his people's land since the 1970s. While their territory seemed to be protected since the 1990s, the habitat of the Amazonian tribes is now threatened more than ever. *Holding Up the Sky* takes us alongside this ambassador, into the skies and the forest that protect his people, and to the places that threaten them.

브라질 아마존 야노마미 부족에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무당이 춤을 멈추고 열대 우림이 망가지면 하늘이 무너지면서 전부 사라질 것이다." 부족장 다비 코페나와의 부족과 탐욕스런 서구 자본주의의 아마존 열대우림 침략과 탈취의 갈등은, 화해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프로그래머 이정진

A story from the Yanomami tribe of the Amazon tells us that if the shaman's dance ceases and the rainforest is destroyed, the sky will collapse, and all will vanish. Can Chief Davi's tribe and the invasive greed of capitalism find a point of reconciliation? **Jinna Lee, Programmer**

AC1 10.22 19:00
AC1 10.23 10:00



피터 반 에크

브뤼셀에서 활동하는 영화인이자 기후 운동가. <마지막 하늘 아래>는 그의 두 번째 장편 영화로 2023년 제네바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후, 올해 말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극장 개봉될 예정이다.

Pieter Van Eecke

He is a filmmaker and climate activist based in Brussels. His second feature *Holding Up the Sky* premieres at FIFDH Geneva 2023 and is to be theatrically released later in that year in Belgium and the Netherlands.



AC2 10.27 19:30

산 위에서

Upon that Mountain

Italy | 2023 | 67min | Color, B&W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엘레오노라 마스트로피에트로

지리학자, 다큐멘터리 작가이며 라 푸르네즈의 창립 멤버로 다큐멘터리 연출을 담당하고 있다. 트렌토 영화제의 경쟁 부문에 출품한 <산 위에서>는 그녀의 두 번째 장편 영화이다.

Eleonora Mastropietro

She is a geographer and author of documentary films. She is a founding member of La Fournaise, where she is in charge of directing documentaries. *Montanario – Upon that Mountain*, premiered in competition at the Trento Festival, is her second feature film.

1년에 걸쳐 이탈리아의 케이블카로 몽블랑 대 산괴를 지켜본다. 기계와 작업자들, 그리고 케이블카 탑승객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이 영화는 관광객들의 일상과 행동을 묘사하며 기술, 관광과 등반, 도시와 현대성, 관찰과 이미지, 재현과 경험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다.

A year along the Italian cableway on the Mont Blanc massif. The machine, the workers, and the users are represented as the main actors. While depicting the everyday routines and the behavior of the sightseers, the film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tourism and mountaineering, cities and modernity, observation and image, representation and experience.

<산 위에서>는 몽블랑 대 산괴에서 1년 동안 관광 시설과 등반객들을 관찰하며 현대성, 재현, 경험 등의 주제를 탐구하는 특별한 경험을 담았다. **감독 엘레오노라 마스트로피에트로**

Upon that Mountain shows the extraordinary experience during one year spent on the Mont Blanc massif, observing tourist facilities, mountaineering and exploring themes such as modernity, representation and experience. **Eleonora Mastropietro, Director**

스라소니 맨

Lynx Man

Finland | 2023 | 82min | Color, B&W | Documentary

UC 10.27 23:00



유하 수온페

교수이자 사진작가, 영화 제작자. 사진, 과학의 시각화, 장소의 정체성 구축과 관련된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다수의 국제 전시회에 참여해왔다.

Juha Suonpää

He is a professor, photographer, and filmmaker. He has exhibited internationally and published documentary films-topics related to photography, visualizing science, and the construction of the identity of a place.

한누는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핀란드 서부에서 살고 있다. 어느 날 길가에서 죽은 스라소니를 발견한 그는, 스라소니 무리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땅 곳곳에 트레일 카메라를 설치하여 무스부터 생쥐까지 모든 것을 녹화한다. 한누가 스라소니의 세계에 빠져들수록 스라소니의 영혼은 한누의 세계에 깊숙이 스며들어간다.

Hannu lives in the West of Finland. An environment home to all kinds of wildlife. When Hannu finds a dead lynx by the side of the road, he realizes that the lynx have returned. He sets up trail cameras all over his land, recording everything from moose to mice. The spirit of the lynx permeates deeper into Hannu's world as he becomes increasingly fascinated by theirs.

영화는 스라소니와 한누의 우정을 통해 생물 다양성과 생명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인간이 자연과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과 사람 사이의 매개체가 필요하다. **감독 유하 수온페**

The friendship between the lynx and Hannu is a narrative tool to tell a story about biodiversity and the right to life. Redefining a new type of nature relationship calls for an agent to act between wild animals and people. **Juha Suonpää, Director**



AC1 10.24 16:00

스탐스

Stams

Austria | 2023 | 95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동계 스포츠 세계 챔피언이 되겠다는 꿈을 좇고 있는 곳인 스타스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명망 있는 엘리트 기숙학교이다. 하지만 신체적, 정신적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기나긴 여정에서 과연 누가 힘과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위대한 희생과 큰 희망이 있는 스타스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영화.

STAMS is Austria's most prestigious elite boarding school, where hundreds of teenagers are chasing their dream to become world champions in winter sports. The journey is long and full of risks, both physical and mental. Who has the strength and the perseverance? A glimpse into the world of STAMS, a place of great sacrifices and high hopes.

오스트리아 스키 아카데미에서 선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관찰한 영화로, 여기서 보여주는 순환고리는, 관객에게 스포츠인 양성과정과 훈련에 대해 고찰의 순환을 전달한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The film depicts the lives of young individuals engaged in athlete training programs at an Austrian ski academy. These portrayals invite the audience to contemplate the intricate journey and rigorous training that shape these budding professionals.

Jinna Lee, Programmer



베른하르트 브라운슈타인

잘츠부르크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과학을 전공했고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에 거주한다. 2003년 마틴 하제뇌를과 학교 과제로 <중착역>을 만든 후 여러 단편 및 중편 영화를 공동 감독했다.

Bernhard Braunstein

Bernhard graduated in communication sciences from the University of Salzburg and now resides in both Austria and France. Since 2003, when he and Martin Hasenohrl shot the student documentary *Kopfbahnhof*, he has co-directed several short and mid-length movies.

이방인

The Visitors

Czech Republic, Norway, Slovakia | 2022 | 83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젊은 인류학자인 즌덴카는 극지방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로 이주한다. 새로운 고향과 사랑에 빠진 그녀는 북극에서 빙산과 영구동토층보다 더 많은 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연구를 위한 관찰이 목적이었던 지역 사회에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A young anthropologist, Zdenka, moves with her family to Svalbard, Norway, to study how life is changing in polar regions. After falling in love with her new home, she discovers that more than icebergs and permafrost are vanishing in the Arctic. She has to work out to what extent she can get involved in the local community that she only originally intended to observe.

노르웨이 스발바르의 추운 겨울을 배경으로, 체코에서 온 젊은 인류학자 즌덴카의 인터뷰가 진행된다. 관객은 차가운 날씨와 척박한 자연환경이 영화의 배경을 넘어 원주민과 이주민의 차이와 간극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In Svalbard, Norway, a young anthropologist from the Czech Republic, Zdenka, interviews people. Viewers could realize that the cold climate and rugged landscapes are more than mere backdrops; they mirror the contrasts and gaps between the natives and migrants.

Jinna Lee, Programmer

AC1 10.23 13:00

AC2 10.26 10:30



베로니카 리슈코바

찰스 대학교에서 문화학을 전공한 후 현재 다양한 다큐멘터리 교육 프로그램 및 미디어마켓과 협력하고 있으며, 극영화 데뷔작 <미망인의 한 해>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Veronika Lišková

She graduated in cultural studies from Charles University. She now cooperates with various documentary training schemes and media markets, and is working on her fictional debut *The Year of the Widow*.



AC1 10.20 13:00

AC2 10.23 13:30

코르크의 숲

Suro

Spain | 2022 | 116min | Color | Fiction | Korean Premiere

헬레나와 이반은 코르크 나무 숲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드러나며, 함께 하려던 미래가 위태로워진다.

Helena and Ivan set out to build a new life in the cork-tree forests. But their different views as to how to live on the land emerge, challenging their future as a couple.

<코르크의 숲>은 모든 출연진과 제작진의 헌신과 노력이 고스란히 반영된 작업이었으며 이 즐겁고 조화로운 촬영에 기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다. 감독 **미켈 구레아**

Suro is a direct reflection of the commitment and hard work of all cast and crew; and I am forever grateful to every single one for having contributed to a joyous and harmonious shooting experience. **Mikel Gurrea, Director**



미켈 구레아

작가 겸 감독. 바르셀로나의 폼페우 파브라 대학교를 졸업했다. 여러 영화제에서 그의 단편 영화들이 상영됐고 극작가로 참여한 연극이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코르크의 숲>은 장편 영화 데뷔작이다.

Mikel Gurrea

He is a writer-director. He graduated from Barcelona's Pompeu Fabra University. His short films have been selected in festivals, and his dramatic work for the stage as a playwright has opened in theaters. *Suro* is his feature debut film.

파라다이스

Paradise

France, Switzerland | 2022 | 89min | Color | Documentary

2021년 여름, 이례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발생한 거대한 화재로 시베리아 북동부에서는 수백만 헥타르의 땅이 황폐화되었다. 바람에 날리는 검은 재가 숲에 큰 불이 났고 불길의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오지만 정부는 주민들이 알아서 대처하도록 방관하고, 주민들은 끔찍한 화마와 싸우기 위해 힘을 모아 야만 한다.

In the summer of 2021, an exceptional heat-wave and drought led to giant fires ravaging millions of hectares of land in northeastern Siberia. Spread by the wind, the black ashes carry alarming news: the forest is on fire and the flames are fast approaching. The government having left them to fend for themselves, the inhabitants must rally to fight The Dragon.

신성한 산 위로 부는 바람의 이야기를 담은 러시아 사하 지방 설화와 달리, 2021년 산불은 연기와 불길로 주민을 위협한다. 이 불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자,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의 예고편이기도 하다. 감독은 주민들과 함께 동행하며 엄청난 화재 장면을 카메라에 유려하게 담아냈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Unlike Russian folklore depicting winds over sacred mountains, the 2021 wildfire menacingly brought smoke and flames, serving as both a dire threat and a preview of future climate change. Filmmakers joined the locals to document the destructive fires.

Jinna Lee, Programmer

TC 10.22 10:30

AC1 10.27 19:30 TALK



알렉산데르 아바투로프

러시아 출신. 2013년 첫 다큐멘터리 <잠자는 영혼들>로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첫 장편 다큐멘터리 <아들>은 베를린영화제에서 초연된 후 다수의 영화제에서 선정되었다.

Alexander Abaturov

Alexander Abaturov was born in Russia. In 2013, he directed his first documentary, *Sleeping Souls*, selected and awarded in various festivals. *The Son*, his first feature length documentary, was premiered in the Berlinale Forum and selected at many other festivals.



AC2 10.21 19:30 Q&A

파상: 에베레스트의 그림자

PASANG: In the Shadow of Everest

USA | 2021 | 71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낸시 스벤센

네팔 여성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파상 라무 셰르파를 다룬 감독의 첫 장편 다큐멘터리. 가족 간의 결혼으로 파상과 인연이 닿은 낸시는 감동적이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에 울림과 깊이를 더했다.

Nancy Svendsen

Her first feature documentary tells the story of Pasang Lhamu Sherpa – the first Nepali woman to summit Mt. Everest. Related to Pasang by marriage, Nancy brings nuance and depth to a moving and inspiring story.

인종 차별, 성차별, 정치적 반대와 싸우며 네팔 여성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원주민 출신의 개척자였던 파상 라무 셰르파의 이야기. 그녀의 용감하고 비극적인 여정은 그녀의 조국에 큰 감동을 주었고, 새로운 세대들이 네팔에서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하는 계기가 되었다.

The story of Pasang Lhamu Sherpa, the indigenous trailblazer who battled racism, gender discrimination, and political opposition in her quest to become the first Nepali woman to summit Mt. Everest. Her courageous, tragic journey would greatly move her country, inspiring new generations to reach for their rights.

이 영화는 교육과 여성의 권리 확대, 그리고 소외된 사회에 대한 목소리 내기 등 우리 사회에 여전히 필요한 많은 화두를 던지고 있다. **프로듀서 다와 푸티 셰르파**

This movie brings a lot of conversations that are still much needed in our society; on education, on women empowerment and giving voice to the marginalized society.

Dawa Futi Sherpa, Producer

파우나

Fauna

Spain | 2023 | 74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바르셀로나 외곽의 숲, 동물 실험을 하는 첨단 시설을 갖춘 연구소 곁에 늙은 양치기가 양 떼와 함께 살고 있다. 동전의 양면 같은 두 개의 상반된 세계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것이다. 뼈 질환에 걸린 양치기는 자신의 직업이 사라져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과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코로나 백신을 연구한다.

In a forest on the outskirts of Barcelona, an old shepherd and his flock live alongside a high-tech laboratory for animal experimentation. Two opposite worlds facing each other. Two worlds that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While the shepherd, afflicted with a bone disease, witnesses his profession disappearing, scientists are busier than ever researching the covid vaccine.

동물 실험을 통해 인류의 생존을 위한 코로나 백신을 연구하는 연구소, 양을 키우며 이 지역 마지막 양치기로 존재하는 주인공. 이 둘의 훌륭한 병치는 우리의 딜레마를 일깨운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The brilliant contrast between a laboratory's urgent search for a coronavirus vaccine, using animal testing for human survival, and the last local shepherd tending sheep encapsulates our complex dilemma. **Jinna Lee, Programmer**

TC 10.22 15:30 TALK

AC1 10.25 10:00



파우 파우스

바르셀로나 출신의 영화 제작자, 시각 예술가 및 건축가. 건축가로 일하는 동안 상황주의, 대지 미술 또는 관계 미술과 같은 현대 미술 운동에 관심을 가지며 건축과 도시주의를 재발견하게 되었다.

Pau Faus

Filmmaker, visual artist & architect from Barcelona. During his working years as an architect, he grew interest in contemporary art movements such as Situationism, Land-art or Relational aesthetics that made him rediscover architecture and urbanism.



AC1 10.20 16:00

AC1 10.28 19:00

골드혼의 전설

The Legend of Goldhorn

Slovenia | 2022 | 14min | Color | Animation | Korean Premiere

 국제경쟁 1
IC Films 1


레아 부츠크

류블랴나대학에서 삽화를 전공한 애니메이션으로 자그레브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의 'Animation goes MSU'에 선정된 프로젝트들의 공동 제작자이자 옥토픽스 프로덕션 스튜디오의 공동 설립자이다.

Lea Vucko

She is an illustrator by education and animator by profession. She is the co-creator of two site-specific projects that were selected for Animafests' Animation goes MSU and cofounder of OCTOPICS production studio.

한 사냥꾼이 실연당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산으로 향하지만 그는 자신을 떠난 연인의 환영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의 마음이 흐트러질수록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드러나게 되고, 그 어두운 그림자는 그가 신화 속의 골드혼을 사냥하도록 인도하며 결국은 그를 죽음으로 이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탐욕에 관한 이야기를 슬로베니아 민화를 바탕으로 풀어낸 영화.

A hunter heads out to the mountains to mend his broken heart. On his way, he can't escape the visions of his lover who left him. As he loses his mind, his dark side comes to life. The shadow guides him to hunt the mythical Goldhorn and ultimately leads him to his demise. Based on the Slovenian folktale, a story about greed and our relationship towards nature.

슬로베니아 민화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탐욕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울리안 알프스 산맥의 슬로베니아 지역에 대한 찬가와 같은 영화이며 슬라브 전통 악기로 작곡된 영화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감독 레아 부츠크**

Based on the Slovenian folktale, a story about greed and our relationship towards nature. Ode to Slovenian part of Julian Alps. Musical score made with traditional Slavic instruments.

Lea Vucko, Director

그 여름의 초원

Veranada

Canada, Argentina | 2022 | 75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국제경쟁 1
IC Films 1

AC1 10.20 16:00

AC1 10.28 19:00



도미니크 쇼몽

캐나다, 아르헨티나, 프랑스 출신의 신예 감독 겸 제작자. 데뷔작인 <그 여름의 초원>으로 몬트리올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에서 상을 받으며 창의성과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선보였다.

Dominique Chaumont

She is a Canadian, Argentinian and French emerging director and producer. Her debut film, *Veranada*, has garnered prestigious awards at RIDM and Hot Docs, showcasing her creative prowess and international potential.

<그 여름의 초원>은 말라르게 목동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말을 타고 안데스산맥을 여행하며 동물들을 위해 더 푸른 목초지를 찾는 목동 돈 아르투로를 따라간다. 돈 아르투로는 기후 변화와 극심한 가뭄의 영향을 받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는 끈질기고도 희망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Veranada offers a glimpse into the lives of the Malargüe herders. The film follows Don Arturo, a gaucho traveling the Andes on horseback, seeking greener pastures for his animals. This story is about Don Arturo's tenacious yet hopeful will to survive amidst a world affected by climate change, severe drought.

안데스 산맥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그려지는 목동 돈 아르투로의 삶은 평온해 보인다. 하지만 그가 더 좋은 초원을 찾아 떠돌아다니며 대면하는 것은 '기후를 파괴하는' 가뭄이다.

감독 도미니크 쇼몽

The film takes place in a community in the Andes mountains. Don Arturo's way of life as a herder seems still, but droughts "disrupt the climate", as he wanders in search of better grasslands. **Dominique Chaumont, Director**



AC1 10.21 10:00 Q&A

AC1 10.28 16:00

화산과 함께

An Inhabited Volcano

Spain | 2023 | 66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국제경쟁 2
IC Films 2

<화산과 함께>는 마법처럼 놀랍지만 동시에 파괴적인 자연의 힘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우정과 정신에 대한 집단적 자화상과 같은 영화이다.

An Inhabited Volcano is a collective portrait of the friendship and the spirit of the people of a land, which from time to time, have to live through the hypnotic and devastating power of nature.

우리는 자연재해의 이면에는 자주 드러나지 않았던 인간적인 관점이 깃든 차원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화산이 우리 곁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공간을 빌려 살아 보기로 결정했다. **감독 다비드 판탈레온, 호세 빅토르 푸엔테스**

We believe that behind natural disasters there is a human dimension not often represented. That's why we have decided to borrow that space and inhabit it the same way the volcano lives within us. **David Pantaleón & Jose Víctor Fuentes, Directors**



다비드 판탈레온, 호세 빅토르 푸엔테스

다비드 판탈레온은 연극예술 전공후 20여 편의 단편 영화를 연출했다. 호세 빅토르 푸엔테스는 영화 제작자이자 프로듀서로 그의 최신작은 테네리페의 미라다스 독에서 초연되었다.

David Pantaleón, Jose Víctor Fuentes

David Pantaleon (Canary Islands, 1978) graduated in Dramatic Art. He has directed more than 20 short films. Jose Víctor Fuentes(Canary Islands, 1973) is filmmaker and producer. His latest work premiered at Miradas Doc in Tenerife.

바코의 꿈

Uncle Vakhó's Dream

Poland | 2022 | 22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국제경쟁 2
IC Films 2

AC1 10.21 10:00

AC1 10.28 16:00 Q&A

카즈베기산의 외딴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 바코는 그가 꾸었던 예지몽의 기억에 수십 년 동안 시달려 왔다. 그 꿈은 그가 오래전 은둔을 선택해 스스로에게 벌을 내린 계기가 되었던 비극적인 사건들의 전조였다.

An elderly man, Vakhó, lives alone in a deserted village high in the Kazbegi mountains. For years, he has been haunted by the memory of a prophetic dream, foreshadowing the tragic events he punished himself for with seclusion.

영화의 배경인 코카서스 산맥의 고봉 카즈베기산은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준 죄로 형벌을 받던 곳이다. 이 영화는 주인공 바코가 사회와 거리를 두면서 노동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이유와 고통을 잘 담아낸다. 첫 연출작으로 묵직한 주제와 인물에 깊이 다가간 수작.

프로그래머 이정진

Set on Mount Kazbegi, where Prometheus faced punishment for giving fire to humans, the film portrays the anguish forcing Vahko to be isolated from society, devoting his life to labor. The director explores profound themes and characters in his debut. **Jinna Lee, Programmer**



요안나 루이

폴란드와 조지아에 거주하는 감독이자 촬영감독. 우츠의 폴란드 국립영화학교에서 촬영을 전공하고 2022년에 졸업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작업을 가장 선호한다.

Joanna Rój

Cinematographer and director, living in Poland and Georgia. In 2022, she graduated from the DOP program at Lodz Film School. She enjoys making documentary films.



AC1 10.21 19:00

겨울을 오르는 사람들

Ephemeral

 국제경쟁 3
IC Films 3


UK | 2022 | 53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앨라스터 리 감독은 스코틀랜드 최고의 등반가인 가이 로버트슨과 그렉 보스웰을 따라가, 그들이 한겨울 하이랜드 지방의 가장 어려운 혼합 등반 코스를 극복해나아가는 여정을 담았다.

Filmmaker Alastair Lee follows top Scottish climbers, Guy Robertson and Greg Boswell in the depths of winter as they scratch and scrape their way up some of the most difficult mixed climbs in the Highlands.

스코틀랜드의 겨울 등반 장면은 내가 늘 감탄하며 보던 광경이었다. 나는 스코틀랜드 겨울 등반의 독특한 정신과 멋진 풍광을 담은 작품을 만들고 싶은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 **감독 앨라스터 리**

The Scottish winter climbing scene is something I have always looked at with admiration and this season I could no longer resist the challenge of making a production that captured the unique spirit and stunning environment of Scottish winter climbing. **Alastair Lee, Director**



앨라스터 리

아웃도어 전문 감독, 사진작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배핀섬, 베네수엘라의 정글, 남극 등을 탐험한 베테랑이다. 2013년 5월에는 국제산악영화제협회(IAMF)로부터 대상을 수상했다.

Alastair Lee

Alastair Lee is a director and cameraman specializing in the outdoor world. With twenty years in the industry, he is a veteran of expeditions to the likes of Baffin Island, the Venezuelan jungle and Antarctica. In May 2013, he was awarded The Grand Prize from the IAMF.

초월

Transcendence

 국제경쟁 3
IC Films 3


AC1 10.21 19:00 08A

USA | 2023 | 30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전문 등반가가 되기 위해 프로 사이클 선수 생활을 그만둔 에이드리언 코스타는 끔찍한 사고를 겪은 후 장애를 지닌 채 적응형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영화는 그가 사고에서 회복하며 적응형 등반가의 선두주자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트라이애슬론계의 전설적인 인물인 마크 앨런과 함께 워싱턴주의 노스캐스케이드를 처음으로 등반하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간다.

After walking away from professional cycling to pursue climbing, Adrien Costa suffered a devastating accident that began his journey as an adaptive athlete. This film follows his path from recovery to the cutting edge of adaptive climbing, working his way up to an epic first ascent in Washington's North Cascades with PNW legend Mark Allen.

프로 사이클 선수에서 등반으로 종목을 전환한 에이드리언 코스타의 불굴의 의지와 노력을 따라가는 영화. 큰 사고 후 급격한 신체 변화에 굴하지 않고, 도전한 목표를 위해 준비하고 수행하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등반 영화가 아닌, 인간승리의 모습이자, 초월의 원형이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The film follows Adrien Costa, a former pro cyclist turned climber who relentlessly pursues challenging goals post-accident, defying changes in his body. It's a tale of human triumph and transcendence, elevating it beyond a mere climbing film. **Jinna Lee, Programmer**



미셸 스미스

독특한 피사체를 찾아내 그들의 이야기에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카본데일의 5포인트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관객의 사랑을 얻은 <프랑스인>으로 영화제 무대에 데뷔했다.

Michelle Smith

She is known for identifying truly unique subjects and bringing their stories to life. She broke onto the film festival scene in 2018 with *The Frenchy*, favored by many audiences, which won the "Pure Joy" award at Carbondale's 5Point Film Festival.



AC1 10.22 16:00

설산으로부터

To the Hills & Back

 국제경쟁 4
IC Films 4


Canada | 2022 | 45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영화는 산의 분노에 직접 맞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속으로 파고들어 모험을 위해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겪는 흥미진진한 탐험을 선보인다.

Dive into the hearts and minds of those who've faced the mountain's fury firsthand, in this gut-punching exploration of the human cost of adventure.

캐나다 스키 등반인 아담 캠프벨과 케이티 컴발루지에, 그리고 산악 가이드 브래드 화이트의 사연으로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스키 등반과 눈사태라는 공통점이 있다. 산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입산해야 한다고 감독은 말한다. **프로그램머 이정진**

The film begins with the stories of Adam Campbell, Katie Combaluzier, and Bradford White, sharing a commonality related to ski climbing and avalanche. You know, mountains are incredibly big dynamic places. And if you're not careful, you know the worst case scenario can happen. **Jinna Lee, Programmer**



마이크 퀴글리

셰르파스 시네마의 감독 겸 수석 편집자. <야생과 함께 살기>를 공동 연출 및 편집해 수상한 바 있으며 캐나다공원관리청을 위해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주요 영화 프로젝트를 감독했다.

Mike Quigley

He is a director and senior editor at Sherpas Cinema. Some notable work includes co-directing and editing the award-winning film *Living with Wildlife*. He has also directed and documented several important film projects in wildlife conservation for Parks Canada.

매드 스키 프로젝트

The Silent Escape

 국제경쟁 4
IC Films 4

AC2 10.21 10:30 0&A

AC1 10.22 16:00 0&A

Poland | 2023 | 29min | Color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지구상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파트너 간의 복잡한 우정과 문명화된 일상에서 만날 수 없는 경험을 탐구한다. 이 영화는 8천 미터 이상의 높은 봉우리들을 등반해 스키로 하강하고자 하는 주인공 바르텍 지엠스키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The Silent Escape delves into intricacies of partnership and emotions that awaken amidst the solitude of Earth's loftiest peaks - an experience rendered ineffable within the confines of everyday 'civilized' life. The story centers around Bartek Ziemski, the protagonist, whose goal is climbing these eight-thousanders and a ski descend from both of them.

<매드 스키 프로젝트>는 파트너십의 본질과 지구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등반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 이 두 가지 측면은 히말라야에서 경험하는 고독과 만나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된다. **감독 오스발트 로드리고 페레이라**

The Silent Escape focuses on the essence of partnership and the emotions evoked by climbing the highest peaks of the Earth. Both aspects, when confronted with the solitude experienced in Himalayas take on new forms. **Oswald Rodrigo Pereira, Director**



오스발트 로드리고 페레이라

등반가, 영화 감독, 촬영 감독, 각본가. 지구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도달하려는 산악인의 마음을 담은 영화와 다큐멘타리를 제작한다. 산소통이나 셰르파의 지원 없이 여러 봉우리를 등반했다.

Oswald Rodrigo Pereira

He is a climber, film director, cinematographer, and author of films and documentaries, which focuses on emotions of climbers trying to reach the highest peaks of the Planet. Oswald climbed various peaks without supplementary oxygen and personal support of Sherpas.

산

Mountain

올해 산 섹션을 새롭게 신설하여, 울산울주세계산영화제만의 고유 영역인 등반과 야외 스포츠 영화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에 한정, 영화제 기간에 관객 투표를 진행하고, 관객상을 수여하여 산악영화제로서의 차별성을 더욱 더 부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등반과 클라이밍 분야의 영화에서는 숙련된 경험을 갖춘 노련한 등반가들의 경험담과 젊고 패기 넘치는 신세대의 도전들이 함께 소개됩니다. UMCA수상자 스티븐 베너블스의 남극 사우스조지아섬 탐험을 다룬 <스티븐 베너블스의 퀘스트>, 2021년 아시아인 최초 황금피켈상 평생공로상을 수상한 야마노이 야스시의 전기 영화 <야마노이 야스시: 등반과 삶>, 북미를 대표하는 캐나다 알피니스트의 이야기 <배리 블란차드 스토리>는 산을 사랑하고 인생의 대부분을 산과 함께 해온 이들의 끝없는 도전과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브렛 해링턴과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 <라유>를 등반하는 영화나, 태국의 젊은 클라이머들의 소중한 이야기 <그린 피라미드의 청춘들>은 미래 등반 역사의 주역이 될 이들의 현재 행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영화 <8000+> 이후 카라코람 패러클라이딩 원정으로 다시 돌아온 앙트완 지라르의 <에어 카라코람>, 캐나다의 가장 크고 깊은 동굴을 탐사하는 두 팀의 생생한 탐사 이야기 <동굴 탐험가들>, 사이클링을 통해 자신과 사회가 함께 변화할 수 있음을 증명한 <페달 밟는 사람들>, 치열한 프리 다이빙의 세계와 대비되는 미치도록 아름다운 바다의 모습이 인상적인 <에어>, 그리고 세계적 카약 선수 누리아 뉴망이 슬럼프를 극복하고 에콰도르 30m 폭포수 카야킹에 도전하는 과정을 다룬 <와일드 워터스>는 우리에게 목표 도전의 치열함을 넘어서서 드라마의 희열까지 함께 전달합니다. 그리고 개조한 사이클로 미국횡단레이스에 참가한 <철인 안드레>, 하나의 플레이트로 프리 스키 점프에 도전하는 <풀 서클>은 자신의 신체적 한계에 좌절하지 않고 끝없는 노력을 통해 인간승리를 보여준 감동 스토리입니다. 특히 올해는, 할리리경과 텐징 노르가이 세르파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초동한 70주년이기도 합니다. 모든 역사에 전사(前事)가 있듯, 1920년대 에베레스트 등반 시작과 역사를 소개한 <에베레스트: 전설의 시작>에서 우리는 등반 역사의 태동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IAMF 대상을 수상한 엘리자 쿠바르스카의 영화 <하늘을 향한 여정, K2>는, 그녀의 2021년 대상 수상작 <쿰바카르나: 그림자의 벽>이 그려졌듯이, 히말라야 등반의 이야기에, 등반가의 가족이 가진 고뇌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In a distinguishing move as a mountain film festival, the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 established the Mountain section this year, bringing together films about mountain climbing and outdoor sports. The audience will vote for their favorite film, which will receive the Audience Award. Films under the climbing category will feature the experiences of seasoned climbers and the exploits of a young and passionate generation. There are films about those who love and live in the mountains: UMCA recipient Stephen Venables' Antarctic South Georgia Island expedition in *A Southern Quest*, the biographical journey of 2021's first Asian recipient of the Piolet d'Or Lifetime Achievement Award, Yamanoi Yasushi, in *A Life of Climber*, and the story of a renowned Canadian alpinist in *Spindrift – The Barry Blanchard Story*. There are also films about up-and-coming climbers who will be making climbing history: Brette Harrington and her climbing team in *Reel Rock: Rayu*, and young Thai climbers in *The Green Green Pyramid*. Some films convey the intensity of goal-oriented challenges coupled with exhilarating drama: Antoine Girard of *8000+* returns with a Karakoram paragliding expedition in *Air Karakoram*; a vivid exploration story about two teams exploring Canada's deepest caves in *Subterranean*; the transformative power of cycling in *The Engine Inside*; *Air*, where the fierce world of free divers is contrasted with the crazy beautiful ocean; and *Wild Waters*, which depicts world-class kayaker Nouria Newman overcoming a slump to attempt kayaking a 30m waterfall in Ecuador. Still other films warm our hearts with stories about human triumph: *No Legs. All Heart*, about participating in the Race Across America on a modified bike, and *Full Circle*, about attempting free ski jumps with a single ski.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Sir Hillary and Sherpa Tenzing Norgay's first ascent of Mount Everest. There is a prequel to every history. *Everest: by those who were there* allows us to trace the origins of climbing history dating back to the 1920s. Lastly, this year's IAMF grand prix recipient Eliza Kubarska's *K2 – Touching the Sky* (much like her award-winning 2021 film *The Wall of Shadows*) is based on the stories of Himalayan climbing, built on the sufferings and understanding of the climbers' families. **Jinna Lee, Programmer**



AC2 10.24 13:30

동굴 탐험가들

Subterranean

Canada | 2023 | 87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프랑스와 자비에 드 뤼츠

영화 제작자이자 사진작가. 모험과 자연의 역사를 다루며 접근이 어려운 세계의 곳곳을 기록해왔다. 캐나다의 위대한 탐험가 100인에 선정됐고, 리오 상의 최우수 촬영 부문을 비롯해 많은 상을 받았다.

François-Xavier De Ruydts

Filmmaker, photographer specializing in adventure and natural history who has documented some of the most inaccessible places on the planet. He was named one of Canada's 100 Greatest Explorers and has won several awards, including a Best Cinematography Leo Award.

취미로 동굴 탐사를 즐기는 두 팀이 캐나다에서 가장 길고 깊은 동굴들의 탐험 기록을 경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기묘하고 매혹적인 지하 탐험의 세계를 함께 파헤치다 보면 진정한 모험을 마주하게 되고, 만약 그들이 운이 좋다면 신기록까지 달성하게 해줄 무언가를 만날지도 모른다.

Two gritty teams of hobbyist cavers are poised to break records for the longest and deepest caves in Canada. Digging into the oddly fascinating world of subterranean exploration uncovers a story of true adventure and if they're lucky record-setting discovery.

동굴 탐사는 위험하고, 습하고, 춥고, 진흙투성이의 모험이며 아름다운 산의 경치나 산의 정상에서 인스타그램용 사진을 찍은 후 즐기는 짜릿한 스키 활강과 같은 대단한 보상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동굴 탐사를 하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감독 프랑스와 자비에 드 뤼츠**

Caving is dangerous, wet, cold and muddy. There are no big rewards like beautiful mountain views or an exhilarating? ski descent after a well-deserved Instagram photo on the summit. So I had to find out: why do people do it? **François-Xavier De Ruydts, Director**

스티븐 베너블스의 퀘스트

A Southern Quest

UK | 2018 | 26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네 명의 탐험가가 대담하게 겨울 탐험을 위해 남극 지방의 사우스조지아 섬으로 출발한다. 그들의 목표는 한 번도 완등한 적이 없는 산봉우리들을 오르는 것이다.

In an intrepid winter expedition, four explorers set off for the Antarctic island of South Georgia. Their aim: to conquer mountain peaks that have never been climbed before.

올해의 울산울주세계산악문화상 수상자 스티븐 베너블스의 남극 섬 사우스조지아 탐험 기록이다. 등반가로서, 산악 저술가로 살아온 그의 도전은, 사우스조지아 탐험에서도 이어진다. 폭 넓고 다양하게 산과 자연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This year's Ulsan Ulju Mountain Culture Award winner. It is a chronicle of his expedition to South Georgia. There, his challenges as a mountaineer and writer continue, and his quest to understand nature in an expansive and diverse manner is evident throughout.

Jinna Lee, Programmer

AC2 10.22 10:30 08A



데이비드 맥미킹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모험가인 데이비드 맥미킹은 던브리지 웰스에 기반을 둔 맥미킹 차터드 서베이어스의 소유주이다.

David McMeeking

He is extreme-sports adventurer and owner of Tunbridge Wells based McMeeking Chartered Surveyors.



AC2 10.22 13:30 Q&A

야마노이 야스시: 등반과 삶

A Life of Climber

Japan | 2022 | 109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타케이시 히로아키

1967년생 지바현 출생. TBS 입사 후 「N스타」, 「아침밥」의 수석 프로듀서를 역임하였다. 릿쿄대 산악부 감독으로 히말라야 북수 등반을 하였다.

Takeishi Hiroaki

Born in 1967 in Chiba Prefecture. After joining TBS in 1991, he served as a senior producer of *N Star* and *Evening Five*. He has climbed the Himalayas multiple times as the director of Rikkyo University's Mountaineering Team.

야마노이 야스시는 세계의 거대한 절벽들을 혼자 등반해낸 산악인으로 2021년에는 등반계 최고의 영예인 황금피켈상의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야마노이의 아내 타에코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직의 세계'에 매료된 그의 파란만장한 삶과 아직 끝나지 않은 그의 여정을 조명해 본다.

Yamanoi is a climber who has taken on massive cliffs across the world by himself. In 2021, he received the Piolets d'Or Lifetime Achievement Award, the highest honor in the climbing world. But Yamanoi's journey is far from over. Through interviews with his wife Taeko, we shed light on the turbulent life of a man captivated by a 'vertical world'.

알피니즘 스타일의 고산등반 스타일을 고수해 온 야마노이 야스시, 그의 등반가로서의 도전과 삶을 그린 영화이다. 특히 인생의 동반자이자 동반 동료로 함께 해 온 야마노이 타에코와의 자연주의 삶과 지역 등반 커뮤니티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프로그램머 이정진**

Depicting the challenges and life of Yasushi Yamanoi, a mountaineer who practices the Alpinist style of climbing, the film explores his naturalist life with his life and climbing companion, Daeko, as well as his experiences within the local climbing community.

Jinna Lee, Programmer

에어

Air

Spain | 2023 | 93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한 번의 호흡으로 120미터 이상 잠수가 가능한 사람은 지구에 단 여섯 명뿐이고 미겔 로자노가 그중 한 명이다. 투픽 블라우이는 프리다이빙 수면무호흡 분야의 아랍권 챔피언이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춘 이들의 가장 큰 도전은 물속이 아니라 일상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인간의 조건이 지닌 한계에 관한 영화.

Miguel Lozano is one of the 6 people in the world to dive more than 120m with one breath. Tewfik Blaoui is the Arab champion in static apnea. However, their biggest challenges have not been underwater. To survive in the daily routine is the most difficult adventure. A film about the limits of the human condition.

수면무호흡은 생존의 본능인 호흡의 충동을 극복하는 것이며, 시간과 인간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무호흡의 상태는 온전히 육체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 사이의 무언가가 되는 것이다. <에어>는 스포츠를 넘어 우리를 각자의 삶에 존재하는 중요한 투쟁에 몰입하게 한다.

감독 리카르도 이스카르

Apnea is overcoming the impulse to breathe, the instinct for survival. Transcending time and human limits, apnea becomes something between the purely physical and the transcendental. *Air* goes beyond sport to immerse us in the vital struggle of each one.

Ricardo Íscar, Director

AC2 10.21 16:30 Q&A

AC1 10.23 19:00 Q&A



리카르도 이스카르

법학 학위 소지자로 독일영화텔레비전아카데미를 졸업했으며 주된 관심사인 인간관계, 민족지학적 관점, 시적 가치 등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연출했다. 스페인의 여러 대학에서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Ricardo Íscar

Ricardo holds a degree in law and graduated from the Berlin film school, DFFB. He directed documentaries that reflect his interest in portraying human relations, ethnographic content, and poetic value. He is also a lecturer at different Spanish universities.



UC 10.21 23:00

와일드 워터스

Wild Waters

France | 2022 | 86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다비드 아르노

프로 카약 선수 출신으로 15년 이상 아웃도어 관련 작품을 제작 및 감독했다. 특히 복잡한 이야기와 환경에서 인간적인 면을 끌어내 평범한 시청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즐긴다.

David Arnaud

A former pro-kayaker himself, David has worked as producer and director in the outdoor world for more than 15 years. He particularly enjoys drawing the human factor from complex stories and environments to make them accessible to mainstream audiences.

<와일드 워터스>는 남녀를 불문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카약 선수 중 한 명인 누리아 뉴망이 여성 최초로 30미터 높이의 폭포에 도전하는 과정을 따라간다. 엄청난 도전이긴 하지만, 운동선수로서 그리고 인생의 커다란 목표를 향해 늘 노력하는 여성으로서, 항상 자신을 향한 기대를 극복해야만 하는 그녀에게 험난한 급류를 타는 것은 그리 대단한 도전이 아닐 수도 있다.

Wild Waters follows Nouria Newman as she prepares to become the first female to run a 100ft waterfall. She is one of the greatest kayakers of all times - male or female. Running some of the world's hardest whitewater isn't Nouria's biggest life challenge, however, as she has to overcome expectations placed on her as an athlete and as a woman on her lifelong path to greatness.

카누, 프리스타일과 익스트림 카야킹 등 각종 분야에서 메달리스트로 활약했던 누리아 뉴망은 누구도 하기 힘든 에콰도르의 30미터가 넘는 푸카노 폭포 카야킹에 도전한다. 이 영화는 그녀의 인간적인 모습과 함께 자신의 재능에 안주하지 않는 스포츠인의 모습을 소개한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Nouria is a former medalist in canoeing, freestyle, and expedition kayaking, taking on a challenge that few can do: kayaking over Ecuador's 30-meter Pucano Falls. The film portrays her nature as a human and how she, an athlete, constantly pushes her limits.

Jinna Lee, Programmer

철인 안드레

No Legs. All Heart.

USA | 2023 | 89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수년간의 알코올 중독과 인생을 뒤바꾼 사고 이후, 양 다리를 절단한 안드레 카즐릭은 최초로 미국 최대 자전거 경주인 '레이스 어크로스 아메리카' 완주를 목표로 정한다. 12일간 3,082마일을 달리는 이 여정은 비장애인 선수도 반 이상 그만둘 정도로 고되다. 영화는 인간 정신력의 진정한 시험, 중독의 극복, 자신만의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견디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After years of addiction and a life changing accident, Andre Kajlich aims to be the first double amputee to complete the Race Across America, a bone-crushing, sleep deprived, 12 day, 3,082 mile bike race that spits out 50% of able bodied racers. This film is a story about the true test of the human spirit, overcoming addiction, and the pain we endure to carve our own path in life.

대부분의 인간은 절망스러운 순간, 좌절에 빠져서 헤어 나오기 쉽지 않다. 그러나 주인공 안드레 카즐릭은 이에 굴하지 않고, 미국 횡단 자전거 레이스에 도전한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끝까지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 잠시나마 게임도 부끄러워진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We face moments of despair and frustration that can be hard to overcome. Yet, Andre refuses to give up and challenges cycling across the U.S. His perseverance despite extreme pain and determination to finish the course put any hint of laziness to shame. **Jinna Lee, Programmer**

UC 10.28 23:00



파블로 두라나

에미상을 수상한 촬영감독이자 모험 사진 작가. <철인 안드레>는 장편 다큐멘터리 데뷔작이다. 20여 년 동안 지미 친, 알렉스 호놀드 등 세계 최고의 다큐멘터리 감독 및 극한 스포츠 선수와 작업했다.

Pablo Durana

This film is Pablo's debut feature documentary. He is an Emmy Award winning cinematographer and adventure photographer. For almost two decades he has worked with the world's top documentary filmmakers and adventure athletes, including Jimmy Chin and Alex Honnold.



AC3 10.24 17:30

페달 밟는 사람들

The Engine Inside

Canada | 2023 | 81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페달 밟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여섯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200년 된 단순한 기계에 인생을 바치는 모습을 따라간다. 주인공들을 통해 자전거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전 지구적 위기에 맞서 자전거를 타는 단순한 행위에서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배운다.

The Engine Inside follows six everyday people from vastly different worlds who dedicate their lives to a simple, 200-year-old machine. Through the character's actions, we uncover the bicycle's true potential, learning that in the face of our seemingly insurmountable global challenges, hope lies in the simple act of riding our bikes.

단순히 이동 수단으로서의 자전거가 아니라, 삶을 바꾸고 의지하고,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는 동반자로서의 자전거의 모습을, 마치 전 세계를 여행하듯 보여준다. 이 영화처럼 도전과 경쟁이 존재하는 스포츠를 넘어서, 자신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져보길 권해본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The film illustrates how the bicycle is not merely a transportation but a companion that can change our lives and overcome its own struggles, encouraging you to find something that can be your companion, like bicycles for the film's protagonists. **Jinna Lee, Programmer**



달시 위튼버그

풍부한 경험을 갖춘 뛰어난 촬영감독인 앤트힐필름스의 달시 위튼버그는 동료들과 함께 산악자전거 영화에 사용되는 초기 촬영 기법의 대부분을 정립했으며 9편의 장편 사이클링 영화를 감독했다.

Darcy Wittenburg

An experienced and accomplished cinematographer, together with his colleagues at Anthill Films, Darcy pioneered many of the early filming techniques used in mountain bike film. Darcy has directed nine feature cycling films.

풀 서클

Full Circle

USA | 2023 | 105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외상성 부상으로 영구적 장애를 갖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을까? 트레버 케니슨은 2014년 허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겪으며 삶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영원히 바뀌게 되었다. 이 영화는 그가 척수 손상 후 겪게 되는 삶의 어려움을 가감 없이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런 비극이 한 인간에게 가져왔던 성장의 기회를 축하하는 영화이기도 하다.

Faced with a traumatic injury that renders you permanently disabled, how would you reinvent yourself? In 2014, Trevor Kennison's life was forever altered by a broken back-for worse and for better, in equal measures. This is both an unblinking examination of the challenges of life after spinal cord injury and a celebration of the opportunity for growth that such a tragedy can present.

인간의 정신력이 가지고 있는 힘과 비극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영화!

감독 조쉬 벌먼

The film is to illustrate the power of the human spirit and the possibility of turning tragedy into opportunity! **Josh Berman, Director**

AC2 10.24 16:30



조쉬 벌먼

첫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Level 1을 설립했다.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의 고객을 위해 아웃도어 및 액션 스포츠 영화와 상업용 작품을 촬영, 제작, 감독, 편집해 왔고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다.

Josh Berman

Josh founded Level 1 as a vehicle through which to produce his first films. Josh has been shooting, producing, directing, and editing award-winning outdoor and action sports films and commercial work over the past two decades for clients around the globe.



AC2 10.23 10:30

하늘을 향한 여정, K2

K2 - Touching the Sky

Germany, Poland, UK | 2015 | 72min | Color | Documentary



엘리자 쿠바르스카

영화감독이자 산악인. 산과 관련된 영화 제작에서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아 국제산악영화연맹의 그랑프리를 수상한 역사상 최초의 여성 감독이 되었다.

Eliza Kubarska

She is a film director, mountaineer. She was awarded the Grand Prix of the International Alliance for Mountain Film, for outstanding achievements in the production of films related to mountains, as the first woman in history.

1986년 여름, 전 세계에서 수십 명의 산악인이 K2 등반을 위해 모였다. 하지만 등반 시즌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후일 '검은 여름'이라 알려진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13명의 산악인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엘리자 쿠바르스카 감독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저명한 산악인들의 자녀들과 함께 하며 영화를 제작했다.

In the summer of 1986, several dozen alpinists from all over the world met to climb K2. Very soon the season transforms into a series of tragic events called 'black summer', leaving 13 climbers dead. Almost 30 years later, Eliza Kubarska, the director of the film, together with an international group of grown-up children of acclaimed climbers, who died on K2, undertake an expedition to answer the question: what is the price of passion?

올해 IAMF 대상 수상자인 엘리자 쿠바르스카의 영화로, 2021년 대상을 수상한 <쿰카르나: 그림자의 벽>이 세르파 부모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다면, 이 영화는 1986년 K2 사고 후 남은 자녀들의 이야기이다. 또한 감독 자신에게도 큰 질문을 던지는 영화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The latest film by Eliza Kubarska, the winner of IAMF Grand Prize. While her 2021 film *The Wall of Shadows* conveys the feelings of Sherpa's parents, this is about the children left behind after the K2 accident in 1986, with a big question for the director.

Jinna Lee, Programmer

에어 카라코람

Air Karakoram

France | 2023 | 44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산 1
Mountain 1

AC2 10.22 16:30

7명의 친구들은 파키스탄으로 함께 떠나며 히말라야에서 패러글라이딩과 등산, 스키를 동시에 즐기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다. 계획은 간단하다. 패러글라이더를 사용해 높은 산에 도착하게 되면 그 후엔 신나는 일만 남는 것이다. 또한 이 계획은 패러글라이딩 고도의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는 일이기도 하다.

Seven friends came up with a creative idea to travel to Pakistan and enjoy paragliding, trekking, and skiing in the Himalayas. The plan is simple, the paraglider allows them to reach the high mountains and from there it only remains to have fun. It is also the way to try to break the paragliding altitude world record.

5년 전 브로드피크를 패러글라이딩으로 비행했던 앙트완 지라르는 전작 <8000+>에서 그 생생한 모습을 담아냈다. 이번에는 6인의 친구들과 함께 카라코람 산맥을 비행하는 도전을 수행하는데.. 히말라야 자연 속에서 멋지게 하강하는 모습을 파노라마 화면으로 담아냈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Antoine paraglided over Broad Peak 5 years ago, documenting the adventure in his film *8000+*. This time, he goes on a new challenge of flying over the Karakoram with 6 friends, capturing panoramic views during their descent through the Himalayan wilderness.

Jinna Lee, Programmer



앙트완 지라르

20년 동안 프로 스포츠 선수로, 그리고 8년 동안 영화 제작자로 활동했으며 스포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다.

Antoine Girard

Professional sportsman for 20 years and filmmaker for 8 years, passionate about sports documentaries made in action.



AC2 10.22 16:30 Q&A

라유

Reel Rock: Rayu

USA | 2022 | 30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산 1
Mountain 1

뛰어난 인공암벽등반 전문가인 사샤 디줄리안과 마틸다 쇠더룬드가 전통적인 방식의 암벽등반 전문가인 브렛 해링턴과 팀을 이뤄 라유 등반에 도전한다. 해발 2,000피트가 넘는 스페인의 피코스 데 에우로파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5.14 등급의 알파인 암벽 코스인 '라유'는 수직에 가까운 가파른 권곡벽으로 2020년 첫 등정 기록 이후 아직 아무도 등반에 성공하지 못했다.

Elite sport climbers Sasha DiGiulian and Matilda Söderlund team up with trad specialist Brette Harrington to attempt a free ascent of the 2,000-foot alpine rock route, Rayu – a 5.14 in Spain's Picos de Europa. Unrepeated since 2020, Rayu combines heady trad climbing with a burly sport crux on a steep headwall a thousand feet off the deck.

대부분의 등반은 자연이 선사한 예상치 못한 변수를 잘 참아내며 목표를 향해 완주하려는 노력과 참여한 개인들의 의지가 용화를 이루어야 완료할 수 있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힘든 법이다. 이들은 당연하지만 힘든 일을 해낸다. **프로그램어 이정진**

It is a well-known fact that most mountaineering can only be completed through the united efforts of the people involved and their determination to reach their goal while tolerating unexpected variables. They accomplish this obvious but difficult task.

Jinna Lee, Programmer



닉 로젠

작가, 제작자, 릴락의 파트너. <알피니스트: 마크-앙드레 르클레>과 <반란의 계곡>을 공동 감독해 호평을 받았으며, 2005년부터 릴락의 파트너로 다양한 장편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Nick Rosen

Nick Rosen is a partner, writer, and producer at Reel Rock. He is co-director of the acclaimed feature-length documentaries *The Alpinist* and *Valley Uprising*. Since 2005, Nick, working in Reel Rock, has created feature films and TV programs for various channels.

배리 블랜차드 스토리

Spindrift - The Barry Blanchard Story

Canada | 2022 | 29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산 2
Mountain 2

AC3 10.23 17:30

<배리 블랜차드 스토리>는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산악인이 끔찍한 사고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후의 이야기를 담은 29분 분량의 다큐멘터리이다. 산산조각이 난 배리 블랜차드의 의식 상태를 표현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색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 이 영화는, 우리 인생 속에 깃든 삶과 모험, 사랑과 비극에 대한 개인적 성찰을 담고 있다.

Spindrift - The Barry Blanchard Story is a 29-minute documentary that follows Canada's best-known alpinist after he suffers a devastating accident and serious brain injury. Taking an unconventional approach to the documentary form that mimics the shattered consciousness that Barry faces, the film is a personal reflection on the life and adventures, love and tragedy that shape our lives.

등반가에게 산은 동경의 대상이고 영감의 원천이며, 모험에 대한 갈망을 실천하는 길을 보여 주기도 한다. 그러나 눈보라와 상상도 못할 추위가 이런 동경, 영감과 갈망을 막아서기도 하지만, 인간 배리 블랜차드에게 산은 구원자라 절망을 극복하는 안식처라는 것을 보여준다.

프로그램어 이정진

For mountaineers, mountains are objects of admiration, sources of inspiration, and a means to fulfill their passion for adventure. Sometimes, harsh weather cuts off those emotions, but for Barry, a human, the mountains are salvation and shelter from despair.

Jinna Lee, Programmer



이반 휴스

독립영화 제작자. 20년 이상 캐나다와 전세계의 다큐멘터리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수상 경력이 있는 그의 작품들은 다수의 국내외 영화제, TV 및 온라인에서 상영되었다.

Ivan Hughes

Ivan is an independent filmmaker with more than 20 years of experience working on documentary film projects across Canada and around the world. His award-winning work has screened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n festivals, broadcast, and online.



AC3 10.23 17:30 TALK

그린 피라미드의 청춘들

The Green Green Pyramid

 산 2
Mountain 2

Thailand | 2023 | 23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등반 코스인 '세일러문'에 도전하는 두 태국인 등반가의 이야기. 지와 통은 태국에 있는 녹색 피라미드 모양의 산에 위치한 '세일러문' 코스를 정복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출발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었고 등반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This is a story about two Thai climber challenging the climbing route 'Sailor Moon'. Gee and Tung set out to fulfill their dream of conquering 'Sailor Moon', located on a green pyramid-shaped mountain in Thailand. However, both lost their job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had to find new jobs to earn money for their climbing trip.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클라이밍을 사랑하던 한 청년 그룹은 그들만의 코스를 개발하며 자신들만의 즐거움을 찾아 나선다. 어려움에 봉착해 그 안에서 좌절하기 보다 자신들의 탈출구를 만들어 활로를 개척하는 아름다운 청년들의 모습, 이것이 청춘이고 젊음이다. **프로그램머 이정진**

Amid the coronavirus pandemic, young climbing lovers ventured on a quest to find their satisfaction by developing their own courses. These young people chose not frustration but innovation, forging their path forward with the essence of youth and its spirit.

Jinna Lee, Programmer

토니 청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로 중국 양쉬에 거주한다. 단편 영화 만들기를 즐기며 중국의 암벽 등반가에 관한 단편 다큐멘터리를 여섯 편 만들었다. 암벽 등반을 많이 해왔고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Tony Cheung

Tony Cheung is a documentary filmmaker, was based in Yangshuo, China, he has spent a lot of time on rock climbing. He has made 6 short films about Chinese rock climbers documentary. He enjoys to make short films and also try to become stronger on rock climbing.

에베레스트: 전설의 시작

Everest: by those who were there

 산 2
Mountain 2

UK | 2021 | 35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에베레스트로 첫 원정대가 출발한 지 1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영화는 1921년, 1922년, 1924년에 이루어졌던 에베레스트 원정의 역사를 탐구한다. 샌디 어빈의 손녀인 줄리 서머스가 많은 저명한 산악인들의 업적과 함께 원정대들의 역사를 안내하며 존 노엘의 기록 영상 원본과 알파인 클럽 컬렉션의 여러 이미지를 이용해 과거를 되살려냈다.

One hundred years on from the first Everest expedition, the film explores the history of the expeditions in 1921, 1922 and 1924. Julie Summers, the grandniece of Sandy Irvine, guides us through the history with contributions from many distinguished climbers. The film brings the past into the present by using John Noel's original film and many images from the Alpine Club Collection.

에베레스트 등반 원정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이 영화는, 에베레스트 정상등반 70주년을 맞은 올해에도 유효한 영화이다.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고자 한 이들의 기록과 등반의 행적은 단순한 사료가 아닌, 산악영화제의 발생과 성장과도 연결되는 지점을 만들어낸다.

프로그램머 이정진

Made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Everest expedition, the film remains poignant today, the 70th anniversary of the summit. The documentation of the first climbers is not just historical records; it connects with mountain film festivals' birth and growth. **Jinna Lee, Programmer**

AC3 10.23 17:30


존 포터, 돔 부시

많은 수상 경력을 가진 돔 부시는 브랜드와 단체를 위한 매력적인 캐릭터 주도형 영화 제작에 열정을 쏟고 있다. 존 포터는 켄달 마운틴 페스티벌의 공동 창립자로 오랫동안 영화에 관심을 가져왔다.

John Porter, Dom Bush

Dom Bush has won many awards for his work and is passionate about creating engaging character-led films for brands and organisations. John Porter has had a long interest in film, having co-founded the UK's premier mountain film festival - Kendal Mountain Festival.

자연

Nature

영화제 사무국은 영남알프스 간월산 입산로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스태프에게 산은 일터이자,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고, 변화무쌍한 날씨에 반응하며, 고라니, 다람쥐와 꿩 가족이 산책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자연의 변화와 소중함을 체감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연 섹션 상영작은 이런 자연의 소중함을 지키고 탐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총 12편이 소개됩니다. 대한민국 울주에서 벗어나, 우리는 영화를 통해 미국 플로리다 팬서의 서식지 보호 활동-<플로리다 팬서>와 아이슬란드에서 아기 바다오리 보호에 나서는 두 소녀-<아기 바다오리 구조대>의 활동을 보며, 우리 주변의 사라져가는 동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 시베리아의 해안가에서 바다표범 무리의 서식이 끼치는 영향을 근접촬영 영상으로 담아낸 <하울아웃>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동물과 공존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제 사무국에서는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는 방법으로 종이컵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노력이 그린란드 빙하의 녹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인투 더 아이스>, 메마르고 생명력 없는 화성처럼 변해가는 지구의 변화를 늦출 수 있는지-<지구, 새로운 화성> 더욱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어서 <플래닛 B>에서는 이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활동하는 두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하게 됩니다.

더불어, 개별 전문분야의 해답을 자연 속에서 찾은 이들도 있습니다. 미술쟁 레스토랑 출신 셰프가 자연주의キッチン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녀의 키친, 쉬 셰프>, 그리고 날씨에서 영감을 받아 문학과 그림, 녹음 등 자신의 분야를 고양시키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소개하는 <날씨의 맛>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거대한 자연의 품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머 이정진**

The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 office is located at the entrance to Ipsan-ro in Ganwolsan, part of the Yeongnam Alps. For the UMFF staff, the mountain serves as more than just a workplace; it transforms with each passing season, adapts to unpredictable weather, and provides a haven for water deer, squirrels, and pheasants. Hence, UMFF recognizes the profound and everchanging beauty of nature. This year, the Nature Section features 12 films about people who appreciate and explore the wonders of our nature. Let's venture beyond Ulju, Korea, and reflect on the vanishing species and the global efforts to coexist with nature – to a Florida Wildlife Corridor in *Path of the Panther*, to Iceland, where two girls rescue baby puffins in *Puffling*, and to Arctic Siberia, where a group of seals leaves its mark on the shoreline, captured through close-up footage in *Haulout*.

The UMFF office also actively promotes waste reduction initiatives, including the conscientious reduction of paper cup usage. We look around, hoping such small efforts can slow down the melting rate of the Greenland glaciers – *Into the Ice* – or delay the transformation of Earth into a barren, lifeless planet like Mars – *Earth the New Mars*. Watching two girls in *Planet B* express their thoughts and actively combat climate change encourages our own self-reflection.

In addition, there are those who have found solutions to their specific fields in nature. A Michelin rated restaurant chef creates a sustainable kitchen in *She Chef*, and various experts are introduced in *The Taste of Weather*, as they draw inspiration from the weather to nurture their respective fields of literature, art, and recording. We are reminded that we must still coexist within the vast embrace of nature. **Jinna Lee, Programmer**



UC 10.23 17:00

그녀의 키친, 쉬 셰프

She Chef

Germany, Austria | 2022 | 105min | Color | Documentary



멜라니 리브하이트, 게레온 베첼

멜라니 리브하이트는 뮌헨과 맨체스터에서 민족학을 전공 후 뮌헨영화학교에서 다큐멘터리 영화학을 공부했다. 게레온 베첼은 본 출신으로 바이에른의 아이슈타트에서 영화 제작자, 작가, 강사로 활동 중이다.

Melanie Liebheit, Gereon Wetzel

Melanie Liebheit studied ethnology in Munich and Manchester and Documentary film at the University of Television and Film, Munich. Gereon Wetzel, 1972 in Bonn (Germany), lives and works as filmmaker, author and lecturer in Eichstatt/Bavaria.

<그녀의 키친, 쉬 셰프>는 2018년 요리 월드컵에서 우승한 젊은 셰프 아그네스가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레스토랑 세 곳을 거치며 마스터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담았다.

She Chef is the portrait of young chef and recent culinary world cup winner Agnes on her journey to mastery through three of the most outstanding restaurants in the world.

<그녀의 키친, 쉬 셰프>는 매우 다양한 요리 문화를 깊이 파헤치고 관객들이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레스토랑의 작업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최고의 셰프가 되기 위한 아그네스의 야심 찬 여정을 그 첫 시작부터 따라간다. **배급사 마그네틱필름**

She Chef digs deep into very different cultures of cooking and give us detailed insights into the ways of working of today's most interesting restaurants and we will follow Agnes ambitious journey and track her way to become a top chef from the very beginning.

MAGETFILM, World Sales

TC 10.21 15:30 08A

날씨의 맛

The Taste of Weather

Korea | 2023 | 61min | Color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하루의 시작은 날씨를 확인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날씨에 맞춰 옷을 고르고 점심 메뉴도 달라진다. 문학, 영화, 예술에서 날씨는 사건과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는 주요 장치다. 우리에게 날씨란 무엇일까? 단순한 배경일까? 아니면 삶을 관통하는 그 무엇일까? '날씨'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풀어낸 다큐멘터리!

We start our day by checking the weather. We choose our clothes and even our lunch according to the weather. In literature, movies, and art, weather is an important device to depict events and characters' emotions. What does weather mean to us? Is it merely a backdrop, or does it penetrate through our lives? This documentary unravels the concept of 'weather' from a humanities' perspective!

인간에게 '날씨'란 무엇일까? 다큐멘터리의 출연자들이 자신만의 '만화경'을 가지고 날씨를 바라보듯이 관객들도 자신만의 시선으로 날씨를 한 번쯤 되돌아봤으면 하는 소망이다.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으니 말이다. **감독 이정호, 김장희**

What is 'weather' to humans? Just as each subjects in the documentary view the weather through their own unique lenses, we hope the audience can take a moment to reflect on what weather means to them. After all, there is no such thing as bad weather.

Lee Jung-ho & Kim Jang-hee, Directors



이정호, 김장희

이정호와 김장희는 UBC 울산방송의 PD다. 문화, 인간, 인문, 역사 등 지역의 시선으로 바라본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Lee Jung-ho, Kim Jang-hee

Lee Jung-ho and Kim Jang-hee are directors at UBC(Ulsan Broadcasting Corporation). They have directed various documentaries that offer diverse perspectives on culture, humanities, history, and other topics from a regional point of view.



AC2 10.25 16:30

조류를 거슬러

Against the Tide

India, France | 2023 | 97min | Color | Documentary



사르브닉 카우르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면에 숨겨진 긴장과 갈등을 이야기하고자 노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뭍바이의 콜리 커뮤니티에서 3년에 걸쳐 그녀의 새 다큐멘터리 <조류를 거슬러>를 제작했다.

Sarvnik Kaur

Sarvnik Kaur is a documentary filmmaker who strives to tell stories that hide the tension and conflict just beneath the surface of the normal and mundane. She has spent three years with the Kolis of Bombay developing her new documentary *Against the Tide*.

뭍바이의 어부 라케시와 가네시는 콜리 족의 가르침을 계승해왔지만, 전통적인 콜리 어부의 방식을 고수하는 라케시와는 달리 가네시는 신기술을 받아들이게 된다. <조류를 거슬러>는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더 인간에게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바다를 배경으로 형제처럼 가까운 두 사람의 우정과 깊어지는 원망에 관한 이야기를 그려낸다.

Bombay fishermen Rakesh and Ganesh are inheritors of the great Koli knowledge system. Rakesh has kept faith in the traditional fishing methods, while Ganesh embracing technology. *Against the Tide* is a tale of friendship and rising resentment between the two men, as close as brothers, against the backdrop of an adoring sea, which is increasingly turning hostile because of climate change.

인도 뭍바이 바다에 사는 두 어부의 우정은 견재하지만, 그들의 생업은 전통과 현대, 보존과 자본 투여라는 극적인 대립의 형태를 보여준다. 가치 판단은 관객의 몫으로 남겨둔 이 영화는 2023년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하였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While the friendship between the two fishermen remains firm, their livelihoods clash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conservation and capitalization, asking the audience to judge their choices and lives. Special Jury Award Winner at the 2023 Sundance.

Jimna Lee, Programmer

매직 마운틴

Magic Mountain

Georgia, Poland | 2023 | 74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7년 동안 반복되는 악몽에 시달리는 마리암의 이야기. 어느 날 자신의 꿈에 등장하던 아바스투마니 결핵 요양소를 찾아가던 마리암은, 조지아의 과거 이야기들 들려주는 이 웅장하고 오래된 건물에 반하게 된다. 하지만 조지아의 한 거물이 이 건물을 사들이기로 하면서 그의 행동은 역사를 돌이킬 수 없이 바꿔놓는다.

This is the personal story of Mariam, who is haunted by a recurring nightmare for 7 years. One day she goes to meet the monster of her dreams – Abastumani Tuberculosis Sanatorium, and she falls in love with the majestic old building that tells stories of Georgia's past. But one day, a Georgian oligarch decides to buy the building, and his actions change history forever.

조지아의 산이 가지고 있는 오묘한 기운과 이 영화의 주 배경인 아바스투마니 병원의 분위기는 기묘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기묘함은 다양하게 층위를 형성하는 이야기의 구조, 병원을 둘러싼 산이 지닌 풍경, 이를 잘 담아낸 촬영과 감독의 경험이 녹아들어 만들어내고 있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The Abastumani, the film's main setting, and the eerie Georgian mountains are strangely intertwined. This mysterious connection is shaped by the layered narrative, the mountains enveloping the hospital, and the director's cinematography and expertise.

Jimna Lee, Programmer

AC1 10.23 16:00



마리암 차치아, 닉 보이트

오피오독의 창립자인 마리암 차치아는 조지아 다큐멘터리협회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다. 닉 보이트는 수많은 국제 영화제에서 상영된 장편 다큐멘터리 9편에 촬영 감독으로 참여했다.

Mariam Chachia, Nik Voigt

Mariam is the founder of OpyoDoc production company and co-founder of DOCA Documentary Association Georgia. Nik Voigt now has nine Director of Photography credits on feature documentaries that have been screened at numerous international festivals.



AC2 10.23 16:30

인투 디 아이스

Into the Ice

Denmark, Germany | 2022 | 86min | Color | Documentary



라르스 오스텐펠트

과학 및 자연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다. 룬드벡 재단, 네이처 라이브 등과 함께 덴마크 방송 협회와 TV2를 위해 Ph.D.Cup 등 여러 수상 경력에 빛나는 프로그램들을 제작했다.

Lars Ostfeld

He has many years of experience within science and nature documentary. He is behind several award-winning programmes for DR and TV2, including Ph.D.Cup, created in cooperation with the Lundbeck Foundation and Information, The Pain Experiment and Nature Live.

빙하학자 3명과 함께 그린란드 내륙의 얼음 속으로 탐험을 떠나는 여정을 담았다. 그곳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금 당장 인류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경고이다.

This film travels with three pioneering glaciologists on their expeditions into the inland ice of Greenland. What they find may sound the alarm for our planet's climate and is a clear call to act now.

관객들이 우리와 빙하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 인식하고 궁극적으로는 빙하를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매우 감각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감독 라르스 오스텐펠트

It has been my ambition to create a very sensory film, so viewers who watch it will hopefully feel more closely connected to the ice - and thereby ultimately be willing to fight for it.

Lars Ostfeld, Director

플래닛 B

Planet B

Netherlands, Belgium | 2023 | 74min | Color | Documentary

보는 친구 루카와 함께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멸종 저항이라는 단체에 합류해 공장 부지와 고속도로를 점거하게 되고, 체포되어 비난을 받는다. 하지만 정작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플래닛 B>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두 젊은이의 이야기이다.

Together with her friend Luca, Bo decides to take up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and they join Extinction Rebellion. They occupy factory sites and highways, they are arrested and criticized. But what are politicians doing? Why does all this take so long? *Planet B* is a coming-of-age story of two youngsters exploring how to grow up in a world destroying itself.

이 영화는 성장기에 있는 루카와 보, 두 소녀가 기후위기에 봉착한 현실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기적으로 성장통 단계에 있으면서, 정치적 시위에 참가하는 두 소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른이 가져야 할 교육적 가치와 환경 운동의 방식에 대해 고민을 던지는 영화이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The film follows two young girls, Luca and Bo, as they deal with the climate crisis, prompting us to reflect on adult values and our approach to environmental activism while showcasing their participation in a political protest during their adolescence. **Jinna Lee, Programmer**

AC2 10.29 16:30 TALK



피터르 반 에크

브뤼셀에서 활동하는 영화 제작자이자 기후 운동가. 장편 다큐멘터리 <구름 위의 사무엘>과 <마지막 하늘 아래>는 다수의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으며 <플래닛 B>는 세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이다.

Pieter van Eecke

He is a filmmaker and climate activist based in Brussels. His first two feature length documentary *Samuel In The Clouds* and *Holding Up the Sky* received numerous awards and interests from various festivals. His third feature, *Planet B*, is currently being finished.



TC 10.22 12:30 TALK
UC 10.27 23:00

플로리다 팬서 Path of the Panther

USA | 2022 | 89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에릭 벤틀릭

에미상을 수상한 감독, 프로듀서, 작가. 인간과 야생 공간의 교차점에서 연계성, 갈등, 독창성을 탐구하는 영화를 만든다. 다양한 채널을 위해 제작한 그의 영화는 주요 영화제에서 수 많은 상을 받은 바 있다.

Eric Bendick

Eric is an Emmy-winning director, producer, and writer whose films explore connectivity, conflict, and ingenuity at the intersection of human and wild spaces. His films for various channels have garnered numerous awards from major film festivals around the world.

플로리다의 에버글레이즈 습지에서는 생태계를 붕괴 직전까지 몰아넣은 재생과 파괴라는 두 세력 간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작가 칼턴 워드와 생물학자들, 목장주들, 환경보호운동가들, 원주민 연합은 플로리다 팬서라는 잊을 수 없는 유령에 이끌려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이 전투의 최전선에 서게 된다.

Drawn in by the haunting specter of the Florida panther, Nat Geo photographer Carlton Ward and a coalition of biologists, ranchers, conservationists, and Indigenous Peoples find themselves on the front lines of an accelerating battle between forces of renewal and destruction that have pushed the Everglades to the brink of ecological collapse.

플로리다 팬서 지키기 운동은 내셔널지오그래픽 협회 및 다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플로리다 야생동물 통행로 법을 통과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 법안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야생동물 서식지 분열 및 생물종의 멸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감독 에릭 벤틀릭**

Path of the Panther movement's collaboration with National Geographic Society and other partners inspired the passage of the Florida Wildlife Corridor Act - a blueprint for addressing habitat fragmentation and species extinction across the globe. **Eric Bendick, Director**

하울아웃 Haulout

UK | 2022 | 25min | Color | Documentary

자연 1
Nature 1

AC2 10.22 19:30

바람이 휘몰아치는 시베리아 북극 해안의 오두막에서 한 남자가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의식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온난화가 진행 중인 바다와 기온 상승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불러오고, 그는 곧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압도당한다.

On a remote coast of the Siberian Arctic in a wind-battered hut, a lonely man waits to witness an ancient gathering. But warming seas and rising temperatures bring an unexpected change, and he soon finds himself overwhelmed.

이 영화는 지구 온난화가 북극 지방에 끼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인 동시에 북극에서 개인적인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굽힘 없이 헌신하는 과학자들에 대한 찬사이다.

감독 예브게니아 아르부가예바, 막심 아르부가예브

This film is a report on the consequences of global warming in the Arctic and, at the same time, a tribute to the stubborn dedication of scientists who work in these lands with a great personal commitment. **Evgenia Arbugaeva & Maxim Arbugaev, Directors**



예브게니아 아르부가예바, 막심 아르부가예브

남매인 두 감독은 사하(아쿠티아)공화국의 톱시 마을 출신이다. 자신들의 고향인 북극 지방을 살피며 외딴 세계와 그곳에 사는 이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모습을 담은 작업을 한다.

Evgenia Arbugaeva, Maxim Arbugaev

Evgenia Arbugaeva and Maxim Arbugaev are sister and brother, born in the town of Tiksi, Republic of Yakutia. Their work often looks into their homeland - the Arctic, discovering and capturing the remote worlds and people who inhabit them.



AC2 10.22 19:30

폭설의 기억

The Avalanche

 자연 1
Nature 1

Germany, Türkiye | 2022 | 60min | Color, B&W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체스를 파시즘에서 살아남는 수단으로 묘사한 슈테판 츠바이크의 소설에서 영감을 얻은 <폭설의 기억>은 튀르키예 정부가 저지른 아르메니아인 집단학살 사건과 그에 대한 논란을 재조명한다. 감독은 아르메니아 지역의 기록 영상과 현재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통해 아르메니아인들이 사는 풍경과 기억 속에 남아있는 트라우마를 드러낸다.

Inspired by Stefan Zweig's novella, in which playing chess is depicted as a means of surviving fascism, *The Avalanche* recounts the events of the Armenian Genocide, still contested by the Turkish state. Pinar Öğrenci uses archives and present-day footage of the region to uncover the traumas left by the Armenian people on their landscape and their memories.

감독은 동부 튀르키예를 고향에 둔 아버지의 역사를 따라, 여러 아카이빙 자료와 촬영본으로 전시를 열고, 또한 이 작품을 만들어냈다. 원제 '눈사태'는 자연재해 속에서 생존해야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자 동시에, 폭압과 학살 같은 역사 속의 눈사태까지 함께 의미한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Following his father's legacy in Eastern Türkiye, the director created the exhibition and film from archival materials and footage. *The Avalanche* symbolizes both the survivors of natural disasters and historical avalanches, such as tyranny and genocide. **Jinna Lee, Programmer**



피나르 외렌지

예술가, 영화 제작자로 베를린에 거주한다. 대규모 이주의 원인을 쫓으며 사회, 정치 및 건축적 연구, 일상적 관행, 사람들의 사연과 문학의 교차점에서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을 담은 작품을 만든다.

Pinar Öğrenci

Artist and filmmaker Pinar Öğrenci lives in Berlin. Her works are decolonial and feminist readings from the intersections of social, political and architectural research, everyday practices, human stories and literature that follow agents of migration.

얼음 상인들

Ice Merchants

 자연 2
Nature 2

Portugal, France, UK | 2022 | 15min | Color | Animation

아버지와 아들은 아슬아슬하게 절벽에 붙어 있는 추운 집에서 매일 얼음을 만든다. 그리고 그 얼음을 팔기 위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 멀리 떨어진 지상의 마을로 간다.

Everyday, a father and his son jump with a parachute from their vertiginous cold house, attached to a cliff, to go to the village on the ground, far away, where they sell the ice they produce daily.

영화는 단순히 산꼭대기에서 얼음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아닌, 기후변화와 미술적 리얼리즘의 세계를 절묘하게 결합하였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The film is not just a story about a father and son making a living selling ice from the top of a mountain; it is a masterful blend of climate change story and magical realism.

Jinna Lee, Programmer

AC4 10.23 19:00

AC2 10.25 10:30



주앙 곤잘레스

칼루스트 굴베키안 재단의 장학금을 받아 <네스터>와 <보이지>를 만들었다. 2022년에는 칸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에서 <얼음 상인들>로 경쟁 부문 최우수 단편 영화상을 받았다.

João Gonzalez

João Gonzalez is a recipient of a scholarship from the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In these institutions, he made 2 award-winning films, *Nestor* and *The Voyager*. In 2022, he won the Prize for Best Short film in competition at the Critics Week, with *Ice Merchants*.



AC4 10.23 19:00
AC2 10.25 10:30

지구, 새로운 화성

Earth the New Mars

자연 2
Nature 2

UK, Italy | 2022 | 40min | Color | Documentary | International Premiere

2020년 7월 나사의 탐사 프로그램은 화성의 과거 기후 및 지질학적 연구를 위해 탐사차인 퍼서비어런스 로버를 보낸다. 이후 화성의 우주 과학자들은 지구의 지질과 기후를 연구하기 위해 머시 미션을 실행한다.

Following the Perseverance Rover space mission launched by the NASA Exploration Program in July 2020, to monitor the geology and the past climate on planet Mars, a group of Martian astronauts launch mission Mercy to study the geology and climate on planet Earth.

또 다른 파운드 푸티지 제작영화. 전작 <빙하랜드>에서 보여준 풍자와 해학의 분위기를 전한, 사전조사와 예행연습을 위해 지구의 기후변화를 조사한 화성 탐사준비팀의 자료를 자신만의 스토리로 재구성했다. 마치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화면을 통해, 우리의 위기를 객관화 할 수 있다. **프로그램머 이정진**

Devoid of the satire and humor from *Icemeltland Park*, the director reimagines the Mars Exploration Prep Team's Earth climate change research in this found-footage film, objectifying our crisis by offering a unique perspective from space to view the Earth.

Jinna Lee, Programmer



릴리아나 콜롬보

런던에 거주하는 영화 제작자. 미국에서 편집자 및 시각 효과 아티스트로 일한 후 영화 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다양한 국제 영화제에 많은 작품을 발표했고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다.

Liliana Colombo

Liliana Colombo is a filmmaker based in London. After working as an editor and visual effects artist in the United States, she started her film practice that has led many of her works to be presented and awarded at numerous international festivals.

아기 바다오리 구조대

Puffling

자연 2
Nature 2

Iceland, UK | 2023 | 20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아이슬란드의 외딴섬에 사는 10대 청소년인 비르타와 셀마는 밤늦게까지 파티를 하는 대신 야행성 바다오리를 구조하고 있다. 청소년들과 바다오리들이 함께 성장해가는 이야기.

On a remote Icelandic island, teenagers Birta and Selma trade late night parties for nocturnal puffin rescues in this coming-of-age story for young adults and puffins alike.

비르타와 셀마는 아기 바다오리처럼 인생의 과도기에 서있으며 선택해야 할 일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십대 소녀들과 함께 그들의 시간을 나누도록 초대하는 이 영화는 의도적인 조용함이 깃들여 있다. **감독 제시카 비숍**

Birta and Selma, like the pufflings, are in a transitional period of their lives with choices to make and challenges to overcome. It is a deliberately quiet film, where we are invited to spend time with the young women. **Jessica Bishopp, Director**

AC4 10.23 19:00
AC2 10.25 10:30



제시카 비숍

다큐멘터리 감독. 서브컬처와 신화에 매료되어 일상에 내재한 보편적인 주제를 탐구한다. 셰필드 다큐멘터리영화제와 미국영화협회 다큐멘터리영화제 등에서 작품을 상영했고 아스펜 단편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Jessica Bishopp

Jessica Bishopp is an award-winning documentary filmmaker fascinated by subcultures and myth, exploring universal themes embedded in our daily lives. Her work has screened at festivals including Sheffield Doc/Fest, Aspen Shortsfest and AFI DOCS.

인간

Human

올해 신설한 인간 섹션은 다양한 인간의 삶과 모습 중 역사의 중심에서 소외되어 왔던, 작은 이들의 목소리에 주목하는 감독과 영화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디어와 역사, 심지어 많은 영화들도 위정자나 사건의 주인공만을 기억해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주칠 수 있는 거리의 행인이나 카페 종업원은 전체의 일원이면서, 각자의 의식과 목소리를 가진 개인이기도 합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이런 작은 이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목소리와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프랑스 누벨바그의 주역이자 끊임없이 영화 언어에 도전해 온 아녜스 바르다의 후기작 중 현대 사회 속에서 버려지는 것과 사라져가는 사람들을 찾아 발견한, 작업 3편 <이삭줍는 사람들과 나>, <이삭줍는 사람들과 나, 2년 후>,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다양한 해외 스포츠 영화들을 소개해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인기종목 스포츠의 주인공이 아닌, 주변부에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대학 산악부 출신인 주인공이 재난상황이 되어야 자신의 장기를 펼칠 수 있었던 <엑시트>,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여성 씨름선수들의 이야기 <모래바람>, 단거리 육상 선수들의 실제와 같은 에피소드들로 구성된 <스프린터> 그리고 오합지졸 선수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 낸 이야기 <리바운드>에서 우리는 또 다른 재미와 감동을 찾아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연 속에서 위로와 치유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소개합니다. 배우들의 등산모임 맘 산악회의 회원들은 북한산을 오르며 위로를 찾고-<삼각형의 마음>, <파미르>는 2014년 세월호로 친구와 가족을 잃은 이들이 겪는 기억과 생존의 고통을 나눕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소수민족 출신인 할아버지와 손녀의 로드 무비 <클로브와 카네이션>은 어렵고 힘든 영화 속 현실을 넘어선, 환상과 승화의 결말로 관객의 감동을 이어갑니다.

프로그램머 이정진

This year's newly established Human Section will highlight directors and films that focus on the voices of those who have been marginalized throughout history. Media and history, and even films, have mostly remembered only the powerful and the famous. Yet the passersby on the street and the coffee shop workers we meet every day each have an individual voice, while being part of the whole.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 aims to bring these little guys to the limelight, providing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ir voices, stories, and lives. We present three later works by Agnès Varda, a key figure in French New Wave cinema: *The Gleaners and I*, *The Gleaners and I: Two Years Later*, and *Face Places*, which shed light on things that are discarded and people who are forgotten in our modern society.

UMFF has always featured a variety of sports films from abroad. This year, we bring films about people playing on the sidelines, not the stars of popular sports. We will be moved by films like *EXIT*, about a college mountain club member who gets to show off his skills during a disaster scenario, *Sandstorm*, exploring the unfamiliar world of female wrestlers, *Sprinter*, with episodes like real life experiences by short distance track athletes, and *Rebound*, about a group of ragtag band of athletes creating a miracle. We will also feature stories about people seeking solace and healing in nature. Members of an actors' mountain club find comfort as they climb Bukhansan in *At the Peak of Our Own Story*, while *Pamir* shares the painful memory of those who lost friends and family in the tragic sinking of the Sewol ferry in 2014. Lastly, the road movie featuring a Turkish minority grandfather and his granddaughter, *Cloves & Carnations*, will bring the harsh reality in the screen to a fantastical and uplifting finale.

Jinna Lee, Programmer





UC 10.28 17:00 Q&A, PF

리바운드

Rebound

Korea | 2022 | 122min | Color | Fiction



장항준

서울예대 연극과 졸업.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라이터를 췌라> 감독으로 데뷔했으며, <리바운드>는 우디네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했다.

Zhang Hang-jun

A film director and screenwriter, he graduated from th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with a degree in Theater. He made his directorial debut with *Break Out*, and *Rebound* received the Audience Award at the Udine Far East Film Festival.

농구선수 출신 공익근무요원 양현은 해체 위기에 놓인 부산중앙고 농구부의 신임 코치로 발탁된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팀이었지만 신임 코치와 6명의 선수들은 함께 전국대회에 출전한다. 모두가 불가능이라 말할 때, 그들은 '리바운드'라는 또 다른 기회를 잡으며 2012년 전국 고교농구 대회에서 써 내려간 8일간의 기적을 보여준다.

Yang-hyun, a former basketball player and public service worker, becomes the coach of the struggling Busan Jungang High School basketball team. Despite little attention, the team advances to the national championship. When everyone deems it impossible, they seize a chance called 'Rebound' and stage a miraculous eight-day run at the 2012 National High School Basketball Championship.

때때로 현실은 영화적 리얼리티보다 강한 힘을 가질 때가 있다. 이것이 극화되면, 그 강한 힘은 관객에게 더 큰 감동의 파도가 되어 전달된다. 최근 필모그래피가 보여준 감독의 진중함과 배우들의 연기가 그 파도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Reality can be stronger than cinematic depictions, and when it is dramatized, that power is sent to the audience in waves of heightened emotion. This wave feels even stronger due to director's works infused with depth and actors' performances.

Jinna Lee, Programmer

모래바람

Sandstorm

Korea | 2023 | 78min | Color | Documentary

2009년 최초의 여자 천하장사가 탄생하면서 여자 선수들은 여자 씨름도 정식 대회와 실업팀이 생길 거라고 기대한다. 그 후 10년, 비인기 종목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5명의 여자씨름선수들이 천하장사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With the birth of the first female champion in 2009, female wrestlers expect to have formal competitions and business teams. In the next 10 years, five female wrestlers, who overcame unpopular sports and survived, struggle to become Ssireum champions.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지 않더라도 인생은 계속 된다. 흔들리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모래판 위의 치열한 승부와 그 이면을 통해 숨가쁘게 앞만 보고 달려왔을 현대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성장통과 우애를 담아내고 싶었다. **감독 박재민**

It's beautiful to see how we strongly walk our own path even if wavering sometimes. I wanted to make a movie that can give consolation to the modern people who are panting to live out their life through intense competition. **Park Jae-min, Director**

UC 10.21 17:00 08A

UC 10.28 23:00



박재민

1983년 경북 영주시 출생. 직장인으로 재직 중 여자씨름을 만나 다큐멘터리 제작에 뛰어들었다. 단편 다큐멘터리 <별 볼 일 있는>을 연출했으며, <모래바람>은 첫 장편 연출작이다.

Park Jae-min

Born in 1983 in Yeongju, South Korea. While living as a monotonous office worker, she met a female Ssireum and began her life's adventure by jumping into documentary production. *Sandstorm* is the first full-length production.



AC1 10.21 13:00 Q&A

삼각형의 마음

At the Peak of Our Own Story

Korea | 2023 | 90min | Color | Documentary



안지환

부산에서 성장한 안지환은 <동물, 원>, <봉명주공>, <생츠퍼리>, <증발>, <김군> 등의 다큐멘터리 작업에 다양한 역할로 참여했다. 현재는 시나리오 집필 중이다.

Ahn Jee-hwan

He participated in various roles in documentary works such as *Garden*, *Zoological*, *Sanctuary*, and *Kim-gun*, and is currently writing scenarios.

배우들로만 이루어진 산악회인 '맘 산악회'는 18년째 매주 북한산에만 오르고 있다. 극장이 쉬는 월요일에 혼자 있지 말하며 배우 손병호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해, 산악회를 오고 간 배우가 백여 명이 넘는다. 모두가 다른 위치에서, 각자의 마음에 아픔과 꿈과 목표를 품고 함께 서울을 지키고 있는 큰 산을 오른다.

On Mondays, when the theater is closed, actors climb a mountain. They have been climbing the same mountain every week for 18 years, carrying their own pains, dreams, and goals in their hearts as they climb Seoul's mountains together.

캐릭터의 마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표현하는 일을 하는 배우들. 그들이 연기하는 캐릭터들은 어떻게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듯하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삶이라는 무대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성장하는 방법을 찾았을까? **감독 안지환**

In the movies, the characters seem to heal their emotional wounds one way or another. However, have these actors themselves found ways to take care of their own hearts and grow on the stage called life? **Ahn Jee-hwan, Director**

스프린터

Sprinter

Korea | 2022 | 87min | Color | Fiction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100미터 선수였던 현수.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점점 기록이 오르고 있는 단거리 선수 준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단거리 선수 정호. 세 선수는 각자의 이유로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한다.

Hyun-soo is the former fastest 100-meter player in Korea. Jun-seo is a short-range player who is still a high school student, but his record keeps getting better. Currently, Jung-Ho is the fastest sprinter in Korea. The three players prepare for the national team selection for their own reasons.

작은 규모의 영화지만, 스포츠라는 장르적인 재미와 우리 일상과 가깝고, 누구나 공감이 가능하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감독 최승연**

It's a small movie, but I wanted to make it close to the genre of sports and our daily lives. I hope you watch it as a movie that anyone can relate to and watch it comfortably.

Choi Seung-yeun, Director

UC 10.28 23:00 Q&A



최승연

중앙대학교와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영화 연출을 공부했고, 2016년 <수색역>을 첫 장편영화로 만들었다.

Choi Seung-yeun

He studied film directing at ChungAng University and Korea Academy of Film Art. In 2016, *Su-saek* was made into the first feature film.



UC 10.22 17:00 PF

엑시트

EXIT

Korea | 2019 | 103min | Color | Fiction



이상근

한예중 영상원 영화과 전문사 졸업. <베이베를 원하세요?>로 미장센 단편영화제 최극지방 최우수작품상을 받았다. <엑시트>는 그의 장편 데뷔작으로 다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한 바 있다.

Lee Sang-geun

Graduated from K'ARTS with an MFA in Filmmaking. His short, *Do You Wanna Baby?*, won the Best Film Award at the Mise en Scene Short Film Festival. *EXIT* is his debut feature film and has received awards at various film festivals.

대학교 산악 동아리 에이스 출신이지만 졸업 후 몇 년째 취업 실패로 눈치밥만 먹는 용남은 온 가족이 참석한 어머니 칠순 잔치에서 연회장 직원으로 취업한 동아리 후배 의주를 만난다. 어색한 재회도 잠시, 의문의 연기가 빌딩에서 피어오르며 순식간에 도심 전체는 유독가스로 뒤덮여 혼란에 휩싸인다. 용남과 의주는 동아리 시절 쌓아 뒀던 체력과 스킬을 동원해 탈출을 향한 기지를 발휘하기 시작한다.

Yong-nam, an ex-college mountaineering star, has struggled to find a job for years after graduation. He reunites with an old clubmate, Ui-joo, at his mother's 70th birthday party, now a banquet staffer. Shortly after the awkward reunion, chaos erupts when toxic gas engulfs the city center from a building, compelling them to use their physical strength and club-acquired skills to escape.

영화의 배경인 도시의 유독가스 살포로 인한 고난의 상황은 일반 재난영화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주인공들이 대학 산악부 출신이라는 설정이 가져 오는 위기극복과 탈출의 순간은, 산악영화의 이야기 확장과 장르적 확장의 희망을 엿보게 만드는 좋은 배경이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A tough situation caused by a toxic gas attack in a city aligns with a disaster film, but the twist unfolds as former college mountaineers use their skills to evade. This blend of genres provides the potential to expand the story and genre of mountain films.

Jinna Lee, Programmer

카쉬 카쉬

Kash Kash - Without Feathers We Can't Live

Germany, Lebanon, Qatar | 2022 | 90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베이루트 상공에는 비둘기를 유인하는 게임인 카쉬 하맘이라는 뜻밖의 희망의 메신저가 날아다닌다. 최근의 절망적인 정치 붕괴 속에서도 지붕에서 지붕으로 여행을 떠나며 하나가 되기 위해 싸우는 세 명의 카쉬 하맘 플레이어와 한 소녀를 영화에서 만나게 된다.

Above Beirut flies an unexpected bearer of hope: the pigeon game "Kash Hamam". During the recent dystopian political collapse, we embark on a journey from roof to roof where we encounter three players and a young girl fighting to become one.

이 영화는 레바논이 무너지고 있던 시기에 내게 큰 의미를 준 작품이다. 폐허가 된 도시 위에서 비둘기 게임을 계속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통해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감독 레아 나자르

This film is a matter close to my heart, it gave me meaning in times when Lebanon was crumbling. I hope to share the stories of our characters, who continued to gamble their pigeons above a city in ruins, as a small bearer of hope. **Lea Najjar, Director**

AC2 10.20 13:30



레아 나자르

1994년 빈에서 태어났고 베이루트에서 자랐다. 2014년부터 바덴뷔르템베르크 필름아카데미에서 공부했으며, 첫 장편 영화인 <카쉬 카쉬>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학위를 취득했다.

Lea Najjar

Lea Najjar, born in 1994 in Vienna, grew up in Beirut. From 2014 she studied at the Filmakademie Baden-Württemberg and completed her degree in documentary filmmaking with her first feature film *Kash Kash*.



AC2 10.20 16:30

AC1 10.24 10:00

클로브와 카네이션

Cloves & Carnations

Türkiye | 2022 | 103min | Color | Fiction | Korean Premiere

아나톨리아 남동부의 눈 덮인 황량한 길. 나이 든 난민 무사는 죽은 아내의 시신을 손녀와 함께 고향으로 옮기고 있다. 전쟁 중인 국가의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이들의 여정은 더욱 험난해지고, 경찰에게 잡히며 그들의 길은 세 개의 다른 목적지로 갈라진다.

In the snowy and desolate roads of South Eastern Anatolia, Musa, an old refugee, carries the corpse of his deceased wife to their homeland with his granddaughter. Their journey becomes more difficult as they get closer to the border of a country at war. Once they get caught up by the police, their ways separate in three different destinations.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이민자인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자신, 우리의 몸, 우리 내면의 아이. 이것들이 우리가 마지막 목적지인 국경까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세 가지 무거운 짐이며 이 영화의 핵심이기도 하다. **감독 베키르 뵐뵐**

It seems that we are all immigrants in this world. So, what are the things we carry? Myself, my body and my inner child... Three heavy burdens that we have to haul until the border, to the final destination... This is the crux at the heart of our film. **Bekir Bülbül, Director**



베키르 뵐뵐

튀르키예 콘야 출생. 사카리아 대학교 컴퓨터과를 졸업하고 이스탄불 할리치 대학교에서 연극 석사 학위를 받았다. 데뷔작 <자전거 여행>은 이스탄불 영화제에서 초연 후, 여러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Bekir Bülbül

Born in Konya, Türkiye. He graduated from Computer department in Sakarya University and completed his master in Theater in Istanbul Halic University. His debut film *My Short Words* premiered in Istanbul FF, and won many Grand Prizes at numerous festivals.

파미르

Pamir

Korea | 2023 | 95min | Color, B&W | Fiction

수학여행을 떠난 세준이와 송이는 침몰한 배와 함께 돌아오지 못했다. 남겨진 친구 설희와 성철은 버거운 생의 무게로 방황한다. 또한 남겨진 세준 엄마와 송이 아빠는 먼저 보낸 아이들을 기억하며 견디어야 한다. 치유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치열한 노력으로 생을 살아가는 남겨진 그들의 이야기.

Se-jun and Song-i, who went on a school trip, couldn't return with the sunken ship. Leftover friends Seol-hee and Sung-chul wander under the weight of a hard life. Also, the remaining Se-jun's mom and Song-i's dad should remember and endure the children they sent first. The story of them living their lives in a time that cannot be cured.

세월호 사건은 유족들의 슬픔만이 아닌, 국민들에게 사회적 인식 변화를 강하게 요구한 아픔이었다. 학생들이 국가의 무기력한 대응에 지는 것을 보며, 우린 반성과 아픔 속에서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 영화를 통해 희생된 고인들과 남은 사람들의 아픔까지 위로하며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고 싶다. **감독 오뎀**

The Sewol ferry disaster wasn't solely a family tragedy, It ignited public demand for social awareness. Witnessing students perish due to slow government response evoked introspection. I seek to console the departed, empower survivors, and ease their pain.

O Muel, Director

AC1 10.21 16:00 08A



오뎀

1971년 제주 출생. <어이그, 저 낫것>(2011), <지슬 - 끝나지 않은 세월2>(2012), <인어 전설>(2016), <파미르>를 연출했다.

O Muel

Director and screenwriter, born in 1971 in Jeju. His filmography includes *Nostalgia*(2011), *Jiseul*(2012), *Mermaid Unlimited*(2016), and *Pamir*(2017).



AC4 10.28 20:30 PF

황금광 시대

The Gold Rush

USA | 1925 | 90min | B&W | Fiction

금광을 찾아 알래스카로 간 찰리는 산사태로 인해 살인범 블랙, 탐광꾼 빅 짐과 함께 오두막에 갇힌다. 블랙은 길을 떠나다 죽게 되고, 찰리와 빅 짐은 간신히 마을에 도착한다. 찰리는 무희 조지아에게 반했지만 빅 짐과 함께 금광을 찾는 데에 몰두한다. 금을 발견하고 기자와 인터뷰를 하던 중 조지아를 다시 만난 찰리는 또 한 번 깊은 사랑을 느끼고, 조지아와 함께 카메라 앞에 선다.

After traveling to Alaska for gold, Charlie is trapped in a cabin by a landslide with a killer, Black, and prospector, Big Jim. Black dies on the road, but Charlie and Big Jim make it to town. Charlie has a crush on a dancer, Georgia, but his focus turns to gold. After finding gold and reuniting with Georgia, Charlie falls in love with her again and goes on camera with her.

1896년 클론다이크 골드러시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찰리 채플린의 무성영화 활동기에 제작된 영화이다. 그는 금을 찾아 떠난 광부들의 고단한 삶을 코미디로 승화시켰다. 유성영화에 익숙한 우리에게 21세기의 라이브 음악과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프로그램머 이정진**

Featuring the Klondike Gold Rush in 1896, the film was made during Chaplin's silent movie career, in which he turned the hard life of miners in search of gold into a comedy. For those familiar with talkies, it will be screened with live music of our time. **Jinna Lee, Programmer**



찰리 채플린

영국의 희극배우, 영화감독, 작곡가로 무성영화 시대의 한 획을 그었으며, 유나이티드 아티스트를 통해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기를 이끌기도 했다. <키드>, <모던 타임즈>, <위대한 독재자> 등 대표작들은 21세기 현재에도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Charlie Chaplin

British comedian, filmmaker, and composer, he marked a milestone in the silent film era and led the Hollywood studio era through United Artists. His films, including *The Kid*, *Modern Times*, and *The Great Dictator*, are highly regarded in the 21st century.

아녜스 바르다 특별상영 Agnès Varda Special

이삭줍는 사람들과 나

The Gleaners and I

France | 2000 | 82min | Color | Documentary

대량생산으로 버려지는 음식과 그 음식물을 주워 생존하는 사람들에 관한 다큐멘터리이다.

Varda films and interviews gleaners in France in all forms, from those picking fields after the harvest to those scouring the dumpsters of Paris.

프랑스 누벨바그와 함께 알려지기 시작한 그녀는, 오랜 기간 영화문법의 도전자이자 여성으로 남성들이 가득한 영화 현장에서 싸워야 했던 전사였다. 이 영화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그녀가 세상에서 발견하고, 이해하고, 관찰하며 얻게 된 교찰을 그녀의 방식으로 보여준다. **프로그램머 이정진**

Agnès became known with the rise of the French New Wave; also, she was a challenger of cinematic grammar and a female warrior in the male-dominated film industry. The film reflects on what she found, understood, and observed as she approached the 21st century.

Jinna Lee, Programmer

AC1 10.26 10:00



아녜스 바르다

사진, 극영화, 다큐멘터리 등 여러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프랑스 누벨바그를 이끌던 감독 중 1인이다. <5시부터 7시까지의 클레오>를 기점으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해오다 2019년 <아녜스가 말하는 바르다>를 발표한 직후 작고했다.

Agnès Varda

She was one of the top directors of the French New Wave, working on various arts such as photography, features, and documentaries. She presented many notable films, including *Cléo From 5 to 7*, and she passed away in 2019 after releasing *Varda by Agnès*.



아녜스 바르다 특별상영 Agnès Varda Special

AC1 10.26 13:00

이삭줍는 사람들과 나 2년 후

The Gleaners and I: Two Years Later

France | 2001 | 64min | Color | Documentary



아녜스 바르다

사진, 극영화, 다큐멘터리 등 여러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프랑스 누벨바그를 이끌던 감독 중 1인이다. <5시부터 7시까지의 클레오>를 기점으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해오다 2019년 <아녜스가 말하는 바르다>를 발표한 직후 작고했다.

Agnès Varda

She was one of the top directors of the French New Wave, working on various arts such as photography, features, and documentaries. She presented many notable films, including *Cléo From 5 to 7*, and she passed away in 2019 after releasing *Varda by Agnès*.

수많은 DVD는 우리의 즐거움이나 정보를 위해 영화를 만들기 전의 과정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예를 들자면 캐스팅, 촬영 준비, 촬영 장소 섭외, 제작 과정 그리고 소소한 이야기들 말이다. 우리는 그 대신 영화 개봉 후 일어난 일을 보여 주기로 했다.

If many DVDs offer, for the greatest of our pleasures or for information, images from before the film, (the casting, preparation, location scouting, making of, trivias), we have chosen to show what happened after the release of the film.

한 편의 영화로 끝낼 수 없었던 감독은, 그녀의 다음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 <이삭줍는 사람들과 나>의 프랑스 TV 방영 후 다양한 이웃들을 만나는 모습을 통해, 마치 문화인류학에서 접근하는 대상자와의 호흡 방식을 이 영화에 적용했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Having more to share, Agnès turned her story into a film. After the French TV broadcast of *The Gleaners and I*, she received many responses, met various people, and applied a cultural anthropological approach to engage with the subjects in this new film.

Jinna Lee, Programmer

아녜스 바르다 특별상영 Agnès Varda Special

AC1 10.26 16:00 TALK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Face Places

France | 2017 | 93min | Color | Documentary



아녜스 바르다, 제이알

사진, 극영화, 다큐멘터리 등 여러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프랑스 누벨바그를 이끌던 감독 중 1인이다. 2019년 <아녜스가 말하는 바르다>를 발표한 직후 작고했다. 제이알은 전 세계의 건물을 전시장처럼 활용하고 인물사진을 전시하는 사진작가이다.

Agnès Varda, JR

Agnès was a leading director of the French New Wave, featuring various art forms. She passed away in 2019, shortly after releasing *Varda by Agnès*. JR is a photographer who uses buildings around the world as exhibition spaces to display his portraits.

55살 나이차가 무색할 만큼 남다른 케미를 보여주는 아녜스 바르다와 제이알. 포토트럭을 타고 프랑스 곳곳을 누비며 보통 사람들의 얼굴과 삶의 현장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하는데... 셔터가 놀리는 순간, 지상 최대의 갤러리가 완성된다!

With a chemistry that belies their 55-year age difference, Agnès and JR. travel across France in a photo-truck, capturing the faces and lives of ordinary people on camera. The moment the shutter is pressed, the world's largest gallery comes to life!

감독은 프랑스의 젊은 사진작가 제이알과 함께 프랑스 전역을 돌며 민중과 시민, 노동자라는 카테고리 속 개인을 발견하고, 사진 작업을 통해 고유하고 소중한 인간으로 발견하는 작업을 완성했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Teaming up with the young French photographer JR, Agnès traveled across France to find individuals categorized as people, citizens, and workers. Together, they undertook the task of capturing these individuals' uniqueness and humanity through photography.

Jinna Lee, Programmer

올해의 산

Guest Country

1984년 한국을 방문한 폴란드 출신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한국이 자신의 모국과 민족의 역사가 닮았다고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때 전쟁과 기아로 인해 약 2천만명의 국민이 전세계로 이주한 디아스포라의 경험과 주변국 지배의 기억을 지니고 있으며, 인구의 90% 이상이 가톨릭을 종교로 삼고 있지만, 그들의 가치관은 현대 사회의 새로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중입니다. 폴란드 남부 슬로바키아와 국경을 접한 험난한 타트라 산맥은 일반인들에게는 휴양지이자 산악인들에게는 최적의 훈련장소입니다. 그러기에 폴란드는 등반에 있어 유럽 프리미어 리그 축구에 견줄만한 걸출한 등반가들이 활동해왔고, 많은 산악영화 또한 제작되고 있습니다. 라인홀트 메스너와 경쟁구도에 있었던 예지 쿠쿠츠카라는 전설적인 산악인 외에 얼음의 전사 크시스토프 비엘리츠키, 폴란드 전설적인 여성 산악인 반다 루트키에비츠, 올해 <불멸선언>을 통해 만날 수 있는 피오토르 매드 코르차크 등 등반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는 낯익은 이름들일 것입니다.

이미 자국 내 3개 이상의 산악 영화제가 매해 개최될 정도로 폴란드 국민에게 산은 열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올해 주빈국 프로그램 타트라-폴란드 섹션에서는 특별히 크라쿠프산악영화제 집행위원장 피오토르 투르코티 소개하는, 폴란드 산악영화-〈드림랜드〉, 〈가자, 폴란드!〉, 〈불멸선언〉, 〈영웅의 증발〉, 〈남극의 세 예술가〉-총 5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촬영감독 출신의 아담 크셉토프스키 감독의 1932년 무성영화 <화이트 트레일>은 폴란드 재즈 뮤지션 피오토르 파블락 재즈텟의 공연과 함께 소개합니다.

그 외 평범한 주변 인물들을 다큐멘터리로 담아내면서 인간의 본성과 송고함을 탐구하는 여행자 파벨 로진스키의 초기작과 최근작을 소개합니다. 이웃 <발코니 무비〉, 캣맘 <키티 키티〉, 그리고 환우 <암병동>까지, 이 영화들을 통해 파벨 로진스키 감독은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주인공 안테크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카메라에 담아낸 <나를 위한 기도>와 취재나 촬영이 힘든 예수회 선교사들의 교육과 수도과정을 담은 <수도사>는 폴란드 국민의 가톨릭 종교적 가치관의 다면성과 변화를 보여주는 영화들입니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타트라 - 폴란드

Tatra - POLAND

Pope John Paul II, a Polish native, visited Korea in 1984 and remarked that Korean history and culture resembled that of his homeland. Poland had experienced the diaspora of approximately 20 million of its citizens due to war and famine, as well as domination from neighboring countries. Despite more than 90% of its population identifying as Catholic, Poland's values are evolving with the changing currents of modern society. The rugged Tatra mountains in southern Poland, bordering Slovakia, serve as both a resort destination for the public and an optimal training ground for mountaineers. Hence, Poland has seen exceptional mountaineers active in the field of climbing, rivaling those in Europe's premier football leagues. Mountain films flourish here, with legendary names like Jerzy Kukuczka, who competed with Reinhold Messner, Ice Warrior Krzysztof Wielicki, legendary female mountaineer Wanda Rutkiewicz, and Piotr Mad Korczak, whose *Declaration of Immortality* will be featured in UMFF this year.

In fact, Poland's passion for mountains is so fervent that there are already over three mountain film festivals held in the country every year. In this year's Guest Country Program, Tatra – POLAND Section, we will feature five Polish mountain films specially introduced by the festival director of the Krakow Mountain Film Festival, Piotr Turkot: *Dreamland*; *Godspeed, Los Polacos!*; *Declaration of Immortality*; *The Disappearance of Janusz Klarner*; and *Three Arts in the Antarctica*. Additionally, we will introduce the 1932 silent film *White Trail*, directed by Adam Krzeptowski, alongside a performance by a Polish jazz ensemble, the Piotr Pawlak Jazztet.

In addition, we will introduce the early and recent works of traveler Paweł Łoziński, who explores the essence and nobility of human nature by capturing ordinary people in documentary films. Łoziński became a global documentary filmmaker through the films *The Balcony Movie* (neighbor), *Kitty Kitty* (cat mom), and *Chemo* (patient). Furthermore, films like *Polish Prayers*, which captures the dramatic transformation of Antek, and *The Voice*, which documents the education and religious training of the Jesuit missionaries (notoriously difficult to interview and record), demonstrate the diversity and evolution of Catholic religious values among the Polish population.

Jinna Lee, Programmer



AC1 10.28 10:00 Q&A

가자, 폴란드!

Godspeed, Los Polacos!

USA | 2021 | 88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철의 장막을 뚫고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의 첫 하강에 도전한 5명의 카약 선수는 동유럽의 민주주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

After slipping the Iron Curtain, five kayakers set their sights on the first descent of the world's deepest canyon and risk it all to fight for democracy in the Eastern Bloc.

구(舊) 소련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냉전의 우울함이 가득했던 시기, 한편으로는 무모했으나, 용감했던 폴란드 대학생들의 남미 협곡 카약 도전기는 단순히 기록으로만 남을 일은 아니다. 젊은 날 노력하고 도전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찬란하고 따뜻하게 쓰여진 역사이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During the Soviet Union's occupation of Poland amidst the Cold War, daring Polish college students attempted to kayak through the South American canyons. Their remarkable story deserves more recognition as a compelling piece of history than a mere record.

Junna Lee, Programmer



아담 노로

논픽션 작업을 주로 하는 영화 제작자. 등반, 패들링, 사이클링 등의 취미 생활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 이는 아웃도어 분야에 대한 그의 열정과 함께, 모험 정신이 가득한 그의 작품에 큰 영향을 준다.

Adam Nawrot

Adam Nawrot is a filmmaker working primarily in non-fiction. His lifelong passion for the outdoors and dedication to the pursuits of climbing, paddling, and cycling inform his work, and his practice is never too far removed from a core adventurous spirit.

드림랜드

Dreamland

Poland | 2018 | 86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이 영화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 베르베카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탐험 이야기 중 하나로 브로드 피크로 떠난 겨울 탐험에 관한 이야기이다. 2013년 3월 5일, 주인공은 정상에 오르며 그의 꿈을 이루어 냈지만, 기지로 내려오는 길에 사망했다.

Among the stories about the family, the values embraced by Berbeka and the most important expeditions, there is one related to the winter expedition to Broad Peak. On 5th March 2013, the protagonist reached the summit, making his dream come true, but died on his way down to the base.

이 영화를 통해 아버지인 마치에이 베르베카의 기억을 되살리고자 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원정대원들, 가족들의 회상, 그리고 기록 덕분에 저명한 폴란드 산악인이자 여행가였던 그의 사고방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감독 스타니스와프 베르베카

In this film, I revive the memory of my father, Maciej Berbeka. Thanks to the expedition participants, the reminiscences of family and recordings, we can gain a better insight into the way of thinking of this eminent Polish mountaineer and traveler.

Stanislaw Berbeka, Director

AC1 10.26 19:00 Q&A



스타니스와프 베르베카

폴란드 그단스크 미술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스튜디오 야크야크를 운영한다. 비트카치 극장, 시청, 타트라 박물관과 협력하여 문화 행사에 필요한 디자인물과 사진을 제작하고 있으며 <드림랜드>는 그의 감독 데뷔작이다.

Stanislaw Berbeka

He is a graduate of the Academy of Fine Arts in Gdańsk, Poland, and runs studio YakYak. He collaborates with the Witkacy Theatre, the City Hall, and the Tatra Museum preparing the graphics and photography needed for cultural events. *Dreamland* is his debut film.



AC4 10.21 19:00 PF

화이트 트레일

White Trail

Poland | 1932 | 73min | B&W | Fiction | Asian Premiere



아담 크셴토프스키

크라쿠프에서 교육을 받은 후 1922년 자코파네로 이주하여 사진 사업과 영화 제작을 시작했다. 베니스영화제에서 상영된 <화이트 트레일>을 포함한 두 편의 장편 영화와 단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Adam Krzeptowski

Adam Krzeptowski, an alumnus of Krakow schools. In 1922, he moved to Zakopane, opening a photography business and exploring filmmaking. He created short documentaries and two feature films, including *White Trail*, which featured at the Venice Film Festival.

타트라 마을의 조시카와 브와데크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두막에 살고 있다. 조시카는 야시에크를 사랑하지만, 야시에크는 한카에게 푹 빠져있고, 한카는 스키를 잘 타는 안제이를 좋아한다. 안제이와 한카가 눈사태로 파묻혔을 때 안제이는 발견되지만, 한카는 실종된다. 안제이와 조시카는 서로를 위로하고, 상심한 야시에크는 산의 하얀 눈의 흔적에서 위안을 찾는다.

In a Tatra village, Zośka and Władek live in a cottage inherited from their parents. Zośka is in love with Jasiek, who is however infatuated with Hanka, fascinated by a skilled skier, Andrzej. When both are buried in an avalanche, Andrzej is found, but Hanka is lost. Andrzej and Zośka find consolation in each other, and heartbroken Jasiek seeks solace on the white trail of the mountains.

2022년 폴란드 국립영화 기록보관소의 작업실에서 재구성 및 디지털 복원을 거쳤다. <화이트 트레일>은 주요 국제 영화제에서 소개된, 폴란드를 대표한 최초의 폴란드 장편 영화이다. **바르트위메이 카바트, 폴란드국립영화아카이브 국제협력담당**

In 2022, the film was reconstructed and digitally restored in the workshops of the National Film Archive. *White Trail* is the first Polish feature film that represented Poland at an important international festivals.

Bartłomiej Kabat, International Cooperation Specialist, National Film Archive - Audiovisual Institute

나를 위한 기도

Polish Prayers

Switzerland, Poland | 2022 | 84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젊은 청년 안테크는 전통적인 가톨릭 신자로 매우 보수적인 가치관을 따르며 살고 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지게 되며 혼전 성관계 금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궁극적으로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게 된다.

A traditional Catholic, young Antek holds deeply conservative views, but when he falls in love, doubts begin to set in - first about the prohibition of premarital sex, and ultimately about the existence of God.

이 영화는 젊은 청년 안테크의 삶을 따라간다. 그의 가치관과 행동의 변화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누군가의 젊은 시절까지 반추하게 만드는 영화이다. 한편, 이 영화는 현대 폴란드가 당면한 혼돈과 가치관의 변모를 비추는 거울일 수도?

프로그래머 이정진

As we follow a young man, Antek, witnessing his values and behavior shifts, we ponder whether one can genuinely undergo such change and even think about our youth. Could this film reflect the chaos and shifting values that modern Poland is grappling with?

Jinna Lee, Programmer

 타트라 - 폴란드 1
Tatra - POLAND 1

AC1 10.22 10:00

AC1 10.28 13:00



한카 노비스

폴란드 비아워스트크 출생. 첫 장편인 <나를 위한 기도>는 제작 초기 단계에서 스위스 연방 문화청과 취리히 영화 기금의 지원을 받았고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루미너스 섹션에서 초연되었다.

Hanka Nobis

Born in Białystok, Poland. This film, her first feature-length documentary premiered at the LUMINOUS section of IDFA, supported by the Swiss Federal Office of Culture and Zurich Film Fund in the development & production phase.



AC1 10.22 10:00

이반의 울타리

The Fence

Poland | 2022 | 19min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타트라 - 폴란드 1
Tatra - POLAND 1


토마시 볼스키

각본가이자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폰토 데 비스타 다큐멘터리영화제, 다큐멘트아트 페스티벌, 뉴 호라이즌 국제영화제, 슬램댄스 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Tomasz Wolski

Tomasz Wolski is a scriptwriter and documentary filmmaker. He was awarded at various festivals including The Punto de Vista Documentary Film Festival, Document ART Festival, International Film Festival Era New Horizons and Slamdance on the Road Festival.

특이해 보이는 한 커플이 마을에 나타나자 마을의 삶은 혼란에 빠진다. 이 두 남자는 자신들을 지켜보는 시선으로부터 그들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을까?

The arrival of an unusual couple disrupts the life of a village. Can these two men protect their relationship from onlookers' glances?

현대인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자신만의 울타리를 세운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타인을 배척하고 구분 짓는 기준으로 이를 만들기도 한다. 과연 내가 가진 건 어떤 울타리며, 이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프로그램머 이정진**

We build many different fences around ourselves in modern life. Some people do that to protect themselves, while others use them to exclude and categorize others. But what kind of fences do we have, and how do they work in a society where we live together?

Jinna Lee, Programmer

기묘한 방문

The Visit

Poland | 2021 | 7min | Color | Animation | Asian Premiere

 타트라 - 폴란드 2
Tatra - POLAND 2

AC1 10.24 13:00

아프리카의 열대 우림, 어두운 형체가 덤불 사이로 빠져나온다. 사냥꾼들의 고함이 점점 커지고 침팬지의 어두운 얼굴에서 눈동자가 빛난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정글을 빠져나가 겁에 질린 채 아름다운 식민지 시대의 별장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간다. 자신이 살던 자연환경을 떠난 그녀는 중요한 선택을 마주한다.

In African tropical forest, a dark figure escapes through the thicket. The hunters' shouting grows. The chimpanzee's eyes shine on her dark face. She is breathing heavily, flees through the jungle. The frightened animal reaches a beautiful colonial villa and enters inside. Leaving her natural environment will stand before an important choice.

<기묘한 방문>은 인류의 시작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이다. **감독 마테우시 야르몰스키**

The Visit is a film that asks the question of where humanity begins.

Mateusz Jarmulski, Director



마테우시 야르몰스키

감독, 애니메이션 영화 작가, 애니메이터. 우츠 국립영화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했다. <피터와 늑대>의 시각 효과를 담당했고 그가 참여한 많은 작품이 TV와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상영되었다.

Mateusz Jarmulski

Director, and scriptwriter of animated films as well as an animator. He graduated in animation from Lodz Film School. He was in charge of the VFX for *Peter and the Wolf*. His films were broadcasted on TV and screened and awarded at numerous festivals.



AC1 10.24 13:00

수도사

The Voice

 타트라 - 폴란드 2
Tatra - POLAND 2

Poland | 2022 | 73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도미니카 몬테안-판쿠프

폴란드의 야기엘론스키 대학교와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 영화학교를 졸업했고 다수의 단편 영화,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현재 우즈국립영화학교에서 영화 연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Dominika Montean-Pańków

Graduate from the Jagiellonian University and Krzysztof Kieslowski Film School in Katowice, Poland. She's the author of many short films, documentaries and TV programs. Currently, she's a doctoral student of Film Directing Department at Polish Film School in Lodz.

예수회의 수련 기간은 가혹한 형태의 시련을 건디는 과정이다. 2년 동안 사회와 문명의 안락함으로부터 고립된 젊은이들은 수도 생활이 자신에게 맞는지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갖는다. 한 나이 든 수도사는 “좁은 방에 앉아 있으면 일상의 결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The Jesuit Order novitiate is a severe form of a trial. During two years of isolation from society and the comforts of civilization, young men have enough time to ponder the question: Is the religious life for me? "If you sit in a shack, you will see the fruits in everyday life", says an elderly monk.

가톨릭 전통이 강한 국가인 폴란드에서 2년간 예수회 수도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의 모습을 담아낸다. 취재가 제한된 금절의 구역을 엿보는 기쁨과 함께, 그들이 행하는 성찰과 명상은 단순히 종교에 국한된 행동이 아닌, 우리 현대인에게 모두 필요한 것이 아닐까?

프로그래머 이정진

Following young men in a two-year process of becoming Jesuit priests in Poland, the film offers a glimpse into the forbidden areas and allows us to ponder if reflection and meditation are what we all need in our modern lives, not just religious acts. **Jinna Lee, Programmer**

불멸선언

Declaration of Immortality

 타트라 - 폴란드 3
Tatra - POLAND 3

Poland | 2010 | 29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폴란드 등반가 피오토르 '매드' 코르차크이지만, 이 이야기의 배경 어딘가엔 그의 라이벌 안제이 마르시치도 있다. 감독은 코르차크의 경력이 위축되는 면에 초점을 맞추지만, 동시에 더 이상 등반을 할 수 없게 될 그의 미래에 대한 성찰 또한 촉구한다. 영화는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력함과 불멸에 대한 강한 열망을 담았다.

The star of this story is Polish climber Piotr "Mad" Korczak, but somewhere in the background is his rival Andrzej Marcisz. The director focuses on the decline of Korczak's career but also encourages reflection on a future when he will no longer be able to climb. This touching film bears witness to our inability to accept getting old and our powerful desire for immortality.

전설적인 폴란드 클라이머 피오토르 '매드' 코르차크, 감독은 단순한 친분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그의 생각과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았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가 가진 힘과 무기를 잘 사용했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The director vividly brings the thoughts and stories of the legendary Polish climber Piotr "Mad" Korczak to life in a way that a mere acquaintance could not. The director made good use of the power and tools of documentary filmmaking in this film. **Jinna Lee, Programmer**

AC1 10.24 19:00



마르신 코즈잘카

1970년 크라쿠프 출생. 실레시아대학교를 졸업한 후 픽션 프로그램의 촬영 및 다큐멘터리 작업을 했다. 니옹, 베를린, 그디니아, 크라쿠프, 브로츠와프 등 많은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Marcin Koszałka

Born in Krakow in 1970. After graduating from the University of Silesia, he worked as a cameraman for fiction programs and as a documentary director. He has been given numerous awards at international festivals including Nyon, Berlin, Gdynia, Krakow and Wroclaw.



AC1 10.24 19:00 Q&A

영웅의 증발

The Disappearance of Janusz Klarner

Poland | 2021 | 11min | B&W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타트라 - 폴란드 3
Tatra - POLAND 3


프란시스zek 베르베카

1989년 폴란드 자코파네 출생. 열성적인 등반가이자 히말라야 등반 전문가였던 아버지에게 베르베카의 아들이기도 하다. 현재 우츠 국립영화학교 연출과에 재학 중이다.

Franciszek Berbeka

Franciszek Berbeka was born in 1989 in Zakopane, Poland. He is a son of famous Alpinist and Himalaist Maciej Berbeka. He is a student of the Directing Department at the Polish National Film School in Lodz.

1939년, 야누시 클라르네르는 히말라야의 난다 데비 동봉에 올랐다. 난다 데비를 오른 영웅인 그는 그 후 눈사태처럼 몰아쳐 온 사건들을 끔찍한 꿈처럼 잊지 못하고 기억한다. 새로운 공산주의 질서 아래 재건된 나라에서 깨어진 금기는 잊히지 않을 것이다.

In 1939, Janusz Klarner reaches the Nanda Devi East peak in the Himalayas. Everything that happened later seems to be a consequence of this act. The avalanche of events comes back in the memories of hero like a terrible dream. Broken taboo cannot be forgotten in a country that is reborn in the new communist order.

야누시 클라르네르의 1939년 난다 데비 산 등정 후의 실종을 교차편집과 무성영화 형식을 차용해 독특한 산악영화를 만들어냈다. 테겐지 산악영화제 특별상 수상 외에도 여러 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소개된 수작이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This unique mountain film combines cross-editing and silent movie format, exploring Janusz Klarner's 1939 disappearance after ascending Nanda Devi. It won a Special Prize at the Tegernsee Mountain Film Festival and earned acclaim at many documentary festivals.

Jinna Lee, Programmer

남극의 세 예술가

Three Arts in the Antarctica

Poland | 2020 | 57min | Color | Documentary

 타트라 - 폴란드 3
Tatra - POLAND 3

AC1 10.24 19:00



바르토시 스트루진스키

이 기획을 위해 예술가로 구성된 팀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총괄한 제작자이며 이번이 사진 작업 및 영화 촬영을 위해 남극을 방문한 그의 네 번째 여행이다.

Bartosz Stróżyński

Bartosz Stróżyński is the founder of the artistic team and producer of the project, for whom it was the fourth photographic and film visit to Antarctica.

이 프로젝트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남극을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아주 독특한 예술적 성과를 이루어 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남극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영감을 주고자 했고 이 독특한 장소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했다. 이곳은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인간의 존재 여부가 운명 지어질 수도 있는 장소이다.

This project was to popularize Antarctica through culture and art. Its participants wanted to arouse interest among the largest possible number of people and inspire them with this place by completing very unique artistic goals. The artists wanted to leave a mark of this unique place. The place which fate, in the nearest future, may determine our existence.

이 영화는 단순히 남극의 기후변화와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관심을 살짝 뒤늦어, 사진작가와 화가, 음악가의 예술 활동을 통해 남극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영화이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왜 남극에 갔는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영화이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This film reframes the focus from simply noting climate change and Antarctica, highlighting Antarctica's beauty through artistic endeavors in many forms. It would be great if the audience could contemplate why they went to Antarctica in the first place.

Jinna Lee, Programmer



파벨 로진스키 특별전 Paweł Łoziński Special

AC1 10.25 13:00 TALK

암병동 Chemo

타트라 - 폴란드 4
Tatra - POLAND 4

Poland | 2009 | 58min | Color | Documentary



파벨 로진스키

폴란드 감독, 카메라맨, 다큐멘터리 제작자. 20편 이상의 다큐멘터리로 상을 받았으며 친밀한 초상화를 그리듯 등장인물에 대한 독특하고 감성이 넘치는 영화를 만든다.

Paweł Łoziński

Polish director, cameraman, and producer of documentaries. Author of more than 20 award-winning documentaries. He makes distinct and emotionally charged films about people of whom he draws intimate portraits.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는 암병동. 환자들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준다. 그들은 나란히 짝을 지어 누워서 대화에 열중한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삶과 병원이 마련한 거리감은 그 가치와 감각, 그리고 매력을 드러낸다. 왜 이렇게 늦게 알게 됐을까?

Patients in an oncology clinic receive chemotherapy. Their faces can be seen in a close-up. They lie in pairs and hold fascinating conversations. Life seen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a distance offered by a hospital, reveals its value, sense and charm. Why so late?

암병동에서 화학 치료를 받는 환우와 가족들의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담아낸다. 삶의 가장 거리에 도달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예상외로 차분하고, 담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떤 상태로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까? **프로그래머 이정진**

The film captures close-ups of patients and families undergoing chemo. They appear composed, considering they face the end of life and their families spend the last hours with them. What could we do when in their shoes, and how should we accept this reality?

Jinna Lee, Programmer

파벨 로진스키 특별전 Paweł Łoziński Special

AC1 10.25 13:00 TALK

베르카 Werka

타트라 - 폴란드 4
Tatra - POLAND 4

Poland | 2014 | 40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파벨 로진스키

폴란드 감독, 카메라맨, 다큐멘터리 제작자. 20편 이상의 다큐멘터리로 상을 받았으며 친밀한 초상화를 그리듯 등장인물에 대한 독특하고 감성이 넘치는 영화를 만든다.

Paweł Łoziński

Polish director, cameraman, and producer of documentaries. Author of more than 20 award-winning documentaries. He makes distinct and emotionally charged films about people of whom he draws intimate portraits.

개인이 희생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놀라운 도전을 하는 한 성냥 공장 노동자를 지켜보는 이 영화는 몇 달 동안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그녀의 인생을 관찰하며 믿기 어려운 변화를 포착한다. 그녀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

What are the limits of personal sacrifice? The film tells the story of a match factory worker who takes up a remarkable challenge. We observe several crucial months in her life, as she attempts to turn her dreams into reality. It's the story of extraordinary transformation. About love that gives her life meaning.

<키티 키티>가 길고양이에 대한 동반과 희생을 담아냈다면, 이 영화는 장애아이를 돌보며 성냥 공장 근로자로 살아가는 베르카의 이야기를 담아준다. 근로자로서의 삶과 아이를 돌보는 삶이 병치되어 열거되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사랑과 숭고함 그 어느 지점을 느끼게 된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While Kitty Kitty captures companionship and sacrifice for stray cats, this film follows Werka, a factory worker caring for her disabled child. Through juxtaposing her life as a worker and a caregiver, we experience mixed emotions of love and sublimity. **Jinna Lee, Programmer**



파벨 로진스키 특별전 Paweł Łoziński Special

AC1 10.25 16:00 TALK

발코니 무비

The Balcony Movie

타트라 - 폴란드 5
Tatra - POLAND 5

Poland | 2021 | 100min | Color | Documentary



파벨 로진스키

폴란드 감독, 카메라맨, 다큐멘터리 제작자. 20편 이상의 다큐멘터리로 상을 받았으며 친밀한 초상화를 그리듯 등장인물에 대한 독특하고 감성이 넘치는 영화를 만든다.

Paweł Łoziński

Polish director, cameraman, and producer of documentaries. Author of more than 20 award-winning documentaries. He makes distinct and emotionally charged films about people of whom he draws intimate portraits.

누구나 영화 속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세상을 하나의 영화 화면 안에 가둬둘 수 있을까? 감독은 발코니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대화를 나눈다. 각각의 이야기들은 독특하고, 그들의 삶은 항상 상상을 뛰어넘는다. 이 정도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더 깊은 통찰을 얻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Can anyone be a movie hero? Can the world be locked in one film frame? Director is watching people from his balcony as they are passing by, he accosts them, asks questions, talks about how they deal with life. Every story is unique, and life always surpasses imagination. Maybe it's enough to stop for a moment to get a deeper insight?

코로나 시기, 로케이션이나 대면 접촉이 제한된 환경을 충분히 활용해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주변 인간에 대해 꾸준히 관찰하며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에 끊임없이 고민해 온 감독의 철학과 방향이 잘 녹아든 수작.

프로그래머 이정진

The film explores filmmaking prospects during the pandemic, when filming locations and face-to-face contact were limited. It also delves into the director's philosophy and approach, who has been contemplating what it means to be human and live together.

Jinna Lee, Programmer

파벨 로진스키 특별전 Paweł Łoziński Special

AC1 10.25 16:00 TALK

키티 키티

Kitty, Kitty

타트라 - 폴란드 5
Tatra - POLAND 5

Poland | 2008 | 28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파벨 로진스키

폴란드 감독, 카메라맨, 다큐멘터리 제작자. 20편 이상의 다큐멘터리로 상을 받았으며 친밀한 초상화를 그리듯 등장인물에 대한 독특하고 감성이 넘치는 영화를 만든다.

Paweł Łoziński

Polish director, cameraman, and producer of documentaries. Author of more than 20 award-winning documentaries. He makes distinct and emotionally charged films about people of whom he draws intimate portraits.

사계절, 네 명의 여성, 하나의 목표. 잘 차려입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연금 수급자도 있다. 쇼핑백을 짊어지고 밤낮으로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공원, 공동묘지와 외진 곳을 찾아다니는 그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그 여성들은 삶의 빈 곳을 채우거나 모성 본능을 달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Four seasons, four women, one goal. There are elegant ladies as well as poor pensioners among them. Burdened with shopping bags, day and night, regardless of the weather and time of the year, they visit parks, cemeteries, and secluded places. Maybe these women feeding homeless cats are trying to fill an empty space in their lives or satisfy their maternal instincts.

영화에 등장하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캣맘들은, 자신의 처지가 안정적이지 않아도 본인보다 힘들 동물을 생각하는 고귀한 인간들이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The cat moms in this film, who care for improperly fed stray cats, are noble people who think of less fortunate animals, even if their lives are unstable. **Jinna Lee, Programmer**



Embassy
of the Republic of Poland
in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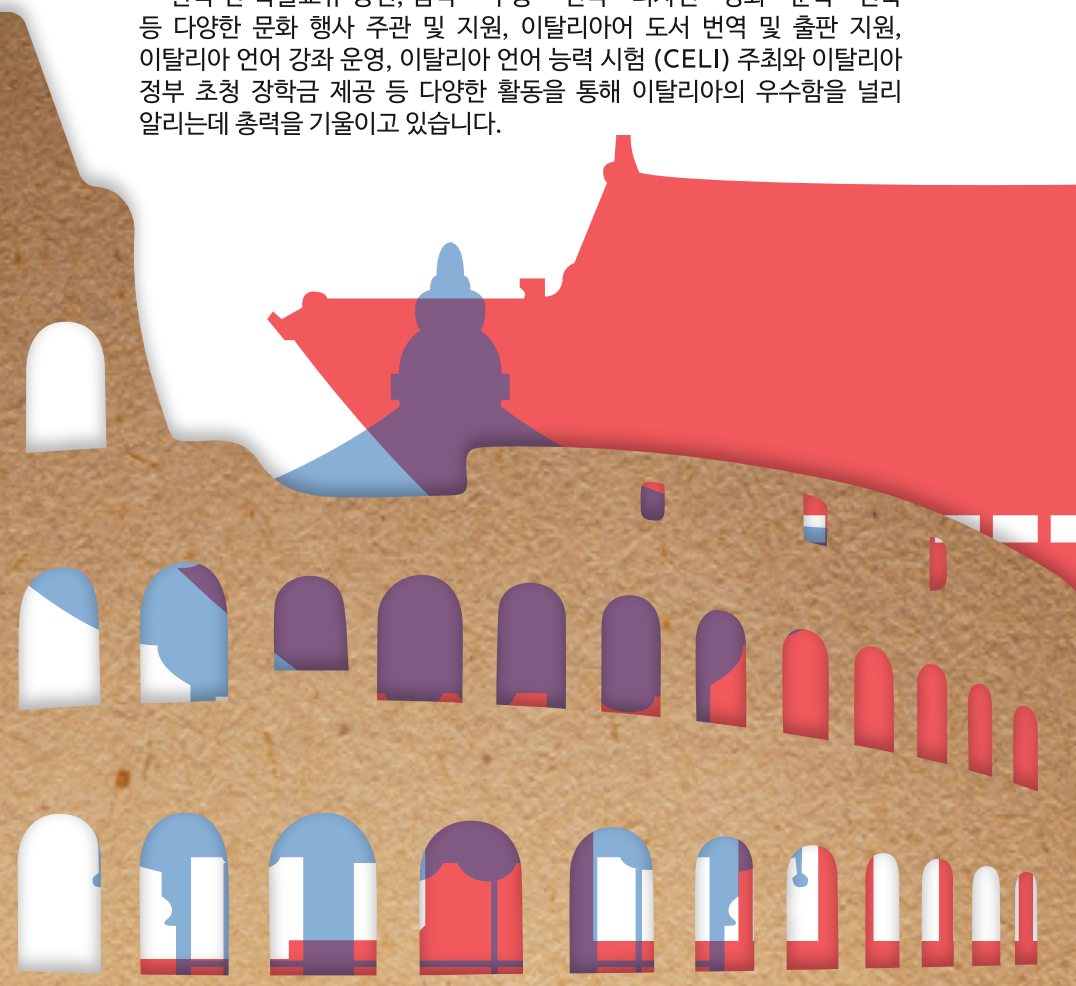


문화와 자연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속으로,
폴란드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We invite you to UMFF, where culture and nature meet.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은 이탈리아 외교국제협력부 소속으로서 5대륙 주요 도시에 설립된 84개 문화원 중 하나로 문화 행사를 주관하며 한국에 이탈리아 언어와 문화를 알리고 양국 간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은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과의 협력 하에 이탈리아
- 한국 간 학술교류 증진, 음악 · 무용 · 연극 · 디자인 · 영화 · 문학 · 건축 등 다양한 문화 행사 주관 및 지원, 이탈리아어 도서 번역 및 출판 지원, 이탈리아어 강좌 운영, 이탈리아어 능력 시험 (CELI) 주최와 이탈리아 정부 초청 장학금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탈리아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의 산

Guest Country

프리퀄: 돌로미티 - 이탈리아

Prequel: Dolomite - ITALY

이탈리아는 유럽 문화의 중심으로 오랜 기간 존재해왔고 영화, 미술, 음악, 디자인, 패션, 음식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영역과 분야에서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탈리아의 산악 문화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에서는 많이 낯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의 산-국가를 미리 살펴보는 프리퀄 섹션은 이탈리아의 산악 영화들을 에피타이저 형식으로 살짝 앞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반도 북부의 돌로미티 산군은 스위스 남단의 알프스 산군과 서로 맞닿아 있는데, 높이가 3,000미터 이상인 봉우리 18개가 모여 있고,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지형적 배경과 역사 때문에 이탈리아는 등반과 산악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많으며, 라인홀트 메스너 같은 세계적인 산악인 외 많은 등반가들이 존재하고, 가장 오래된 산악영화제인 트렌토영화제는 내년이면 72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 미리 선보이는 이탈리아의 산악영화들은, 한때 유럽에서 멸종 위기에 처했던 늑대가 돌아오면서 그들과의 공존의 방식을 연구하는 <늑대와 함께>, 카이트서핑 선수로 성장하는 소년 피어의 이야기 <파도를 넘는 소년>과 인간의 한계 기록에 도전하는 <선구자들>, <알타비아 4000> 그리고 두 산악인의 네팔에 관한 의미와 기억을 다룬 <백일몽>까지, 등반과 자연,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만나게 됩니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Italy has long been at the heart of European culture, well known to us in a wide range of fields, from film, art, music, design, fashion, to food. Yet, Italy's mountain culture remains relatively unfamiliar to Korea. We would, thus, like to provide a taste of Italian mountain films in this Prequel Section to 2024's Guest Country program.

The Dolomite Mountain range in northern Italy, adjacent to the southern Swiss Alps, boasts 18 peaks that soar above 3,000 meters. This region was inscribed as a UNESCO World Cultural heritage site in 2009. Due to such a geography and history, Italy has a significant population passionate about climbing and mountaineering sports. It is home to world-renowned mountaineers like Reinhold Messner, and to the world's oldest mountain film festival, the Trento Film Festival, which will celebrate its 72nd year in 2024.

In the lineup of this prequel are: *Wolf One*, which deals with figuring out how to coexist with wolves, once endangered in Europe; *Fearless*, a story about Pier, who grows into a kite-surfer; *Pioneers* and *AltaVia 4000*, films about setting the record of human limits, and *Day Dream – Searching for the Inner Peak*, which explores the significance of Nepal through the memories of two mountaineers.

Jinna Lee, Programmer



AC3 10.21 19:30

늑대와 함께

Wolf One

Italy | 2023 | 88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이반 마쭌, 브루노 보츠

브루노 보츠는 환경 생물학자, 사진가, 비디오 제작자이며, 이반 마쭌은 자연 전문 사진가이자 비디오 제작자이다. 환경 문제에 관한 많은 영상물을 함께 제작했고 『늑대의 길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Ivan Mazzon, Bruno Boz

Bruno Boz is an environmental biologist, photographer and videomaker, Ivan Mazzon is a nature photographer and videomaker. They produce numerous video reports on environmental issues and are the authors of the *Il Sentiero dei Lupi* (The Wolves' Track).

이 영화는 베네토 지방의 의뢰를 받아 파견된 사사리 대학의 연구팀이 이탈리아 알프스산맥에서 일 년 넘게 늑대 가족을 선제적으로 관리, 관찰한 결과물이며, 가장 혁신적이고 선구적인 선제적 늑대 관리 프로젝트 중 하나를 기록했다.

For more than one year, two filmmakers have been following a team of researchers from the University of Sassari assigned by the Veneto Region to monitor and facilitate the proactive management of a family of wolves through the use of experimental techniques never used before in the Italian Alps. The film shows one of the most innovative and pioneering proactive wolf management project.

유럽 대륙에서 늑대의 귀환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맹수의 귀환이기도 하다. 이런 늑대와 공존을 위해 대학 연구진과 지역 기관들은 그 방법을 모색한다. 만약 호랑이가 한 반도에 귀환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과 대응을 할까? **프로그래머 이정진**

The wolf's return to continental Europe is thrilling news, but it also means the return of a predator. Researchers and local organizations are trying to figure out how to coexist with wolves. How would we respond if a tiger returned to the Korean Peninsula?

Jinna Lee, Programmer

파도를 넘는 소년

Fearless

Italy, Brazil | 2023 | 76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이 영화는 카이트서핑의 떠오르는 스타인 피에르의 어린 시절을 10년 동안 따라간다. 아들과 특별한 유대감이 있는 피에르의 아버지 마시모는 피에르를 훈련시키며 항상 함께 여행을 하고 있다. 두려움과 용기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피에르의 훈련 여정을 담은 영화.

Pier is a rising star of kitesurfing. In ten years of filming, the documentary follows his childhood. This milestone will allow him to travel together with his father Massimo, who has always trained him and with whom he has a special bond. Between fears and courage, *Fearless* is Pier's training journey, to discover his own being and in search of his awareness.

이 성장 다큐멘터리는 세 살부터 열두 살까지 피에르의 어린 시절과 함께, 두려움에 맞서며 모험을 떠나는 그의 여정을 따라간다. **감독 루차노 토리엘로**

This coming-of-age documentary follows Pier's childhood (3-12) and his call to adventure to face his fears. **Luciano Toriello, Director**

UC 10.21 23:00



루차노 토리엘로

이탈리아의 다큐멘터리 제작자이자 감독. 사회 및 문화적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인도주의적 문제에 특히 관심이 있다.

Luciano Toriello

Luciano Toriello is an Italian producer and director of documentaries, with a particular interest in humanitarian issues, linked to social and cultural changes.



AC4 10.24 19:00

선구자들

Pioneers

 프리퀼: 돌로미티 - 이탈리아
 Prequel: Dolomite - ITALY

Italy | 2022 | 33min | Color | Documentary | International Premiere



알레산드로 벨트라메

AGB 스튜디오 비디오의 대표. 등산, 암벽 및 빙벽 등반, 동굴학, 자전거, 다이빙, 알파인 스키를 즐긴다. 오랜 경력을 가진 카메라맨이자 작가로 100편이 넘는 작품을 제작했다.

Alessandro Beltrame

Alessandro Beltrame, owner of AGB studio video, practices mountaineering, a rock and ice climbing, speleology, biking, diving and alpine skiing. Long experienced cameraman and author, he has over a hundred productions to his credit.

2021년 8월 10일, 피터 모저는 팔레 디 산마르티노 산맥의 주요 봉우리 6개 모두를 하루 만에 등반했다. 등반 선구자들로부터 영감을 얻은 피터는, 산악 가이드로 일하며 쌓아온 경험에만 의지한 채 최초로 등반했던 자들의 역사적인 루트를 따라 단독 횡단에 성공했다.

On 10th August 2021, Peter Moser took on six of the main peaks in the Pale di San Martino mountains in a single day. Inspired by mountaineering pioneers, Peter made the solo crossing by following the historic routes of the first climbers, entrusting himself only to his experience as a mountain guide.

영화는 산과 동등한 눈높이에서 서두르지 않고 빠르게 산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등반의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 완주하고자 했던 주인공의 조예 깊은 여정과 그만의 등반 방식을 보여준다. 감독 알레산드로 벨트라메

Pioneers demonstrates a challenge with the mountain on equal terms, rapidly but not in a hurry, an intimate journey that Peter wished to complete to get to the roots of climbing, and of his own approach to mountaineering. **Alessandro Beltrame, Director**

알타비아 4000

AltaVia 4000

 프리퀼: 돌로미티 - 이탈리아
 Prequel: Dolomite - ITALY

Italy, France, Switzerland | 2023 | 37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가브리엘 페렌조니와 니콜라 카스타나는 산악 가이드 수업에서 만나 그들이 같은 목표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된다. 바로 한 시즌 동안 알프스의 4,000미터 급인 82개 산을 모두 등반하는 것. <알타비아 4000>은 알프스의 거대한 봉우리들을 가로지르는 여정이자 자아를 발견하는 모험이며 고산지대에서 깊어지는 두 사람의 유대감을 지켜본다.

Gabriel Perenzoni and Nicola Castagna met during mountain guide courses and discovered that they had a common dream: to climb all 82 4,000m mountains in the Alps in a single season. *AltaVia 4000* is a journey across the giants of the Alps, an adventure of self-discovery, exploring the deep ties that develop at altitude.

영화는 두 주인공의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춰, 알프스 최고봉을 따라 펼쳐지는 특별한 여정과 순수하고 열정적인 등산의 세계를 그려낸다. 감독 루카 마타소니

The documentary focuses on the human relationship of the protagonists, Gabriel Perenzoni and Nicola Castagna, as it recounts an extraordinary journey along the highest peaks of the Alps, offering a glimpse into the pure and passionate world of mountaineering.

Luca Matassoni, Director

AC4 10.24 19:00



마르코 토놀리, 루카 마타소니

어릴 때부터 여행과 산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며, 산악 환경과 관련된 시청각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현재 트레티노에서 프리랜서 사진작가 겸 영화 제작자로 일하고 있다.

Marco Tonolli, Luca Matassoni

Marco has had a keen interest in traveling and the mountains since he was a child. He dedicated his attention to audiovisual projects linked to the mountain environment. He works in Trentino as a freelance photographer and filmmaker.



AC4 10.24 19:00

백일몽

프리퀸: 돌로미티 - 이탈리아
Prequel: Dolomite - ITALY

Day Dream - Searching for the Inner Peak

Italy | 2023 | 25min | Color | Documentary | International Premiere

평생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결심을 담은 단편 다큐멘터리. 두 주인공이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각각 네팔로 떠나는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고 그곳에서 느린 삶, 사랑, 관계, 그리고 자연의 어머니인 대지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통의 목적의식을 발견하게 된다.

Day Dream is a short documentary that captures the determination that lead to the fulfillment of a lifelong dream. While the two characters do not meet in person, they embark on a transformative journey in Nepal, where they find a shared sense of purpose tha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lowness, love, connection, and respect for Mother Earth.

꿈을 실현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여정을 몰입감있게 경험할 수 있는 영화. **감독 알레산드로 데밀리아**

It is an immersive experience of suggestions, concerning the desire to see your dreams realized and overcome your limits. **Alessandro D'Emilia, Director**



알레산드로 데밀리아

아웃도어 및 모험에 관한 작품을 전문으로 하는 감독 및 사진작가.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 여러 기술을 차용하고 다양한 측면과 관련이 있는 환경 문제에 민감한 프로젝트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왔다.

Alessandro D'Emilia

Alessandro D'Emilia is a director and photographer specialized in productions outdoor and adventure. Bringing technologies to tell great stories, documents projects with a strong sensitivity towards the environment, however it concerns various aspects.



영화진흥위원회 창립 50주년

한국영화아카데미 개교 40주년 | 부산 이전 10주년

K-무비 본산, 코픽 50년의 한국영화 진흥

K-무비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새로운 100년을 리부트하겠습니다.

www.kofic.or.kr



instagram
koreanfilmcouncil_kofic



facebook

영화진흥위원회 Korean Film Council



youtube

kofic50years

코리안 웨이브

Korean Wave

올해 코리안 웨이브 섹션은 '당신으로부터,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4편의 장편과 10편의 단편을 선보입니다. 14편 모두 지난 한 해 유수의 영화제와 평단에서 주목을 받은 화제작들로, 한국 독립영화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감각과 사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각색의 개성을 갖고 있는 14편의 영화들 속에는 서로를 향한 시선, 서로에게 가닿으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힘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은 짐이 되기도 하는 친밀한 가족에서부터 낯설고 기이하게 느껴지는 타인의 얼굴까지, 일상을 영위하는 친숙하고 익숙한 공간부터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공간까지 카메라는 찬찬히, 집요하게, 가까이에서 또 멀리서 바라보고, 관찰하고, 개입합니다. 그렇게 마주친 타인과 공간의 풍경으로부터 길어올려진 이 영화들은 당신으로부터 온 것인 동시에 당신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으로부터 나온 이 영화들이 당신에게 닿아 또 다른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머 박혜미**

This year's Korean Wave section includes 4 feature films and 10 short films under the theme, "From You, To You." All 14 films have garnered attention from prestigious film festivals and critics over the past year, showcasing our sensibilities and reflections on Korean independent cinema. Each of the 14 unique films captures our coexistence, looking toward one another and seeking connections. The camera gazes, observes, and engages persistently and meticulously both up close and from afar, capturing the familiar and the unfamiliar alike. The familiar includes intimate family members who can be a source of both strength and occasional burden, while the unfamiliar introduces strangers who appear foreign and strange. These films, stemming from encounters with strangers and landscapes, are not only from you, but also to you. We hope that these films, born from you, can touch you and become a source of strength to you. **Park Hye-mi, Programmer**



AC2 10.28 19:30 Q&A

괴인

A Wild Roamer

Korea | 2022 | 136min | Color | Fiction

목수이자 작업반장인 기홍은 요즘 들어 부쩍 동료들에게 고향을 질러댄다. 동료 목수이자 친구인 경준이 참다못해 그 무례함을 지적한다. 무안해진 기홍은 삶의 변화를 모색한다.

Ki-hong, a carpenter and foreman, has recently berated his colleagues. His friend and fellow carpenter, Kyung-jun, criticizes him about his behavior. Feeling distraught, Ki-hong seeks a way to change his life.

우리는 늘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을 마주하며 살아간다. 영화 속 수수께끼 같은 인물들이 궁금해지고 그들을 유심히 관찰하며 나아가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그러한 체험이, 나날이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가치 있는 경험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감독 이정홍

In our daily lives, we often encounter those we stumble to comprehend. I hope exploring the enigmatic personas in films, closely observing them, and delving into their hearts could offer precious insight for those struggling with complex human connections.

Lee Jeong-hong, Director



이정홍

첫 단편 영화 <반달곰>으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국제경쟁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두 번째 단편 <해운대 소녀>는 서울독립영화제 대상을 받았으며, <괴인>은 첫 번째 장편 연출작이다.

Lee Jeong-hong

His debut short, *No Cave*, won the Best Film Award at the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and the follow-up, *The Girl Lives In Haeundae*, received the Grand Prize at the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A Wild Roamer* is his first full-length feature.

당신으로부터

From You

Korea | 2023 | 102min | B&W | Fiction

세 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이 영화는 같은 듯 다른 인물들이 등장한다. 1부 민주는 의상학과 졸업반으로 졸업 전시를 앞두고 있다. 2부 승주는 오디션을 앞둔 배우 지망생이다. 3부 혜정과 아들 동민은 이들의 고향인 시골 마을 운천으로 향한다. 이들은 각 챕터의 끝에서 정체불명의 존재를 발견한다.

There are same, but different characters in the film which consists of three parts. Part 1. Min-ju who is in graduating class of department of costume design, is about to have exhibition. Part 2. Seung-ju is a would-be actress who is going to have an audition. Part 3. Hye-jeong and Dong-min heading to hometown rural village. They encounter an unidentified being at the end.

어머니와 나는 두 편의 영화를 함께 만들었다. 두 편 모두 어머니는 본인 자신의 역을 소화했다. 영화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 끝에 내가 도달한 방식은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

감독 신동민

I made two films with my mother, featuring her as herself in both. I wondered what a film could do and chose to grant my mother's wish after much thought. I made this film to fulfill her wish to be rich. **Shin Dong-min, Director**

AC2 10.29 13:30 Q&A



신동민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영화예술과와 용인대학교 영화영상학과 졸업. 장편 극영화 <바람아 안개를 걷어가다오>와 <당신으로부터>를 연출했으며, 두 영화는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Shin Dong-min

Graduated from Dong-ah Institute Of Media and Arts and Yongin University with a degree in film, he directed *Mom's Song* and *From You*, which both won the grand prize at the Jeonju IFF.



AC2 10.29 10:30 Q&A

빛가리

DEBT

Korea | 2022 | 74min | Color | Fiction



고봉수

1976년 대한민국 서울 출생. 데뷔작 <델타보이즈>(2016)로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경쟁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Ko Bong-su

Born in Seoul, South Korea in 1976, he won the grand prize in the Korean competition category at the 17th Jeonju IFF for his debut film, *Delta Boys*(2016).

위자료도 공과금도 연체 중인 위기의 소상공인 대복, 불경기 가운데 외상값만 늘어가고 백수 아들 홍민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고학 단체에서 문명을 벗어나 살아가는 대복의 아들 홍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은 대복을 더욱 힘들게 한다. 갈등이 깊어지던 어느 날 외상값을 밀린 원장이 행패를 부리며 대복을 위협하는데, 대복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한다.

Dae-bok is a small business owner in crisis who has overdue alimony and utility bills. In a recession, only credit loans increase, but there is no income and unemployed son Hong-min is of no help at all. One day, Won-chang whose credit is overdue starts threatening.

가깝지만 먼 듯, 멀지만 가까운 가족의 모습을 리얼하게 보여줌으로써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용서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 감독 고봉수

I want to reflect on the true meaning of the family and convey a message of forgiveness and comfort by realistically showing the appearance of a close but distant family.

Ko Bong-su, Director

밤산책

Night Walk

Korea | 2023 | 65min | Color | Documentary

 코리안 웨이브 1
Korean Wave 1

AC3 10.21 17:30

AC2 10.28 16:30 Q&A

밤의 풍경과 드로잉, 그리고 조선시대 문인들의 시로 이뤄진 풍경영화.

A landscape film comprised of nightscapes, drawings, and poems by the literati from the Joseon Dynasty.

밤의 풍경 속에 침잠해 밤의 서정과 내면의 풍경을 전하고자 했다. 감독 손구용

By melting into the nightscapes, I tried to convey the lyricism of night and the inner landscape. **Sohn Koo-yong, Director**



손구용

1988년 출생. 총 4편의 영화 연출. 로테르담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아미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비종뒤릴영화제 등 초청. 최근작 <밤산책>으로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상 수상.

Sohn Koo-yong

Born in Seoul, 1988, he has made 4 films. They were screened at IFFR(Rotterdam), YIDFF(Yamagata), Jeonju IFF, Visions du Reel, and more. His latest film *Night Walk* was given the Documentary Award at the 24th Jeonju IFF.



AC3 10.21 17:30

AC2 10.28 16:30 Q&A

최여영의 해남여행

Yeo-young's Trip to Haenam

Korea | 2022 | 27min | Color | Fiction

 코리안 웨이브 1
Korean Wave 1


여영은

1988년생. 대학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한 뒤, 한예종에서 영화 연출을 공부했다.

Yeo Young-eun

Born in 1988, she majored in French Literature and studied filmmaking in K'ARTS.

작가 지망생 최여영은 글을 쓰기 위해 해남으로 떠난다. 하지만 산책을 하고, 장작을 패고, 잡초를 뽑아도 한 글자도 쓰지 못한 채 마감일은 다가온다.

An aspiring writer Yeo-young leaves to Haenam in order to finish the novel she has been working on. While she takes a stroll, chop firewood, and pull weeds, the deadline approaches without her being able to write a single word.

창작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이 세상에 진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영화를 만들었다. **감독 여영은**

I believe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any artist is their attitude towards life. I made this film while pondering on the kind of attitude I should maintain and if or how I could open my eyes up to the true beauty of the world. **Yeo Young-eun, Director**

양림동소녀

Yangnimdong Girl

Korea | 2022 | 29min | Color | Documentary

 코리안 웨이브 2
Korean Wave 2


AC4 10.26 19:00

AC3 10.28 19:30



진도에서 태어나 광주로 유학 온 이야기, 성인이 되어 광주 5.18을 겪은 이야기, 노년이 되어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된 어머니의 이야기.

The story of a girl who was born in Jindo and moved to Gwangju to study abroad, the story of Gwangju 5.18 as an adult, and the story of a mother who became a disabled person in her old age.

감독이라면 부모의 생애를 기록하고 싶은 욕망을 숙제처럼 지니고 있다.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듯 엄마도 파란만장한 생을 살아왔고, 여러 의미에서 생존자다. 어느 날 엄마는 자신의 삶을 뽀뽀뽀한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귀여운 그림체로 전달하는 엄마의 생애구술사 애니메이션. **감독 오재형, 임영희**

I, as a director, always have the desire to record the life of the parents. Like others, my mother lived tumultuous life and is a survivor in many ways. One day, she began to paint her own life with crooked pictures. An animation of her life conveyed through her drawing.

Oh Jae-hyung, Lim Young-hee, Director



오재형, 임영희

오재형은 <피아노 프리즘>, <덩어리>, <블라인드 필름>, <봄날> 등 연출. 최근 오디 오비주얼 퍼포먼스에 집중하고 있다. 임영희는 한국 현대사를 운몽으로 관통하는 삶을 살아왔다. 급성뇌졸중으로 마비된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그린 그림과 글을 담아 '양림동 소녀'를 출간하였다.

Oh Jae-hyung, Lim Young-hee

Oh Jae-hyeong directed films such as *Piano Prism*, *The Lump*, *Blind Film*, *A Spring Day* and more. Currently, he has been focusing on audio-visual performance. Lim Young-hee has lived a life that penetrates Korean modern history. She published *Yangnimdong Girl* with her left hand instead of her paralyzed right hand caused by a stroke.



AC4 10.26 19:00

AC3 10.28 19:30 Q&A

퀸의 뜨개질

Queen's Crochet

코리안 웨이브 2
Korean Wave 2

Korea | 2023 | 36min | Color | Documentary



조한나

1997년생. 한예중 영상원 방송영상과를 졸업했다.

Cho Han-na

Born in 1997. Graduated K'ARTS documentary major.

10살 때 할머니로부터 뜨개질을 배운 지 15년이 지나 어른이 된 한나는 자신의 방을 뜨개질의 세계로 만든다. 하지만 여전히 남들에게 한나의 뜨개질은 그저 그런 취미일 뿐이다. 한나는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혼란스러움에 대해 생각한다. 한나는 가장 사소하고 여성스러운 뜨개질로 가장 거대한 반란을 꿈꾼다. 그렇게 밤낮으로 실을 엮고, 풀고를 반복하던 한나는 마침내 만다라를 완성한다.

Han-na learned to crochet from her grandmother since she was 10. 15 years passed, crocheting becomes a way of relieving her confusing emotions. But to others, crocheting is nothing more than a girl's hobby. Han-na has undergone the complicated experiences of being a woman. Han-na dreams of the most significant rebellion with crocheting, which is considered as the most trivial and feminine thing.

뜨개질을 하면서 나는 영화를 만든다. 과거의 기억의 조각들이 가느다란 실이고, 이들이 엮여서 뜨개질이 되어 영화가 된다. 정교하게 완성된 뜨개물을 들여다보면 촘촘하게 지나간 시간의 흐름이 보인다. 나는 지나간 시간의 코를 수집하고 풀고 엮고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만들고자 한다. 감독 조한나

I craft a film as I knit, weaving together the fragments of my memories. Like delicate threads woven into exquisite patterns, they form a film like a tapestry of time. I yearn to gather, unravel, intertwine, and weave these threads to tell a beautiful story. **Cho Han-na, Director**

두 여인

Two Women

코리안 웨이브 2
Korean Wave 2

Korea | 2022 | 21min | Color | Fiction

소녀는 신문배달을 하던 중 자기와 동갑 나이의 딸을 잃어버린 여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된다. 대학을 다니고 잡지사에서 근무했다는 여인은 가난한 소녀의 엄마와 다른 듯 같은 삶을 살고 있다.

While delivering the newspaper, the girl meets a woman, who lost her daughter of the same age, and talks to her. The woman who went to college and worked for a magazine has the same life as the poor girl's mother.

의무교육도 없던 가난한 시절에 태어나 21살에 결혼한 엄마는 살면서 하고 싶은 걸 한 번도 못해왔다고 하셨다.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던 엄마를 보며 그 세대의 여성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 제목 중 한 여인은 대화 속에서만 등장하는 소녀의 엄마를 나타낸다.

감독 장선희

My mother was born at a time when there was poor, non-obligatory education. She married at 21 and had never done what she wanted to. I want to talk about women of that generation. One of the two women is mom of a girl who appears only in a conversation.

Jang Sun-hee, Director

AC4 10.26 19:00 08A

AC3 10.28 19:30



장선희

한예중 영상원 영화과 전문사 졸업. <두 여인>으로 제2회 서울락스퍼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하였다.

Jang Sun-hee

Born in Korea. Graduated from K'ARTS, Korea Film Institute, *Two Women* won the Film Department Winner of Best Screenplay at the 2nd Seoul Larkspur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C3 10.27 17:30 Q&A

sub)구독과 조아영#일상

sub)SUBSCRIBE TO JOY#daily

 코리안 웨이브 3
Korean Wave 3

Korea | 2022 | 18min | Color | Fiction

유튜버가 되어 성공하고자 하는 아영은 오늘도 브이로그를 찍어본다. 일단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기록해보지만 어딘가 부족해 보인다. 아영이 즐겨보는 유튜버들은 모두 재밌고 멋지고 화려한 삶을 사는데 비해 자신의 삶은 보잘것없게만 느껴진다. 그런 아영에게 아영의 삶을 늘 위협했던 존재가 다시 찾아온다. 영화는 그런 그녀의 삶을 휴대폰 시점샷과 그녀의 브이로그 셀프캠으로 보여준다.

Joy is determined to become a famous YouTuber and began to records every aspect of her life. However, she feels insignificant compared to the fun, cool, and glamorous lives of other YouTubers she admires. When a threat from her past resurfaces, Joy's phone and another recording device capture her real life.

카메라를 무기로 사용하는 여성이 보고 싶었다. 감독 김국희

The film aims to portray a woman's life and how she uses a camera as a tool for personal empowerment. **Kim Guk-hee, Director**



김국희

그 어떤 영화제도 못 간 졸업영화의 제작비를 상환하기 위해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돈을 벌다가 사회의 쓴맛만 맛봤다. 그런데도 또 영화를 찍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웠다.

Kim Guk-hee

After experiencing the bitter taste of society while attempting to repay the production cost of a graduation film that didn't make it to any film festivals, She remained committed to her passion for filmmaking.

급처합니다... 네고 불가

My Non-Negotiable Guitars

 코리안 웨이브 3
Korean Wave 3

AC3 10.27 17:30 Q&A

Korea | 2022 | 14min | Color, B&W | Fiction

내 기타 다섯 개를 한 번에 사겠다는 사람과 있었던 13분간의 일.

For some reason, he sells all five of his guitars to 'Park-Kang' at once.

열정은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는 법이다. 감독 박현웅

The passion is sometimes, taken away. **Park Hyun-woong, Director**



박현웅

1997년 출생. 동국대학교에서 영화와 광고를 전공했다. 직접 연출, 연기, 작곡한 <급처합니다... 네고 불가>(2022)는 2022년 서울독립영화제 단편경쟁작으로 선정되었다.

Park Hyun-woong

Park Hyun-woong was born in 1997. He studied film and advertising at Dongguk University. He directed *My Non-Negotiable Guitars*(2022), acted and composed at the same time. The film was screened as a competitive film at the 48th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AC3 10.27 17:30

오늘의 영화

Today's Cinema

Korea | 2023 | 30min | Color | Fiction

코리안 웨이브 3
Korean Wave 3



이승현

1989년 출생. 한국영화아카데미 사전제작 과정 2기 졸업. <민상>(2018), <밤의 침묵>(2019), <M-SANG>(2020), <정릉의 새벽>(2021), <부산에 가면>(2023), <오늘의 영화>(2023) 연출.

Lee Seung-hyun

Born in 1989, graduated from the 2nd pre-production of the KAFA. Directed short films *Minsang*(2018), *Silence of the night*(2019), *M-SANG*(2020), *Dawn of Jeongneung*(2021), *We'll go somewhere*(2023), and *Today's Cinema*(2023).

5년 만에 연기에 다시 도전한 배우 철기는 '오늘의 영화' 사전 모임 자리에서 상대 배우 혜랑을 처음 만난다. 모임이 끝나고 어색함을 풀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그들의 하루는 점점 엉망이 되어간다.

After a five-year hiatus of acting, Chul-gi returns as an actor and meets his co-star Hye-rang for the first time at a pre-meeting for 'Today's Cinema'. After the meeting, the two spend time trying to break the ice, but their day goes awry in the heat of the summer.

모두의 오늘에는 영화 같은 순간이 있다고 생각했다. 감독 이승현

There is a cinema-like moment to everyone's present day. Lee Seung-hyun, Director

가정동 Hometown

Korea | 2022 | 20min | Color | Fiction

코리안 웨이브 4
Korean Wave 4

TC 10.22 19:00 PF

AC3 10.28 17:30 Q&A

인천의 오래된 동네 가정동에 사는 상운. 그는 육교 너머 신도시 청라에서 일을 한다. 매일 밤늦게 퇴근하는 상운은 누군가 매일 동네 담벼락에 써놓은 시를 읽으며 하루 하루 위로를 얻는다. 어느 날, 그는 매일 바뀌던 시가 바뀌지 않은 것을 발견한다.

Sang-woon lives in Gajeong-dong, an old neighborhood in the city of Incheon. He works in the new city on the other side of an overpass. Every late evening on his way back from work, Sang-woon finds solace by reading the poems someone writes on the wall everyday. One day, Sang-woon notices that the poems on the wall hasn't changed since yesterday.

인천 서구 가정동은 인천의 오래된 동네이다.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시를 통해 위로받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영화로서 이 공간을 기억하고 싶었다. 감독 허지윤

Gajeong-dong in the city of Incheon is an old neighborhood. I wanted to portray how the neighbors of this town find solace in poetry to carry on their lives and commemorate this place with this film. Heo Ji-yun, Director



허지윤

1996년생. 경희대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했다. 인천에 거주하며 계속 인천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만들어오고 있다. 단편 <새 사람>, <트레비>를 만들었고 <가정동>은 세 번째 연출작이다.

Heo Ji-yun

Born in 1996, he studied film studies at university. Living in Incheon, he has made films set in Incheon. He directed short films such as *NEW BORN* and *TREVI*, and *Hometown*, his third film.



AC3 10.28 17:30

딜리버리 댄서의 구

Delivery Dancer's Sphere

 코리안 웨이브 4
Korean Wave 4

Korea | 2023 | 25min | Color | Experimental

배달 플랫폼 딜리버리 댄서 소속 여성 라이더 에른스트 모는, 가상의 서울을 배경으로 끝없이 갱신되는 배달 앱의 내비게이션 미로에 갇힌 채 질주한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세계와 완벽하게 동일한 다른 가능세계가 누수하는 지점들에 다다른다. 그렇게 자신과 완벽하게 동일해 보이는 상대역 개체를 만날 때마다, 에른스트 모의 세계는 조금씩 붕괴하기 시작한다.

Ernst Mo is a rider for the powerful courier service Delivery Dancer. Every day, she transports an endless stream of parcels, following algorithmically generated routes through a labyrinthine, techno-futurist Seoul. Here, the optimization drives space, time and bodies to the riders' limits. After she runs into an alternative version of herself, her reality slowly starts to crack.

현란한 불빛과 고층 빌딩의 도시에서 작은 입자처럼 움직이는 라이더들. 얼핏 미래 세계나 가상현실의 인물들처럼 보이는 이들은 '알고리즘에 따라 막힌 길을 뚫어서라도 정해진 시간 내에 도착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주한다. 가상현실처럼 보이는 이미지들은 플랫폼 노동의 단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지극히 현실적이다. **프로그래머 박혜미**

In a city with flashing lights and skyscrapers, riders move like particles, resembling futuristic inhabitants or virtual reality, following algorithms and racing to be on time. These digitized visuals reveal the harsh reality of platform labor all too real. **Park Hye-mi, Programmer**



김아영

김아영은 경계와 세계를 넘나드는 주체와 사건, 중간적이거나 모호한 상태에 늘 관심을 가지며, 개연성이 부족한 세계의 속성을 반영하는 혼성적 이야기로 현실을 재구축해 왔다.

Kim A-young

Kim A-young synthesizes the outcomes of far-reaching speculation, establishing connections between biopolitics and border controls, the memories of stones and virtual memories, and ancestral origins and imminent futures.

하부구조의 친구들

Three Friends in Substructure

 코리안 웨이브 4
Korean Wave 4

AC3 10.28 17:30

Korea | 2023 | 25min | Color | Fiction

세 친구가 있다. 같은 과 동기인 이들은 모두 밤을 새웠고, 그래서 하품을 하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돈도 벌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하나의 맨홀 구멍을 중심으로 말하고 다투고 만나고 헤어지며 얽히고설키는 이상한 하루아침을 보낸다.

Three friends attend the same university, but their ideas about the society we live in differ with each other. One morning, they find themselves in a strange situation, spinning around an open manhole.

우리가 믿는 가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된다. **감독 이세형**

The values we believe in are proven by our deeds, not by our words. **Lee Se-hyung, Director**



이세형

1998년생. 한예중 영화과에 재학 중이다.

Lee Se-hyung

Born in 1998. He studied film directing at the K'ARTS.

투게더 Together

즐겁고 다정한, 때로는 장엄하고도 송고한 산은 수많은 이들의 얼굴과 그들의 인생사사를 품고 있는듯 합니다. 투게더에서는 산이 품은 다채로운 서사 속에 울고 웃는 누군가의 하루, 그리고 그 안에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정겨운 삶의 흔적을 차곡차곡 모아보았습니다. 올해 역시 도전과 도약을 멈추지 않는 세계 각국 어린이 청소년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고 움프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들은 자연을 만끽하며 산에 오르고, 연약한 동물을 살뜰히 돌보며, 때론 부모님과 떨어진 산 속에서 성숙해지는 스스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치유와 공존의 방식을 깨닫게 되는 이들의 변화는 현 시대의 이기(利己)에 던지는 날카로운 일침이 되며 동시에 이들의 여정을 응원하는 모든이들에게는 벅찬 감동의 시간을 선사할 것 입니다. 짧지만 함박웃음을 선사하는 좌충우돌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투게더 섹션의 하이라이트 입니다. 특별히 교육청, 울산울주지역 학교와 함께하는 영화읽기 프로그램은 지역 어린이청소년들이 교육적 가치를 경험하고 새로운 상상에 도전하는 의미있는 문화 향유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10월에 만나는 움프, 영남알프스의 깊어가는 가을 정취와 함께 온 가족 소중한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어 장다나**

Joyful and tender, majestic and profound; mountains encapsulate the faces of countless individuals and their life stories. Together has gathered various narratives embraced by the mountains - stories of laughter, tears, changes, and growth. Again this year, unstoppable young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knock on the doors of UMFF, bringing with them astonishing tales. They enjoy nature, climb mountains, tenderly care for fragile animals, and sometimes, find themselves growing up amidst the mountains,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The transformations of those who come to realize the ways of healing and coexistence serve as a sharp reminder of the self-centeredness of our times, simultaneously offering deeply touching moments to those who support their journeys. Short yet hilarious animation films are the highlights of Together, a section for families to enjoy together. The film reading program in collaboration with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and schools in the Ulsan-Ulju area will serve as a meaningful cultural enrichment program, allowing local children and teenagers to experience educational values and venture into new realms of imagination. UMFF in October. May it be a time for you and your family to create precious memories in the beautiful autumn vibes of the Yeongnam Alps.

Jang Da-na, Programmer



UC 10.22 11:00

AC2 10.25 13:30

로이

Roi

Finland | 2022 | 84min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열두 살 소녀 발로는 라헤 마을에 새로 이사 와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을 물리치도록 도와준 떠돌이 독일셰퍼드를 만나고, 개와 친구가 된 발로는 로이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이 이야기는 타인을 돕기 위해 힘을 합쳐 전에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을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우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New to the town of Raahe, 12-year-old Valo protects herself from bullies with the help of an abandoned German-Shepherd. After becoming friends with the dog, Valo names her Roi. This is a story about friendship - a union for the sake of helping others, leading them to overcome challenges they otherwise never would have dared tackle before.

요르마 쿠르비넨의 고전 동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모험과 미스터리, 그리고 우정이 가진 힘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더했다. **제작사 앳에버그룹**

This film is a remake of the classic book by Jorma Kurvinen brings in new elements of adventure, mystery and the power of friendship. **Whatevergroup, Production**



라네 티우카넨

2000년 이후 핀란드에서 가장 많은 수상 경력과 신뢰를 받는 상업 영화 감독 중 한 명이다. 수년 동안 쿨타후이푸 상을 포함하여 수십 개의 상을 꾸준히 받아왔다.

Rane Tiukkanen

Since 2000, Rane has been one of the most award-winning and trusted commercial film directors in Finland. He has continuously, for years, been winning dozens of prizes for his clients, including multiple Voitto Grand Prix and Kultahuippu prizes.

미미야, 어딴니?

She - Hero

Slovakia | 2023 | 83min | Color | Fiction

용감한 소녀 로미의 친구인 앵무새 미미는 어느 날 길을 잃는다. 로미는 미미를 찾기 위해 고대의 숲으로 길을 떠나고, 그곳에서 각자의 사연을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며 즐거운 모험을 한다.

Romy is a brave little girl. She has a budgie called Mimi and Mimi got lost. Romy's determination to find her budgie brings her out into the ancient woods, where she meets all sorts of everyday characters, each with their own story. She'll not only make new friends along the way, but mainly she enjoys her adventure.

거부할 수 없는 귀여움과 소소한 웃음이 가득한 이 영화는 조금은 낯선 실험을 선보인다. 헤어짐과 새로운 만남이 원형적 구도로 이어지는 이 숲은 구조적으로도 흥미롭지만, 어린 로미와 새로운 인연들이 함께 쌓아올리는 험거우면서도 의미 있는 관계가 결국 관객을 이 숲 한가운데로 이끈다는 것, 이 영화만의 가장 신묘한 지점일 것이다. **프로그래머 장다나**

This cute, amusing, experimental film blends strangeness and the forest's charming circular structure, and Romy's loose but meaningful bonds with new friends, ultimately leading the audience into the forest's heart, is this film's most captivating element.

Jang Da-na, Programmer

UC 10.24 17:00



미라 포르나이

4편의 장편과 14편의 단편을 제작한 영화 작가이자 감독. 프라하의 국립영화학교와 영국의 국립 영화 및 TV 학교에서 영화 연출을 공부했다.

Mira Fornay

Mira Fornay is mainly a film author who made 4 feature films, 14 shorts. She studied film directing at FAMU, Prague and NFTS, United Kingdom.



UC 10.25 14:00 TALK

AC2 10.26 13:30

반짝반짝 빛나는 Sea Sparkle

Belgium | 2023 | 98min | Color | Fiction



도미엔 헤이허

벨기에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로 단편 영화 <매버릭>을 통해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현재 베를린국제영화제 공동제작 마켓에 선정된 장편 데뷔작 <반짝반짝 빛나는>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Domien Huyghe

Domien Huyghe is a Belgian film director and screenwriter. His short film *Maverick* received international recognition. He is currently finishing his debut feature film *Sea Sparkle*, which was selected for the Berlinale Coproduction Market.

북해의 한 어부가 바다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고, 사람들은 선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수군댄다. 그의 딸 레나는 배가 우연히 침몰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지만, 가장 친한 친구조차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다. 레나는 해수면 아래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게 되고, 미지의 거대한 바다 생물이 심해를 배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기로 결심한다.

A North Sea fisherman dies at sea under mysterious circumstances. People whisper that the captain is to blame. His teenage daughter Lena however suspects the ship did not go down by accident. Nobody believes her, not even her best friend. When Lena glimpses a huge shadow slithering beneath the sea surface, she is determined to prove that a huge, unknown sea creature is roaming the deep...

영화를 본 관객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삶이 아무리 어두워도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싶었다.

감독 도미엔 헤이허

I hope that those who leave the theater can have a small talk about the loss of a loved one, about the fact that everyone grieves in their own way. I want to say that - no matter how dark life sometimes is - there will always be sea sparks. **Domien Huyghe, Director**

티티나 Titina

Norway, Belgium | 2022 | 90min | Color | Animation

이탈리아의 비행선 엔지니어 움베르토 노빌레는 사랑하는 반려견 티티나와 함께 조용한 삶을 살고 있다. 어느 날 노르웨이의 유명 탐험가 로알 아문센이 그에게 연락해 북극을 탐험할 비행선을 주문하자, 그 또한 티티나를 데리고 지구상의 마지막 미지의 장소로 탐험을 떠난다. 두 사람은 탐험에 성공하지만 성공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기 시작한다.

Italian airship engineer Umberto Nobile enjoys a quiet life with his beloved dog Titina. One day, Norwegian explorer superstar Roald Amundsen contacts him and orders an airship to conquer The North Pole. He brings Titina along, and the unlikely trio sets out on an expedition to the last undiscovered place on Earth. Their quest is successful, but the two men start to quarrel over the glory.

<티티나>는 우리의 기억에서 희미해진, 1926년 비행선을 이용해 북극으로 떠나는 탐험의 여정에 관한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영화는 작은 테리어 티티나의 눈을 통해 바라본 터무니없는 모험과 인간의 감정에 대한 회상을 보여준다. **배급사 로장주 필름**

Titina tells an entertaining and exciting story of an almost forgotten voyage of discovery: The conquest of the North Pole by airship in 1926. The film is a recollection of absurd adventures and human emotions, as seen through the eyes of the little terrier Titina.

Les Films Du Losange, Sales

UC 10.23 14:30

UC 10.26 14:30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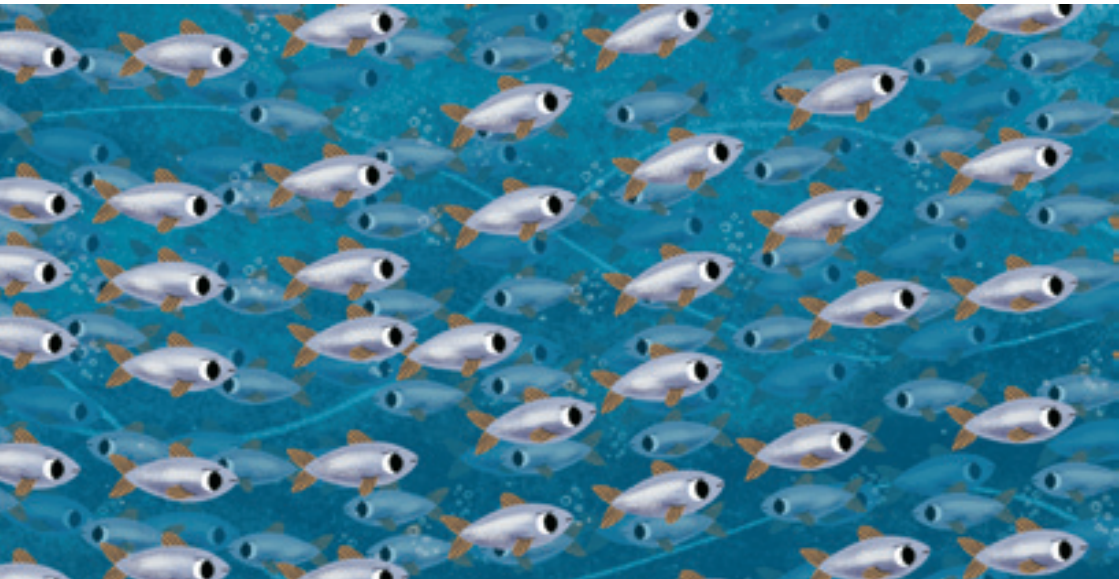


카이사 네스

25년간 아이디어 넘치는 단편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활동해 왔으며, <티티나>로 장편 데뷔를 했다. 그녀의 영화는 유쾌하고 재미있으며, 인간적이라는 평과 함께 여러 유명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Kajsa Næss

After 25 years as an innovative short animation director, Kajsa Næss is ready for her feature film debut with *Titina*. Næss is known for her playful, humorous and humanistic films. Her award-winning shorts have featured in various prestigious festivals.



TC 10.21 11:00 PF
 UC 10.24 10:00 PF
 UC 10.28 11:00 PF

연못 Pond

Switzerland | 2023 | 9min | Color | Animation

투게더 1
Together 1

청어 떼가 멋진 대형을 이루며 광활한 바다를 누비고 있다. 갑자기 갈매기의 공격이 시작되자 작은 청어 한 마리가 갯벌에 갇히게 되고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던 청어는 이곳에서 다른 많은 바다 생물들을 발견한다. 굶주린 갈매기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려워하는 대신 힘을 합쳐야 한다.

A shoal of herrings, adopting fantastic formations, roams the vast ocean. When seagulls suddenly attack, one small herring finds itself stranded in a tidal pool. As it searches desperately for a way out, it discovers many other sea creatures here. And now there is no time for fear: only by joining forces can they hope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the hungry seagull.

친구 무리를 잃어버린 청어, 그리고 귀여운 연못 생물들에게 벌어지는 우당탕탕 모험담! 따스한 작화가 친근감있게 다가오는 즐거운 가족 애니메이션. **프로그래머 장다나**

It is the tale of a herring who loses his friends and the hilarious escapades of the cute creatures of a pond. *Pond* is a delightful family animation with inviting and endearing drawings. **Jang Da-na, Programmer**



레나 폰 뢰렌, 에바 루스트

레나 폰 뢰렌은 베를린 출신으로 네덜란드 헤릿 릿펠트 아카데미의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학사 학위(2017)를 수료했다. 에바 루스트는 취리히 출신이며 스위스 HSLU의 일러스트레이션 학사 학위(2010)를 수료했다.

Lena von Döhren, Eva Rust

Lena was born in Berlin. She graduated Bachelor of Audio Visual Communication, from Gerrit Rietveld Academy, NL, in 2017. Eva was born in Zurich. She graduated bachelor's in Illustration, from HSLU, Switzerland, in 2010.

오아시스의 탄생 Birth of the Oases

France | 2022 | 9min | Color | Animation | Korean Premiere

투게더 1
Together 1

TC 10.21 11:00
 UC 10.24 10:00 TALK
 UC 10.28 11:00

냉혈한 뱀과 다혈질 낙타가 절친한 친구가 되는 이야기.

A cold-blooded snake and a hot-blooded camel become close friends.

오래된 동화वाद 같은 이들의 이야기는 오아시스의 기원을, 그리고 우정과 배려가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상상이다. 거기에 다정한 감성이 머문 이미지만으로도 훌륭한 작품. **프로그래머 장다나**

Like an old fairy tale, their narrative unfolds a profound exploration of uncovering the origins of an oasis and how friendship and compassion can create a new world. The film also offers unique and captivating artwork. **Jang Da-na, Programmer**



마리온 자물트

애니메이터이자 일러스트레이터. 프랑스 국립시청각대학에서 편집을 공부한 후 클레르몽 페랑의 국립공예학교와 브뤼셀의 라 캄브르 고등시각예술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했다. 현재는 파리에서 작업하고 있다.

Marion Jamault

An animator, illustrator. After studying editing at the 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trained in animation at the Diplôme des métiers d'arts de Clermont Ferrand and at the École supérieure des arts visuels de la Cambre in Brussels. Currently, she works in Paris.



TC 10.21 11:00
 UC 10.24 10:00 TALK
 UC 10.28 11:00

쿵! Boom

투게더 1
Together 1

France | 2022 | 7min | Color, B&W | Animation | Korean Premiere

화산 폭발로부터 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말 못 하는 새 한 쌍의 이야기.

A couple of dumb birds tries its best to protect its eggs from a volcano eruption.

러닝타임 내내 리드미컬하게 알을 주고받는 장면은 최근 보기 힘들어진 슬랩스틱 코미디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알을 지키기 위한 새들의 고군분투를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으로 완성한 작품. **프로그래머 장다나**

The rhythmic passing of eggs throughout the film evokes memories of classic slapstick comedies that have become rare in modern films. The birds' efforts to protect their eggs are interspersed with hilarious hijinks, adding a delightful humor to the narrative.

Jang Da-na, Programmer



가브리엘 오즈레, 로맹 오글리에, 로리 페레 이라 데 피게이레도, 샤를 디치코, 야닉 자랭

가브리엘은 옛날 만화 재방송에 푹 빠져 있었고 이야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서 고향인 레위니옹섬을 떠나왔다. 로리는 애니메이션을 더 사실적이고 매력적으로 만들 방법을 늘 찾고 있다.

Gabriel Augeraï, Romain Augier, Laurie Pereira de Figueiredo, Charles di Cicco, Yannick Jacquin

Gabriel, originally from Reunion Island and immersed in reruns of old cartoons, always wanted to tell stories. To make it her job, she decided to leave her island. Laurie always looking for ways to improve her animations to make them more believable and engaging.

카나리아 CANARY

투게더 1
Together 1

Canada | 2022 | 12min | Color | Animation

어린 소년 소니는 지하 탄광에서 일하는 어른들을 위해, 치명적인 메탄가스를 감지하는 카나리아를 돌본다. 하지만 소니는 잠깐 햇빛을 보기 위해 카나리아에게 죽은 척하는 법을 가르쳐 광부들을 속이고, 그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

A young boy named Sonny works in an underground coal mine with the adults, taking care of the canary that detects deadly methane gas. He teaches the bird to play dead to prank the men, risking their lives for a moment in the sunlight above.

카나리아가 실제로 지하 탄광에서 사용되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였다. **감독 피에르 휴그 달레어, 브누아 테리얼트**

Some people are not aware of the fact that canaries were actually used in underground coal mines. This fact was the inspiration for the film.

Pierre-Hugues Dallaire & Benoit Therriault, Directors

TC 10.21 11:00
 UC 10.24 10:00 TALK
 UC 10.28 11:00



피에르 휴그 달레어, 브누아 테리얼트

두 감독은 10년 넘게 함께 작업을 해왔으며 <카나리아>는 오랫동안 그들이 함께 생각했던 이야기이기도 하다. 공동작업한 단편영화와 커미션 작품은 안시국제영화제에서 소개된 바 있다.

Pierre-Hugues Dallaire, Benoit Therriault

PH & Ben have been directing together for over ten years. *CANARY* is a story they have carried with them for almost as long. Their short films and commissioned work have been featured at the Annecy International Film Festival.



UC 10.21 12:00 Q&A
AC3 10.26 17:30

나무 사이로 계절이 지나가

Through the Trees

투게더 2
Together 2

Korea | 2022 | 3min | Color | Animation

절망에 빠진 주인공이 숲에서 나무들을 만나며 앞으로 나아 갈 힘을 얻게 된다.

The story is about the protagonist who naturally recovers by spending the season with trees in the forest.

뮤직비디오인 만큼 곡의 정서와 뮤지션의 의도를 중심에 놓고 작업을 했다. 그에 덧붙여 평소에 품어왔던 이미지와 이야기를 녹여내 보았다. **감독 김주임**

For this music video, I mainly focused on the sentiment of the music and the artist's intention. Additionally, I tried to mix in stories and images I always had in mind. **Kim Joo-im, Director**



김주임

이야기를 그리는 애니메이션 감독, 그림책 작가, 만화가이다. 단편 애니메이션 <바람이 지나가는 길>, <코>, <나이트라이트>를 만들었으며 그림책 『나무 사이로 계절이 지나가』를 출간했다.

Kim Joo-im

Kim Joo-im draws stories as animation, picturebook and comics. She produced short animations *The path of wind*, *The nose* and *NightLight*. Published a picturebook *Through the Trees*. Presently making a comics *Timid confession*.

당신없는 여름

Summer without You

투게더 2
Together 2

UC 10.21 12:00
AC3 10.26 17:30

Netherlands | 2023 | 15min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줄리는 남동생, 엄마와 함께 캠핑을 떠난다. 아빠가 보고 싶지만, 부모님은 이제 별거 중이고 줄리는 이 새로운 현실에 익숙해져야 한다. 하지만 프랑스의 한부모 가정을 위한 캠프장에서는 모든 아이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 휴가에서 새로 만난 친구들은 줄리가 이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Julie is going camping with her little brother and her mother, however, without her father who she misses a lot. Her parents are separated now, and she has to get used to this new reality. But it turns out Julie is not the only one; at the one-parent campground in France, all the children have the same experience. Her new vacation friends help Julie look at the divorce through new glasses.

이런 종류의 청소년 다큐멘터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목받는다. 학교들은 이런 영화의 상영회를 직접 열거나 상영회 장소를 빌려주기도 하며 영화 상영 후에는 청소년들이 이혼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다. **프로듀서 빌레마인 세루티**

Attention is paid to these youth documentaries in various ways. Screenings are organized for and in schools. After the film, young people will work with a Spoken Word artist to express their feelings and experiences about divorce through language.

Willemijn Cerutti, Impact producer



밀루 헤버르스

2020년 네덜란드 영화 아카데미를 졸업했다. 졸업 작품 다큐멘터리 <왜 나를 위해 머물지 않았어요?>는 수많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2023년 2월에는 유럽어린이 영화협회의 다큐멘터리상을 받았다.

Milou Gevers

Milou Gevers graduated from the Netherlands Film Academy in 2020 with the documentary *Why Didn't You Stay for Me?*. The film won various awards from numerous festivals. And in February 2023 she won the ECFA Documentary Award.



UC 10.21 12:00

AC3 10.26 17:30

이제 그만 잊기로 해요

The Sound of Mountain

Taiwan | 2022 | 25min | Color | Fiction | International Premiere

 투게더 2
Together 2


린정산

1999년 대만 출생. 타이베이 국립예술대학교 영화창작 감독 과정에 재학 중이다. 단편 영화 <영혼의 영원함>과 <이제 그만 잊기로 해요>를 만들었고 <이제 그만 잊기로 해요>는 대만 VGV 은상을 수상했다.

Ching-Shan Lin

Born in Taiwan, 1999. Currently studies in the Director's Program of Film Creation at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She has completed short films *Eternity of the soul*, *The sound of mountain*, The latter received the Silver Award at the Taiwan VGV Award.

야오의 아버지가 산에서 실종되자 야오는 은퇴한 산악 순찰대원 마오 아저씨의 도움으로 길을 안내받는다. 두 사람은 함께 해발 3,000미터 높이의 산을 오르며 점차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마음속에 아물지 않은 상처를 발견하게 된다.

Yao's father goes missing on the mountains, and she seek the help of retired mountain patroller Uncle Mao to guide her. Together, they ascend a climbed the 3,000-meter-high mountain, gradually getting to know each other and discovering the unhealed wounds in their hearts.

나는 산에 마법이 있다고 믿어요! 주인공 웨이 흥

山是有魔法的, 我相信! I believe mountain has magic! **Wei Wong, Heroine**

하늘 위로

Skyward

UK | 2022 | 19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투게더 2
Together 2


UC 10.21 12:00

AC3 10.26 17:30



제시카 비숍

다큐멘터리 감독. 서브컬처와 신화에 매료되어 일상에 내재한 보편적인 주제를 탐구한다. 셰필드 다큐멘터리영화제와 미국영화협회다큐멘터리영화제 등에서 작품을 상영했고 아스펜단편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Jessica Bishopp

Jessica Bishopp is an award-winning documentary filmmaker fascinated by subcultures and myth, exploring universal themes embedded in our daily lives. Her work has screened at festivals including Sheffield Doc/Fest, Aspen Shortsfest and AFI DOCS.

젊은 탐조객인 마이아와 아르준은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위기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을 평가하는 듯한 타인들의 시선과 함께 고립감을 느끼지만, 그들은 신념을 지키기 위해 맞서기로 결심한다. 이 영화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하는 창의적인 다큐멘터리이다.

Young birdwatchers, Mya and Arjun, feel the pressure of climate change and the biodiversity crisis greatly. Although they feel isolated and judged by others, they are determined to stand up for what they believe in; coming of age in the age of climate chaos. A creative documentary exploring our relationship with nature.

이 영화는 나한테 항상 특별한 영화로 남을 것이다. 마이아와 아르준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들이 경험하는 자연을 체험할 기회였었다. 세계질 내내 자연에 몰입해 촬영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마법 같은 순간들을 관객들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감독 제시카 비숍

This film will always be special to me. The opportunity to spend so much time with Mya and Arjun and to experience nature as they experience it. I hope the audience will feel the magic we felt, whilst filming immersed in nature throughout the seasons.

Jessica Bishopp, Director



- AC3 10.22 17:30
- UC 10.25 10:00 TALK
- UC 10.26 10:00 TALK

용감한 소녀

Brave Girl

USA | 2022 | 8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투게더 3
Together 3



마크 페드리

탐험 전문 다큐멘터리 제작자이자 작가. 그의 작품은 국제 영화제 및 TV에서 상영되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제작 부문 석사 학위를 받았고 선댄스영화제의 에피소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관리했다.

Mark Pedri

He is an expedition-based documentary filmmaker and writer. His films've played at international festivals and on national TV. He managed the Episodic Storytelling program at Sundance Institute and has an MFA in Producing from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용감한 소녀>는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산을 오르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강인한 어린 모험가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 겨우 6살이지만 와이오밍주 뒷마당에 있는 산을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산을 등반하겠다는 확고한 야망을 품고 있다.

Brave Girl is a strong young adventurer, who with the help of her grandpa is beginning her journey of finding out what it takes to climb mountains. Even though she's only 6, she has an unwavering ambition to climb the biggest mountains in the world, starting with the ones in her backyard in Wyoming.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모두가 때때로 억누르게 되는 모험심을 그려내기 위해 노력한 작품. 영감을 얻기 위해 우리의 젊은 시절을 들여다보는 이야기이다. 감독 마크 페드리

Brave Girl is an effort to capture the adventurous spirit that lives in all of us that is sometimes stifled as we age. This film is about looking to our youth for inspiration. **Mark Pedri, Director**

아아아아!

Aaaah!

France | 2023 | 5min | Color | Animation | Korean Premiere

투게더 3
Together 3

- AC3 10.22 17:30
- UC 10.25 10:00 TALK
- UC 10.26 10:00 TALK

아아아아는 고통, 놀람, 두려움, 기쁨, 노래, 투덜거림, 웃음, 분노를 느낄 때 내는 소리이며, 어른들의 호루라기 소리에 둘러싸여 공동체의 삶을 경험하는 원초적이고 순수한 존재인 어린이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Aaaah! is a cry of pain, surprise, fear, joy, songs, grumbling, laughter, anger... Aaaah! is the expression with which children, these primary and innocent beings, experience life in a community, framed by the whistles of adults.

짧은 감탄사 하나로 모든 감정과 상황이 표현 가능하다면? 왜인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오히려 정제되고 정형화된 언어는 필요를 위장한 강요가 아닐지. 재치넘치는 매력으로 똘똘 뭉친 '외마디'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어 장다나**

What if every emotions and situations can be condensed into a brief exclamation? What if, for innocent children, refined and formal language is only an imposition masked as a need? We invite you to enter the realm of 'a single cry' full of wits and charms!

Jang Da-na, Programmer



오스만 세르폰

프랑스의 애니메이션 감독. 보자르 데피날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고 연수를 받은 후 라 푸드리에르 학교에서 학업을 마쳤다. 그곳에서 그는 졸업작인 <마주 앉아>를 포함해 세 편의 영화를 연출했다.

Osman Cerfon

Osman is a French director of animated films. After studying graphic design and training at the Beaux-Arts d'Epinal, Osman Cerfon completed his studies at the La Poudriere school. There he directed three films, including *Tête-à-tête*, his graduation film.



- AC3 10.22 17:30
- UC 10.25 10:00 TALK
- UC 10.26 10:00 TALK

백도 Back-Do

Korea | 2023 | 15min | Color | Fiction

투게더 3
Together 3



차경민

1997년 인천 출생.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를 졸업했으며, 단편영화 <백도>는 첫 번째 연출작이다.

Cha Kyeong-min

Born in Incheon in 1997, graduated from Sungkyunkwan University's department of Film, TV, and Multimedia. His first directing work is the short film *Back-Do*.

설날, 큰집에 집안 어른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취준 백수 수민과 삼수생 정민 남매는 어른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반면 서울대에 합격한 사촌동생 재영은 어른들의 온갖 환대를 받으며 등장한다.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재영과 자각지심으로 가득 찬 남매 사이에 자존심 싸움이 시작되고, 세뱃돈을 모두 건 내기 윷놀이 한 판을 벌이게 된다.

During the Korean New Year holiday, a group of family members gathers, where jobless siblings Su-min and Jung-min struggle to escape their elders' judgment. Meanwhile, their successful cousin Jae-young receives all the attention. And leading to a heated game of Yut-nori, a traditional Korean board game, to determine who gets to keep all of the New Year's Allowance.

명절 때 윷놀이를 즐겨 했었는데, 어른들 말씀을 듣고 있자니 인생이 윷판처럼 느껴졌다. 인생은 윷판처럼 먼저 골인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작품에 담고 싶었다.

감독 차경민

When I was young, I used to enjoy playing the traditional Korean board game Yut-nori with my cousins during holidays and thought that life felt like a Yut-nori. I want to show in this film that life is not just a game where the one who reaches the end first wins.

Cha Kyeong-min, Director

버스 바퀴 Wheels On The Bus

Nepal | 2022 | 16min | Color | Fiction

투게더 3
Together 3

- AC3 10.22 17:30 TALK
- UC 10.25 10:00 TALK
- UC 10.26 10:00 TALK

카스트 제도의 낮은 지위에 속하는 대장장이 소년 비얄은 상류 계급의 친구들에게 그들을 위한 쇠바퀴를 만들라며 괴롭힘을 당한다. 비얄과 그의 친구 라바는 자신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사회적 관습을 깨야만 한다.

After being bullied into making iron wheels for his upper-caste peers, BHYAL(12), a lower caste black-smith boy, and his friend LABA are compelled to break social conventions by taking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네팔에서는 여러 종류의 사회적 차별이 이미 불법이지만, 이러한 전통의 잔재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만연해있다. 이 영화는 어린이의 눈을 통해 불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가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상과 가치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감독 수리아 사히**

Many forms of social injustices have been made illegal in Nepal, but the residue of these traditions still prevails today. This film tells a story of injustice through the eyes of a child and questions the ideals and values that we so delusively believe we uphold.

Surya Shashi, Director



수리아 사히

미국 엘론 대학교에서 미술 학사와 국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카트만두의 오스카 국제 영화 대학에서 파트타임으로 연기를 가르친다. 현재 스토니 브룩 대학교에서 영화 연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Surya Shashi

He received a Bachelor of Fine Arts and a BA in International Studies from Elon University, USA, works part-time as an acting teacher at Oscar International College of Film Studies in Kathmandu. Currently doing master in Film Direction at Stony Brook University, USA.



UC 10.23 10:00

UC 10.27 10:00

수지의 정원

Suzie in the Garden

Czech Republic, Slovakia | 2022 | 14min | Color | Documentary

투게더 4
Together 4

<수지의 정원>은 두려움과 편견을 극복하는 모습과 서로 다른 면에 매력을 느끼고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대한 시적이고 마법과 같은 이야기이다.

Suzie in the Garden is a poetic magical story about overcoming fear and prejudice, about harmony and the charm of differences.

타인의 정원에서 벌어지는 수지의 소소한 모험, 그리고 이를 마치 색연필을 사용한 듯한 줄한 줄 섬세하게 표현한 작화가 매우 조화롭게 완성된 작품이다. 따사로운 감성을 물씬 풍기는 신비로우면서도 아름다운 동화 한 페이지. **프로그램어 장다나**

The story of Suzie's adventures in someone's gardens and how it was depicted with delicate drawings, illustrated as if sketched with colored pencils, exudes a delightful harmony. The film is like a page torn from a captivating fairy tale, filled with warmth. **Jang Da-na, Programmer**



루시 슌코바

프라하 출신의 작가, 예술가, 감독, 애니메이터. 바츨라프 홀라 예술학교와 FAMU에서 공부했다. 카메라 아래의 유리에 유화를 그리는 기법을 주로 사용하며 어린이를 위한 책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

Lucie Sunková

Born in Prague, where she studied at Vaclav Hollar School of Art and FAMU. She is a scriptwriter, artist, director and animator. She focuses mainly on one animation technique: oil painting on glass under the camera. She writes and illustrates books for children.

건전지 엄마

Battery Mommy

Korea | 2023 | 9min | Color | Animation

투게더 4
Together 4

UC 10.23 10:00

UC 10.27 10:00 Q&A

건전지 엄마는 어린이집 비눗방울 총, 카메라, 체온계등 다양한 곳에서 활약한다. 어느 겨울날, 아이들의 낮잠 시간. 건전지 엄마는 크리스마스트리에 불이 난 것을 알게 된다. 그 순간, 아이들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도록 화재경보기로 달려가는 데...

Battery mommy is capable of doing various stuffs such as soap bubble guns, cameras, and thermometers in the nursery. During the children's nap time of one winter day, battery mommy finds out the Christmas tree in the nursery is on fire. At the moment, she urgently runs to the fire alarm to safely rescue sleeping children...

다양하게 활약하는 엄마의 모습을 건전지에 투영했다.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사랑의 힘으로 충전 되길 바란다. **감독 전승배**

Battery mommy represents every moms who are the heroes of the children. I hope all mothers and families who watch the film are charged with the energy of a big love.

Jeon Seung-bae, Director



전승배

1979년 충남 출생. 2005년도에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예술학과 애니메이션 전공으로 입학하여 2009년도에 졸업하였다. 현재 토이빌 스튜디오에서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다.

Jeon Seung-bae

1979 Born in Chung Nam, South Korea. 2009 Graduated from Chung-Ang University of Advance Imaging Science, Multimedia & Film. He is working at Toyville Studio as Animation Director.



UC 10.23 10:00 Q&A
UC 10.27 10:00

페달을 밟자 Just do it!

투게더 4
Together 4

Korea | 2023 | 9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열한 살 민철이가 친구 수현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친다.

Eleven-year-old Min-cheol teaches his friend Su-hyeon how to ride a bicycle.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감독 정진용

I hope we can become good listeners who lean ears to other people's stories.

Jeong Jin-yong, Director



정진용

1998년 구미 출생. 중앙대학교 영화과를 졸업했다. 단편영화 <소파>, 다큐멘터리 <In Pursuit of a Dream>을 연출하였고, <페달을 밟자>는 세 번째 연출작이다.

Jeong Jin-yong

Born in 1998 in Gumi, South Korea. he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Film at Chung-Ang University. He directed the short film *Sofa* and the documentary *In Pursuit of a Dream*. *Just do it!* is his third directing film.

이도도 IDODO

투게더 4
Together 4

Switzerland, USA | 2021 | 10min | Color | Animation

오래전 물고기들이 인간으로 모습을 바꾼 후 육지로 올라와 춤을 추며 축제를 벌였고 해 질 무렵, 물고기들은 엉망이 된 마을을 떠나 서둘러 바다로 돌아갔다. 자신들이 없는 사이 마을을 어지럽힌 게 누구인지 궁금했던 섬 주민들은 이 불청객의 정체를 알아내려 하고, 그들의 모습에 놀라며 매료된다.

Long ago the fish transformed into humans and came onto land to celebrate and dance. Once the sun set, they hurried back into the sea, leaving behind a big mess. Curious as to who occupied the village in their absence, the people of one island plan to find out who these uninvited visitors were. What they would soon discover, leaves them astounded and mesmerized.

<이도도>는 스위스와 태평양 지역 출신의 예술가들이 합작해 완성한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파푸아뉴기니의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유산을 전 세계 관객에게 소개하는 것이 목표이다.

감독 우르술라 울미

IDODO is a dedicated collaboration between Pacific and Swiss artists. The animated short film aims to bring the diverse and unique cultural heritage of Papua New Guinea to an international audience. **Ursula Ulmi, Director**

UC 10.23 10:00
UC 10.27 10:00



우르술라 울미

독립 애니메이션 프로듀서이자 감독. 2008년 루체른 응용과학예술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를 졸업하고 2015년까지 유럽 애니메이션 인더스트리에서 애니메이터, 퍼펫 모델러, 프로덕션 매니저로 일했다.

Ursula Ulmi

Graduated Animation cum laude at Lucern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and Art, 2008. 2009-2015 Animator, Puppet Modeler and Production Manager in the European Animation Industry on animated features and series. Since 2016 independent Animation Producer, Director.



UC 10.24 14:30 TALK

UC 10.27 23:00

바디아르

Vadiyar

Iran | 2021 | 15min | Color | Fiction | Korean Premiere

투게더 5
Together 5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에게 복수하기를 권유한다. 하지만 아이는 복수를 하는 것보다 생명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Although all the people of the society encourage the child to take revenge, the child knows that giving life is much more beautiful than the revenge.

바디아르는 누군가를 돌보고,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과 계속 연락을 한다는 뜻이다.

감독 마르얀 코스라비

Vadiyar means looking after, visiting and seeing someone and keeping in touch with them.

Marjan Khosravi, Director



마르얀 코스라비

이란 출신의 여성 감독. 영화와 미디어 아트를 전공했다. 주로 여성 인권, 아동 문제, 성별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모든 작품의 주제에 여성과 관련한 사회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Marjan Khosravi

Marjan Khosravi is a young Iranian women filmmaker who studied Cinema and Media Art. She usually focuses on women rights, children issues, and gender diversity. Usually women social problems are the leitmotiv in all of her films.

샤오후이의 소

Xiaohui and His Cows

China, USA | 2023 | 15min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투게더 5
Together 5



TC 10.21 18:30 PF

UC 10.24 14:30 TALK

UC 10.27 23:00

샤오후이는 부모님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고 있어, 중국 남서부의 한 마을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할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송아지를 팔아 돈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샤오후이는 그런 할아버지를 막기 위해 소들을 산에 숨기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Xiaohui is a boy living with his grandfather in a village in Southwest China. His parents work far away from home. Grandpa intends to sell the calf for family income. In order to stop him, Xiaohui tries every possible way to hide the cows in the mountains.

중국 남서부 광시성의 한 마을에서 이 영화를 촬영했다. 중국에서는 매년 잔인한 현실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헤어진다. 이들에게 이별은 어떤 의미일까? 이별에 익숙해서 이제 고통을 못 느끼지 않을까? 감독 라오신잉

I shot this film in a village in Guangxi, a province in southwest China. In China, parents and kids are being separated by the cruel reality every year. What does separation mean to them? Are they used to being apart and not feeling the pain anymore? Xinying Lao, Director



라오신잉

중국 출신 영화인이며 뉴욕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저널리즘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게 됐다. 사람들이 드러내기 힘들어하는 그들의 연약함을 표현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Xinying Lao

She is a Chinese filmmaker and a student at New York University. She studied journalism, which brought her into contact with people from different classes in society. In her films, she is dedicated to conveying the vulnerability that people are afraid to express.



UC 10.24 14:30 TALK

UC 10.27 23:00

데데에게 Dede is Dead

Czech Republic | 2023 | 9min | Color | Animation

투게더 5
Together 5

사랑하는 대상의 예기치 못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영화는 한 소년과 그의 반려견 데데의 이야기를 다루며, 데데가 떠나기 전까지 함께한 마지막 순간들과 떠난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있다.

How does one deal with an unexpected death of loved one? This film tells the story of a boy and his dog Dede, and shows their final moments together before Dede dies (...and after).

이 세상 모든 반려동물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들을 위해, 손으로 꼭꼭 눌러쓴 듯한 마음을 다한 편지 한 통. **프로그래머 장다나**

The film is like a handwritten letter filled with all the love and hearts, for all the pets in this world and those who remain today in memory of their beloved pets.

Jang Da-na, Programmer



프릴리페 카스트너

FAMU의 애니메이션학과에 재학 중이다. <더 타워>(2021) 등 여러 단편 애니메이션을 연출하고 제작했으며, 자신의 노래 「울프이터」(2021)의 뮤직 비디오 제작자이기도 하다.

Philippe Kastner

Philippe Kastner is a student at the Department of Animation at FAMU. So far, he has directed and animated several short animated film such as *The Tower*(2021) as well as a music video for his song *Wolf eater*(2021).

로드 킬 워리어 Road Kill Warriors

Australia | 2023 | 13min | Color | Documentary | International Premiere

투게더 5
Together 5

태즈메이니아 도로에서는 매년 40만 마리의 동물이 죽어가며, 이는 매시간 45마리씩 죽는 셈이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고 결심하고 독특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

400,000 animals are killed on Tasmanian roads every year. This is 45 every hour. Meet the women who have decided that enough is enough and are tackling the issue in unique and surprising ways.

문명사회가 무심코 행사하는 폭력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더불어 생명의 고귀함을 담고자 하는 카메라의 시선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예술가가 실천해야 할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내고 있는, 그 명철함이 돋보이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래머 장다나**

It is an outstanding work, persistently raising the violence issue perpetuated indifferently by civilized society, while also capturing the nobility of life through the lens. It excels in its explicit portrayal of the social responsibilities artists undertake. **Jang Da-na, Programmer**

UC 10.24 14:30 TALK

UC 10.27 23:00



라라 반 레이

자신의 제작사 스몰 월드 다큐멘터리를 통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영화인. 26년 이상의 업계 경력과 70편이 넘는 단편 다큐멘터리 포트폴리오가 있으며 제작과 연출 작업을 매우 좋아한다.

Lara van Raay

Lara is an award-winning filmmaker who specializes in documentary through her production company, Small World Documentaries. She has over 26 years industry experience, and a portfolio of over 70 short documentaries. She is just happy with producing and directing.

움프 프로젝트

UMFF Project

움프 프로젝트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제작지원 프로그램으로 전문가 제작지원인 울주서밋과 일반인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프로그램인 울주멘터리,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울산국제영화제 제작지원작으로 구성됩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울주서밋은 매년 그 결과물을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하고 있으며, 해외 산악영화제에서 수상하거나 국내 극장개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소개하는 작품은 허성 감독이 만든 한국의 서퍼 상문을 다루는 <송어깍기>와 2020년 <클라이밍>으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김혜미 감독의 신작 단편 애니메이션 <나무의 집>, 울산 지역 출신의 탁기영 감독이 만든 <보이드>, 그리고 강소희, 김준 공동연출로 과거와 현재의 만남을 소재로 한 단편 <부디>입니다.

울주멘터리는 울주와 다큐멘터리의 합성어로,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함께 주최, 제작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진행하는 미디어 교육프로그램이며, 매년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공개 후 타 국내영화제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올해 울주멘터리는 울주의 사람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두 편과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두 편, 모두 네 편의 단편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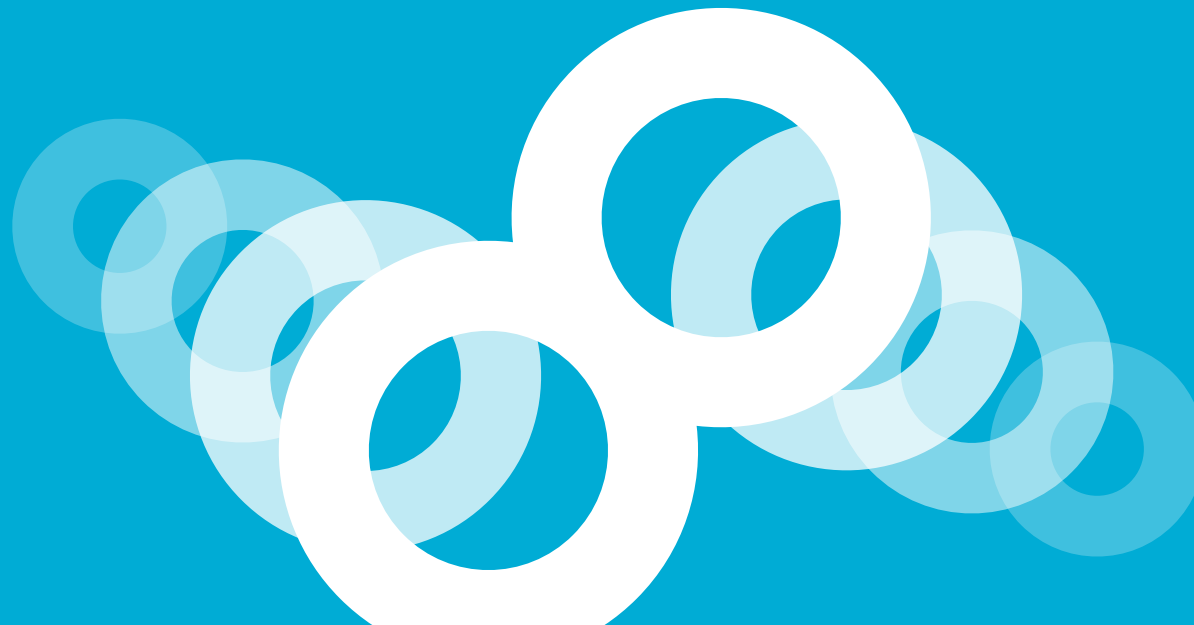
특히 올해는 울산국제영화제 제작지원작 26편을 소개합니다. 공포, 멜로, 사회 드라마 등 다양한 젊은 감독들의 재기 발랄한 목소리와 연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움프 프로젝트 34편의 작품 모두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길 희망합니다. **프로그램어 이정진**

UMFF Project is a production-support program by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consisting of Ulju Summit, an expert production-support program, and Uljumentary, a documentary production-support program for the general public. Additionally, 2022 Ul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Ulsan Production films will be introduced in this section.

Since 2015, Ulju Summit has released world premiere films every year. A great number of films were awarded at Mountain Film Festivals and were released in Korean theaters. This year's films include *Shaping Trout*, which talks about the Korean suffer Sang-Moon's life, directed by Heo Seong, *The Tree's Home*, an animated story about a Tree woman changing its life in motherly manner, *Void*, Tak Ki-young's first directed film, and *Prithee*, a film by Kang So-hee and Kim Joon dealing with a remarkable convention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Uljumentary(a compound word of Ulju and documentary) is a media education and support program hosted by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nd Ulsan Community Media Center. Through this project, films are released at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nd later introduced in other film festivals in Korea. This year, Uljumentary created a total of four short documentaries, two of which introducing the people and region of Ulju, and other two about their own stories.

Particularly, 2022 Ul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Ulsan Production films will demonstrate diversity of genre-horror, melodrama and social drama, and etc, which made by new, young filmmakers. We sincerely hope that all 34 UMFF Projects will gain wide interests from numerous audiences. **Jinna Lee, Programmer**





AC2 10.28 10:30 Q&A

송어깍기

Shaping Trout

Korea | 2023 | 80min | Color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허성

울산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영화학을 전공했다. 이상문과 고등학교에서 만났고 2005년 함께 처음 서핑을 시작했다.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다.

Heo Seong

Documentary film director. Heo Seong was born in Ulsan and majored in film study in college. He met Sang-moon in high school and started surfing together in 2005.

울산 조선소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상문은 2005년 첫 서핑 이후 파도를 쫓아 해외를 떠돈다. 시간이 흘러 서퍼이자 서프보드를 만드는 세이퍼가 된 상문은 귀국하여 강원도 양양에 정착한다. 보드를 만드는 일보다 수리와 서핑강습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상문은 한가한 겨울이 오자 자신을 위한 보드를 만든다. 일반적인 스티로폼과 레진 대신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재료인 건축용 나무로.

Born as a son of a shipyard worker in Ulsan, Sang-moon has chased waves worldwide since his first surf in 2005. Over time, he became a surfer and surfboard shaper, eventually settling in Yangyang, initially focusing on repairing boards and teaching surfing. Then he decides to make a board for himself in winter, using an unusual material, timber, instead of the usual styrofoam and resin.

지금처럼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면서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상문의 존재가 내게 힘이 되었듯 서로가 서로에게 '나도 여기 있다'라는 작은 신호가 되어줬으면 한다.

감독 허성

I live in constant anxiety, questioning my ability to pursue my aspirations. Just as Sang-moon's presence gave me strength, I hope we all could be subtle signals for each other, affirming, 'I am here, too.' **Heo Seong, Director**

나무의 집

The Tree's Home

Korea | 2023 | 12min | Color | Animation | World Premiere

변화하는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

The story of a woman's changing life.

우리는 나무처럼 가구로 변할 수도 있지만, 다시 숲이 될 수도 있다. **감독 김혜미**

We can turn into furniture like trees, but we can also turn into forests again.

Kim Hye-mi, Director

 울주서밋
Ulju Summit

AC2 10.28 13:30 Q&A



김혜미

1977년 부산 출생. 2004년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애니메이션과를 졸업했다. 현재는 새 시나리오 작업 중이다.

Kim Hye-mi

Born in Busan, 1977. Kim Hye-mi studied and graduated in Animation at the Korean Academy of Film Arts. Now she is writing her new scenario.



AC2 10.28 13:30 Q&A

보이드

Void

 울주서밋
Ulju Summit

Korea | 2023 | 16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탁기영

2021년 첫 단편영화 <A Better Tomorrow>를 연출하고, 울주서밋을 통해 <보이드> (2021)를 연출하였다. 인생의 후반전 시작인 오십에 영화 감의를 수감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Tak Ki-young

In 2021, he directed his debut short, *A Better Tomorrow*, and made *Void* (2021) with Ulju Summit. At the beginning of the second half of his life - in his fifties - he is taking film courses and studying hard.

상처를 받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무겸.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동생 무식은 국수를 먹으러 가자며 산으로 무겸을 데리고 간다. 산이라는 공간이 주는 생명의 생동감에 무겸은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위로를 받는다.

Grievously wounded, Mu-gyeom's life is broken and tattered. His younger brother, Mu-sik, takes him to the mountains to have noodles. The vibrancy of life in the mountains helps Mu-gyeom find solace, rekindling a belief that he can piece his life together again.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다정한 말과 행동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산과 자연이 상처받은 인간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담고자 했다. **감독 탁기영**

Like gentle gestures and soothing words, there are many ways to comfort hurt people. I wanted to capture the process of how mountains and nature can comfort and heal people with broken hearts. **Tak Ki-young, Director**

부디

Prithee

 울주서밋
Ulju Summit

Korea | 2023 | 28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AC2 10.28 13:30 Q&A



강소희, 김준

함께 이야기를 쓰고 영화를 만든다. 함께 작업한 단편영화 <시스터즈>와 <하산>은 국내 외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또한, 광고 프로젝션을 운영하며 다양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고 있다.

Kang So-hee, Kim Joon

They write stories and make films together. Their short films, *Sisters* and *Down the Mountain*, have been screened at various film festival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dditionally, they run an advertising production and create diverse and entertaining videos.

하영은 여행을 하던 중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바위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런데 갑자기 신라시대 왕족의 영혼이 나타나, 그가 하영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으니 대신 하루만 자신의 연인 '어사추여랑'의 영혼이 되어 달라고 애원한다.

On her journey, Ha-young stops to pray at a petroglyph known for granting wishes. Suddenly, a spirit from the Silla Dynasty appears and says he can fulfill her wish, but in return, she must become the spirit of his lover, 'Eosachuyeorang', for one day.

이 이야기는 천전리각석에 새겨진 알쏭달쏭한 글에서 출발했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신라시대의 연인, 입종과 어사추여랑을 상상하며 1,500년 묵은 그들의 한을 대신 풀어주고 싶었다. **감독 김준**

This story began with the mysterious inscriptions on the Cheonjeonri Petroglyph. Imagining the tragic love story of Silla Dynasty lovers, Ip-jong and Eosachuyeorang, I wanted to resolve their 1500-year-old longing and deep sorrow. **Kim Joon, Director**



오랫동안 가족을 돌보아야 했던 흥은 돌연 부산행을 택한다. 결혼은 싫지만 혼자 사는 것은 심심할까봐 걱정한 새롭음 부산살이를 시작하려는 흥에게 함께 살 것을 제안한다. 같은 거라곤 성별뿐인 극과 극의 두 사람이지만 함께 생활하며 룸메이트에서 서서히 가족이 되어간다. 청력 손실과 파혼 그리고 실직으로 아직도 성장통을 겪고 있는 서른 중반의 두 사람이 같이 사는 이야기.

Two people, each different from the other except for their gender, begin cohabiting. In their mid-30s, they experience unemployment around the same time. Despite the anxiety, they fiercely grow and develop, each with their own struggles and stories.

 2023 울주엔터리
Ujumentary 2023


같이 살기

Co-Living

Korea | 2023 | 24min | Color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UC 10.29 10:00 Q&A

AC1 10.29 13:00 Q&A



김에 (민다홍, 공세롬)
멘토: 문창현

Kim-ae (Min Dah-hong, Gong Sae-rom)
Mentor: Moon Chang-hyeon

 2023 울주엔터리
Ujumentary 2023


누룩의 시간

The Time of Yeast

Korea | 2023 | 20min | Color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UC 10.29 10:00 Q&A

AC1 10.29 13:00 Q&A



지퍼 (박민경, 문혜정, 김영호)
멘토: 김영조

Zipper (Park Min-kyung, Moon Hye-jung,
Kim Young-hyo)
Mentor: Kim Young-jo



곡식이 썩지 않고 술이 되게 하는 누룩의 특성에 매료된 나는 울주에 있는 한 도가를 찾는다. 그곳에서 누룩을 만드는 아주머니들을 만나고 바쁜 농가의 삶 속에서 누룩 만드는 일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듣게 된다. 계속 미뤄지던 누룩 만드는 날이 드디어 정해지고, 모두 도가에 모이게 되는데 긴장한 탓인지 나는 그만 큰 실수를 하고 만다.

Fascinated by leaven's ability to turn grain into alcohol without causing it to rot, I visited a brewery in Ulju where I met the women who make leaven and heard what it means to them in their busy farming lives. When the day of making leaven finally arrived, a day that had been postponed, everyone gathered at the brewery. Perhaps due to my nervousness, I ended up making a big mistake.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는 과거에 경험한 사건에서 미해결된 감정이 재현되는 경우가 많다. 특수교사인 나는 새의 죽음을 통해 어릴 적 나를 만났고, 준영이를 통해 그때의 감정을 위로받을 수 있었다. 나의 내면에 있는 아이가 내게 말을 걸었고, 나는 그 아이에게 대답하기로 했다.

When we are hurt, we often feel unresolved from past events. As a special education teacher, I encountered my younger self through the death of a bird, and I found comfort in Jun-young in that moment. My inner child spoke to me - a voice I chose to respond to.

 2023 울주엔터리
Ujumentary 2023


그림자 원형

The Shadow Archetype

Korea | 2023 | 18min | Color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UC 10.29 10:00 Q&A

AC1 10.29 13:00 Q&A



삼남중학교 환경동아리 (황주영)
멘토: 박배일

Samnam Middle School Environmental
club (Hwang Ju-yeong)
Mentor: Park Bae-il

 2023 울주엔터리
Ujumentary 2023


벼루장의 길

The Way of an Inkstone Master

Korea | 2023 | 17min | Color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UC 10.29 10:00 Q&A

AC1 10.29 13:00 Q&A



현산시조동호회 (강미희, 이병희, 임석)
멘토: 김도희

Heon-San Sijo club (Kang Mi-hee, Lee
Byeong-hee, Lim Seok)
Mentor: Kim Do-hee



유길훈 장인은 1967년, 벼루 제작에 입문했다. 2001년부터 언양 반구대에서 푸른빛이 도는 벼루를 제작하고 있다. 본 다큐는 장인 정신의 대물림과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버거움을 어깨에 걸머진 채,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벼루장과 녹색(綠石) 벼루의 애뜻한 동행을 담았다.

Yoo Gil-hoon, the Master Artisan of Making Inkstone, began making inkstones in 1967. Since 2001, he has created inkstones with a greenish glow at the Bangudae Terrace in Eonyang. This film captures his profound connection with inkstones carrying forward traditional culture, bearing the burden of preserving his legacy while passing down his expertise and challenges to his descendants.



TC 10.21 13:00 Q&A

임퍼펙트 IMPERFECT

UIFF 1

Korea | 2023 | 12min | Color | Animation | World Premiere



박소연

2001년 대전 출생. 2017년에 울산 애니원고등학교 애니메이션학과에 입학하여 2020년에 졸업하였다. 2020년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에 입학하여 2023년에 졸업하였다.

Park So-yeon

2001 Born in Dajeon, South Korea. 2020 Graduated from Ulsan Anione High School of Animation. 2023 Graduated from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of Animation.

밖을 나가지 않는 완벽주의자 발명가 토이. 그가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기계로봇은 토이의 의도와는 달리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며 집안 이곳저곳을 휘젓고, 결국 공공 단허있던 문을 부수게 된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의 시선 속에 자신의 로봇이 공개되자, 토이는 크게 당황한다.

The perfectionist inventor Toy lives in seclusion. Toy thinks that her robot is perfect but the robot has some insecurities. Then the robot destroys the tightly-closed door. Toy panics as his robot is revealed to the eyes of the others whom he has feared before.

많은 젊은이들은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느끼지 못 한다. 완벽주의에 빠진 이들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감독 박소연

The story of *IMPERFECT* conveyed the message that it is okay to be imperfect for those many people who aspire to be perfect but always end up feeling like a failure because perfection is unreachable. **Park So-yeon, Director**

숨비소리 The Breath

UIFF 1

TC 10.21 13:00 Q&A

Korea | 2023 | 27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김가영

서울에서 태어나 중학생 때부터 감독을 꿈꿨다. 17살에 첫 단편영화 <진단서> 연출 후 <숨아의 이야기>, <처음>, <꼭지>까지 부지런히 영화를 만들고 있다.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 재학 중이다.

Kim Ga-young

Born in Seoul. Dreamed of becoming a director since middle school. She directed a short film *Diagnosis* at 17. And diligently making films such as *The Story of Seung-ah*, *The First* and *The Nipple*. Currently attends Hanyang University's Department of Theater and Film.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자민은 해녀 일을 배우고 있다. 어느 날, 한국어 교실에서 돌고래를 봤다는 다른 해녀의 말을 듣고 자민은 돌고래가 보고 싶어진다. 오랫동안 해녀 일을 한 순옥은 자민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지만, 자민에게 한글을 배우며 자민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Jyamin, who has just come to Korea, is learning to work as a haenyeo. One day, after hearing another haenyeo's witness of a dolphin in a Korean language class, Jyamin wants to see that. Soon-wook, her mother-in-law, is learning Hangul through Jyamin. Soon-wook, who has worked as a haenyeo for a long time, doesn't understand Jyamin's mind, but begins to understand her while learning Hangul.

낯선 문화에 홀로 떨어진 사람이 내지인이 되는 과정은 고독하다. 언어를 배우며 집단에 섞여드는 모습을 새로운 호흡법을 배워가는 과정으로 은유하여 외로움을 말하고 싶었다.

감독 김가영

I thought that a person in unfamiliar culture yearns for a sense of belonging. And also that learning culture, language and blending into groups was a process of learning new breathing techniques. I want to talk about loneliness, expressing these as a metaphor.

Kim Ga-young, Director



TC 10.21 13:00 Q&A

경로를 재탐색 합니다

Re-search the Route

UIFF 1

Korea | 2023 | 26min | Color | Fiction



김내은

1999년 부산 출생.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영화예술과를 졸업했다. 영화를 통해 삶의 방향을 찾아가고자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

Kim Nae-eun

Born in Busan in 1999. He graduated from Dong-ah Institute of Media and Arts with a degree in film arts. It is in the process of trying to find the direction of life through movies.

연기를 그만둔 택배기사 수현은 대학교에서 배송을 하던 중 연기와 학생 지영과 접촉사고가 난다.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는 수현의 제안을 한사코 거절하던 지영은 다른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냐는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수현의 탑차를 타고 지영의 오디션장으로 향하게 된다.

Su-hyun, a courier who stopped acting, had a contact accident with Ji-young, an acting student, while delivering at a university. Ji-young, who had rejected Su-hyun's offer to take her to the hospital, asks for another request. In that way, the two go to Ji-young's audition in Su-hyun's truck.

삶에 정해진 경로가 있고 설정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목적지가 각자의 노력 끝에 도달해있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감독 김내은

Even though there are a certain route and an expected destination in life, it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failure even if they are not achieved. I wanted to emphasize that we put all our efforts to make it to where we are right now. **Kim Nae-eun, Director**

얼씨구

Lunatic

UIFF 2

AC1 10.27 10:00 Q&A

Korea | 2023 | 25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사물놀이를 하는 고등학생 상쇠, 지수는 최근 이명을 앓아 상모를 제대로 돌리지 못한다. 창작곡을 하고 싶어하지만, 스승이자, 전통파인 엄마 밑에서 매번 혼나기 일쑤다. 공연 날짜가 다가오고 그녀는 고민에 빠진다.

Ji-soo, a high school student in 'Samulnori', has recently fails to spin the 'sangmo' every time. She wants to do creative songs, but she is scolded every time under her strict mother. The competition date approaches and she is in agony.

꿈을 가진 모든 이들이 노력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 순간을 응원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감독 임정훈**

There will be a moment when everyone with a dream tries. I wanted to make a movie to cheer for that moment. **Lim Jung-hoon, Director**



임정훈

단편영화에 계속해서 도전중이다.

Lim Jung-hoon

He is continuing to challenge himself to make short films.



AC1 10.27 10:00 Q&A

점의길

The Path of a Dot

Korea | 2023 | 29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UIFF 2

친구의 장례식에 갔다가 자신도 죽어버리겠다고 다짐한 남자. 그러나 그의 계속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A man who went to a friend's funeral decided to commit suicide. However, despite his endless efforts, death does not come easily.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독 kwakhyoin**

For us living in the age of disaster. **Kwak Hyo-in, Director**



감독인

1998년 서울 출생.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심이 많다.

Kwak Hyo-in

Born in Seoul 1998. More interested in what is unseen than what is seen.

키즈랜드

KidsLand

Korea | 2023 | 23min | Color | Fiction

UIFF 2

AC1 10.27 10:00 Q&A

작은 시골마을에서 함께 나고 자란 사촌지간 수림과 정우. 마을에 화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된 후 자꾸만 둘의 우정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Su-rim and Jung-woo are cousins born and raised together in a small rural village. After the promotion of constructing a thermal power plant in the village, troubles begin to interfere with their friendship.

외부세력으로 인해 와해되는 마을 공동체 속에서 끝끝내 자신들의 우정을 지켜내려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 **감독 김원우**

I wanted to portray children's effort to protect their friendship while living in a village community that was disintegrated by external forces. **Kim Won-woo, Director**



감독인

1997년 부산 출생. 한예종에서 드라마 연출을 전공했다. 단편 <블라디>(2019)와 <이촌동>(2021)을 연출했다.

Kim Won-woo

Born in Busan in 1997. Majored in drama directing at K'ARTS. He directed the short film *Vladi*(2019) and *Ichon-dong*(2021).



AC1 10.27 10:00 Q&A

여운이라는게

The Sea Remains

UIFF 2

Korea | 2023 | 23min | Color | Fiction

학원 원장의 딸 여운, 어느 날 여운은 기사아줌마 몰래 학원차에 탑승하다 갇히게 된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기사아줌마는 여운이에게 비밀로 할 것을 부탁한다.

Yeo-woon, the daughter of a cram school owner, sneaks onto one of the academy shuttle buses and accidentally gets locked in. The shuttle driver begs Yeo-woon to keep it a secret after a late finding of this happening.

아이의 말 한 마디로 진실이 변하는 세상이다. 아이가 갖고 있는 말의 힘은 참으로 이상하다. 이 영화를 통해 우리의 유년시절을 다독여주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 우리를 위한 등대를 만들고 싶었다. **감독 박은새**

We live in a world where a child's words can alter the truth. I think the power of a child's words is very strange. Through this film, I wanted to solace our childhood and build a lighthouse for ourselves who have forgotten who we really are. **Park Eun-sae, Director**



박은새

울산 동구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성결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영화영상전공 졸업을 앞두고 있다. <여운이라는게>는 고향에서 촬영한 작품이다.

Park Eun-sae

Born in Ulsan, and is about to graduate from Sungkyul University's Department of Theater and Film. *The Sea Remains* was filmed in the director's hometown.

안락을 향해

The Peaceful Voyage

UIFF 3

AC2 10.27 10:00 Q&A

Korea | 2023 | 25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공장에서 불법 검직을 하고 있는 지하철 공익 요원 성진(26)은 장애인 노동자 진철(51)을 만나고 일이 꼬여간다.

Sung-jin(26), a social service agent in the subway who is illegally working at the factory at the same time, meets Jin-cheol(51), a disabled worker, and things go wrong.

자신이 피해를 받으면 나쁜 장애인, 피해를 받지 않으면 착한 장애인이라는 이분법적 시선에서 탈피해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인간으로 바라보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감독 김진홍**

I aspired to make a film that breaks the binary perception of disabled people, where they are either pitied if they cause no harm or criticized when their actions do harm. I aimed to depict them as people who always deserve recognition as equal human beings.

Kim Jin-hong, Director



김진홍

성결대학교 영화영상학과를 졸업했다. <안락을 향해>는 그의 첫 연출작이다.

Kim Jin-hong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Film and Media at Sungkyul University. *The Peaceful Voyage* is his first directing film.



AC2 10.27 10:00 Q&A

보이지 않는

Invisible

Korea | 2023 | 29min | Color | Fiction

UIFF 3



홍다예

1997년 전주 출생. 중앙대학교 영화연출 전공. 단편 다큐멘터리 <각자의 채식>과 단편 극영화 <삿다>, <킬 디스 러브>를 만들었다. <보이지 않는>은 네 번째 연출작으로 울산국제영화제 제작지원작이다.

Hong Da-ye

Born in 1997, Jeonju. Majored in film studies in college and presented two fiction shorts, *Shutter* and *Kill This Love*, and a short documentary, *Each Vegetarian*. *Invisible* is her fourth, which received the Ul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Production Fund.

재희는 남편 주용의 고향에 내려가 오래된 모텔을 운영하게 된다. 부부가 오기 전부터 모텔에서 일해 온 외국인 청소부 막심은 재희를 은근히 무시하는 듯하고, 재희는 모텔 생활이 어딘가 불편하다.

Jae-hee and her husband, Ju-yong, go to Ju-yong's hometown to run an old motel. Maxim, a foreign cleaner working at the motel since before the couple arrived, seems to be discreetly shunning Jae-hee, leaving her feeling uncomfortable.

누군가 겪는 불안이 타인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을 때 묵인되는 사회에 대하여. 감독 **홍다예**

It is about a society where the validity of one's anxiety is dismissed if it doesn't align with the interests of others. **Hong Da-ye, Director**

고등어와 바다 그리고 순희

Under the Sea

Korea | 2023 | 22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UIFF 3

AC2 10.27 10:00 Q&A

오랫동안 한마을에 살고 있던 어머니 순희와 아들 해석. 어느 날, 해수면이 상승하여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마을에 남기 위해선 수영을 배워야 한다면 함께 수영을 배우러 다니는 두 사람. 한편, 순희의 친구 복영은 순희의 수영을 돕기 위해 순희에게 무언가를 건네게 되는데...

A mother, Soon-hee, and her son, Hae-seok, lived in a village for a long time. One day, they are told that sea levels have risen and that they have to leave the village. They begin to learn how to swim together to stay in the village. Meanwhile, Soon-hee's friend Bok-young gives Soon-hee something to help her swim...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가 지닌 딜레마를 표현하고자 했다. 감독 **김별**

Wanted to express the dilemma of the elderly and the youth generation. **Kim Byul, Director**



김별

세종대학교 영화 전공. <고등어와 바다 그리고 순희>는 감독의 졸업작품이다.

Kim Byul

She majored in film at Sejong University, and *Under the Sea* is her graduation works



AC2 10.27 10:00 Q&A

즐거운 나의 단식원

Oh My Happy Diet

UIFF 3

Korea | 2023 | 16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남규리

Sungkyunkwan University 영상학과를 졸업하였다.

Nam Gyu-ri

Graduate filmmaking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in Seoul, Korea.

콩 한 알이 하루 식사의 전부인 여기는 단식원. 허구한 날 울려대는 꼬르륵 소리 때문에 원생들의 멸시를 한몸에 받는 지현이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러거나 말거나, 인생은 원래 꼬이는 법. 어느 날 단식원의 빠빠용, 수아를 만나면서 편안했던 삶이 롤러코스터처럼 달리기 시작한다. 여기를 탈출하자고? 도대체 어떻게?

A grain of beans is everything for a day's meal in this fasting center. Ji-hyun, who is despised by the students for her rumbling sound every day, just wants to live quietly. Whether or not, life is always twisted. One day, when she met Papillon Su-a of the fasting center, her comfortable life began to run like a roller coaster. Escape this place? How on earth?

거식증은 일종의 칭찬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대세임에도 어디선가 우리는 계속 굶는다. 그런 시선 속에서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최초로 갈망하는 과정을 담으려 했다. **감독 남규리**

Pro-ana is a kind of compliment these days. We keep starving even though self-love is the trend in the world. I wanted to present a story of a person who couldn't love anything but experience first longing for something. **Nam Gyu-ri, Director**

도축

Slaughter

UIFF 4

AC1 10.27 13:30 Q&A

Korea | 2023 | 25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도축장의 강한 사내들 사이에서 적응하지 못하던 상우는 자기와 닮은 야윈 소를 데리고 도축장을 탈출하기로 결심한다.

Sang-woo, who couldn't get along with other strong men in the slaughterhouse, decides to escape the slaughterhouse with a lean cow that looks like him.

사회적 통념으로 강요되어 온 남자다움, 책임감과 같은 단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쓸모 없는 사람이 되는 현실에 던지는 메시지이자 주어진 현실에 순응해야만 했던 우리네 아버지들에 대한 헌사이다. **감독 윤도영**

It is a message to the reality that a person who does not fit in with words such as manhood and responsibility, which was created and forced by social convention, becomes a useless person. It's also a message of a tribute to our fathers who had to adapt to the given reality.

Yun Do-yeong, Director



윤도영

대한민국에 사는 29세 남자이다. 영화 만드는 일을 즐기기는 고통으로 여긴다. 그러나 끊을 수 없는 이유를 탐구하는 중이다. 오늘도 다음 영화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다.

Yun Do-yeong

He is a 29-year-old man living in South Korea. He regards making movies painful rather than enjoyable. However, he's exploring why he can't stop. He is preparing to make the next movie again today.



AC1 10.27 13:30 Q&A

그, 아이

Him and I

UIFF 4

Korea | 2023 | 19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진혁은 19살 때, 우발적 사고로 친구 성진을 죽이게 된다. 출소 후 진혁은 택배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다. 어느 때와 같이 배달을 하던 진혁은 사고차량을 발견한다. 조수석에 쓰러져 있는 아이를 구하게 되고, 진혁의 선행이 세간에 퍼진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식을 들은 죽은 성진의 동생, 성우가 진혁의 앞에 나타난다.

When Jin-hyeok was 19 years old, he accidentally killed his friend Sung-jin. After his release, Jin-hyeok begins to work as a courier. Jin-hyeok rescues a child who is lying in the passenger seat of a crashed car. Sung-woo, Sung-jin's brother, appears in front of Jin-hyeok after his good deeds were spread.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피해자와 가해자는 누구인가.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죄값을 치를 수 있는가? **감독 김민희**

Who is the true victim and perpetrator in a situation where the victim becomes the perpetrator or the perpetrator becomes the victim? **Kim Min-hee, Director**



김민희

먼 훗날에도 지금처럼 영화와 애증의 관계를 맺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공부하고 있다. 영원은 불가능하더라도 평생을 영화와 함께하고자 한다.

Kim Min-hee

Even in the distant future, she is studying film with the hope of establishing a relationship between film and love. She wants to be with the movie forever, even if it is impossible.

목소리 큰 사람들을 위한 모임

The Loud People Club

UIFF 4

AC1 10.27 13:30 Q&A

Korea | 2023 | 27min | Color | Fiction

큰 목소리가 콤플렉스인 취업준비생 사나. 목소리를 줄여 면접에 합격하지만, 노이로제는 오히려 극에 달한다.

Sa-na, whose insecurity is her loud voice, is trying to get a job. She made her voice quiet and got a job, but ironically, her neurosis got even worse.

콤플렉스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 극적으로 극복되지 않는다. 길고 어려운 과정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독특하고 유쾌하게 그려 콤플렉스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한다.

감독 김도연

Complexes do not dramatically overcome through a single event. I want to show a long and challenging process realistically while drawing it uniquely and pleasantly to console everyone with complexes. **Kim Do-yeon, Director**



김도연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했다. 따뜻하고 섬세한 시각으로 모든 소외된 자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Kim Do-yeon

She graduated from Kyung-hee University as a Film major. She'd like to talk about every alienated people with warm and delicate perspective.



AC1 10.27 13:30 Q&A

주부해커단

Homemaker Hacker Gang

Korea | 2023 | 25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UIFF 4



박소희

동료들과 영화를 만들고 서울여성독립영화제를 운영하고 있다. 가끔은 입고, 항상 사랑하고,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Park So-hee

Normal human being making films with beloved colleagues and running the Seoul Independent Women's Film Festival in South Korea. Always write stories about the family that sometimes I hate, always I love, and often I can't understand.

해커였지만 딸이 태어나고 주부로 살고 있는 서영. 서영은 틱톡 스타가 되고 싶은 딸로부터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도전 틱톡스타" 강의 티켓팅을 부탁받는다. 그러나 티켓팅에 실패해 주민센터 홈페이지 해킹을 결심하고, 사이버세계에서 과거 라이벌이자 주민센터 홈페이지 보안팀인 "빨간입술"을 만난다. 전투 끝에 티켓팅에 성공하지만, 빨간입술은 서영을 추적해 집으로 찾아와 주부해커단 입단을 제안한다.

Seo-young was a hacker but now settled in as an ordinary housewife since her daughter's, Ha-yoon, birth. One day, Seo-young gets a request for ticketing for the class "Korean Next Top TikTok Star" from her daughter, who wants to be a popular Tiktok star. But they failed. She decides to hack into the community center's website instead.

안 되면 되는 걸 해도 괜찮다. 별로어도 괜찮다. 감독 박소희

It's okay to do something that can't be done, even if it could be messed up.

Park So-hee, Director

대대장손

Great Legacy

Korea | 2023 | 17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UIFF 5

AC2 10.27 13:30 Q&A

장례식 당일, 새로이 집안의 장손이 된 아들은 집안 묘에 묻히기 싫다는 아버지와 함께 밤새 가짜 유골을 제조한다.

On the day of the funeral, the grandson, who became the new eldest son of the family, makes fake remains all night with his father, who doesn't want to be buried in the family graves.

시대가 요구하는 책임을 견디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린 수많은 '우리'. 이 영화를 통해, 구속된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해받지 못했던 자신을 위로하는 경험이 되길 바란다.

감독 김동은

I expressed our loss of ourselves while taking the responsibility demanded by the firstborn of a frustrating family. I hope all the sons will be free from their restrained lives, and also be solaced from the experience of unintelligibility. **Kim Dong-eun, Director**



김동은

영화를 공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나누고자 한다.

Kim Dong-eun

She's studying movies. She wants to share the stories of people who live "Nevertheless", through movies.



AC2 10.27 13:30 Q&A

동백

Dongbaek

Korea | 2023 | 15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UIFF 5



박민아

1999년 청주 출생.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위주로 영화를 만들거나, 영화를 쓴다.

Park Min-a

Born in Cheongju in 1999. She make or write films, focusing on stories that are needed in the world.

아빠의 부탁으로 은영은 친할머니 옥순을 돌보기 위해 이틀간 옥순의 집에 가게 된다. 하지만 옥순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자 점점 짜증과 귀찮음이 커진다. 그러던 어느 날, 옥순이 갑자기 사라진다.

Requested from her father, Eun-young goes to her grandmother Ok-soon's house to take care of her for two days. However, as the symptoms of dementia in Ok-soon worsen, irritation and annoyance increase. One day, Ok-soon disappears.

치매를 가진 할머니와 손녀의 이야기. 할머니에게 '남들은 모르나, 모두가 알아야 할 아픔이 있다면'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아픔을 숨기기보다 사람들의 기억에 남기 바란다.

감독 박민아

The story between a grandmother with dementia and a granddaughter who isn't close. I started with the thought, 'If there is a pain that others don't know, but everyone should know about'. Rather than hiding it, I hope this pain will remain in the memory of more people.

Park Min-a, Director

기나긴 초대

The Invitation

Korea | 2023 | 30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UIFF 5

AC2 10.27 13:30 Q&A

선우는 오랫동안 가족과 연락이 끊긴 형의 비밀을 찾아 걸음을 옮기는데...

Sun-woo began to search for his long-lost brother's secret...

건강한 가족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다. **감독 박찬호**

I wanted ask what is the true figure of a healthy family. **Park Chan-ho, Director**



박찬호

1997년 대전 출생. 청주대학교 연극영화 학부를 졸업했고 영화연출을 전공했다. 울산국제영화제 제작지원작인 <기나긴 초대>는 여섯 번째 연출작이다.

Park Chan-ho

Born in Daejeon, in 1997. Graduating from Cheongju University's Department of Theater and Film, majoring in Film Directing. *The Invitation* a production support film at the Ul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hich was his sixth production



AC2 10.27 13:30 Q&A

당신이 그린 여름

Our Summer

Korea | 2023 | 19min | Color | Fiction

UIFF 5

상구는 엄마의 생일날, 여자친구와 함께 고향으로 향한다. 세 사람은 뜻밖의 하루를 보내며 서로에게 위로를 전한다.

Sang-gu heads to his hometown with his girlfriend on his mother's birthday. Three of them have an unexpected day while consoling with each other.

세 사람이 함께 보낸 특별한 여름은 각자의 여름을 그리게 해준다. **감독 윤가연**

The special summer that three of them spent together, let each one draw their own summer. **Yoon Ga-yeon, Director**



윤가연

1999년 부산 출생. 동서대학교 영화과를 졸업했다. <당신이 그린 여름>은 두 번째 연출작이다.

Yoon Ga-yeon

Born in 1999 in Busan, South Korea. She graduated from Dongseo University with a major in film. *Our Summer* is her second film.

적출

Exiled Boys

Korea | 2023 | 31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UIFF 6

AC1 10.27 16:30 Q&A

아버지의 폭력으로 집에서 도망쳐 나와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정우는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퇴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집을 구할 돈이 넉넉지 않아 막막하던 중, 숙식제공 고수 아르바이트 전단을 보게 되는데, 장기매매 스티커를 붙이고 뒷정리를 하는 일이다.

After entering to a youth shelter, away from home, due to his father's violence, Jeong-woo faces the prospect of leaving the shelter when his protection period ends. Without enough money to find a place to live, he sees a flyer for a well-paying part-time job providing room and board. However, the job is to put up organ trafficking stickers and to clean up afterward.

작은 범죄라도 발을 들이면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빠진다. 극단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선한 선택만을 할 수 있을까? 소년을 거리에 내몬 가정과 사회도 책임이 있음을 전하고 싶다. **감독 정예빈**

When we commit even a petty crime, we will fall into a trap we can't easily escape. When faced with extreme situations, can we make only good choices? I aim to convey that both the family and society are responsible for pushing the boy onto the streets.

Jung Ye-bin, Director



정예빈

어린 시절부터 비디오방에 드나들며 영화에 큰 흥미를 가졌다. 용인대 영화영상학과에 진학해 현재까지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Jung Ye-bin

With a passion for films since childhood and consistently immersed in watching them, she went to the Department of Film and Video at Yongin University while continuously working on her films.



AC1 10.27 16:30 Q&A

함진아비

Hamjin-abi

Korea | 2023 | 27min | Color | Fiction

UIFF 6

성공한 삶을 살고 있던 철규에게 오랜 고향친구 영훈이 찾아온다. 결혼을 앞둔 영훈은 철규에게 함진아비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평소에 연락 한 번 안 하던 친구의 부탁에 주저하는 철규. 그런데... 결혼 상대가 하필이면 순이라고 한다. 순이라는 이름을 들은 철규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음을 느끼고 동향 친구 낙균과 함께 함을 팔러 신부의 집으로 향한다.

Cheol-gyu, who is having a successful life, is visited by his old hometown friend, Young-hoon. Young-hoon, who is about to get married, asks Cheol-gyu to be Hamjin-abi. Cheol-gyu hesitates at the request of a friend who has not been contacting lately. But the bride was Soon-i. Cheol-gyu feels that he cannot refuse the request. He goes to the bride's house with his another friend, Nak-gyun.

'죄 지은 사람은 두 다리 뻗고 못 잔다' 라는 속담처럼, 죄를 지은 인간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을 보여주고 싶었다. 서서히 옥죄어오는 긴장감을 핵심으로 생각하여 연출했다. **감독 이상민**

As a proverb says, "Who is guilty believes that all men speak of him." I wanted to show the fear and anxiety felt by humans who have sins. I directed it with the tension that slowly tightens the anxiety as the core. **Lee Sang-min, Director**



이상민

1995년 경기도 안성 출생. 동국대학교 영화과 졸업 후 한예중예 진학해 휴학중이다. 단편영화 <짧은 사이에>, <돌이>, <돌림춤> 등을 연출했다. <함진아비>는 네 번째 연출작이다.

Lee Sang-min

Born in 1995 in Anseong, South Korea. He graduated from Dongguk University with a major in film. He has directed several short films, and *Hamjin-abi* is his fourth film.

손톱쥐

A Nail Eating Rat

Korea | 2023 | 24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UIFF 6

AC1 10.27 16:30 Q&A

왕따 수아가 반장 민희에게 접근한다. 민희는 수아가 자신을 따라한다는 의심을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Soo-ah, the outcast, approaches Min-hee, the class president. Min-hee believes that Soo-ah is her copycat, but no one listens to Min-hee.

약자를 불쌍히 여기기는 하지만, 내 것을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착함'에 대하여.

감독 정빛아름

About the ambivalent 'kindness' that pities the weak, but with the fear of loosing one's personal territory. **Jung Bit-areum, Director**



정빛아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한예중 영상원 영화과에 재학 중이다. <기일>(2019)과 <안녕, 슬리퍼>(2022)가 다수의 영화제에서 상영된 바 있다.

Jung Bit-areum

After graduating from Yonsei University, she is currently attending the Department of Film at the K' ARTS. *The Anniversary*(2019) and *Running by the Riverside*(2022) have been screened at numerous film festivals.



AC2 10.27 16:30 Q&A

탯줄

Steal the Mother

Korea | 2023 | 29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UIFF 7



김남현

1995년생.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했다. 다양한 시대, 다양한 계층 속 인간의 자아실현에 관심이 많다.

Kim Nam-hyeon

Born in 1995. After majoring in film in college, he's been channeling his curiosity toward exploring the self-realization of humans across different eras and social classes.

여자가 영정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재수가 없다는 악담에도 장녀 언주는 홀로 엄마의 49재를 챙기기 위해 영정사진을 훔친다. 그런데 엄마의 영정사진을 집에 들인 밤, 이상한 꿈을 꾀다.

Despite the superstition that it is unlucky for a woman to keep a portrait of the deceased, Eon-ju, the eldest daughter, secretly takes her mother's portrait for the Forty-Nine Day Ceremony dedicated to her late mother. However, she experiences a strange dream on the night she brings the portrait home.

엄마를 챙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딸의 체념과 분노는 언제 어디서 시작됐을까. 어린 시절처럼 계속 엄마를 끌어안으려던 딸은 문득 엄마를 향한 마음이 짝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감독 김남현

When and where did a girl's resignation and anger, stemming from being the only one who cared for her mother, begin? The daughter longs to hug her mother like when she was little, but a realization dawns upon her-her feelings for her mother remain unrequited.

Kim Nam-hyeon, Director

아가미로 숨 쉬는 방법

How to Breathe with Gills

Korea | 2023 | 19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UIFF 7

AC2 10.27 16:30 Q&A

지윤은 이사 전날, 엄마가 자살한 후 폐쇄되었던 욕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듣게 된다.

The day before moving out, Ji-yoon hears water dripping in the bathroom, which was closed since her mother's suicidal death.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나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나를 숨쉬게 만드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감독 손윤희

I wanted to tell that only when I can protect myself, I can protect the people who make me breathe, who make me feel alive. **Son Yoon-hee, Director**



손윤희

성결대학교 영화과에 재학 중이다.

Son Yoon-hee

She is majoring in film at Sungkyul University.



AC2 10.27 16:30 Q&A

이어, 지다

Long for the Missing

UIFF 7

Korea | 2023 | 28min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김재홍

한예중 영상원 영화과 전문사 21기. <잠이 오기 전에>(2022), <우연한 오디세이>(2022), <외침 속 고요>(2022) 연출을 하며 동시대적 이야기를 지향한다.

Kim Jae-hong

K'ARTS Department of Film 21st. He direct *Before the sleep*(2022), *Woo-yeon's Odyssey*(2022) and *The direction of shame*(2022), portraying contemporary stories.

요영은 2년째 실종되었다가 토막 살해당한 채 발견된 자신의 딸 단비와 예비 사위였던 장열의 영혼결혼식을 비밀리에 진행한다.

Yo-young's daughter, Dan-bi, has been missing for 2 years and, unfortunately, found murdered in pieces. Yo-young secretly prepares for a posthumous wedding between Dan-bi and Jang-yeol, Dan-bi's ex-boyfriend.

살아있다는 것이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라면, 육체의 생명력이 다 했을 때 영혼도 함께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비논리적인 영적 현상들이 존재한다. <이어, 지다>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일어난 비참한 사건을 통해 관객들에게 기묘한 감정을 전달한다.

감독 김재홍

There are spiritual situations in the world that can't be logically explained. This film will convey strange emotions to the audience through a miserable incident that occurred under the name of 'love'. **Kim Jae-hong, Director**

둥둥

Doong Doong

UIFF 7

AC2 10.27 16:30

Korea | 2023 | 13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업소에서 곧 퇴출될 희주는 자기 방에 새로 들어온 신입 민선에게 텃세를 부리다 싸운다. 한바탕 싸움이 끝나고 둘은 대화의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가까워진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쓸모 없어진 희주는 밖으로 퇴출된다. 버려진 그녀는 목적지 없는 여행을 떠난다.

Hee-joo, who work at the KTV bars, meets Min-seon, the newcomer. Hee-joo is being mean to Min-seon. After the scuffle, the two gets a little close to each other through conversations. However, Hee-joo kicked out from her work and goes on a trip without any destination.

언젠가 우리는 나와 비슷한 다른 누군가로 대체되며 그 순간 우리는 체념한다. 안타까운 그녀들이 대체될 때 제2의 삶을 갈구한다. 땃땃하지 못한 이들에게 후회와 체념을 보여준다.

감독 이상인

Someday, we will resign ourselves to the fact that being replaced by someone similar to us. These two unfortunate women long for a second life at the moment of being replaced. Through this film, I want to show regret and resignation through those who are not proud of themselves. **Lee Sang-in, Director**



이상인

<보이지 않은 손>(2016)을 통해 중독공모전 우수상 수상. <사랑>, <웰컴>(2019)을 연출하였고 2021년 영화예술과에 입학. <탈피>(2021)는 충무로단편영화제와 광화문국제단편영화제에 상영되었다.

Lee Sang-in

He won the Excellence Award at the 2016 Addiction Contest through his first film *The Invisible Hand*. After entering the Department of Film Arts in 2021, he directed *2021*, which was selected for the Chungmuro Short FF and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Short FF.

울산 커뮤니티 시네마 커튼콜 영화제
우리가 지나쳤던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커튼콜이란?

막이 내린 뒤, 관객이 찬사의 표현으로 환성과 박수를 계속 보내어
무대 뒤로 퇴장한 출연자를 무대 앞으로 다시 나오게 불러내는 일!

울산에는 독립영화 전용 상영관이 없어 많은 독립영화나 다큐멘터리들이 우리를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 영화들을 커튼콜 영화제는 지역민들과 함께 관람합니다!

- 1 우리가 보고 싶은 영화는 우리가 상영해!
한 달에 한 번, 울산에서 보기 힘든 독립영화, 다큐멘터리를 공동체 상영합니다
- 2 영화가 끝난 후부터가 진짜 영화!
커튼콜이 던지는 질문과 커튼콜에서만 제작하는 굿즈로 순간을 기억합니다
- 3 open the window, call the curtain!
독립 영화뿐만 아니라 지역 영화, 배리어프리 영화와 함께 내가 몰랐던 세상을 바라봅니다

커뮤니티 시네마 커튼콜에 초대합니다! @ _curtaincall

여러분의 영화가 지나치지 않길 바란다면 커튼콜로 연락주세요! ☎ 0507-1355-2305

울산 독립문화기획팀

느낌표!를 넘어
물음표?를 던지는 기획

공동기!획구역

Joint P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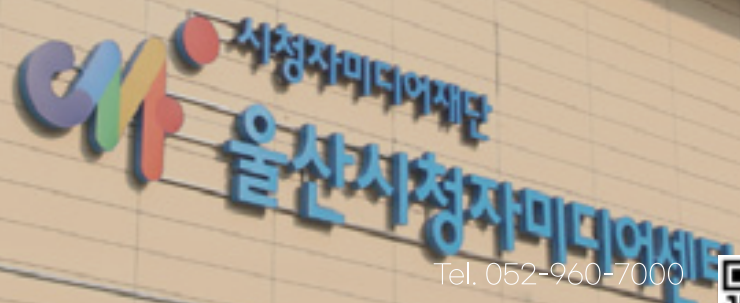
기획자와 창작자와의 연결을 통해 다양한 상상력이 실현되는 재미있는 로컬을 꿈꿉니다.

@ project.jpa ✉ project_jpa@naver.com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지역센터로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전국 10개 지역(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 경기, 충북, 세종)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el. 052-960-7000
Fax. 052-960-7099
usc@kcmf.or.kr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10길 78



홍보 영 상 홈 페 이 지

페스티벌 프로그램

Festival Program

산, 자연, 인간

Mountain, Nature, Human

산과 함께

산과 함께 살아온 삶을 담아내고,
삶과 함께하는 산을 이야기합니다.

Together with Mountain

A life together with the mountain captured,
And a mountain together with life spoken of.

자연과 함께

자연이 베푸는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자연에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Together with Nature

Learn the wisdom nature bestows,
To return that wisdom back to nature.

인간과 함께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Together with Human

Within nature, we'll search
For a way to live together.





움프 포럼 UMFF Forum

<매드 스키 프로젝트 *The Silent Escape*>

감독 오스발트 로드리고 페레이라, 산악인 바르텍 지엠스키

Director Oswald Rodrigo Pereira, **Mountaineer** Bartek Ziemski

히말라야 안나 푸르나와 다올라기리 무산소 등정,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매드 스키 프로젝트의 주역들을 만나는 시간
Meet the MAD SKI PROJECT team, the ascent and ski descend of Dhaulagiri and Himalayan Anna Purna!

일시 Date/Time 10. 21.(토) 10:30 Oct. 21(Sat) 10:30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크리스 알스트린 강연 & 워크숍 Chris Alstrin Lecture & Workshop

1부 강연 - 제4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소개되었던 <프리솔로>를 비롯, 넷플릭스 <14좌 정복 - 불가능은 없다> 등 세계적인 산악 영화 촬영감독 크리스 알스트린의 산악 제작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와 노하우를 들어본다.

Part 1 Lecture - Join us to hear various stories and insights on mountain filmmaking from Chris Alstrin, director of photography for world-renowned mountain films, including the Netflix film *14 Peaks: Nothing Is Impossible* and *Free Solo*, which was featured at the 4th Ulju Mountain Film Festival.

2부 촬영 워크숍 - 영화 영상전공 학생들의 촬영분 코멘트와 피드백으로 진행되며, 촬영에 관심있는 사람들도 참석 가능하다.

Part 2 Filmmaking Workshop - Comments and feedback on filmings from film and video major students. Those interested in filming may also attend.



일시 Date/Time 10. 21.(토) 13:00 Oct. 21(Sat) 13:00

장소 Venue 세미나실 Seminar Room

<파상: 에베레스트의 그림자 *PASANG: In the Shadow of Everest*>

프로듀서 다와 푸티 셰르파, 방송인 수잔 샤키야

Producer Dawa Futi Sherpa, **Entertainer** Sujana Shakya

네팔 여성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파상 라무 셰르파의 딸이자, 이 영화의 프로듀서 다와 푸티 셰르파를 통해, 고산 등반의 조력자였던 셰르파, 그리고 그 안에서 소수였던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네팔 셰르파 이야기를 들어본다.

Dawa Futi Sherpa, the daughter of Pasang Lhamu Sherpa-the first Nepalese woman to reach the top of Everest- and the producer of this film. She shares the story of Sherpa, a helper of mountain climbing, and a few women in it, and the current Nepal Sherpa.

일시 Date/Time 10. 21.(토) 19:30 Oct. 21(Sat) 19:30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비박소녀 김영미의 여정

The Journey of Kim Young-mi, a Bivouac girl

아시아 여성 최초 단독 무보급 남극점 탐험에 도전한 김영미 산악인의 풀 스토리를 들어본다.

Kim Young-mi, the first Asian woman who achieved the unsupported solo journey to the South Pole.

일시 Date/Time 10. 21.(토) 16:00 Oct. 21(Sat) 16:00

장소 Venue 세미나실 Seminar Room

한국과 일본의 황금피켈상 수상자들의 만남 - 아시아 등반가들의 대화

Piolet d'Or recipients from Korea and Japan talk on living as Asian mountaineers.

산악인 아마노이 야스시, 아마노이 타에코, 박정용, <아마노이 야스시: 등반과 삶> 감독 타케이시 히로아키

Mountaineer Yamanoi Yasushi, Yamanoi Taeko, Park Jeong-yong, **Director of A Life of Climber** Takeishi Hiroaki

일시 Date/Time 10. 22.(일) 16:00 Oct. 22(Sun) 16:00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3 Alps Cinema 3

울산 영남알프스 산(山) 포럼

Ulsan Yeongnam Alps Mountain Forum

산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용하고 보호하는 것은 산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과제다. 울산 인근에는 해발 1천 미터 대의 산 9개가 연이어 솟아 '영남알프스'라고도 불리며 오랫동안 많은 등산객이 방문하는 아름다운 산지가 있다. 학계와 현장의 여러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내와 아시아, 유럽 알프스의 산악관광 실태를 비교하고, 영남알프스의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알아본다.

Using and protecting mountains in a sustainable direction is a task given to everyone who loves them. Near Ulsan, nine mountains of 1,000 meters above sea level rise one after another, and it is also called 'Yeongnam Alps,' and there is a beautiful mountainous area visited by many hikers for a long time. Various experts from academia and the field are invited to compare the status of mountain tourism in Korea, Asia, and the European Alps, and to find out how to revitalize the Yeongnam Alps sustainably.

일시 Date/Time 10. 20.(금) 14:00 Oct. 20(Fri) 14:00

장소 Venue 유에코 컨벤션홀 Ulsa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U ECO) Convention Hall

주최 Presented by 울산광역시 Ulsan Metrocity

주관 Organized by 울산문화관광재단, 울산연구원, 한국산악학회 Ulsan Culture & Tourism Foundation, Ulsan Research Institute, and Korea Society of Mountain Research



자연에서 이야기하다

Talking in Nature

제8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자연과 인간, 도전과 모험을 담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The 8th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presents film about nature and humankind, challenges, and adventures.

동물의 서식지 보호에 대한 훌륭한 보고

An excellent report on the conservation of animal habitats

<플로리다 팬서 Path of the Panther>

강병주(가장 보통의 영화 VOM), 이소영(비건카페 '영감영감' 대표)

Kang Byeong-ju(Ordinary Movie), Lee So-young(CEO of Vegan Café 'Inspiration by elderly man')



일시 Date/Time 10. 22.(일) 12:30 Oct. 22(Sun) 12:30

장소 Venue 태화강 시네마 Taehwa River Cinema

인간 생존과 동물의 생존권에 관한 미학적 탐구

An aesthetic exploration on human survival and animal rights

<파우나 Fauna>

정해원(독립비평활동가), 주성철(씨네플레이 편집장)

Jung Hae-won(Film critic), Ju Sung-chul(Editor in chief of CINEPLAY)

일시 Date/Time 10. 22.(일) 15:30 Oct. 22(Sun) 15:30

장소 Venue 태화강 시네마 Taehwa River Cinema

네팔 사회의 단면을 엿보다

A glimpse into Nepalese society

<버스 바퀴 Wheels On The Bus>

연양고등학교 학생들(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아시아경쟁 청소년심사위원)

Eonyang High School Students(UMFF Asian Competition Youth Jury)

일시 Date/Time 10. 22.(일) 17:30 Oct. 22(Sun) 17:30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3 Alps Cinema 3

젊음은 나의 무기, 2023년 현재, 아시아 젊은 등반가들의 이야기

Youth is my weapon, as of 2023, the story of young Asian climbers

<그린 피라미드의 청춘들 The Green Green Pyramid>

이재호(눈표범원정대 대원)

Lee Jae-ho(Snowleopard_Korea)

일시 Date/Time 10. 23.(월) 17:30 Oct. 23(Mon) 17:30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3 Alps Cinema 3

폴란드의 전설적인 산악인 마치에이 베르베카의 두 아들, 프란시шек 베르베카 감독, 스타니스와프 베르베카 감독 형제를 만나다

Meet the two sons of legendary Polish mountaineer Maciej Berbeka, director Franciszek Berbeka and director Stanislaw Berbeka

<영웅의 증발 The Disappearance of Janusz Klarnier>

일시 Date/Time 10. 24.(화) 19:00 Oct. 24(Tue) 19:00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1 Alps Cinema 1

<드림랜드 Dreamland>

일시 Date/Time 10. 26.(목) 19:00 Oct. 26(Thu) 19:00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1 Alps Cinema 1

이웃을 통한 인간 본성에 대한 고찰-파벨 로진스키의 영화를 만나다

Meet a film by Pawel Łoziński – exploring human nature from a neighbor

<암병동 Chemo>, <베르카 Werka>, <발코니 무비 The Balcony Movie>, <키티 키티 Kitty, Kitty>

이정진(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로그래머) Jinna Lee(Programmer of UMFF)



일시 Date/Time 10. 25.(수) 13:00, 16:00 Oct. 25(Wed) 13:00, 16:00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1 Alps Cinema 1

버려지고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재발견하는 로드 무비-아녜스 바르다의 영화를 만나다

Meet a film by Agnès Varda – rediscovering the discarded and the undiscovered

<이삭줍는 사람들과 나 The Gleaners and I>, <이삭줍는 사람들과 나 2년 후 The Gleaners and I: Two Years Later>,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Face Places>

김이석(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Kim Yi-seok(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Film Studies of Dong-eui University)



일시 Date/Time 10. 26.(목) 10:00, 13:00, 16:00 Oct. 26(Thu) 10:00, 13:00, 16:00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1 Alps Cinema 1

산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위기탐지 경고등

Wildfires, global crisis detection warning light not just us

<파라다이스 Paradise>

임주훈((사)숲과문화연구원 회장, (사)한국산림복원협회 회장, 해밀 산림생태입지연구소 소장,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Lim Joo-Hoon(Forest Specialist, Affiliated professor at Kookmin University)

일시 Date/Time 10. 27.(금) 19:30 Oct. 27(Fri) 19:30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1 Alps Cinema 1

유럽 십대 활동가를 통해 본 환경운동가들의 활동에 관한 토론

A discussion of the teen European environmentalists' activities

<플래닛 B Planet B>

신유희(제로웨이스트/공정무역 편집샵 지구맑음 대표) Shin Yoo-hee(CEO of Zero-waste shop Jigumalgeum)

일시 Date/Time 10. 29.(일) 16:30 Oct. 27(Fri) 16:30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자연에서 노래하다

Singing in Nature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펼쳐지는 영남알프스와 태화강국가정원을 배경삼아 영화와 음악 그리고 관객이 함께 어울리는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With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s location, Yeongnam Alps and Taehwagang River National Park, as the backdrop, this performance program brings film, music, and audience together.

- 해당 영화 예매 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진행 및 예매 확인을 위해 상영 시작 20분 전에 도착 바랍니다.
- 사전 예매 후 잔여분에 한하여 현장 접수를 받습니다.

- Ticket holders of the film could watch the performance.
- Please arrive 20 minutes before the program begins for confirming the reservation.
- Tickets will be available on-site only if there is seat after advance reservation.

10. 20.(금) 오프닝 공연 - 예술창작소 노이 Opening Performance – Art Creative Place Noi

Oct. 20(Fri)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세상 모든 산을 오를 준비 되셨나요? 청중과 함께하는 오프닝 공연을 만들어 줄 울산지역 아티스트 예술창작소 노이의 'Climb Every Mountain'으로 시작합니다.

Are you ready to climb all the mountains of the world with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We begin with an opening performance of 'Climb Every Mountain' by Ulsan local artist Art Creative Place Noi.

개막 공연 - 김창완밴드 Opening Performance – KIMCHANGWAN BAND

올해의 슬로건 '함께 오르자, 영화의 산'에 맞춰 영화제 여정 시작을 함께 할 레전드 밴드, 김창완밴드가 제8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연일 레전드 공연으로 남녀노소를 사로잡은 김창완밴드의 특별한 공연으로 영화제의 시작을 엿니다.

In line with this year's slogan, 'Come up higher, Cinemountain', the legendary band KIMCHANGWAN BAND has returned to kick off the 8th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The band will open the festival with a special performance legendary for captivating people of all ages.

일시 Date/Time	18:30
장소 Venue	옴프 시네마 UMFF Cinema

* 그린카펫 - 오프닝 공연 - 개막식 - 개막작 상영 - 개막 공연 순서로 진행되며 개막 공연은 개막작 상영 후 50분간 진행됩니다.

* The opening ceremony will proceed in the following order: green carpet, opening performance, opening ceremony, opening film screening, opening performance (the last performance will continue for 50minutes after the film screening).

10. 21.(토) <샤오후이의 소> + 진수영, 홍이삭 Xiaohui and His Cows + Sooyoung Chin, Isaac Hong

Oct. 21(Sat)

생계를 위해 소를 팔고자 하는 할아버지와 어떻게든 소를 숨기려는 샤오후이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와 함께, 다양한 감정들을 담아 낸 진수영과 홍이삭의 음악으로 영화의 여운을 깊게 남길 공연이 함께 진행됩니다.

A film about a grandfather who intends to sell his cow to make ends meet, and Xiaohui, who tries to hide the cow by any means, is accompanied by the music of Sooyoung Chin and Isaac Hong in a performance that deeply resonates with the lingering emotions of the film.

일시 Date/Time	18:30	장소 Venue	태화강 시네마 Taehwa River Cinema
--------------	-------	----------	-----------------------------

* 영화 상영 후 40분간 공연이 진행됩니다.

* The performance will be held for 40minutes after film screening.

<화이트 트레일> + 피오트르 파블락 재즈텟 White Trail + Piotr Pawlak Jazztet

눈 쌓인 폴란드 타트라 산맥의 황홀한 매력과 장엄한 산악 풍경을 담은 무성영화 <화이트 트레일>과 폴란드 출신 드러머 피오트르 파블락이 이끄는 피오트르 파블락 재즈텟의 앙상블 공연이 펼쳐집니다.

Presenting an ensemble performance by the Piotr Pawlak Jazztet led by Polish drummer Piotr Pawlak and the silent film *White Trail*, which captures the majestic mountain landscapes and the enchanting allure of the snowcapped Polish Tatra mountains.

일시 Date/Time	19:00	후원	주한폴란드대사관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4 Alps Cinema 4	Support	Embassy of the Republic of Poland in Korea

* 영화 상영 전 폴란드 산악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 A program introducing Polish mountain culture will be presented before the film screening.

10. 22.(일) <엑시트> + 이승환 EXIT + Lee Seung Hwan

Oct. 22(Sun)

대학 산악동아리 출신들의 위험천만 재난탈출 스토리와 재난 구조 신호 SOS를 모스부호화 한 "따따따 따따 따따 따". 영화 속 모두 하나 되어 외쳤던 장면처럼, 공연의 신 이승환과 함께 짜릿하고 통쾌한 시간을 즐겨보세요.

A story about a daring escape from disaster by college students in a mountaineering club and their chanting of the SOS sign in Morse Code – "tatata, tata, ta, tatata." Just as everyone shouts it out in unison in the film, experience a thrilling and exhilarating time with Lee Seung Hwan, the king of the stage.



일시 Date/Time	17:00	장소 Venue	옴프 시네마 UMFF Cinema
--------------	-------	----------	--------------------

* 영화 상영 후 50분간 공연이 진행됩니다.

* The performance will be held for 50minutes after film screening.

<가정동> + 적재 Hometown + Jukjae

퇴근길 담벼락에 적힌 시를 통해 하루의 끝을 위로 하는 영화 <가정동>과 함께 섬세한 손끝으로 따뜻함을 연주하는 싱어송라이터 적재의 공연이 진행됩니다.

Alongside *Hometown*, a soothing film with a poem visible on the way home from work, a touching performance by singer-songwriter Jukjae.

일시 Date/Time	19:00	장소 Venue	태화강 시네마 Taehwa River Cinema
--------------	-------	----------	-----------------------------

* 영화 상영 후 40분간 공연이 진행되며, 공연 후 제8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최 축하 드론쇼가 진행됩니다.

* The 40minutes performance will take place after the film screening, and will be followed by a drone show celebrating the 8th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10. 28.(토) <리바운드> + 다이나믹 듀오 *Rebound + Dynamicduo*

Oct. 28(Sat)

그 시절 농구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과 포기를 모르는 열정들이 모여 만들어진 기적같은 청춘영화 <리바운드> 상영 이후, 청춘을 대변하는 가수들과 음악성을 동시에 사로잡는 유일무이 합합 뮤지션 다이나믹 듀오의 공연으로 청춘들 모두 출첵!



The screening of teen movie *Rebound*, featuring a story about the miracle made possible by the passion and love for basketball, will be followed by a performance by the one and only Dynamicduo, hip hop musicians renowned for their musicality and lyrics representing youth. Everybody, Attendance Check!

일시 Date/Time	17:00	장소 Venue	옴프 시네마 UMFF Cinema
--------------	-------	----------	--------------------

* 영화 상영 후 40분간 공연이 진행됩니다.

* The performance will be held for 40minutes after film screening.

<황금광 시대> + 진수영 시네마 앙상블 *The Gold Rush + Sooyoung Chin Cinema Ensemble*

매년 무성영화를 새롭게 해석해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관객에게 신선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는 진수영 시네마 앙상블. 2023년에는 무성영화의 거장 찰리 채플린의 영화 <황금광 시대>로 익살과 스릴 그리고 감동을 선사합니다. 설원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을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실감나게 즐겨보세요.

Every year, the Sooyoung Chin Cinema Ensemble presents a creative interpretation of silent films to the UMFF audience. In 2023, they bring humor, thrills, and emotions with silent film maestro Charlie Chaplin's *The Gold Rush*. Enjoy the events unfolding in snowy wilderness accompanied by beautiful music.

일시 Date/Time	20:30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4 Alps Cinema 4
--------------	-------	----------	-------------------------

10. 29(일) 폐막 공연 - 이무진 *Closing Performance - LEE MU JIN*

Oct. 29(Sun)

제8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무대로 이무진의 공연이 진행됩니다.

폐막작 속 밤의 인도자들과 함께 신호등으로 우리의 마지막 인도자가 되어줄 이무진,

그의 솔직 담백한 노래들로 제8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문을 닫습니다.

LEE MU JIN will bring the 8th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to a close with his performance. As one of the volunteers from the closing film *Nightwatchers*, Lee's "Traffic Light" and other songs will be our final guides for this year's festival.

일시 Date/Time	17:30	장소 Venue	옴프 시네마 UMFF Cinema
--------------	-------	----------	--------------------

* 폐막식은 폐막식 - 폐막작 상영 - 폐막 공연 순서로 진행되며, 공연은 약 40분간 진행됩니다.

* The closing ceremony will proceed in the following order: closing ceremony, closing film screening, closing performance, the performance will continue for 40minutes after the film screening.



라이브 더빙 극장 *Live Dub Theater*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함께하는 더빙 교육 프로그램.

울산 시민 20명이 2개월간 직접 대본 각색 및 더빙 연기 교육에 참여합니다.

A dubbing education program presented by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nd Ulsan Community Media Center. Twenty Ulsan residents worked on the script adaptation and dubbing acting for 2 months to present the film.

일시/장소	10. 21.(토) 11:00 태화강 시네마 Oct. 21(Sat) 11:00 Taehwa River Cinema
Date/time/Venue	10. 24.(화) 10:00 옴프 시네마 Oct. 24(Tue) 10:00 UMFF Cinema
	10. 28.(토) 11:00 옴프 시네마 Oct. 28(Sat) 11:00 UMFF Cinema

* <연못>은 '투게더 1'에서 <오아시스의 탄생>, <콩!>, <카나리아>와 함께 상영됩니다.

* The *Pond* will be screened as part of 'Together 1' with *Birth of the Oases*, *Boom*, and *CANARY*.

울주문화재단 '울주 공연배달' *Ulju Culture Foundation 'Ulju Performance Delivery'*

울산, 울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협업 프로젝트.

A collaborative project by artists working in Ulsan and Ulju.

일시 Date/Time	10. 21.(토), 10. 28.(토) ~ 10. 29.(일) Oct. 21(Sun), Oct. 28(Sat) - Oct. 29(Sun)
장소 Venue	베이스 캠프 Base Camp
관람료 Fee	무료 Free

울산광역시 구군데이 *Ulsan Metrocity Citizen Day*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의 문화원과 함께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A program for all citizens to enjoy with the cultural centers of Ulsan Metrocity's 5 counties.

일시 Date/Time	10. 23.(월) ~ 10. 27.(금) Oct. 23(Mon) - Oct. 27(Fri)
장소 Venue	베이스 캠프 Base Camp
관람료 Fee	무료 Free
후원 Support	울주문화원, 울산동구문화원, 울산중구문화원, 울산북구문화원, 울산남구문화원 Ulju Cultural Center, Ulsan Donggu Cultural Center, Ulsan Junggu Cultural Center, Ulsan Bukgu Cultural Center, Ulsan Namgu Cultural Center



자연에서 채우다

Playing in Nature

자연과 함께 건강하게!

아름다운 영남알프스의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움직이고 지친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 시간.

Be Healthy! Be Green!

A time to exercise and reinvigorate mind and body in the beautiful Yeongnam Alps.

참가비 Fee	3,000원 3,000 KRW
신청 Registration	영화제 홈페이지(umff.kr) 통해 사전 예매 Advance Reservation on the official website(umff.kr)

* 원활한 진행 및 예매 내역 확인을 위해 프로그램 시작 20분 전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Please arrive 20minutes before the program begins for confirming the reservation.

*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heck the official website.

움프페달극장

Eco Bike Cinema

과학기술 선도 대학인 울산과학기술원과의 협업을 통해 시도되는 아시아 최초 자전거 전원 극장!

내가 돌리는 자전거 동력을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 상영하는 자전거 상영관.

자전거를 돌리며 상영되는 영화도 관람하고 건강도 챙기는, 새롭고 유쾌한 경험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 움프페달극장 프로그램은 개발과 테스트를 마친 후 영화제 개막 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A new initiative in collaboration with leading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UNIST - Asia's first bicycle-powered cinema!

This cinema generates the necessary power for screenings by using the energy generated as you pedal the bike.

Join us for an immersive experience in the Eco Bike Cinema, have fun watching the feature program and get healthy at the same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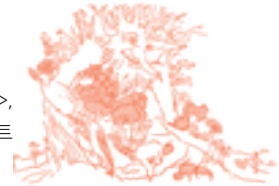
* Eco Bike Cinema program details will be announced on the UMFF official website after development and testing.



샌드아트 - 모래로 그리는 영화

Sand Art - Sand-Drawn Movie

빛과 모래로 만드는 애니메이션. 상영작 <나무 사이로 계절이 지나가>, <로이>에서 창작된 샌드아트공연을 관람하고 내 손으로 직접 샌드아트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보자!



Make animation from light and sand. Witness the mesmerizing sand art performance at *Through the Trees, Roi*, then unleash your creativity to create your very own sand art animation!

일시 Date/Time	10. 21.(토) 13:30 Oct. 21(Sat) 13:30 10. 22.(일) 13:00 Oct. 22(Sun) 13:00
장소 Venue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소요시간 Duration	1시간 1hour
참가인원 Participation	100인 100people

* 해당 영화 상영 종료 후 진행되며, 영화 관람은 별도 예매가 필요합니다.

* It will take place separately after the screening. Please note that you need to purchase separate tickets for the film screening.

티셔츠 리사이클링 워크샵

My T-Shirt is not Dead

장롱 속에 묻혀 있던 옷이, 리사이클링 티셔츠로 재탄생 합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딘가 낫맞아서 장롱 속에 묻혀 있던 옷을 가져 오시면, 커스텀 프린팅을 통해 새 옷으로 바뀔드립니다.

원하는 프린팅을 자신의 취향대로 배치한 나만의 티셔츠를 가져가세요.



Bring those clothes buried deep in your closet because of some design flaw, and we'll turn them into new clothes with custom printing. Create your own unique T-shirt by selecting your preferred printing layout.

일시 Date/Time	10. 21.(토) ~ 10. 22.(일) 10:00 ~ 18:00 Oct. 21(Sat) - Oct. 22(Sun) 10:00 - 18:00
장소 Venue	베이스 캠프 내 움프 마케팅존 Marketing Zone, Base Camp
소요시간 Duration	1시간 1hour
참가인원 Participation	10인 10people

AI 산악 영화 제작

Being a Mountain Movie Maker with AI

산악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볼 수 있는 기회! 가상 배경 속에서 대사와 움직임을 만들어 표현하면 AI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들어 드립니다. 직접 영화를 구상하는 과정을 통해 감상과는 다른 영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An opportunity to become the hero in a mountain film! Create dialogues and movements against a virtual backdrop, and let the AI program bring your narrative to life as an animated film. The program delivers a cinematic experience beyond that of mere film viewing.

일시 Date/Time	10. 21.(토) ~ 10. 29.(일) 평일 13:00, 15:00, 주말 10:00, 13:00, 15:00 Oct. 21(Sat) - Oct. 29(Sun) Weekdays 13:00, 15:00, Weekends 10:00, 13:00, 15:00
장소 Venue	영상체험관, VR 존 VR Zone, Experience House
소요시간 Duration	1시간 30분 1hour 30min
참가인원 Participation	10인 10people

파쿠르 놀이터

Parkour Playground

파쿠르는 도시와 자연의 다양한 장애물을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극복해 내는 움직임의 예술입니다. 파쿠르 놀이터 프로그램은 연령, 성별, 실력 상관없이 모든 '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파쿠르 국가대표 김지호 코치와 함께 새로운 움직임의 세계를 경험해 보세요!

Parkour is the art of moving beyond physical and mental obstacles in urban and natural environments. The Parkour Playground program welcomes all 'bodies' regardless of age, gender, or ability. Join parkour paly with Kim Ji-ho,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parkour team, to explore a new world of movements!

일시 Date/Time	10. 21.(토), 10. 22.(일), 10. 28.(토), 10. 29.(일) 10:30, 13:30 Oct. 21(Sat), Oct. 22(Sun), Oct. 28(Sat), Oct. 29(Sun) 10:30, 13:30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3 Alps Cinema 3
소요시간 Duration	1시간 1hour
참가인원 Participation	20인 20people



산속 자전거 학교

Mountain Bike School

전 MTB 국가대표 권진욱 선수가 올바른 라이딩 자세를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안전하고 재밌는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 어려워 보였던 산악자전거를 한 걸음 가까이 체험해 보고, 일상에서도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워보세요!



Kwon Jin-wook,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MTB team, will guide you through proper riding techniques. Learn the correct posture to ensure safe and enjoyable riding across various terrains. Join us for an up-close and personal mountain biking experience, and gain the skills to safely ride the bike in your daily life!

일시 Date/Time	10. 21.(토), 10. 28.(토), 10. 29.(일) 13:00, 16:00 10. 22.(일) 16:00 Oct. 21(Sat), Oct. 28(Sat), Oct. 29(Sun) 13:00, 16:00 Oct. 22(Sun), 16:00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4 Alps Cinema 4
소요시간 Duration	1시간 30분 1hour 30min
참가인원 Participation	15인 15people
후원 Support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Ulsan Junggu City Management Corporation

오피 산악 가이드 - 배성동의 영남알프스 계곡단풍기행 X 달빛등등 달빛기행

UMFF Mountain Guide - Yeongnam Alps Valley Mapie X Moonlight Trekking with Bae Sung-dong

영남알프스만 30년. 배성동 작가가 직접 산 넘고 물 건너며 찾아낸 산행 코스를 함께 걸어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이야기가 흐르는 코스를 걸으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지 못했던 영남알프스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보세요.

Thirty years discovering the Yeongnam Alps. Embark on a journey with author Bae Sung-dong as he guides you through the very paths he's unveiled during his extensive trekking across mountains and rivers. Walk along the scenic trails and uncover a hidden side of Yeongnam Alps you didn't know existed.

일시 Date/Time	공식 홈페이지 참고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official website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4 Alps Cinema 4
소요시간 Duration	공식 홈페이지 참고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official website
참가인원 Participation	30인 30people

클린 하이킹

Hike up, Pick up

산을 사랑하는 만큼 자연을 사랑하고 지키는 문화가 필요한 요즘, 클린하이커스는 산과 자연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고민하며 산에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킹 아티스트 김강은과 함께, 수거한 쓰레기로 정크 아트를 만들고 치우며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올라갈 땀 가볍게, 내려올 땀 무겁게!

In a time when the need for a culture that loves and safeguards nature is as crucial as our love for the mountains, Clean Hikers have taken on the task of picking up trash in the mountains, as a way to properly cherish the mountains and nature. Alongside hiking artist Kim Kang-eun, come and create junk art from the collected litter, reflecting on the importance of leaving no trace behind. Go up light, come down heavy!



일시 Date/Time	10. 23.(월), 10. 24.(화), 10. 25.(수) 14:00 Oct. 23(Mon), Oct. 24(Tue), Oct. 25(Wed) 14:00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4 Alps Cinema 4
소요시간 Duration	3시간 30분 3hour 30min
참가인원 Participation	20인 20people

옴프 다도명상

UMFF Tea Meditation

아름다운 산속에서 요가로 몸을 움직여 내 몸을 들여다보고, 다도를 통해 이 순간의 깨어있음을 경험하며, 차(茶) 명상으로 내 안의 고요함을 알아차립니다. 자연에 둘러싸여 고요히 차를 마시며 마음을 돌아보는 평화로운 시간.

Gaze into yourself through yoga movements in the midst of the beautiful mountains. Experience the wakefulness of this moment through Dado, Korean tea ceremony. Discover the serenity within you through this tea meditation. A time to quietly drink tea while surrounded by nature, a peaceful time for introspection.

일시 Date/Time	10. 23.(월) ~ 10. 27.(금) 14:00 Oct. 23(Mon) - 10ct. 27(Fri) 14:00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3 Alps Cinema 3
소요시간 Duration	1시간 30분 1hour 30min
참가인원 Participation	8인 8 people



가을밤 별구경

Counting Stars

우주의 움직임과 별자리에 대해 배우고, 가을밤 하늘의 달과 별자리를 직접 확인하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 울산과학기술원의 천체관측 동아리인 아스트랄이 함께합니다.

Learn about the movements of the universe and constellations, observe for yourself the moon and constellations in the autumn night sky, and listen to the stories they hold. Joined by the astronomy club ASTRAL of UNIST.

일시 Date/Time	10. 23.(월), 10. 27.(금) 19:30 Oct. 23(Mon), Oct. 27(Fri) 19:30 10. 24.(화), 10. 26.(목) 19:00 Oct. 24(Tue), Oct. 26(Thu) 19:00
--------------	--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3, 산악문화관 3층 옥상 Alps Cinema 3, 3F Mountain House
----------	---

소요시간 Duration	1시간 30분 1hour 30min
---------------	---------------------

참가인원 Participation	20인 20people
--------------------	--------------





자연에서 펼쳐다

Viewing in Nature

2023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주목하는 산의 이야기가 전시로 펼쳐집니다.

An exhibition of the mountain in focus at this year's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CA 2023 전시

UMCA 2023 Exhibition

UMCA 전시는 평생 탐험의 지평을 넓히고자 노력해온 스티븐 베너블스(1954-)의 산악 정신을 보다 널리 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그가 최초로 등반한 산부터 산소 기구 없이 새로운 루트를 개척한 1988년의 에베레스트 동벽, 산악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집필한 다양한 저서를 소개합니다. 진정한 모험의 세계를 추구해온 스티븐 베너블스의 지혜를 통해 환경 위기로 피폐해진 우리 주변의 산들을 다시 보고, 오를 수 있길 바랍니다.

This exhibition has been prepared to widely communicate the mountaineering spirit of Venables, who has dedicated his life to expanding the frontiers of exploration. The exhibition features the first mountain he climbed, the Kangshung Face of Everest where he pioneered a new route without use of supplemental oxygen in 1988, along with a collection of his writings that promote mountain culture. Through the insights of this true adventurer, we hope to gain a fresh perspective on the mountains ravaged by the environmental crises, to climb them once again.

일시 Date/Time	10. 20.(금) ~ 10. 29.(일) Oct. 20(Fri) – Oct. 29(Sun)
장소 Venue	베이스 캠프 Base Camp



반다 루트키에비츠 회고전

Wanda Rutkiewicz's Retrospective

제8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주빈국 프로그램인 타트라 - 폴란드 프로그램으로 폴란드를 대표하는 여성 산악인 반다 루트키에비츠의 산에 대한 생각과 그녀의 등반 여정을 소개합니다.

The 8th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features "Tatra – POLAND" in this year's Guest Country program. Representing Poland in this program, mountaineer Wanda Rutkiewicz shares her insights on mountains and climbing journey.

일시 Date/Time	10. 20.(금) ~ 10. 29.(일) Oct. 20(Fri) – Oct. 29(Sun)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4 Alps Cinema 4
후원 Support	주한폴란드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Poland in Korea

산악도서전

Mountaineering Book Exhibition

울산울주세계산악문화상 역대 수상자의 도서와 한국 산악도서 전문 출판사 하루재클럽, 리리 퍼블리셔, 알피니스트 코리아, 수문출판사에서 발간한 우수 산악서적 총 35종류를 소개합니다.

Introducing 35 excellent mountain books, including books by past Ulsan Ulju Mountain Culture Award recipients and publications by Korea's mountain literature publishers Haroojae Club, RiRi Publisher, Alpinist Korea and Soomoon Publisher.

일시 Date/Time	10. 20.(금) ~ 10. 29.(일) Oct. 20(Fri) – Oct. 29(Sun)
장소 Venue	영상체험관 1층 1F Experience House



UMFF ECO Project

자연과 함께하는 축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제13회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프로젝트 부문 최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축제의 본질을 즐기되,
자연에 남기는 흔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업사이클링과 프리사이클링 프로젝트를 통해 재탄생한
기념품과 쉼터 공간,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 그리고 스크린에
펼쳐지는 전세계 천혜의 자연 풍광까지. 영화제의 모두가
환경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영화제가 되고자 합니다.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Chairman of Board

이순걸 Lee Soon-geol

이사

Board Members

김교학 Kim Kyo-hak
 김달줄 Kim Dal-jul
 김대창 Kim Dae-chang
 김동수 Kim Dong-soo
 김영달 Kim Young-dal
 김은영 Kim Eun-young
 김이석 Kim Yi-seok
 김인수 Kim In-soo
 김진택 Kim Jin-taek
 김해숙 Kim Hae-sook
 김혜진 Kim Hye-jin
 박만영 Park Man-young
 박수곤 Park Soo-gon
 박진영 Park Jin-yeong
 송삼원 Song Sam-won
 송지범 Song Ji-bum
 엄홍길 Um Hong-gil
 유홍섭 Yoo Hong-sub
 윤영찬 Yoon Young-chan
 이순우 Lee Soon-woo
 이창세 Lee Chang-se
 이태호 Lee Tea-ho
 정우식 Jeong Woo-sik
 정일근 Chung Il-keun
 최현기 Choi Hyun-ki
 홍성우 Hong Sung-woo

감사

Auditor

이창림 Lee Chang-rim

집행위원회

Festival Executive Committee

집행위원장

Festival Director

엄홍길 Um Hong-gil

집행위원

Committee Members

김은영 Kim Eun-young
 김인수 Kim In-soo
 박경이 Park Kyung-yi
 박만영 Park Man-young
 배경미 Christine Kyung-mi Pae
 심영 Sim Young
 오만석 Oh Man-seok
 이창세 Lee Chang-se
 정일근 Chung Il-keun
 최창열 Choi Chang-youl
 홍종오 Hong Jong-oh

영화제 사무국

Festival Office

프로그래머

Programmer

이정진 Jinna Lee

객원 프로그래머

Guest Programmer

박혜미 Park Hye-mi
 장다나 Jang Da-na

사무국장

General Manager

홍영주 Hong Yung-joo

스태프

Staff

고유미 Go Yu-mi
 김가영 Kim Ga-young
 김민제 Kim Min-je
 김진하 Kim Jin-ha
 김태용 Kim Tae-yong
 김현영 Kim Hyun-young
 남은영 Nam Eun-yeong
 송예린 Song Ye-rin
 안다슬 An Da-seul
 유현주 You Hyun-ju
 윤영신 Yoon Young-sin
 이찬희 Lee Chan-hee
 이창환 Lee Chang-hwan
 전소현 Chun So-hyun
 정다현 Jeong Da-hyeon
 정자현 Jung Ja-hyun
 황태흠 Hwang Tae-heum

도움주신 분들

고은주 인천영상위원회
 박문정 (주)푸르모디티
 권민서 울산과학기술원
 권세아 (주)푸르모디티
 권지협 울주군 관광과
 권하연 주한폴란드대사관
 김강민 울주문화재단
 김강산 (주)푸르모디티
 김강현 울주군 문화예술과
 김경곤 울산북구문화원
 김미숙 울주군 문화예술과
 김민식 울주군 산림공원과
 김성준 전주국제영화제
 김신년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김신석 (주)푸르모디티
 김양령 나인 프로덕션
 김연희 울주군 관광과
 김영식 울산과학기술원
 김우진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김은양 울산남구문화원
 김재현 울산과학기술원
 김중현 (주)진미디어
 김준학 무소속연구소
 김초를 울주문화재단
 김혜리 울주군 관광과
 모 희 무소속연구소
 문성배 (주)진미디어
 문송아 부산국제영화제
 문화상 (주)진미디어
 미켈라 린다 마그리 주한이탈리아문화원
 박민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박상권 무소속연구소
 박성희 울주군 산림공원과
 박종호 (주)진미디어
 박찬진 (주)진미디어
 배도권 울주군 산림공원과
 배동혁 무소속연구소
 배상휘 울주군 산림공원과
 배선희 (주)진미디어
 배효순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서하늘 (주)푸르모디티
 손정예 (주)진미디어
 신동환 무주산골영화제
 신장미 울산동구문화원
 양희찬 (주)진미디어
 에밀리아 그라비에츠 주한폴란드대사관
 오예리 (주)진미디어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유순희 합천수려한영화제
 이가람 울주군 관광과
 이광영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이민주 울주군 문화예술과
 이상무 울주군 관광과
 이세은 (주)푸르모디티

이승민 울산과학기술원
 이승수 부산국제영화제
 이예은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이왕근 울산과학기술원
 이용감 한국영상자료원
 이윤정 울주군 문화예술과
 이종호 (주)푸르모디티
 이진희 (주)진미디어
 이해리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임대근 한국외국어대학교
 임성연 무소속연구소
 임영진 울산중구문화원
 장규호 (주)푸르모디티
 장설용 무소속연구소
 장슬기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장은석 부산국제영화제
 장정범 울산과학기술원
 전익범 주한이탈리아문화원
 정정연 (주)푸르모디티
 조서연 (주)푸르모디티
 조성진 (주)필름클라우드
 최명선 울주군 문화예술과
 최민아 (주)푸르모디티
 최수훈 (주)진미디어
 최우영 울주문화원
 최형진 (주)진미디어
 카타지나 토마셰프스카 주한폴란드대사관
 허은석 울주군 관광과
 Javier Barayzarra Bilbao Mendi Film Festival
 Marco Ribetti Museo Nazionale Della Montagna
 Rosanna Stedile Trento Film Festival

관객리뷰단

박선미 Park Seon-mi
 박선지 Park Seon-ji
 박수진 Park Soo-jin
 박태숙 Park Tae-sook
 박혜숙 Park Hye-sook
 손지원 Son Ji-won
 신미옥 Shin Mi-ok
 이난영 Lee Nan-young
 이미정 Lee Mi-jeong
 이석원 Lee Seok-won
 이연경 Lee Eon-kyung
 임웅택 Lim Woong-taek
 장영미 Jang Young-mi
 장휘원 Jang Hwi-won
 정수림 Jung Soo-rim
 정재인 Jung Jae-in
 정주현 Jung Joo-hyun
 최상선 Choi Sang-seon
 허수은 Heo Su-eun
 허은선 Heo Eun-seon
 황지영 Hwang Ji-young

Aaaah!

Miyu Distribution
 festival@miyu.fr

Adam Ondra: Pushing the Limits

CINEPOINT
 tabery.alice@gmail.com

Against the Tide

Deckert Distribution
 hanne@deckert-distribution.com

Air

EL REFUGIO PRODUCCIONES S.L
 elrefugiopro@gmail.com

Air Karakoram

Antoine Girard
 antoinegirard@yahoo.fr

AltaVia 4000

Luca Matassoni
 lucamatassoni.lm@gmail.com

At the Peak of Our Own Story

Cinema DAL
 sol@cinemadal.com

Avalanche, The

Pinar Ögürcü
 pinarogrenci@yahoo.com

Back-Do

POST FIN
 postfin@postfin.co.kr

Balcony Movie, The

KFF Sales & Promotion
 Katarzyna.wilk@kff.com.pl

Battery Mommy

AniSEED
 kaniseed@kiafa.org

Birth of the Oases

Miyu Distribution
 festival@miyu.fr

Bitterbrush

MetFilm Sales
 sales@metfilm.co.uk

Boom

Miyu Distribution
 festival@miyu.fr

Brave Girl

Burning Torch Productions
 Carrie@burningtorchproductions.com

Breath, The

Film Dabin
 film_dabin@daum.net

CANARY

Miyu Distribution
 festival@miyu.fr

Chemo

KFF Sales & Promotion
 Katarzyna.wilk@kff.com.pl

Cloves & Carnations

ALPHA VIOLET
 info@alphaviolet.com

Co-Living

Min Dahhong
 dahhongmin@gmail.com

Day Dream -

Searching for the Inner Peak
 MOUNTAINFILMCREW
 alexdemilia@gmail.com

DEBT

Cinema Dabang
 cinemadabang@gmail.com

Declaration of Immortality

KFF Sales & Promotion
 Katarzyna.wilk@kff.com.pl

Dede is Dede

FAMU – Film and TV School of the Academy
 of Performing Arts in Prague
 Alexandra.hroncova@famu.cz

Delivery Dancer's Sphere

Seesaw Pictures
 production@seesawpics.com

Disappearance of Janusz Klarnier, The

The Polish National Film, Television and
 Theatre School in Lodz
 a.golanska@filmschool.lodz.pl

Dongbaek

Park Min-a
 tm2onap@naver.com

Doong Doong

Lee Sang-in
 asd20016@naver.com

Dreamland

Yak-Yak
 staszek.berbeka@yakyak.pl

Earth the New Mars

Liliana Colombo
 lilianacolombo@gmail.com

Engine Inside, The

Anthill films
 info@anthillfilms.com

Ephemeral

Brit Rock Films
 alee@posingproductions.com

Everest: by those who were there

Adam Butterworth
 aebutterworth42@gmail.com

Exiled Boys

Jung Ye-bin
 cathy1001@naver.com

EXIT

CJ ENM
 filmsales@cj.net

Face Places

JINJIN Pictures
 jinjinpic@gmail.com

Fauna

Taskovski Films
 festivals@taskovskifilms.com

Fearless

Luciano Toriello
 toriellooluciano@gmail.com

Fence, The

Lights On
lightson@lightsonfilm.org

From You

Cinesopa
water@cinesopa.kr

Full Circle

Abramorama
kmf@abramorama.com

Gleaners and I, The

Andamiro Films
andamirofilms@daum.net

Gleaners and I: Two Years Later, The

MK2
intlifest@mk2.com

Godspeed, Los Polacos!

Sourland Studios
info@sourlandstudios.com

Gold Rush, The

ATNINEFILM
atnine@at9film.com

Great Legacy

Film Dabin
film_dabin@daum.net

Green Green Pyramid, The

Climbing Documentary Project
tonyccdp@gmail.com

Hamjin-abi

POST FIN
postfin@postfin.co.kr

Haulout

Rise And Shine World Sales
info@riseandshine-berlin.de

Him and I

Kim Min-hee
give4311@naver.com

Holding Up the Sky

Clin d'oeil films
info@clindoeilfilms.be

Homemaker Hacker Gang

HGG
soheejiller@gmail.com

Hometown

Central Park Films
centralpark.co@gmail.com

How to Breathe with Gills

Son Yoon-hee
Yuni1503@naver.com

Ice Merchants

AGENCIA - Portuguese Short Film Agency
emanuel@curtas.pt

IDODO

MAGNETFILM GmbH
info@magnetfilm.de

IMPERFECT

AniSEED
kaniseed@kiafa.org

Inhabited Volcano, An

Kino Rebelde
distribution@kinorebelde.com

Into the Ice

Rise And Shine World Sales
info@riseandshine-berlin.de

Invisible

Central Park Films
centralpark.co@gmail.com

Invitation, The

315studio
315.filmstudio@gmail.com

Just do it!

POST FIN
postfin@postfin.co.kr

K2 - Touching the Sky

Eliza Kubarska
eliza@verticalvision.pl

Kash Kash - Without Feathers We Can't Live

MAGNETFILM GmbH
info@magnetfilm.de

KidsLand

Choi Yoon-jeon
imakesn@gmail.com

Kitty, Kitty

KFF Sales & Promotion
Katarzyna.wilk@kff.com.pl

Landshaft

Syndicado Film Sales
jasmina@syndicado.com

Legend of Goldhorn, The

OCTOPICS
Lea.vucko@gmail.com

Life of Climber, A

Tokyo Broadcasting System Television, Inc.
kim.jungsoo@tbs.co.jp

Long for the Missing

Film Dabin
film_dabin@daum.net

Loud People Club, The

Funnycon
film@funnycon.tv

Lunatic

Lim Jung-hoon
wjdgnskgs2@naver.com

Lynx Man

Rise And Shine World Sales
info@riseandshine-berlin.de

Magic Mountain

OpyoDoc
mariam.chachia@gmail.com

My Non-Negotiable Guitars

INDIESTORY INC.
shorts@indiestory.com

Nail Eating Rat, A

Rainydays Pictures
rainydayspictures@gmail.com

Night Walk

SKY Film
Sohnkooyong@gmail.com

Nightwatchers

MEDIAWAN
kkiefel@mediawan.com

No Legs. All Heart.

Pablo Durana
pdurana@gmail.com

Oh My Happy Diet

SAVE YOUR CAT
saveyourcat.kr@gmail.com

Our Summer

POST FIN
postfin@postfin.co.kr

Pamir

Gotagi
guts0615@naver.com

Paradise

The Party Films Sales
theo.lionel@thepartysales.com

PASANG: In the Shadow of Everest

Follow Your Dream Foundation
atpierpont@comcast.net

Path of a Dot, The

Film Dabin
film_dabin@daum.net

Path of the Panther

Grizzly Creek Films
ebendick@gmail.com

Peaceful Voyage, The

Rainydays Pictures
rainydayspictures@gmail.com

Pioneers

AGB Studio Video
alessandro@agbvideo.com

Planet B

Split Screen
esma@splitscreen.hr

Polish Prayers

First Hand Films
Danika.bobst@firsthandfilms.com

Pond

Lena von doehren
mail@lenalena.org

Prithee

Kim Joon
filmearth219@gmail.com

Puffling

Gannesh Rajah
gannesh@zstudios.cc

Queen's Crochet

Cinema DAL
sol@cinemadal.com

Re-search the Route

Kim Nae-eun
red8725@naver.com

Rebound

BARUNSON E&A
iris@barunsonena.com

Reel Rock: Burning the Flame, DNA, Resistance Climbing

Reel Rock
greg@senderfilms.com

Reel Rock: Rayu

Reel Rock
greg@senderfilms.com

Road Kill Warriors

Small World Documentaries
smallworlddocumentaries@gmail.com

Roi

Whatevergroup
toimisto@whatevergroup.fi

Sandstorm

Park Jae-min
amorrr@daum.net

Sea Remains, The

Kyungjosa film
rolllccoda@naver.com

Sea Sparkle

LevelK
niklas@levelk.dk

Shadow Archetype, The

Hwang Ju-yeong
hij337@naver.com

Shaping Trout

A.3355
3355film@daum.net

She - Hero

Mirafox
ellyn@mirafox.sk

She Chef

MAGNETFILM GmbH
info@magnetfilm.de

Silent Escape, The

Oswald Rodrigo Pereira OS High Production
oswaldrp@gmail.com

Skyward

Jessica Bishopp
jsbishopp@gmail.com

Slaughter

Rainydays Pictures
rainydayspictures@gmail.com

Sound of Mountain, The

Ching-Shan Lin
Lin009006love@gmail.com

Southern Quest, A

David McMeeking
davidmcmeeking@gmail.com

Spindrift - The Barry Blanchard Story

Compass Media Ltd
ivan@compassdigital.ca

Sprinter

STUDIO ADE
ansu1200@gmail.com

Stams

Rise And Shine World Sales
info@riseandshine-berlin.de

Steal the Mother

Central Park Films
centralpark.co@gmail.com

sub)SUBSCRIBE TO JOY#daily

Kim Guk-hee
filmpeacepiece@gmail.com

Subterranean

Peg Leg Films
jen@peglegfilms.com

Summer without You

Cerutti Film
willemijn@ceruttifilm.nl

Suro

REASON8 Films
mk@reason8films.com

Suzie in the Garden

MAUR film
hroncova@maurfilm.com

Taste of Weather, The

UBC
jkhimubc@gmail.com

Three Arts in the Antarctica

FIMUFO STUDIO
studio@fimufo.com

Three Friends in Substructure

Central Park Films
centralpark.co@gmail.com

Through the Trees

AniSEED
kaniseed@kiafa.org

Time of Yeast, The

Park Min-kyung
outside28@hanmail.net

Titina

Les Films du Losange
r.quinet@filmsdulosange.fr

To the Hills & Back

Sherpas Cinema
gabby@sherpascinema.com

Today's Cinema

INDIESTORY INC.
shorts@indiestory.com

Transcendence

Bedrock Film Works
jim@bedrockfilmworks.com

Tree's Home, The

AniSEED
kaniseed@kiafa.org

Two Women

INDIESTORY INC.
shorts@indiestory.com

Uncle Vakho's Dream

STUDIO MUNKA
b.friese@sfp.org.pl

Under the Sea

Rainydays Pictures
rainydayspictures@gmail.com

Upon that Mountain

Associazione La Fournaise
info@lafournaise.it

Vadiyar

Seven Springs Pictures
7springs.contact@gmail.com

Veranada

2729723 Ontario Inc.
chaudomi@gmail.com

Visit, The

KFF Sales & Promotion
Katarzyna.wilk@kff.com.pl

Visitors, The

Taskovski Films
festivals@taskovskifilms.com

Voice, The

KFF Sales & Promotion
Katarzyna.wilk@kff.com.pl

Void

Tak Ki-young
tamjjom@hanmail.net

Way of an Inkstone Master, The

Kang Mi-hee
tucas@hanmail.net

Werka

KFF Sales & Promotion
Katarzyna.wilk@kff.com.pl

Wheels On The Bus

Resonating Pictures
sushant.sisu@gmail.com

White Trail

National Film Archive - Audiovisual
Institute(FINA)
biurodyrektora@fina.gov.pl

Wild Roomer, A

JINJIN Pictures
jinjinpic@gmail.com

Wild Waters

Red Bull Media House
Andrea.AntonChico@redbull.com

Wolf One

Ivan Mazzon
ivan.mazzon@yahoo.com

Xiaohui and His Cows

ShortsFit
shortsfit@shortsfit.com

Yangnimdong Girl

Film Dabin
film_dabin@daum.net

Yeo-young's Trip to Haenam

Central Park Films
centralpark.co@gmail.com

etc.

sub)구독과 조아영#일상	150
ㄱ	
가자, 폴란드!	116
가정동	153
같이 살기	188
건전지 엄마	175
겨울을 오르는 사람들	66
경계선의 풍경	50
경로를 재탐색 합니다	192
고등어와 바다 그리고 순희	199
골드혼의 전설	62
관목의 계절	51
괴인	142
그 여름의 초원	63
그, 아이	202
그녀의 키친, 쉬 세프	88
그린 피라미드의 청춘들	84
그림자 원형	188
급처합니다... 네고 불가	151
기나긴 초대	207
기묘한 방문	121
ㄴ	
나를 위한 기도	119
나무 사이로 계절이 지나가	166
나무의 집	185
날씨의 맛	89
남극의 세 예술가	125
누룩의 시간	189
늑대와 함께	134
ㄷ	
당신없는 여름	167
당신으로부터	143
당신이 그린 여름	208
대대장손	205
데데에게	180
도축	201
동굴 탐험가들	72
동백	206
두 여인	149
둥둥	215
드림랜드	117
딜리버리 댄서의 구	154

ㄹ

라유	82
로드 킬 워리어	181
로이	158
리바운드	102
릴락17	52

ㅁ

마지막 하늘 아래	53
매드 스키 프로젝트	69
매직 마운틴	91
모래바람	103
목소리 큰 사람들을 위한 모임	203
미미야, 어딴니?	159

ㅂ

바디아르	178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113
바코의 꿈	65
반짝반짝 빛나는	160
발코니 무비	128
밤산책	145
밤의 인도자	47
배리 블랜차드 스토리	83
백일몽	138
버스 바퀴	173
베르카	127
벼루장의 길	189
보이드	186
보이지 않는	198
부디	187
불멸선언	123
빛가리	144
뺨도	172

ㅅ

산 위에서	54
삼각형의 마음	104
샤오후이의 소	179
선구자들	136
설산으로부터	68
손톱쥐	211
송어깍기	184
수도사	122
수지의 정원	174
숨비소리	191
스라소니 맨	55

스탐스	56
스티븐 베너블스의 퀘스트	73
스프린터	105
ㅇ	
아가미로 숨 쉬는 방법	213
아기 바다오리 구조대	99
아담 온드라: 한계를 넘어	46
아아아아	171
안락을 향해	197
알타비아 4000	137
암병동	126
야마노이 야스시: 등반과 삶	74
양림동소녀	147
얼씨구	193
얼음 상인들	97
에베레스트: 전설의 시작	85
에어	75
에어 카라코람	81
엑시트	106
여운이라는게	196
연못	162
영웅의 증발	124
오늘의 영화	152
오아시스의 탄생	163
와일드 워터스	76
용감한 소녀	170
이도도	177
이반의 울타리	120
이방인	57
이삭줍는 사람들과 나	111
이삭줍는 사람들과 나 2년 후	112
이어, 지다	214
이제 그만 잊기로 해요	168
인투 디 아이스	92
임퍼펙트	190
ㅈ	
적출	209
점의길	194
조류를 거슬러	90
주부해커단	204
즐거운 나의 단식원	200
지구, 새로운 화성	98

ㅊ	
철인 안드레	77
초월	67
최여영의 해남여행	146
ㅋ	
카나리아	165
카쉬 카쉬	107
코르크의 숲	58
쿵!	164
퀸의 뜨개질	148
클로브와 카네이션	108
키즈랜드	195
키티 키티	129
ㄷ	
땃줄	212
티티나	161
ㅌ	
파도를 넘는 소년	135
파라다이스	59
파미르	109
파상: 에베레스트의 그림자	60
파우나	61
페달 밟는 사람들	78
페달을 밟자	176
폭설의 기억	96
풀 서클	79
플래닛 B	93
플로리다 팬서	94
ㅎ	
하늘 위로	169
하늘을 향한 여정, K2	80
하부구조의 친구들	155
하울아웃	95
함진아비	210
화산과 함께	64
화이트 트레일	118
황금광 시대	110

A	
Aaaah!	171
Adam Ondra: Pushing the Limits	46
Against the Tide	90
Air	75
Air Karakoram	81
AltaVia 4000	137
At the Peak of Our Own Story	104
Avalanche, The	96
B	
Back-Do	172
Balcony Movie, The	128
Battery Mommy	175
Birth of the Oases	163
Bitterbrush	51
Boom	164
Brave Girl	170
Breath, The	191
C	
CANARY	165
Chemo	126
Cloves & Carnations	108
Co-Living	188
D	
Day Dream - Searching for the Inner Peak	138
DEBT	144
Declaration of Immortality	123
Dede is Dead	180
Delivery Dancer's Sphere	154
Disappearance of Janusz Klarner, The	124
Dongbaek	206
Doong Doong	215
Dreamland	117
E	
Earth the New Mars	98
Engine Inside, The	78
Ephemeral	66
Everest: by those who were there	85
Exiled Boys	209
EXIT	106
F	
Face Places	113
Fauna	61
Fearless	135
Fence, The	120
From You	143
Full Circle	79

G	
Gleaners and I, The	111
Gleaners and I: Two Years Later, The	112
Godspeed, Los Polacos!	116
Gold Rush, The	110
Great Legacy	205
Green Green Pyramid, The	84
H	
Hamjin-abi	210
Haulout	95
Him and I	202
Holding Up the Sky	53
Homemaker Hacker Gang	204
Hometown	153
How to Breathe with Gills	213
I	
Ice Merchants	97
IDODO	177
IMPERFECT	190
Inhabited Volcano, An	64
Into the Ice	92
Invisible	198
Invitation, The	207
J	
Just do it!	176
K	
K2 - Touching the Sky	80
Kash Kash - Without Feathers We Can't Live	107
KidsLand	195
Kitty, Kitty	129
L	
Landshaft	50
Legend of Goldhorn, The	62
Life of Climber, A	74
Long for the Missing	214
Loud People Club, The	203
Lunatic	193
Lynx Man	55
M	
Magic Mountain	91
My Non-Negotiable Guitars	151

N	
Nail Eating Rat, A	211
Night Walk	145
Nightwatchers	47
No Legs. All Heart.	77
O	
Oh My Happy Diet	200
Our Summer	208
P	
Pamir	109
Paradise	59
PASANG: In the Shadow of Everest	60
Path of a Dot, The	194
Path of the Panther	94
Peaceful Voyage, The	197
Pioneers	136
Planet B	93
Polish Prayers	119
Pond	162
Prithee	187
Puffling	99
Q	
Queen's Crochet	148
R	
Re-search the Route	192
Rebound	102
Reel Rock: Burning the Flame, DNA, Resistance Climbing	52
Reel Rock: Rayu	82
Road Kill Warriors	181
Roi	158
S	
Sandstorm	103
Sea Remains, The	196
Sea Sparkle	160
Shadow Archetype, The	188
Shaping Trout	184
She - Hero	159
She Chef	88
Silent Escape, The	69
Skyward	169
Slaughter	201
Sound of Mountain, The	168
Southern Quest, A	73
Spindrift - The Barry Blanchard Story	83
Sprinter	105

Stams	56
Steal the Mother	212
sub)SUBSCRIBE TO JOY#daily	150
Subterranean	72
Summer without You	167
Suro	58
Suzie in the Garden	174
T	
Taste of Weather, The	89
Three Arts in the Antarctica	125
Three Friends in Substructure	155
Through the Trees	166
Time of Yeast, The	189
Titina	161
To the Hills & Back	68
Today's Cinema	152
Transcendence	67
Tree's Home, The	185
Two Women	149
U	
Uncle Vakho's Dream	65
Under the Sea	199
Upon that Mountain	54
V	
Vadiyar	178
Veranada	63
Visit, The	121
Visitors, The	57
Voice, The	122
Void	186
W	
Way of an Inkstone Master, The	189
Werka	127
Wheels On The Bus	173
White Trail	118
Wild Roomer, A	142
Wild Waters	76
Wolf One	134
X	
Xiaohui and His Cows	179
Y	
Yangnimdong Girl	147
Yeo-young's Trip to Haenam	146

ㄱ	
가브리엘 오즈레	164
강미희	189
강소희	187
게레온 베첼	88
고봉수	144
공새롬	188
곽효인	194
김가영	191
김국희	150
김남현	212
김내은	192
김도연	203
김동은	205
김민희	202
김별	199
김아영	154
김영호	189
김원우	195
김장희	89
김재홍	214
김주임	166
김준	187
김진홍	197
김혜미	185
ㄴ	
남규리	200
낸시 스펜센	60
닉 로젠	52, 82
닉 보이트	91
ㄷ	
다니엘 쿠퍼	50
다비드 아르노	76
다비드 판탈레온	64
달시 워튼버그	78
데이비드 맥믹킹	73
도미니카 몬테안-판쿠프	122
도미니크 쇼몽	63
도미엔 헤이허	160
돔 부시	85
ㄹ	
라네 티우카넨	158
라라 반 레이	181
라르스 오스텐펠트	92
라오신잉	179
레나 폰 뒤렌	162
레아 나자르	107

레아 부츠코	62
로리 페레이라 데 피게이레도	164
로맹 오글리에	164
루시 순코바	174
루차노 토리엘로	135
루카 마타소니	137
리카르도 이스카르	75
린징산	168
릴리아나 콜롬보	98
ㄴ	
마르신 코즈잘카	123
마르얀 코스라비	178
마르코 토놀리	137
마리암 차치아	91
마리온 자몰트	163
마이클 퀴글리	68
마크 페드리	170
마테우시 아르몰스키	121
막심 아르부가예브	95
멜라니 리브하이트	88
문혜정	189
미라 포르나이	159
미셸 스미스	67
미켈 구레아	58
민다홍	188
밀루 헤버르스	167
ㅂ	
바르토시 스트루진스키	125
박민경	189
박민아	206
박소연	190
박소희	204
박은새	196
박재민	103
박찬호	207
박현웅	151
베로니카 리슈코바	57
베른하르트 브라운슈타인	56
베키르 뵐뵐	108
브누아 테리얼트	165
브루노 보츠	134
ㅅ	
사르브닉 카우르	90
삼남중학교 환경동아리	188
샤를 디 치코	164
손구용	145
손윤희	213

수리아 사히	173
스타니스와프 베르베카	117
신동민	143
ㅇ	
아녜스 바르다	111 - 113
아담 노로	116
아담 크셉토프스키	118
안지환	104
알레산드로 데밀리아	138
알레산드로 벨트라메	136
알렉산데르 아바투로프	59
앙트완 지라르	81
엘라스터 리	66
야닉 자켄	164
얀 시마네크	46
에릭 뱅딕	94
에밀리 마흐다비안	51
에바 루스트	162
엘레오노라 마스트로피에트로	54
엘리자 쿠바르스카	80
여영은	146
예브게니아 아르부가예바	95
오멸	109
오스만 세르폰	171
오스발트 로드리고 페레이라	69
오재형	147
요안나 루이	65
우르술라 울미	177
유하 수온패	55
윤가연	208
윤도영	201
이반 마촌	134
이반 휴스	83
이병희	189
이상근	106
이상민	210
이상인	215
이세형	155
이승현	152
이정호	89
이정홍	142
임석	189
임영희	147
임정훈	193
ㅈ	
장선희	149
장항준	102

재커리 바	52
전승배	175
정빛아름	211
정예빈	209
정진용	176
제시카 비숍	99, 169
제이알	113
조쉬 로웰	52
조쉬 벌먼	79
조한나	148
존 포터	85
주앙 곤잘레스	97
줄리엣 드 마르시악	47
ㅊ	
차경민	172
찰리 채플린	110
최승연	105
ㅋ	
카이사 네스	161
ㅌ	
타케이시 히로야키	74
탁기영	186
토니 청	84
토마시 볼스키	120
ㅍ	
파벨 로진스키	126 - 129
파블로 두라나	77
파우 파우스	61
페트르 자루바	46
프나르 외렌지	96
프란시스젝 베르베카	124
프랑스와 자비에 드 뤼츠	72
프릴리페 카스트네르	180
피에르 휴그 달레어	165
피터 모티머	52
피터르 반 에크	53, 93
ㅎ	
한카 노비스	119
허성	184
허지윤	153
호세 빅토르 푸엔테스	64
홍다예	198
황주영	188

A	
Adam Krzeptowski	118
Adam Nawrot	116
Agnès Varda	111 - 113
Ahn Jee-hwan	104
Alastair Lee	66
Alessandro Beltrame	136
Alessandro D'Emilia	138
Alexander Abaturov	59
Antoine Girard	81
B	
Bartosz Stróżyński	125
Bekir Bülbül	108
Benoit Therriault	165
Bernhard Braunstein	56
Bruno Boz	134
C	
Cha Kyeong-min	172
Charles di Cicco	164
Charlie Chaplin	110
Ching-Shan Lin	168
Cho Han-na	148
Choi Seung-yeun	105
D	
Daniel Kötter	50
Darcy Wittenburg	78
David Arnaud	76
David McMeeking	73
David Pantaleón	64
Dom Bush	85
Domien Huyghe	160
Dominika Montean-Pańków	122
Dominique Chaumont	63
E	
Eleonora Mastropietro	54
Eliza Kubarska	80
Emelie Mahdavian	51
Eric Bendick	94
Eva Rust	162
Evgenia Arbugaeva	95
F	
Franciszek Berbeka	124
François-Xavier De Ruydts	72
G	
Gabriel Augerai	164
Gereon Wetzel	88
Gong Sae-rom	188

H	
Hanka Nobis	119
Heo Ji-yun	153
Heo Seong	184
Hong Da-ye	198
Hwang Ju-yeong	188
I	
Ivan Hughes	83
Ivan Mazzon	134
J	
Jan Šimánek	46
Jang Sun-hee	149
Jeon Seung-bae	175
Jeong Jin-yong	176
Jessica Bishopp	99, 169
Joanna Rój	65
João Gonzalez	97
John Porter	85
Jose Víctor Fuentes	64
Josh Berman	79
Josh Lowell	52
JR	113
Juha Suonpää	55
Juliette de Marcillac	47
Jung Bit-areum	211
Jung Ye-bin	209
K	
Kajsa Næss	161
Kang Mi-hee	189
Kang So-hee	187
Kim A-young	154
Kim Byul	199
Kim Do-yeon	203
Kim Dong-eun	205
Kim Ga-young	191
Kim Guk-hee	150
Kim Hye-mi	185
Kim Jae-hong	214
Kim Jang-hee	89
Kim Jin-hong	197
Kim Joo-im	166
Kim Joon	187
Kim Min-hee	202
Kim Nae-eun	192
Kim Nam-hyeon	212
Kim Won-woo	195
Kim Young-hyo	189
Ko Bong-su	144
Kwak Hyo-in	194

L			
Lara van Raay	181	Park Chan-ho	207
Lars Ostenfeld	92	Park Eun-sae	196
Laurie Pereira de Figueiredo	164	Park Hyun-woong	151
Lea Najjar	107	Park Jae-min	103
Lea Vucko	62	Park Min-a	206
Lee Byeong-hee	189	Park Min-kyung	189
Lee Jeong-hong	142	Park So-hee	204
Lee Jung-ho	89	Park So-yeon	190
Lee Sang-geun	106	Pau Faus	61
Lee Sang-in	215	Pawel Łoziński	126 - 129
Lee Sang-min	210	Peter Mortimer	52
Lee Se-hyung	155	Petr Záruba	46
Lee Seung-hyun	152	Philippe Kastner	180
Lena von Döhren	162	Pierre-Hugues Dallaire	165
Liliana Colombo	98	Pieter Van Eecke	53, 93
Lim Jung-hoon	193	Pinar Ögrenci	96
Lim Seok	189		
Lim Young-hee	147	R	
Luca Matassoni	137	Rane Tiukkanen	158
Luciano Toriello	135	Ricardo Íscar	75
Lucie Sunková	174	Romain Augier	164
M		S	
Marcin Koszałka	123	Samnam Middle School Environmental club	188
Marco Tonolli	137	Sarvnik Kaur	90
Mariam Chachia	91	Shin Dong-min	143
Marion Jamault	163	Sohn Koo-yong	145
Marjan Khosravi	178	Son Yoon-hee	213
Mark Pedri	170	Stanisław Berbeka	117
Mateusz Jarmulski	121	Surya Shashi	173
Maxim Arbugaev	95		
Melanie Liebheit	88	T	
Michelle Smith	67	Tak Ki-young	186
Mike Quigley	68	Takeishi Hiroaki	74
Mikel Gurrea	58	Tomasz Wolski	120
Milou Gevers	167	Tony Cheung	84
Min Dah-hong	188		
Mira Fornay	159	U	
Moon Hye-jung	189	Ursula Ulmi	177
N		V	
Nam Gyu-ri	200	Veronika Lišková	57
Nancy Svendsen	60		
Nick Rosen	52, 82	X	
Nik Voigt	91	Xinying Lao	179
O		Y	
O Muel	109	Yannick Jacquin	164
Oh Jae-hyung	147	Yeo Young-eun	146
Osman Cerfon	171	Yoon Ga-yeon	208
Oswald Rodrigo Pereira	69	Yun Do-yeong	201
P		Z	
Pablo Durana	77	Zachary Barr	52
		Zhang Hang-jun	102

https://www.instagram.com/AG_COFFEE/



AG COFFEE

발행인	Publisher
엄홍길	Um Hong-gil
책임편집	Chief Editor
이정진	Jinna Lee
편집 및 콘텐츠 관리	Editor & Contents Admin
송예린	Song Ye-rin
김현영	Kim Hyun-young
콘텐츠 및 교정	Contents & Proofreaders
박혜미	Park Hye-mi
유현주	You Hyun-ju
윤영신	Yoon Young-sin
이찬희	Lee Chan-hee
장다나	Jang Da-na
정다현	Jeong Da-hyeon
황태흠	Hwang Tae-heum
번역	Translation
박송이	Vivian Park
한승희	Han Song-hee
디자인	Designed by
디자인노리	DESIGN NORI
인쇄	Printed by
동인AP	AP Dongin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사단법인울주세계산악영화제)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44952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알프스온천5길 103-8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영상체험관 B1
 B1 Experience House, 103-8 Alpeuseuoncheon 5-gil, Ulju-gun, Ulsan, Korea 44952
 TEL. +82 52 248 6450 | FAX. +82 52 248 6455 | www.umff.kr

* 본 책자는 9월 18일자로 출판되었습니다. 이후의 변동사항은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This catalogue was printed off on September 18th, please check out the latest information or any change at official website.



친환경 에너지전환 선도기업
한국동서발전

2030년까지 탄소배출 **44.4%** 감축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1%** 추진

2050년 탄소배출 **Zero화** 추진



www.cityhands.com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LIGHT
MY FIRE**



umff.kr